

국립국어원 2011-01-22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344-01

2011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김무식

■ 연구 보조원 : 김인규

■ 조사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연구책임자 : 김 무 식

연구보조원 : 김 인 규

## 〈국문 초록〉

본 조사보고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역어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2011년도 경북지역어 조사보고서다. 본 조사보고서는 2004년도부터 시작된 지역어 조사사업 중 경북지역어의 다섯 번째 조사보고서다. 이 조사보고서의 지역어조사 지점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이며 주제보자는 김호관 님이며 보조제보자는 정원락 님이다. 본 보고서의 조사 기간은 2011년 7월 06일부터 2011년 7월 24일까지였으며 보완 및 확인조사는 2011년 12월 4일에 했다. 본 조사에 사용한 녹음기는 마란츠 PMD660이며 마이크로폰은 슈어 편마이크(SM11)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구술발화 자료, 어휘 자료, 음운 자료, 문법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술발화는 모두 4시간 분량의 자료만 전사하였으며 어휘, 문법 및 음운 자료는 모두 전사했으며 조사 시간은 33시간 57분이다. 이 지역어는 초분절요소로서 성조가 실현되므로 이를 구술발화에도 적용하여 전사를 하였다. 이 조사보고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자기 지역어의 언어적 특징과 자료를, 전문 연구자에게는 이 지역의 방언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주요어 : 의성지역어, 경북지역어, 구술발화, 국어 자료, 방언 자료

## 〈Abstract〉

This survey report is paper that is surveyed dialect of Gyeongbuk by Moosik Kim suppor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n 2011. The place of this survey is the province of Bonghwa, Gyeongbuk Dialect and main informant of this survey is Mr. Hogwan Kim, 81th y.o. and vice informant is Mrs. Eonrak Jeong. I surveyed this research from in July 06th till in July 24th, 2011 and finished in December 03rd, 2011. I directly interviewed with an informants and recorded sound data of informants by the PMD660 recorder that is manufactured by Marantz Inc and SM11 microphone that is manufactured by Shure Inc. The contents of this survey report is composed of oral statements data, vocabulary data, phonemic data, grammar data, and these data have 34hours. I transcribed all data of vocabulary data, phonemic data, grammar data but only transcribed 4hours of oral statements data.

Key word : dialect vocabulary of Bonghwa(의성지역어), dialect vocabulary of Gyeongbuk(경북지역어), oral statements data, Korean data, data of Korean dialect

2011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4
3. 전사 자료 .....	17
제 1 편 구술 발화 .....	19
제 2 편 어휘 .....	153
제 3 편 음운 .....	198
제 4 편 문법 .....	223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경상북도 지역어 조사는 아래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2004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에 걸쳐 경주시 보문동, 상주시 공성면, 청송군 진보면, 고령군 덕곡면, 청도군 각북면, 의성군 봉양면으로 조사를 했다.



<그림 1> 경상북도 지도



<그림 2> 봉화군 지도

또, 2010년에는 그 동안 조사했던 지점에 대한 중간점검의 성격으로 그 동안 조사된 자

료를 다시 검토하고 예비조사를 했던 자료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2011년의 현지조사는 마무리를 한다는 관점에서 경북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동북부에 해당하는 봉화군 봉화읍을 선택했다. 지리적으로 봉화군은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방언 내에서도 ‘영주시, 안동군, 영양군, 울진군’과 접경을 이루며 강원도지역과는 영월군 및 태백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봉화군은 동쪽으로는 울진군과, 서쪽으로는 영주시와, 남쪽으로는 안동시와 영양군과, 북쪽으로는 강원도 태백시 및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봉화군은 삼한시대에는 진한(辰韓)의 기저국에 속하였으며 삼국시대에는 현재의 봉성면 일대가 고구려의 내기군 고사마현에 속하였지만 신라 5대 파사왕(80 ~ 112)대에 신라 영토로 복속되었다. 8세기 중반 신라 경덕왕 때에 지명의 개명에 의해 내령군 옥마현으로 개칭되었으며 고려 8대 현종(1010 ~ 1031) 때에 봉성현으로 바뀌고, 조선 고종 32년(1895년)에 봉화현을 봉화군으로 바꿨다. 1907년 순종 1년에 군청 소재지를 봉성에서 춘양으로 옮겼지만 다시 1914년에 춘양에서 내성리로 옮겼으며 15개 면을 9개 면으로 재편성했다. 1979년에 봉화면을 현재의 봉화읍으로 승격시켰으며 이후 지금의 행정단위로 정착되었다.

봉화군은 산과 강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며 교통도 국도와 철도, 일반 지방도로가 발달되어 다른 곳과 소통이 원활한 곳이다. 동서로는 36번 국도가 가로질러서 동쪽으로는 울진과 서쪽으로는 영주와 연결되며 영주는 철도로도 연결되어 서로 내왕이 많은 편이다. 남북으로는 2개의 국도와 영동선 철도와 지방도가 발달되어 있다. 남쪽으로 안동과는 35번 국도와 915번 지방도로가, 영양과는 31번 국도와 918번 지방도로가, 북쪽으로는 영월과 88번 지방도로가, 태백으로는 31번 국도 및 영동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연지형으로 봉화군은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는 민산, 삼방산, 진화산, 문수봉, 무쇠봉, 구룡봉, 선달봉 등과 같이 1000m가 넘는 고산으로 이루어진 산악지형이며 군내에도 옥돌봉, 각화산, 비룡산, 옥돌봉, 청옥산, 청량산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지형이 많은 곳이다. 또 군을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내성천이 있으며 이는 그 길이가 110km에 이를 정도로 큰 낙동강의 지류이며 이는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즉, 선달산의 계곡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내려 봉화읍을 통과하여 영주의 평은면, 문수면 일대를 지나 예천 지보면을 거쳐 문경에서 금천과 합류되어 낙동강 본류에 연결된다.

봉화군은 산세가 수려하고 조선조 이래로 반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고장이며 현재 인구는 대략 사만여명이며 봉화읍과 ‘물야면, 춘양면, 석포면, 봉성면, 법전면, 소천면, 상운면, 명호면, 재산면’의 9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봉화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자연그대로의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산지가 많은 곳이며 이와 관련된 특산물도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봉화군 봉화읍은 1979년에 봉화면이 승격된 곳이며 동쪽으로는 봉성면과, 서쪽으로는 영주시와 남쪽으로는 안동시 및 상운면과, 북쪽으로는 물야면과 인접하고 있는 곳이다. 본 지역어 조사를 한 봉화읍의 교육권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고등학교의 진학은 가까이 있는 안동이나 영주, 대구시 멀리는 서울로까지 유학을 했던 곳이다. 시장은 읍내에 상설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일장도 있으므로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다. 또, 최근에는 교통의 발달로 비교적 가까운 곳인 영주지역이나 안동까지 이동하여 시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통혼권은 예전의 경우 반촌이나 민촌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봉화군 지역은 물론 영주, 안동, 예천, 청송, 영양권까지 광범위하게 통혼



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본 조사가 이루어졌던 봉화읍 해저리는 신라시대에는 바라미(波羅尾)라고 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마을이 강바닥보다 낮아 바다였다는 뜻에서 ‘바래미’가 유래되었고 이를 한자로 옮긴 것이 해저리(海底里)로 되었다는 설과 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내성천 근처에 물을 퍼는 도구인 ‘용두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어인 ‘파래’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다. 또 이 마을은 원래 ‘의령여씨(宜寧余氏)’들이 일부 살았지만 조선 후기 숙종 때 18세기 초반 팔오현(八吾軒) 김성구(金聲久) 선생이 옮겨와서 마을의 우물과 농토를 개척하고 정착한 후로는 의성김씨의 집성촌으로 성장한 마을이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다른 성씨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봉화읍과 마을 앞의 작은 평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반촌이며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마을 가운데는 후학양성을 위해 실학사상을 가르쳤던 학록서당(學麓書堂)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독립운동가 남호(南湖) 김뢰식(金賚植) 선생이 살던 남호구택(南湖舊宅)과 영규헌(映奎軒), 김씨 종택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3.1운동 직후 TLQATKS(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을 중심으로 독립청원서를 작성했던 만회고택(晩悔古宅)과 명월루(明月樓)를 비롯하여 마을 전체가 □자 모양의 전통적인 기와집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1992년에 경북도 지정 전통문화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 1.2. 조사 기간

### (1) 조사 기간

- 예비조사(2일)
  - 2011년 7월 6일 ~ 7월 7일
- 본조사(13일)
  - 2011년 7월 11일 ~ 8월 24일
- 보완 및 확인 조사 기간(1일)
  - 2011년 12월 4일

## 1.3. 제보자

### (1) 주제보자(제보자#)

- 이 름 : 김호관
- 성 별 : 남
- 나 이 : 만 81세(1930년생)
- 출생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 거주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 선대거주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 직 업 : 농업
- 경 력 : 없음.

- 학 력 : 중졸
- 병 역 : 시력이 약하여 병역 면제 되었으나 6.25때 군사역 경험 있음.
- 소개 과정 : 경로당 방문 및 직접 면접
- 특기 사항 :
  - 조사지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살고 있음.
- 언어 및 음성 특징 :
  - 학력은 중졸이며 충기가 있고 기억력이 아주 좋음.
  - 방언조사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며 질문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남.
  - 음성은 분명하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소 음량의 굴곡이 있음.
  - 젊었을 때 면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준 관계로 간혹 한자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2) 제보자1(#1 : 보조제보자)

- 이 름 : 정원락
- 성 별 : 여
- 나 이 : 만 76세(1935년생)
- 출생지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 거주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 선대거주지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 직 업 : 농업
- 경 력 : 없음.
- 학 력 : 초등학교 졸업
- 병 역 : 없음.
- 소개 과정 : 주제보자의 부인
- 특기 사항 :
  - 주제보자의 부인이며, 시집을 온 이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음.
  - 출생지는 봉화군 춘양면임.
- 언어 및 음성 특징 :
  - 성격이 비교적 침착하며 음성이 매우 분명함.
  - 구술발화 자료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 조사를 했음.
  - 어휘 자료 중에서 일부는 도움을 줌.

## 1.4. 조사 현황

(1) 조사자 : 김무식(경성대학교 교수)/ 김인규(경북대학교 조교)

(2) 조사 일시

- 예비조사일시 : 2011년 7월 6일 ~ 7월 7일
- 본조사일시 : 2011년 7월 11일 ~ 7월 24일
- 보완 및 확인 조사 일시 : 2011년 12월 4일

(3) 조사 장소 : 해저1리 경노당

(4) 조사 장비

- 녹음기 : 마란츠 PMD660
- 마이크로폰 : 슈어 편마이크(SM11)

(5) 조사 파일 관련 정보(총 34시간 17분)

1) 구술 발화(총 761분 : 약 12시간 41분)

파일 번호	내 용	시간(분)	조사 일시	비 고
SGBBH001	1.1.1.마을 들여다보기 ~10104	66분(#)	2011. 7. 11.	전사 대상 파일
SGBBH002	10105 ~ 1.2.2.결혼하기까지과정(10207)	67분(#)	2011. 7. 11.	전사 대상
SGBBH003	1.2.3.전통혼례식(10208 ~ 10210)	23분(#)	2011. 7. 11.	
SGBBH005	1.2.7.장례절차에 대한 이야기(10230 ~10233)	57분(#)	2011. 7. 12.	전사 대상 파일
SGBBH032	1.3. 생업활동(1.3.1. 논농사)	35분(#)	2011.7. 18.	
SGBBH035	구1.3.2. 밭농사(10307 ~ 10318)	57분(#)	2011. 7. 22.	전사 대상 파일
SGBBH036	1.3.3.가을걷이와 겨우살이(10319 ~ 10336)	55분(#)	2011. 7. 22.	
SGBBH037	10338~10341/1.6.1.갯집기(~10617)	60분(#)	2011. 7. 22.	
SGBBH038	1.7.1.각종질병과 민간요법 (10701~10801;3월)	58분(#)	2011. 7. 23.	
SGBBH039	1.8.1.세시풍속(10801:4월~10813)	55분(#)	2011. 7. 23.	
SGBBH040	1.2. 결혼과정(10202~ 10205:보조제보자) 1.4. 의생활(10401~10404:주제보자)	62분(##1)	2011. 7. 23.	주제보자/보조제 보자
SGBBH041	1.2.4.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10211 ~ 10216)	55분(#1)	2011. 7. 23.	보조제보자
SGBBH042	1.4.1.길쌈(10405 ~ 10427)	55분(#1)	2011. 7. 24.	보조제보자
SGBBH043	1.5.1.채소재배와 요리(10501 ~ 10523)	56분(#1)	2011. 7. 24.	보조제보자
합 계		761분		

※ # : 주제보자, #1 : 보조제보자를 나타냄.

2) 어휘(총 902분 : 15시간 2분)

파일 번호	내 용	시간(분)	조사 일시	비 고
SGBBH004	어휘1(2.1.농경(20101 ~ 20134))	55분(#)	2011. 7. 11.	
SGBBH006	어휘2(2.1.2. 타작(20201 ~ 20425))	63분(#)	2011. 7. 12.	
SGBBH007	어휘3(2.1.5. 채소(20501 ~ 20533))	25분(#)	2011. 7. 12.	
SGBBH008	어휘4(2.2. 음식(20601 ~ 20842))	60(#)	2011. 7. 12.	
SGBBH009	어휘5(2.3. 가옥(20901 ~ 20910))	10분(#)	2011. 7. 13.	
SGBBH010	어휘6(2.3. 가옥(20906 ~ 21235))	65분(#)	2011. 7. 13.	
SGBBH011	어휘7(21235 ~ 21265-3)	25분(#)	2011. 7. 13.	
SGBBH012	어휘8(2.4.의복(21301 ~ 21443) )	62분(#)	2011. 7. 14.	

SGBBH013	어휘9(2.5.민속(21501 ~ 21736))	72분(#)	2011. 7. 14.	
SGBBH014	어휘10(2.5.3. 생활용품(21738 ~ 21742))	20분(#)	2011. 7. 14.	
SGBBH015	어휘11(2.6. 인체(21801 ~ 22136))	74분(#)	2011. 7. 14.	
SGBBH016	어휘12(2.7. 육아(22201 ~ 22327))	55분(#)	2011. 7. 15.	
SGBBH017	어휘13(2.8.친족(22327-1 ~ 22379))	63분(#)	2011. 7. 15.	
SGBBH018	어휘14(2.9. 동물(22401 ~ 22637-0-1))	71분(#)	2011. 7. 15.	
SGBBH019	어휘15(2.9.4. 들짐승과 날짐승(22701 ~ 22934))	62분(#)	2011. 7. 15.	
SGBBH020	어휘16(2.10.3. 과일과 열매(23001 ~ 23118-0-2))	30분(#)	2011. 7. 16.	
SGBBH021	어휘17(23119 ~ 23441)	75분(#)	2011. 7. 16.	
SGBBH033	어휘18(20126 외 어휘)	10분(#)	2011. 7. 16.	
SGBBH034	어휘19(어휘 잉결 외)	5분(#1)	2011. 7. 16.	보조제보자
합 계		902분		

3) 음운(총 199분 : 3시간 19분)

파일 번호	내 용	시간(분)	조사 일시	비 고
SGBBH022	3.1.음운(31001 ~ 31008)	45분(#)	2011. 7. 16.	
SGBBH023	3.2.음운(32001 ~ 32064)	31분(#)	2011. 7. 17.	
SGBBH024	3.2.음운(32065 ~ 32162)	30분(#)	2011. 7. 17.	
SGBBH025	3.2.음운(32163 ~ 32283)	58분(#)	2011. 7. 17.	
SGBBH026	3.2.음운(32284 ~ 32362)	35분(#)	2011. 7. 17.	

4) 문법(총 175분 : 2시간 55분)

파일 번호	내 용	시간(분)	조사 일시	비 고
SGBBH027	문법1(4.1.대명사(40101 ~ 40220))	45분(#)	2011. 7. 18.	
SGBBH028	문법2(4.문법(40221 ~ 40404))	60분(#)	2011. 7. 18.	
SGBBH029	문법3(4.4. 연결어미(40405 ~ 40814))	30분(#)	2011. 7. 18.	
SGBBH030	문법4(40815 ~ 41018)	20분(#)	2011. 7. 18.	
SGBBH031	문법5(4.10. 부사(41019 ~ 41116))	20분(#)	2011. 7. 18.	

5) 보완조사 파일(20분)

파일 이름	내 용	시간 (분)	조사 일시	기 타
SGBCD044	어휘/음운/문법	20분(#)	2011. 12. 4.	

## 1.5. 전사

(1) 1차 전사(2011년 9월) : 총 150시간 30분

구술발화 : 김무식/김인규(107시간)

어 회 : 김인규(32시간 20분)

음 운 : 김인규(2시간 40분)

문 법 : 김인규(5시간 40분)

(2) 1차 점검(2011년 10월) : 총 133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

어 회 : 김무식

음 운 : 김무식

문 법 : 김무식

(3) 2차 점검(2011년 11월) : 총 130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

어 회 : 김무식

음 운 : 김무식

문 법 : 김무식

(4) 3차 점검(2011년 12월) : 총 125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

어 회 : 김무식

음 운 : 김무식

문 법 : 김무식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전체 조사한 내용에서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 )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ɛ)’, 그리고 ‘으(i)’와 ‘어(ə)’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 ‘게’와 ‘니’로 통일시켜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 ) 안에 그 사실을 표시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으로 고음(높은 소리)은 해당 음절 오른쪽 어깨에 '표시를 했다. 상승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뒷모음의 오른쪽 위에 '표시를 하며, 하강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앞 모음의 오른쪽 위에 '표시를 했다. 고장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두 모음의 각각의 해당 음절 오른쪽에 '표시했다.





2011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 1 편 구술 발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어르'신 이 마, 이 마으'레 대'해서 쯔' 이야기를 해 주십씨요. {어르신 이 마을, 이 마을에 대해서 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101 @ 이 마으'리 언제: 형'성이 데'어꼬, 어'떠케 형성이 데'에꼬, 그 다'음메 어, 주'로 어떤 성씨드리 사시'는지, 이 마을' 유'래에 대해서 함 번. {이 마을이 언제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 주로 어떤 성씨들이 사시는지, 이 마을 유래에 대해서 한 번.}

10101 # 삼'백 년 저'니이께네아 지'금부터 그'뎌면 녀'이룅, 이천'시빌 러'네 삼'백 녀'느얼 뻘'면 데'잔나. {삼백 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몇 년이나, 이천십일 년에서 삼백 년을 뻘면 되잖아.}

10101 # 한:, 은, 삼'백 년, 삼'백 년 전도, 이'팡은 한 삼'백 년 정'거 데'께'려, 동네'게 생'에, 예'헤, 여'어'께, 예'헛:, 그'르코 여' 동네' 사:는 사'람'드'룬 추, 주'로 인'제' 으:성' 강'가'드 리 여'게 인'제: 우, 와 가'주'고 이, 이'팡한' 제'가 삼'백 녀'이라 그'능 게'고요. {한, 어, 삼백 년, 삼백 년 정도, 입향은 한 삼백 년 정도 될거야, 동네가 생긴, 어, 여기가, 어, 그렇고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주, 주로 인제 의성 김가들이 여기에 이제 와, 와 가지고 입향, 입향한 지가 삼백 년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10101 @ 그'아'문 지'금 한 삼'백, 이'팡한' 지'가 한 삼'백 년 데'션'는데, 그'암'며'너 처:음 이 마으'레 인'제' 의'성' 김'씨 하'라'버'지'께서' 이'리'로 오'셔'쉴 께 아'님'미'까? {그러면 지금 한 삼백, 입향한 지가 한 삼백 년 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 이 마을에 인제 의성 김씨 할아버지께서 이리로 오셨을 것 아닙니까?}

10101 # 예. {예.}

10101 @ 이'팡'하'실 때, 어'어, 어'디'서 오'션'는지 혹'씨 아'심'미'까? {입향하실 때, 어, 어디에서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10101 # 크:게' 상:주'서 와'제'?' {그게 상주에서 왔지?}

10101 # 상:주', 상'주'서 그'어:, 상'주'서 그'르'익, 개'암' 할'배'미 여'어 처'뻘 두'오'시'쨌' 안'나. {상주, 상주에서 거기, 상주에서 그러니, 개암(+開巖:의성김씨의 20세손으로 이름은 우평이며, 상주시 경천대와 마주하고 있는 맷골 마을에 1590년년에 처음으로 입향한 인물이다. 이 사람은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고 부제학에 이르렀다.)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첫 번째로 들어오셨지 않나.}

10101 # 후'래', 그'엄'은 저'으'아, 저'게' 저' 어'르~이, 파'론' 할'배'뎌' 미'리 오'시'꾸'나. {후야, 그러면 저, 저기 저 어른이, 팔오현(+八吾軒: 이름은 성구(聲久)이며 1641년에 개암 선생의 현세손으로 태어나서 1707년에 운명했다. 자는 덕휴(德休)이며 호가 팔오현이며 벼슬은 부제학에 이르렀다. 자연부락 이름이 "바래미"인 이 마을을 개척한 인물이

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오셨구나.}

10101 # 어, 그'으또 아이고, 그'든 누'구로? {어,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냐?}

10101 @ 그'업, 그 어느' 하렐버이, 어느' 할'배라고예? {그, 그 어느 할아버지, 어느 할아버지라고요?}

10101 # 개암'. {개암.}

10101 @ 아, 개아암, 호를, 호를 익? {아, 개암, 예, 호를, 호를 이제?}

10101 # 개암' 할'뻘. {개암 할아버지.}

10101 @ 개 짜, 암 짜, 이르케? {개 자, 암 자, 이렇게?}

10101 # 예', 예, 예아. {예, 예, 예.}

10101 @ 암, 어, 개' 짜르 므승 개' 짜를 씨'쓔미거? {암, 어, 개 자는 무슨 개 자를 썼습니까?}

10101 # 거룽 개' 짜. {시내 계 자(+ 제보자가 잠시 착각하였고 조금 후에 고쳤음).}

10101 @ 아, 아, 예, 그렇, 거, 그렇 계 짜, 바'이 암 짜? {아, 아, 예, 시내, 시, 시내 계 자, 바위 암 자?}

10101 # 예. {예.}

10101 @ 바'우 암 짜? {바위 암 자?}

10101 # 예. {예.}

10101 # 개:암'. {개암.}

10101 @ 개암' 스생'님께서 인제: 이'리로 처음 이'팡하'선는지, 양 그아'든 더 위'때 오'선은 지는 정'화카'진 안'치마넌? {개암 선생님께서 인제 이리로 처음 입학하셨는지, 안 그러면 더 윗대에서 오셨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10101 # 예, 어역, 정'왕' 찬'체이으그. {예, 정확하지 않지요.}

10101 # 고 고 다'으메능 꼬:어 파'로언 할'뻘 안, 아임, 두 분' 중에 드'웅' 그넌, 아'매 미리 웅' 거는 개암' 할'배미 미리 웅' 거 거'튼'데, 그'결'러. {그, 그 다음에는 그, 어 팔오현 할아버지 아니면, 아니면, 두 분 중에 들어온 것은, 아마 미리 온 것은 계암 할아버지께서 미리 오신 것 같은데, 그것을.}

10101 @ 그'래서 이'팡:하'러, 이'팡하'신 어'르신게'스너 어'째든 개암' 하'라버'지시나 어'이거나 양 그'러'며넌 파'론 하'라버지 두'우' 뿐 중에 함 부'니시다, 그'제? {그래서 입학하러, 입학하신 어'르신께서는 어'쨌든 개암 할아버지이시거나 아니거나 안 그러면은 팔오현 할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지요?}

10101 # 예예. {예.}

10101 @ 파, 어'더'익 그'업 개암' 하'라브'지에 대해서 함'분' 마, 어'이, 아'시는 데'로 함'번' 이야기해 주'실 쑈 이'쓔미까? {팔, 어떻게 그 개암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 말, 어, 아시는 대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101 # 예', 인'지 개암' 스생'이'음 예, 선'조가 여'게. {예, 인제 개암 선생님께서 예, 선조가 여기에.}

10101 @ 열 개' 짜'에다가 어, 바'이 암' 짜'임\*? {열 개 자'에다가 어, 바'위 암' 자'입니까?}

10101 # 예:. {예.}

10101 # 아'이, 아이'래'여, 이' 양'바'안, 겨 마'자'이, 열: 개' 짜'래, 열: 개' 짜'이와 바'우 암' 짜'래. {아니, 아니예요, 이 양'반, 그래 맞'아요, 열 개 자'야, 열 개 자'에 바'위 암' 자'야.}

10101 # 열 개' 짜, 바'으 만' 짜고. {열 개 자, 바위 암 자고.}

10101 # 그'레 이' 양바니 여'게 인제. {그레 이 양반이 여'게 인제.}

10101 @ 예', 개암, 그아'므 개암 쓰앵'님께서 인제' 일'로 오, 이'팡을 하실'꺼나 양 그암' 파'론 쓰앵님 하싱 겹미까? {예, 개암, 그러면 개암 선생님께서 인제 이리로 오셔서, 입향을 하셨거나 안 그러면 팔오현 선생님께서 하신 겹니까?}

10101 # 예, 예, 예. {예, 예, 예.}

10101 # 이'팡:' 예, 응 선'조님 파'란' 선'조고요, 예:, 개암'공'은 그르 인제 예 이 끼 개암'공' 어 현소'니에, 이 양바니. {입향 선조는 예, 어 팔오현 선조고요, 예, 개암'공'은 그레 인제 이 그 개암'공'의 현손이야, 이 양반이.}

10101 # 파'루'오니. {팔오현이.}

10101 # 기, 예, 개암' 할'배'므유 현소'니 파'로'언 선'새'인데, 거'어서 여'어'젠 인'젠 이'팡 선'조로 데 인네, 여'가. {개, 어, 개암 할아버지의 현손이 팔오현 선생인데, 거기에서 여기가 인제 음 입향 선조로 되어 있네, 여기가.}

10101 # 이'팡 선'조로 데 이'꼬. {입향 선조로 되어 있고.}

10101 @ 파'로'언 스'애'임'께서 인제, 스'애'잉'께서 이'리로 입', 이'팡을 하'서 가'주고 지'웅 그 암'며'너 여'기에 어 입? {팔오현 선생님께서 인제 선생님께서 이리로 입향, 입향을 하셔서 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어 입향?}

10101 #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0101 # 그'르'이 파'로'오'느'니 인제 으'이 개아'므 현소'니고, 휘' 짜는 선' 짜, 구' 짜'라 구'누여, 이그 그 파'로'옴'뿐 아이'래 예, 예'뜨, 그, 저 휘'는 소'리 성' 짜, 고'리 구' 짜'라'꼬 데'에'스, 성:'구'라'꼬 데 이'씨'에, 곤. {그러니 팔오현이 인제 어 개암의 현손이고, 휘 자는 성(聲) 자, 구(久) 자라고 그러고, 이것 그 팔오현 뿐만 아니라 어, 어, 그, 저 휘는 소리 성 자, 오'렐 구'자'라고 되'어서, 성'구'라고 되어 있어'여, 고'것'은.}

10101 @ 소'리 성' 짜? {소리 성 자?}

10101 # 바'로'웅, 예, 파'로'. {팔오현, 예, 팔오현.}

10101 @ 소'리 성' 짜, 무'승 구' 짜'예? {소리 성 자, 무슨 구 자인가요?}

10101 # 웅, 오'리 구' 짜'용. {옛, 오'렐 구' 자요.}

10101 @ 아, 오'래 구' 짜? {아, 오'렐 구' 자?}

10101 # 으'야, 야, 오, 오리, 오리 구' 짜'요. {예, 예, 오'렐, 오'렐, 오'렐 구' 자요.}

10101 # 파'로'어'는 호:'고', 이, 여'느 인제' 예, 호, 휘' 짜는' 성' 짜, 구' 짜'시고, 그 호:'가' 파'러'오'이'구, 그'래'요. {팔오현은 호고, 이, 여기는 인제 예, 휘, 휘 자는 성 자, 구 자 이시고, 그 호가 팔오현이고, 그래요.}

10101 @ 지'금 그'럼'며'너 인제' 파'러'온 스'애'잉'께서 은'자 이' 마을', 이' 마을' 이'르'미 바'래'뎡'미'까, 해'즈? {지금 그러면은 인제 팔오현 선생님께서 인제 이 마을, 이 마을 이름이 "바래미"입니까, 해저리?}

10101 # 바'라'미, 예, 이 그 바'라'미. {"바라미", 예, 이 그 "바라미".}

10101 @ 바'에, 짐'며? {바라미 예, 지'명?}

10101 # 엔:'날' 치'명'으로는 속'칭 부'르'기'는 바'라'미'라 그:'고, 또 여'우 관'명'으로는, 관'청'에 서 부'릉 언 해:'저'리'라 그:'고. {옛날 지'명'으로는 속'칭 부'르'기'는 "바라미"라 그러고, 또 여기 관'명'으로는, 관'청'에서 부'르는 것'은 "해'저'리"라 그러고.}

10101 @ 해'저'리'예? {해'저'리'요?}

10101 # 바다 해' 짜, 저 저어 짜. {바다 해(海) 자, 밑 저(底) 자.}

10101 # 그'르이, 그'래 부르니더. {그러니, 그래 부릅니다.}

10101 @ 거:며 인제' 업 파'로언 스애'앵게서 은제' 여기 이'파을 하셔 가'지고:, 어, 한 삼'뱅 년쯔은, 야: 삼'뱅 년 저'네 이팡을 하셔 가'주곤, 의성 인제' 김'씨, 김문들리 인제' 집'썩춘임미까? {그러면 인제 팔오헌 선생님께서 인제 여기 입향을 하셔 가지고, 어, 한 삼백 년쯤, 약 삼백 년 전에 입향을 하셔 가지고, 의성 인제 김씨, 김씨문들이 인제 집성춘임니까?}

1010 # 그'러치 이팡하'셔찌.{그렇지, 입향하셨지.}

10101 # 메이, 집'성초니지, 그케요. {예, 집성춘이지, 그러게요.}

10101 @ 지궁 그럼'떠너 여'기에 그'거 사시눔 분'드너 의성: 김'씨들 웨에'는 다름 분'드러 업썩미까?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그것 사시는 분들은 의성 김씨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10101 # 웨:요, 이'썩용. {왜요, 있지요.}

10101 # 마:네'여, 인지, 저거 이 지 옰:나'레는. {맞아요, 인제, 저것 이 저 옛날에는.}

10101 # 지, 지'금릉, 그 당시'는 쏙'뽀 저:끼 사'런쥔, 지그'므롭 바서'는 우성' 강가'들보다 타'성애어 어웅, 으, 더 만타'끄 바에, 시'방은뇨. {지금, 지금은, 그 당시는 조금 적게 살았지, 지금으로 봐서는 의성 김가들보다 타성이 어, 으, 더 많다고 봐요, 시방은요.}

10101 # 우리' 강가'드른 모'도 대'구, 부'산, 서울' 마이 나가 사고, 근'데 현:제' 여인 썩이 집'뜨러 거 크, 큰' 집뜨른 강가'드리 즈 이에이 지'비라 할' 썰라등 나'미 사'는 지'비 더 마네, 시'방용. {우리 김가들은 모두 대구, 부산, 서울 많이 나가서 살고, 그런데 현재 여기 저 집들은 그 큰, 큰 집들은 김가들이 저 이 집이라 할 지라도 남이 사는 집이 더 많아요, 시방은요.}

10101 # 실'썰이 그'래 데 이'꼬요, 겨우 떠' 우우 구 지'비 비: 이씨'께 남: 주'고 사고. {실제로는 그래 돼 있고요, 그 뭐 어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남에게 주고 살고.}

10101 # 꼬'래 현:제'로 바서'는 여' 한 배 칸 이'시 포 어 저 이, 저'네 반'는데 요썩' 에음 백이시 포도 쏙'꼬며 이기 이 여리요. {그래 현재로 봐서는 여기 한 백 한 이십 호 어 저 이, 전에는 봤는데 요새는 어 백이십 호도 조금 이게 이 여려요.}

10101 # 배기시 포도 여'린 내'에서 우, 강으, 우릭 강가'들 사눔' 게 오시'비 안 데 께'래용. {백이십 호도 여기 내에서 우리, 김가, 우리 김가들 사는 게 오십이 안 될 거예요.}

10101 # 한 사십' 정도 보'고 저 사'암들 한은, 한 오:시 폰 게음 마'즈 께' 테이, 지'그므로 바 가'주언너. {한 사십 정도 보고 저 사람들 한, 한 오십 호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요.}

10101 # 사는' 호'수, 수짜'로 바 가'즈어넌. {사는 호수, 숫자로 봐 가지고는.}

10101 @ 꼬'임'떠는 지'금 어'썰튼 처음' 이프, 이: 마을' 시작뽕 그'너 아까' 파'로언 스애'앵게서 먼저 어여, 의성 어 김무'네서 인제' 파'로언 스애'앵게서 이 마으'를 개'처글 하'셔꼬, 그 다으'메 집'성초느로 쑹: 뉴지데다가' 이제 타성바'지들도 께 드와 가'지우 산다, 그지예? {그러면은 지금 어썰튼 처음 입향, 이 마을이 시작된 것은 아까 팔오헌 선생님께서 먼저 의성, 의성 어 김씨문에서 인제 팔오헌 선생님께서 이 마을을 개척을 하셨고, 그다음에 집성춘으로 쑹 유지되다가 이제 타성바지들도 꽤 들어와 가지고 산다, 그렇지요?}

10101 # 예. {예.}

- 10101 @ 꼬'르서 그'러몬 쩌'굼 한 타성:바'지드르 주'로 어떤 사'암들, 머, 그 머 드와가 이  
썸미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 타성바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뭐, 그 뭐 들어와  
서 있습니까?}
- 10101 # 각성'이든, 찌웅 각성'이래, 이에인 지'금 바서'너 농'사지은, 타'성들또 농'사진은  
사라'민 한' 메 단 데'곧, 주버' 인데' 머 장터'어 가'서 장사'도 하'고, 운전'도 하는 사'  
람들 먼 주로' 인제' 그'래에 사고 이'찌, 머에, 지'금 바서는. {각성이든, 지금 각성이  
야, 이 지금 봐서는 농사짓는, 타성들도 농사짓는 사람은 한 몇 안 되고, 주로 인제  
뭐 장터에 가서 장사도 하고, 운전도 하는 사람들 뭐 주로 인제 그래 살고 있지, 뭐  
요, 지금 봐서는.}
- 10101 @ 아:, 으'베서 가까'우니까 어, 웨지으 타성바'지드리 드와'서 마니 산:다', 그'지에?  
{아, 읍에서 가까우니까 어, 외지의 타성바지들이 들어와서 많이 산다, 그렇지요?}
- 10101 # 예, 예, 예. {예, 예, 예.}
- 10101 @ 그러'면 지'금 인저으 어르'싱 그'엄머너 이 한 해방 전'후나 이'때엔 쪼엄메넌, 해  
방 저'누나 유기오 전후 때는 여기 집'성처, 집, 완전 집'성초니여썸미까? {그러면 지  
금 인제 어르신 그러면은 이 한 해방 전후나 이때쯤에는, 해방 전후나 육이오 전후  
때는 여기 집성촌, 집성, 완전 집성촌이었습까?}
- 10101 # 글'때능 꼬어, 거'이가 뻔 칩', 메 찻' 써께' 사'라찌히. {그때는 거기, 거의가 몇  
집, 몇 집 섞여 살았지.}
- 10101 # 타'성드리 사'러도 주루 강가'드리 마이 사'러쎄요. {타성들이 살아도 주로 김가들  
이 많이 살았지요.}
- 10101 # 유기'오 사:변 전후 해 가'지오넌. {육이오 사변 전후를 해 가지고는.}
- 10101 @ 그럼'머너 어'째튼 지금:머 타성바'지드리 제'범 마니: 사는' 그런 마으'리다, 그'  
지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타성바지들이 제법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다, 그렇  
지요?}
- 10101 # 그러쳐, 마자, 마이 사능, 마이 살제, 그으거. {그렇지요, 맞아요, 많이 사는, 많이  
살지, 그것.}
- 10101 @ 어'째뜨 그래'도 머 어'째튼 요즘' 다른' 마으'레 비해'스너 어 의성 김'씨드리 마니  
' 모이'서 사는 집'성초니라 할' 순 인슬 정도로 마니' 사'시능 그 까'썸미다? {어쨌든  
그래도 뭐 어쨌든 요즘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어 의성 김씨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집  
성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 10101 # 그'르체요, 응, 그'르체, 음, 머 타'동네 대'몬 마:이 사제. {그렇지요, 응, 그렇지,  
음, 뭐 타동네 대면 많이 살지.}
- 10102 @ 어르'싱 그럼'머넌 이 마을' 이'르메 대해서' 함분: 머 아시'는 대'로 혹시 함분' 이  
야기해 주'실 쑈 이쓰므 이야기해 주'십씨오. {어르신 그러면은 이 마을 이름에 대해  
서 한 번 뭐 아시는 대로 혹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10102 @ 웨: 받, 웨 바'라미가 데'엔지, 또'넙 머 해저'가 데'엔지, 그거 함번' 이야기해 주'  
실 수 이쓰미 함분, 아시는 대로 함번? {왜 바라미, 왜 "바라미"가 되었는지, 또는  
뭐 해저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아시는 대로  
한 번?}
- 10102 # 그게' 설명하'기가안 난'호 어리푼'시 드'룽 게 떼 가'주 마'리야 꺾 에'롭뜨라꼬.  
{그게 설명하기가 나는 어렵듯이 들은 것이 돼 가지고 말이야, 꺾 어렵더라고.}

10102 # 엔나'레 여'어가 머 바'라미라 그능 게' 마리제야, 그으 은네 게 효, 확셀 차'네도, 엔나'레 어'데 여'그 밋 음 파'라'라 그러 가'주고 머 파'라 미'치 머 뽕어, 어 바'라미라 그'르파 소'리도 나안데, 므 파'라'라 그'능 걸 어'텔 가'주오 파'라'라 그'능 거. {옛날에 여기가 뭐 "바라미"라 그러는 게 말이지요, 그 어 그 확, 확실하지 않아도, 옛날에 어디 여기 뭐 음 용두레(+ 물을 퍼는 용두레가 이 지역어에서는 "파라"라고 일컬음.)라 그래 가지고 뭐 용두레 밑이 뭐 어, 어 "바라미"라 그랬다는 소리도 나왔는데, 뭐 용두레라 그러는 것을 어디를 가지고 용두레라 그런 것인지.}

10102 # 아, 파'래' 미'치는, 파'래' 미'츠넌 바'다 미'치이께네 바'라미라 그'러꼬, 그'래 지'인느 꺼 테요. {아, 파도 밑은, 파도 밑은 바다 밑이니까 "바라미라" 그랬고, 그래 지었는 것 같아요.}

10102 @ 꼬 바, 바다 해' 짜 해'서, 머 바'다 해' 짜 하고 저 업, 미 짜 짜 써 가주 \*\* \*\*\*? {그 바다, 바다 해 자 해서, 뭐 바다 해 자 하고 저 어, 밑 저 자 써 가지고 \*\* \*\*\*?}

10102 # 미 짜 짜, 예, 해저'다:, 그래여. {밑 저 자, 예, 해저리다, 그래요.}

10102 @ 파'다'그 밋미'까? {"파다(용두레)"가 무엇입니까?}

10102 # 저 무'털 이'래 대에 노'코옴 무리' 이비, 이쓰'먼 여'게 무'로 우'로 퍼 올'리능 게 래. {저 물을 이'래 대 놓고 물이 있, 있으면 여기에 물을 위로 퍼 올리는 거야.}

10102 # 이'그래 퍼 올'리 가'주아이그 그'걸. {이'래 퍼 올려 가지고 그것들.}

10102 @ 보, 퍼 올'레 물 푸'어능 기'구? {보, 퍼 올려 물 퍼는 기'구?}

10102 # 므, 엉, 그 마'자, 그으래여. {뭐, 어, 그 맞아, 그거예요.}

10102 # 물' 퍼'능 기'구 마'자, 빠아, 파'라야 그'애능 게. {물 퍼는 기'구 맞아, 용두레, 용두레라 그러는 게.}

10102 @ 그'업머 그'게' 그'업 몸'미, 물 푸'능 기'구: 그'읍 파'닥', 그'어'는 마'언등 게 오래'웨'에 씌'미'까? {그러면 그'게 그 뭇'니까, 물 퍼는 기'구 그 용두레, 그것은 만든 게 오래'됐습니까?}

10102 @ 어. 이 예'저 이 이 그'래 매'업? {어. 이 예'전 이, 이 그'렇게 만든?}

10102 # 오래'테'짜, 거'게'업. {오래'됐지, 그것'이.}

10101 # 아:, 여'게 그'게' 나'온'다, 여 파'로운 하, 아:, 파'로운 할'배'미 여'게 마'리'지, 이'광한'지가 언'제'냐 하'게 데'면, 예, 이:, 경'진'년, 천'칠'백 녀'네 여'게 동'리'임 이'광'을 하'시'꾸'만, 녀'게. {아, 여기에 그'게 나'온'다, 여기 팔'오'현 할'아버'지, 아, 팔'오'현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말'이지, 입'향'한 지'가 언'제'냐 하'게 되'면, 예, 이, 경'진'년, 천'칠'백 년'에 여'기에 동'리'에 입'향'을 하'셨'구'만, 여'기에.}

10101 # 천'칠'백 씨'이. {천'칠'백'이라'고 씨' 있'으니.}

10102 @ 꼬'어'며 짜'어'기 이 동'리'에:' 혹'시 머 주'위'에 드'리 널'븐'데, 어, 들: 말'고' 이 산'도, 야'트'마'칸 산'드'리 쪼'옴 인'느'데, 혹'시 산 이'름'메 대'해'서 사, 알'고 계'신 산 이'름'메 대'에서 함'분 이'야'기 쫓' 함 해 주'이'소? {그러면 저'기 이 동'리'에 혹'시 뭐 주'위'에 들'이 넓'은'데, 어, 들 말'고 이 산'도, 야'트'막'한 산'들'이 조'금 있'는데, 혹'시 산 이'름'에 대'해'서 산, 알'고 계'신 산 이'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쫓' 한 번 해 주'십'시오?}

10102 # 여' 우'리' 바'래'므 저: 저' 보'인'느 저 사'니 바'로 학'정'봉'이'러 그'래'임'비'딩. {여'기 우'리 "바'래'미" 저'기 저 보'이는 저 산'이 바'로 학'정'봉'이'라 그'럽'니다.}

10102 # 저 학'정'봉'을 웨' 학'정'봉'이'라 그'인'머'이 저 사'를 보' 꺼 트'옴'마 하'기 나'라'가'느 형'상'이'래'야. {저 학'정'봉'을 왜 학'정'봉'이'라 그'러'냐 하'면 저 산'을 볼 것 같'으면 학'이 날



아가는 형상이에요.}

10102 # 아:, 사'니 저언 이이 저'게 보'마 하기' 나'라간는 사'니라 그래 가주고 여이 이 동:네'그에에에엠 아'페 사'늘 학'정보이라꼬 그'래 음, 불'러꼬. {아, 산이 저 이 저기 보면 학이 날아가는 산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 이 동네 앞에 산을 학정봉이라고 그래 음, 불렀고.}

10102 # 또' 저어짜'게 저'게 보음 쩌 시:내' 아'페 저짜'아 또 둥그'러여 추, 저건'누 호:골' 사니라 그으러, 호골'산. {또 저쪽에 저기 보면 저 시내 앞에 저쪽에 또 둥그런 저, 저것은 호골산이라 그래, 호골산.}

10102 # 꼬르 호골'사니라 그'능 거'는 뜨'선 모'르게쎄. {그래 호골산이라 그런 것은 뜻은 모르겠어.}

10102 # 옴:나'레 저 범두'리가 머, 호:평'이라 그'른데, 범 호' 짜가 드'르 가주 즈, 저질' 호 구사'나라꼬 지'이따 소'리도 이'꼬, 므 그커, 그'른 소'리도 나온'데, 그'게 화실'치는 아'네어우우. {옛날에 저 범들이 뭐, "호평"이라 그러는데, 범 호 자가 들어 가지고 저, 저것을 호골산이라고 지었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 그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10102 # 으, 이 그, 그'르코, 응, 으 그, 그게배'께 머 사'네 대항 건는 응, 거 벨'룸 멍. {어, 이 그, 그렇고, 응, 어 그, 그것밖에 뭐 산에 대한 것은 응, 그 별로 뭐.}

10102 @ 산, 사'눔 머 한두 가지, 두 개바께 업썸미까, 이 근처에는? {산, 산은 뭐 한두 가지, 두 개밖에 없습니까, 이 근처에는?}

10102 # 예헤, 예, 예. {예, 예, 예.}

10102 # 감'태보이~라 그능 거'또 예, 저 감'태봉은 멍, 응 멍: 학'정보 산줄'기이께네, 꼬 언. {감태봉이라 그러는 것도 예, 저 감태봉은 역시, 응 역시 학정봉 산줄기니까, 거 기는.}

10102 @ 그'어느 머 감'태봉어 웨: 감'태봉임미까? {거기는 뭐 감태봉은 왜 감태봉임 니까?}

10102 # 그'기 옴나'레 그으 으, 꼬, 그 사'네 대해 가'지으우 일 저 유래'가 그미은, 저' 양 밤 말뜨'나 그 인제' 그으 감'투릴 마이 해:따', 그'래 가주 감'투보'이라 큰다'꼬도 어, 아, 보'눔 모'애이세이, 그레이, 예. {그게 옛날에 그 어, 그, 그 산에 대해 가지고 이 저 유래라 그러면, 저 양반 말마따나 그 인제 그 감투를 많이 했다, 그래 가지고 감 태봉이라 그런다고도 어, 아, 보는 모양일세, 그래, 예.}

10102 @ 거염 하, 어, 저: 학'짱봉이 이'꼬, 호골:사니 이'꼬? {그러면 학, 어, 저 학정봉이 있고, 호골산이 있고?}

10102 # 사니 이'꼬. {산이 있고.}

10102 @ 그다이미 감'투봉 이'꼬? {그 다음에 감태봉 있고?}

10102 # 고다임미 머 영, 이 감'투봉이고. {그 다음에 뭐 어, 이 감태봉이고.}

10102 @ 예, 음, 머 다름 머 사'으'넉 크게, 사'니 그르'케 여'기너? {어, 음, 뭐 다른 뭐 산 은 크게, 산이 그렇게 여기는?}

10102 # 업:찌, 머'여. {없지, 뭐요.}

10102 @ 으, 드리' 널'브서 잘 업'쩐? {어, 들이 넓어서 잘 없지요?}

10102 # 어이, 어이,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0102 @ 혹'시 골짜'기, 골짜'기에 대해서 머 아:심'면, 머 여 이' 동네 골짜기 이'르메 대'

해서 인는 대'로 함 이야기해' 주'십쇼. {혹시 골짜기, 골짜기에 대해서 뭐 아시면, 뭐  
여기 이 동네 골짜기 이름에 대해서 있는 대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0102 # 요' 다: 꼬'오롱 바로 드칸'느 산수'꼬르어 그'으고, 은, 저'짜아 드'가능 건능 건 머  
웅어, 신'시꼬르에 글:고, 저: 우'에 가서'느 모'꼬리라 그'으공, 옥, 그'래 부'른데, 글  
뜨슨' 모'르게썩언. {요기 뒷 골에 바로 들어간 곳은 산수골이라고 그러고, 어, 저쪽으  
로 들어간 것은 뭐 어, 신시골이라고 그러고, 저 위에 가서는 못골이라 그러고, 어,  
그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모르겠어.}

10102 # 음, 먼: 떠'므 그'런지. {음, 뭐 때문에 그러는지.}

10102 @ 사, 산'시꼬리여? {산, 산수골이요?}

10102 # 어, 산'수꼬염. {어, 산수골.}

10102 # 산'수꼬리르, 산'수꼬염. {산수골이야, 산수골.}

10102 @ 웨'으 산'수꼬른 머: 웨' 그'런지름 모르'은다, 그'지예? {왜 산수골은 뭐 왜 그런  
지는 모른다, 그렇지요?}

10102 # 모'르제, 그'케용. {모르지, 그러게요.}

10102 @ 그다'으미 산'수꼬 리'꼬, 그다'엠 모'폴 리'꼬? {그 다음에 산수골이 있고, 그 다음  
에 못골이 있고?}

10102 # 모'꼬 리'꼥. {못골 있고.}

10102 @ 모'꼥도 뜨'슨 잘' 모름'미'까? {못골도 뜻은 잘 모릅니까?}

10102 @ 웨: 모'꼬린지? {왜 못골인지?}

10102 # 그'르제, 아, 으예, 그에 지'금도 모'선 이'이썩썩, 거'게가, 모'꼬, 저 모'꼬레아. {그  
렇지, 아, 어, 그 지금도 못은 있어, 거기에, 못, 저 못골에.}

10102 # 요래' 썩 그 머 물: 땀'라꼬, 노'네 물: 때앤 내애 머, 어어, 즈 인저 썩썩머 인제  
그이 이썩썩제. {요래 저 그 뭐 물 대려고, 논에 물을 대 내는 뭐, 어, 저 인제 조그  
만 인제 그제 있었겠지.}

10102 # 또 여'게는 디 그'르코. {또 여기는 저 그렇고.}

10102 # 여 산'수꼬른 근: 문 자시 모'르게썩, 그 사'네서 무'리 난다'구 산'수꼬라 그르 썩'  
나구 나'는 생가잔데, 글 뜨슨 확'썩리 모'르게썩예. {여기 산수골은 그것은 뭐 자세히  
모르겠어, 그 산에서 물이 나온다고 산수골이라 그랬지 않나 하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뜻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10102 @ 그다'엠 모, 모'꼥레눔 모'시 예저'넌 이'스꺼, 지'음도 조그만항' 게 이'꼬, 그다'음  
메 여썩'어 산'수꼬리고, 그담 저썩'게 신'시꼥 그래쓰미? {그 다음 못, 못골에는 못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조그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산수골이고, 그 다음 저  
쪽에 신시골 그랬습니까?}

10102 # 어, 신'시꼥, 썩에이, 시내그, 신'시꼥. {어, 신시골, 신, 신, 신시골.}

10102 # 그거'는 자시 모'르게썩, 금 무 웨' 신'시꼬려 그'은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어,  
그 뭐 왜 신시골이라 그랬는지.}

10102 # 자시 모'르게썩여, 그 뜨'선 모'르게따꼬.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뜻은 모르겠다고.}

10102 # 여'게는 그'름 표시'기 이썩'이께네 이으 저'으도 무'리 나'이게 산'수꼬리고, 저'짜'  
아눔 모'시 이께는 모'꼬래 그르'따'욱 보'는데, 현재'도 그'언 이썩'이께네. {여기는 그  
런 표식이 있으니까 이 저기에도 물이 나니까 산수골이고, 저쪽에는 못이 있으니까  
못골이라 그랬다고 보는데, 현재도 그것은 있으니까.}

10102 @ 그'룽꺼 어'쨌든 짐부 골짜'기너 주로 그런: 머 디 꼬'홀, 아, 모'꼴, 산'수꼴?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골짜기는 주로 그런 뭐 뒷 골, 아, 못골, 산수골?}

10102 # 산'수꼴, 시'내시꼴. {산수꼴, 신시꼴.}

10102 @ 신'시꼴? {신시꼴?}

10102 # 평꼴, 예. {신시꼴, 예.}

10102 @ 이을 세:: 개가 이'꼬, 머 또 다룽 골짜'기는 잘 업썸미까?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뭐 또 다른 골짜기는 잘 없습니까?}

10102 # 업썸', 다룽 골짜'기 그 머 어'데 다:는 몰'씨더, 그. {없어, 다른 골짜기 그 뭐 어디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

10102 @ 사'니 그르'케 만치'가 아'너서?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0102 # 예아. {예.}

10102 @ 그러'며 혹'씨 여기 들, 어, 강:은, 강에으, 강은 여기 쫘 이썸미까? {그러면 혹시 여기 들, 어, 강은, 강, 강은 여기 쫘 있습니까?}

10102 # 강:에'이 아'이래 여 내성'천, 거랑'이지, 머예. {강이 아니라 여기 내성천, 개울이지, 뭐요.}

10102 # 내:성'처네서 나오'능 거이기, 이게' 홀'러 가주고 저 예천' 아'프로 저리 간데, 이게' 내성'처니러, 강:이'라 그'진 난, 아 내, 여 내성천 또라'이라 그'르지. {내성천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홀러 가지고 저 예천 앞으로 저리 가는데, 이게 내성천이라, 강이라 그러지는 안, 안 해, 여기 내성천 도랑이라 그러지.}

10102 @ 그'어므 여'기 지옴 봉화 읍내' 아'프로 흐르'능 큰 이게? {그러면 여기 지금 봉화 읍내 앞으로 흐르는 큰 이게?}

10102 # 내성'처니지요. {내성천이지요.}

10102 @ 내성'처니고, 그다'으메 혹'씨 이 어, 내성'처'느로 홀'러 드르'가는 조옴만한' 그랑'이나 이'렁 건 업썸미까? {내성천이고, 그다음에 혹시 이 어, 내성천으로 홀러 들어가는 조그만한 개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10102 # 여'어서 나'어능 게 저 정'꼴'씨 나'오능 게 쪼매'항' 게 이, 이, 이 아'프르도 내'리가 능 게 쪼매'냥' 건 이'씨도우, 그건'느 이'르미 업'짜'네, 그'건능.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저 "정'꼴"에서 나오는 게 조그마한 게 이, 이, 이 앞으로도 내려가는 게 조그마한 것은 있어도, 그것은 이름이 없잖아, 그것은.}

10102 # 그'르지, 기'냥 거라'이라 그'르지, 머요. {그렇지, 그냥 개울이라 그러지, 뭐요.}

10102 # 매'병'처'니러 글'기드 하'구, 머으 그'른데, 예, 응'응으, 연', 우리 동:네' 어이, 그, 거압 또라'이라 그'기도 하고, 그래 응'에, 근. {매'봉'천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예, 어, 여기는, 우리 동네 어, 그, 그 앞 도랑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 어, 그.}

10102 @ 아, 절'루 아'프로 가니까 압 또'랑이라구 \*\*, 그'지예? {아, 저리로 앞으로 가니까 앞 도랑이라고 \*\*, 그렇지요?}

10102 # 예, 예, 이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0102 @ 압', 아'페 스네 압 또'랑을 마니? {압, 앞에 있으니 앞 도랑을 많이?}

10102 # 예, 예, 예. {예, 예, 예.}

10102 @ 그 어디', 그으'그'너 어디'서 홀'러나온다고예? {그 어디, 그것은 어디에서 홀러나온다고요?}

10102 # 매'봉'사'네서 나와, 매'봉. {매'봉'산에서 나와, 매'봉'산.}

10102 # 매봉사'네서. {매봉산에서.}

10102 @ 매봉'사는 아업, 어디 댘? {매봉산은 어, 어디 댘니까?}

10102 # 무량. {물야면.}

10102 # 아이'래이, 여' 땡 봉화군 무'라며니. {아니야, 여기 역시 봉화군 물야면.}

10102 # 며니' 다르'당게, 쫓'끄몽 고 등'을 너머가'든 무랴'며니데, 거'계서 수우'니 내'리온다 그래 가주우 인제 그 매뽕'처네서 나온다 그렁에. {면이 다른데, 조그마한 그 산등을 넘어가면 물야면인데, 거기에서 수원이 내려온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매봉천에서 나온다 그러는 거야.}

10102 @ 끄얌 매뽕'처니고, 끄다'음메 아, 쫓음 저'네 어르싱계서 이야기하'시기로너 정'꼬래서 흘'러나온다 핸더이, 정'고른 어땀미까? {그러면 매봉천이고, 그다음에 어, 조금 전에 어르신계서 이야기하시기로는 "정골"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정골"은 어뎡니까?}

10102 # 정:꼬'르아 그'능 그느 인제' 매봉'산 바로 여'핀데, 그 동:네' 옰나'레 거 이딩 머, 에 거, 거에, 즈, 쫓겐, 쫓인, 저'룽 걸 머 그'락또 땀드'고 마옰 프'얼 꾸'움몸 매이라. {"정골"이라 그러는 것은 인제 매봉산 바로 옆인데, 그 동네에서 옛날에 그 이 뭐, 어 그, 그, 저, 저, 저, 저런 것을 뭐 그릇도 만들고 말이야 무엇을 구웠는 모양이야.}

10102 # 끄으 정꼬'리러 그'른 므네. {그래서 "정골"이라 그런 모양이야.}

10102 # 웅:기'도 꾸'우꼬 머 이'룽 걸 꾸'우 가'주 인제 그 동네'얼 정:꼴' 동'네라 그'르따꼬 얘기하'고. {웅기도 굵고 뭐 이런 것을 구워 가지고 인제 그 동네를 "정골" 동네라 그랬다고 말하고.}

10102 # 그 인제' 월'리는 인제 예으 그'어서 매뽕'천하꼬 그 동네학 함뽕' 내'려오능 무'리래. {그 인제 원리는 인제 어 그 매봉천하고 그 동네하고 한목에 내려오는 물이야.}

10102 @ 아, 그야'므 그 정:꼬'리라능 고'시 예어, 거기 어디 동:네 이'르미다, 그'지야? {아, 그러면 그 "정골"이라는 곳이 어, 거기 어디 동네 이름이다, 그렇지요?}

10102 # 예, 동:네 이'르미래옴. {예, 동네 이름이에요.}

10102 # 동네' 이'르미래여. {동네 이름이에요.}

10102 # 그 해:저삼'니라 그'으기도 하'고 그래임, 머예. {그 해저삼리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뭐요.}

10102 @ 아, 해저삼:니'고? {아, 해저삼리고?}

10102 # 예아. {예.}

10102 @ 해'저이:리도 그'람 이쑤미'까? {해저이리도 그러면 있습니까?}

10102 # 이:리'인 여언, 어으, 소'라 나베 기, 역쩡 아'페. {이리는 여기, 어, "술안" 앞에 그, 역 앞에.}

10102 # 여 가'폐가 거 그, 퍼게 인제 해저이:리'고, 여'어가 일리'고 그래로. {역 앞에 거기 그, 그게 인제 해저이리고, 여기가 일리고 그래로.}

10102 @ 그'업, 검 해저:, 지'움 해저이여, 거 혀예, 행정뽕'으로너, 행정 이'르므로 \*\*\*? {그, 그러면 해저, 지금 해저, 그 행, 행정뽕으로는, 행정 이름으로는 \*\*\*?}

10102 # 해저일, 리, 삼니야이. {해저일리, 해저이리, 해저삼리에요.}

10102 # 해저일', 리, 삼:니'래여. {해저일리, 해저이리, 해저삼리에요.}

10102 @ 이 쫓 요우게 그야'므 해저일:리'님 바라'미고? {이 저 요기 그러면 해저일리는 "바라미"고?}

10102 # 바'라미공. {"바라미"고.}

10102 @ 그더'음메 해저이:리'는 머:러라고 부름? {그 다음에 해저이리는 뭐라고 부릅  
니까?}

10102 # 소'라니라 그'애찌, 소르. {"술안"이라 그랬지, "술안".}

10102 @ 소라? {"술안"?}

10102 # 예, 역'쩐 아'페 소'란. {예, 역 앞에 "술안".}

10102 @ 소'라는 웨 소'란닌지? {"술안"은 왜 "술안"인지?}

10102 # 이 술똥저'니 이'따 그래 가'주우 소'라니라 그'르따 그래드라고예. {이 소나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술안"이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10102 @ 무스, 무스은네? {무슨, 무슨요?}

10102 # 소'리', 소낭'기 시'머노웅 게 마리장겨, 아'빠, 드: 라'빠 거, 요새' 거이 여'기 생'기  
뿌레 가주우 그르채이 그어 소'리 서 이'써썬요. {술이, 소나무 심어놓은 게 말이야,  
앞에, 들 앞에 거기, 요새 거기에 역이 생겨 버려 가지고 그렇지 거기에 소나무가 서  
있었어요.}

10102 # 그'래 소'라니러 그'르따 그래이떠더. {그래서 "술안"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10102 @ 그아'든 술:, 그 소나무'를 시르 나알, 소나무'거 시르며 나오니가 소나무 안'쪼기  
라 해서 소'란닝고? {그러면 술, 그 소나무를 심어 놓은, 소나무를 심어 놓았으니까  
소나무 안쪽이라 해서 "술안"이고?}

10102 # 으예, 소'란, 예, 소'란 동'네러 그으꼬이. {예, "술안", 예, "술안" 동네라고 그  
리고.}

10102 @ 소'란 동네'라 하'고? {"술안" 동네라 하고?}

10102 # 어, 예. {어, 예.}

10102 @ 그다'음 해저삼:니'는 아까' 이야기헐'따시피 고? {그 다음 해저삼리는 아까 이야  
기했다시피 그?}

10102 # 예, 정:꼬'리이 그아지. {예, "정골"이라 그러지.}

10102 @ 정:꼬'리고? {"정골"이고?}

10102 # 예, 이 쩡에, 지, 정꼬리고. {예, 이 정, 저, "정골"이고.}

10102 @ 꼬암 찌움 해, 행정명'으로너 어, 일'따는 해저일'리 바라'미고, 해저이리가 소'라  
미고, 그다'음 해저삼니가? {그러면 지금 행, 행정명으로는 어, 일단은 해저일리가 "  
바라미"고, 해저이리가 "술안"이고, 그 다음 해저삼리가?}

10102 # 으, 정꼬'리고. {어, "정골"이고.}

10102 @ 처, 정꼬'리우, 그'르타, 그'지예? {정, "정골"이고, 그렇다, 그렇지요?}

10102 # 예, 예. {예, 예.}

10102 @ 그러'며너 인제 그: 어'르신 여'기에 혹씨 그거, 저수'지 가통 거느 쫘 이썬미까?  
{그러면은 인제 그 어르신 여기에 혹시 그것, 저수지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10102 # 이이, 여'게는 저수지가 업:니더, \*\*\*. {이, 여기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

10102 # 아:, 그'어 쫘' 이, 이'서따. {아, 거기 쫘 이, 있었다.}

10102 # 그 요샌' 업:써저 뿌레쓰이께네 그을제. {그 요새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

10102 # 향' 개도 업쥬 뽕쥬유. {한 개도 (+남김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10102 # 다: 그'어 바'치 데' 뿌구, 노:니' 데' 뿌구. {다 거기가 밭이 돼 버리고, 논이 돼 버  
리고.}

10102 @ 네, 예저'네 어으, 저수지 이'선능 그? {예, 예전에 어, 저수지가 있었던 그?}

10102 # 예, 야이. {예, 예.}

10102 @ 함 저즈 어떻? {하면 저수지가 어떤?}

10102 # 네, 예, 쪼맨해'써, 저이 참. {예, 예, 조그마했어, 저기 참.}

10102 @ 아, 이름, 예? {아, 이름, 예?}

10102 # 이'르미 그: 머'라 그'르짜? {이름이 그 뭐라 그랬지?}

10102 # 모'시라 그르쎌? {못이라 그랬지?}

10102 # 아'헨등모'시라 그'르짜나, 그 옌나'레. {"아현댁"이라 그랬잖아, 그 옛날에.}

10102 # 아'현띠기라꼬, 태코'털 떠 가주고, 그 저수'지 땅'기 이 그 집' 땅'이래 가'주곰 아'현뚝모시라 그르따꼬, 떼겨, 거어가. {"아현댁"이라고, 택호를 따 가지고, 그 저수지 땅이 이 그 집 땅이여 가지고 "아현댁"이라 그랬다고, 거기, 거기.}

10102 # 모 짜'리러. {못 자리를.}

10102 @ 아현뚝끼랑웅 거 분 태'코너 무슨', 어디? {"아현댁"이라는 그 분 택호는 무슨, 어디?}

10102 # 태'코가 아'현띠이래. {택호가 "아현댁"이야.}

10102 @ 아'현띠기? {"아현댁"?}

10102 # 예, 아'현뚝. {예, "아현댁".}

10102 @ 아'현느 어'디 짐명뎡미까? {"아현"은 어디 지명입니까?}

10102 @ 땅 이르뎡? {땅 이름입니까?}

10102 # 지명이게쎌쎌. {지명이겠지요.}

10102 @ 어딘, 어딘? {어디, 어디?}

10102 # 아'혀니 크호, 크게' 잉 그 지명엔는에이 자시 몰'래야. {아현이 그, 그게 이 그 지명은 자세히 몰라요.}

10102 # 자시 모른 아현. {자세히 모르고 아현.}

10102 @ 하이튼 아현, 아현띠기모시다, 그지예? {하여튼 "아현, "아현댁"이다, 그렇지요?}

10102 # 이에, 예, 예. {예, 예, 예.}

10102 # 아예, 그으, 거: 집주'이늘 타 가주. {어, 그, 그 집주인의 택호를 따 가지고.}

10102 # 은자 이 그, 그래 그, 그 집 응으, 그 집 소유'기 때'무래 고'맘 아'현뚝으흠모'시라 그'러쿵. {이제 이 그, 그래 그 집 어, 그 집 소유'기 때문에 그만 "아현댁"이라 그랬고.}

10102 @ 지그'름 어'쎌튼 모'습푸 업따, 그'지예? {지금은 어쎌든 못은 없다, 그렇지요?}

10102 # 네아, 지'그른 썸 폐지 다 텅으, 농'토로 변해' 뽀'래꼬. {예, 지금은 전부 폐지가 다 되고, 농토로 변해 버렸고.}

10102 @ 그러'면 혹'씨 여'기에 그어 들판::년 어, 이'름 부르'은 드열:'를 이'럼뎡 아, 아시'는 대'루 함모 이야기해' 주십쎌. {그러면 혹시 여기에 그 들판은 어, 이름 부르는 들이름은 아, 아시는 대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0102 # 예, 더:리' 인제' 요'오로 말할 쎌, 조 우'에 가'무은 개'때'바'쿨더:리아 그'고요, 어 그어 잉. {예, 들이 인제 요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위에 가면 "개따박골"이라고 그러고요, 어 그 이.}

10102 @ 므습 바? {무슨 바?}

10102 # 개따'바꼴료. {"개따박골"이요.}

10102 # 해저삼:니'드리여 그'르꼬, 개따바꼬. {해저삼리들이 그렇고, "개따박골".}

10102 # 조: 우'에 뽀까뽀 소'란 아'빠 거 이 저 왕'도이드:리러 그'으고, 겨우 왕'도이드으  
래 그으고, 요 미'테 너'러우므 장'성거리드'리라 그'으공, 이 그'래 인제 세 가'지을 표  
'현해 가주 새암며. {저 위에 가면 "술안" 앞에 그 이 저 "왕둥이들"이라고 그러고, 그  
"왕둥이들"이라 그러고, 요 밑에 내려오면 "장승거리들"이라 그러고, 이 그래 인제 세  
가지로 표현해 가지고 사용을.}

10102 @ 그엄'므여 거 개빠딱 어, 개뽀따꼴 그'래썸미까? {그러면 그 "개따박" 어, "개따박  
골" 그랬습니까?}

10102 # 개:따'바꼴. {"개따박골".}

10102 @ 아어, 개:따'바꼴 가'통 경우'너 우, 왜 개따바'꼬리라고 해쓰므그? {아, "개따박골  
" 같은 경우는 어, 왜 "개따박골"이라고 했습니까?}

10102 # 그게', 그게' 이'르믄 음, 겨 부'쳐 가주우 머 잉 기'양 인 향' 겹 모'인데, 머으 그  
속칭명'으로 특수한 말헌은 자시 몰'래여, 그게. {그게, 그게 이름을 음, 그 붙여 가  
지고 뭐 이 그냥 이 한 것인 모양인데, 뭐 그 속칭으로 특수한 말은 자세히 몰라요,  
그게.}

10102 @ 어, 그엄 개따바'꼴드:리 이'꼬, 그다임 머 장승꼴? {어, 그러면 "개따박골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승거리들"?}

10102 # 장'승거리드:른 요'게 저 소'란 아'피로, 소'란, 으이 역 아'프로 이리 내로이 이 더'  
리고. {"장승거리들"은 요기 저 "술안" 앞으로, "술안", 이 역 앞으로 이리 내려오는  
이 들이고.}

10102 # 조 무'때 술똥천' 요거 너머가'믄 조 우'에 감' 장'승거리드, 요 학짱봉 미'테 드리'  
또 이'써, 고게' 장'성거리뜨리, 논'니, 논나'꼬 바'찌, 그 드레 거. {저 밑에 "술똥천  
(+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유래된 지명임.)" 요것 넘어가면 저 위에 가면 "장승거리  
들", 요 학정봉 밑에 들어 또 있어, 거기에 "장승거리들"이, 논이, 논하고 밭이, 그  
들에 거기.}

10102 @ 그 장'성거리들 그어느, 어, 들팡:, 그거'는 왜 장'성거릴들파니? {그 "장승거리들"  
그것은, 어, 들판, 그것은 왜 "장성거리들"이?}

10102 # 장'서이랑 게 그 어'데, 옴:나'레 이'룽 거 머 장'성을 그 어'데 서와 나아땡 으으으,  
머시래 가주오. {"장승"이라는 게 그 어디, 옛날에 이른 것 뭐 장승을 그 어디 세워  
뒀던 어, 무엇이래 가지고.}

10102 # 망, 네앙, 마저, 그래'으, 그래 태'켄너므 거'테요, 장'성거리라등 게. {맞, 네, 맞아,  
그래, 그래 택한 것 같아요, "장승거리"라던 게.}

10102 # 낭'글 까'꺼 서'웅 거, 이룽 게 이차나여, 크어케. {나무를 깎아 세운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10102 # 마'자, 장'성거리아 그래꾸나. {맞아, "장승거리"라 그랬구나.}

10102 @ 거'이가 장'성거리다, 그지야? {거기가 "장승거리"다, 그렇지요?}

10102 # 예, 장성거리, 거 더리공. {예, "장승거리", 그 들이고.}

10102 @ 그다'임 장'성거릴뜨, 고: 아'페 장'성거리가 이'서쓰니까 장성거리드리'고? {그 다  
음 "장승거리들", 그 앞에 "장성거리"가 있었으니까 "장승거리들"이요.}

10102 # 네, 어, 드'리고. {예, 어, 들이고.}

10102 @ 그다'옴에 아까' 뚜 하'나눔 머라고 하셔씀미까?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습니다까?}

10102 # 저 왕'다이틀. {저 "왕둥이들".}

10102 @ 와예, 왕'다이뜨르 웨 왕다이뜨? {예, "왕둥이들"은 왜 "왕둥이들"?}

10102 # 왕'도~이라 그능 그 동미'는 느기, 여'어서으기 교수'니미 말항' 거고, 왕'디이라 그능 걸 꼬 속'칭이 우, 웨: 부'천노 하'는 소'린테, 글' 자시 모'르게따고, 그 웨, 웨 부'쳐언지. {"왕둥"이라 그러는 그 동민은 이게, 여기에서 교수님이 말한 것이고, "왕둥"이라 그러는 것을 그 속칭이 왜, 왜 붙였느냐 하는 소리인데,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그 왜, 왜 붙였는지.}

10102 # 멍 왕'이 이'써 가'주 왕'도이들또 안 데'스 께고, 근 머 어데 구'마 엔:날브'어똥 그래 왕'디이라 그'능 게 어'데 그마 속'칭 기'양 내루옹 거 거태이. {뭐 왕이 있어 가지고 "왕둥이들"도 안 됐을 것이고, 그 뭐 어디 그만 옛날부터 그렇게 "왕둥이"라 그러는 게 어디 그만 속칭으로 그냥 내려온 것 같아요.}

10102 # 금 머, 금 머 와 특'쑤한 명칭'은 어꼬'요, 그 어, 께, 구 왕'덜더르아 이야기, 역편 아'빠 이 드어'를 가'주 말하'고, 요: 우'에 개따'바구요, 저'언 장'성거리더리, 요 세: 드어'를 요'객 끼'고 사'라써, 요예. {그 뭐, 그 뭐 왜 특수한 명칭은 없고요, 그 어, 그, 그 "왕둥이들"이라 이야기, 역 앞에 이 들을 가지고 말하고, 요 위에 "개따박골", 저기는 "장승거리들", 요 세 들을 요기에서는 끼고 살았어요, 요기에.}

10102 @ 거 왕'드이플르리아 함'미까? {거기를 "왕다이들"이라 합니까?}

10102 @ 왕'다이뜨리라 함미까, 앙 그아'므 왕'둥이뜨리라 함미까? {"왕다이들"이라 합니까, 안 그러면 "왕둥이들"이라 합니까?}

10102 # 왕둥이틀'. {"왕둥이들".}

10102 # 왕'도이라 그 어, 그 속'칭 부루기'느 왕'다이뜨어리'라 거'후, 께, 엄, 마 우, 부루'기 시운 대'르, 원'치기 말'해우 왕'도이더리래. {"왕둥이라" 그 어, 그 속칭으로 부르는 "왕다이들"이라 그러고, 그, 어, 뭐 어, 부르기 쉬운 대로, 원칙으로 말하면 "왕둥이들"이야.}

10102 # 이, 저 동네'가 왕'도이라 그그더'요. {이, 저 동네가 "왕둥이"라 그러거든요.}

10102 # 왕'도이께네어, 왕'도이 아페 떠리이께'네우 왕'도이떠레 그능 게 만니덩. {"왕둥이니까, "왕둥이" 앞에 들이니까 "왕둥이들"이라고 그러는 것이 맞아요.}

10102 @ 그, 그'은테 여'기도 저: 해저'리라고 잘 암 부르'고 사암'드른 바'라미라고 마니 부르지예? {그, 그런데 여기도 저 해저리라고 잘 안 부르고 사람들은 "바라미"라고 많이 부르지요?}

10102 # 예:, 바'라미, 예. {예, "바라미", 예.}

10102 @ 바'라뎡 마이 부을뜨'시 거'기도 거 왕'둥이라고 마니 부름미까, 앙 그암 왕'드이라고 마니 함미까? {"바라미"라고 많이 부르듯이 거기도 그 "왕둥이"라고 많이 부릅니까, 안 그러면 "왕다이"라고 많이 합니까?}

10102 @ 왕'다이리라고 마니 함미까? {"왕다이"라고 많이 합니까?}

10102 # 왕'도이라폼 부르'제, 주'로요. {"왕둥이"라고 부르지, 주로요.}

10102 # 왕'도이러 쯔. {"왕둥이"라 주로.}

10102 @ 왕, 왕'도이라 함미까, 왕'디이라 함미까? {왕, "왕둥이"라 합니까, "왕다이"라 합니까?}



10102 # 거기 인제' 읍, 부른' 사'러미 자기 표'혀늘 곱 왕'디이, 왕'동이, 이이, 이이, 이래 데 뿌능 꺼테. {그게 인제 어, 부르는 사람이 자기 표현을 그만 "왕디이", "왕동이", 이, 이, 이래 돼 버린 것 같아.}

10102 @ 와따 가따 한'다, 그'지예?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요?}

10102 # 예, 와따' 가따' 하'능 기 거테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0102 @ 겨우 왕'동이나 왕'드이플 이꼬, 그암' 장'승거리플 이'꼬, 개따박'꿀, 개따 머라고 해쓰미까, 그어 어우, 거? {그러면 "왕동이"나 "왕디이들" 있고, 그다음 "장승거리들" 이 있고, "개따박꿀", 개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 그?}

10102 # 응, 개:따'바꿀덜. {응, "개따박꿀들".}

10102 @ 어어, 개따바꿀덜'하우 세: 개'가 드리' 이'따, 그'지예? {어, "개따박꿀들"하고 세 개가 들이 있다, 그렇지요?}

10102 # 예, 세: 개'가 드어'를 끼, 끼'고 사'판서요. {예, 세 개의 들을 끼, 끼고 살았어요.}

10102 @ 거'몽 근, 그 당시에' 그어 인제' 주'로 어:, 아까' 우리 의성 김'씨, 김무'네서 그쪽 들: 마니 소유하'고 이'서쓰미까, \*\*\*? {그러면 그, 그 당시에 그 인제 주로 어, 아까 우리 의성 김씨, 김문에서 그쪽 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10102 # 으예:, 그'르초에, 주로' 여'게 소유해'쨌. {예, 그렇지요, 주로 여기에 소유했지요.}

10102 # 주로' 여'게 오, 개따바'꿀덜, 왕'디이떨, 장'성거리들, 그 소유'어튼, 쥐'인드른 우리 강가'드리 주'로 가져 이쨌쭈. {주로 여기에 어, "개따박꿀들", "왕동이들", "장승거리들", 그 소유, 주인들은 우리 김가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어.}

10102 @ 금면' 주'로 인제' 그어: 들파'닌 중'에스, 세 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꼬 너름미' 까? {그러면 주로 인제 그 들판 중에서, 세 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넓습니까?}

10102 # 왕'디이드리 켈: 러'리제요. {"왕동이들"이 제일 넓지요.}

10102 @ 거'기가 제:일 러르'고? {거기가 제일 넓고?}

10102 # 예. {예.}

10102 @ 그다'으메너? {그 다음에는?}

10102 # 장'성거리고, 고다'음 개:따바'걸드리요, 고래요. {"장승거리"고, 그 다음 "개따박꿀들"이고, 그래요.}

10102 @ 머' 어'쨌똥 이 세: 가진, 세 들파'니 거'이 머: 그 의성' 김무'네서 대:개 소유하'고? {뭐 어쨌든 이 세 가지, 세 들판이 거의 뭐 그 의성 김문에서 대개 소유하고?}

10102 # 예, 소:유'하고 또 으, 그 거'기서 위'주해 가즈 생'화털 해:꼬'요, 그 토'지를 위해 저 생'화를 해쨌, 그 머'꼬 사:고' 그'래쨌이. {예, 소유하고 또 어, 그 거기에서 위주로 해 가지고 생활을 했고요, 그 토지를 위해 저 생활을 했어, 그 먹고 살고 그랬어요.}

10102 @ 그럼'머느 여'기에 그거' 어, 어으:, 그 멍미'까, 이으, 논, 소'작헨는 소'장민들도 이'서쨌 켜 아임미까? {그러면은 여기에 그것 어, 어, 그 뭇니까, 이, 논, 소작했던 소작민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10102 # 이'쨌여, 그'케. {있지요, 그러게.}

10102 @ 의성' 김'씨뜨리 다: 지쨌'르 모 하나'까, 그: 소'작하는 사'암더른 어느 동네'에 주'로 사'라쓰미까? {의성 김씨들이 다 짓지는 못 하나까, 그 소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동네에 주로 살았습니까?}

10102 # 여'기 사:는 사'림도 이'꼬, 개따바'꿀 사'는 사'림도 이'꼬, 왕'디이 사'는 사'림도

이'꼬, 더'러 사'라쩌마느 주:로 인제' 소'작인드리 여'게 마이 사'라쩌유, 맹.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개따박골" 사는 사람도 있고, "왕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더러 살았지만은 주로 인제 소작인들이 여기 많이 살았지요, 역시.}

10102 # 소'작인들또 머' 소'자기라 그려 타'서이 하능 거또 아이'래, 맹: 이 갱가' 우옥, 저 그 또까'똥 갱가끼'리도 맹: 쯔. {소작인들도 뭐 소작이라 그래서 타성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이 갱가 어, 저 그 똑 같은 갱가끼리도 역시 쯔.}

10102 @ 아, 소, 소자글 하는 데에? {아, 소, 소작을 하는 데에?}

10102 # 예, 소'자칸 사'암더 이'꼬 그래여찌. {예, 소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10102 @ 예, 예. {예, 예.}

10102 # 그래, 으어, 또 타'성도 소'자카은 사'암도 이'꼬 그'르서. {그래, 어, 또 타성도 소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10102 @ 어, 그'러므 어'째튼 여'기에 어, 그거, 이 마을'레 사는 타성바'지나 앙 그아'머 가튼 의성 김씨 중'에스도 소작하'어시늉 부'니 게:셔'꼬? {어,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어, 그것, 이 마을에 사는 타성바지나 안 그러면 같은 의성 김씨 중에서도 소작하시는 분이 계셨고?}

10102 # 예, 예. {예, 예.}

10102 @ 앙 그아'른 저쨌'게 저, 저으 왕딩에 \*\*\*? {안 그러면 저쪽에 저, 저 "왕동이" \*\*\*?}

10102 # 예, 어헤, 어, 예, 왕, 에이예, 왕'대, 개뜨바'꼴두 이'써꼬, 그'르치, 므. {예, 어, 어, 예, 왕, 예, "왕동이", "개따박골"도 있었고, 그렇지, 뭐.}

10102 @ 그쨌'우 분'들도 하'고 그래'따, 그'지예? {그쪽 분들도 하고 그랬다, 그렇지요?}

10102 # 예, 예호. {예, 예.}

10102 # 그'리고 고로'고로' 봄배데' 이'써찌, 머 글'때. {그리고 고루고루 분배돼 있었지, 뭐 그때.}

10102 # 모두 그. {모두 그.}

10102 @ 그름'머느 여'기 지'점 그거 봉화' 가통 경우'에 쯔: 그어 유명한' 집'성초니 여'게 의성 김씨, 여 바'라미하고, 그다'으메 저: 여'폐 닻'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것 봉화 같은 경우에 쯔 그 유명한 집성촌이 여기 의성 김씨, 여기 "바라미"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닻실"?}

10102 # 다'실하코예. {"닻실"하고요.}

10102 # 다'시이라 그끼' 타구에 유'고리라 글따, 야. {"닻실"이라 그러기도 하고 "유곡"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

10102 @ 한짜'로 하'면 유'고기고, 예, 그다'으메 그냥어 따, 일'반저으로 다'실, 다'시리라고 하'는데, 예:, 그'르서 이 닻'셀, 닻'씨를을 사는' 사'암드런 이쪽 퍼'네 머 아, 여'기실 이야기해'면 세: 가진 읍'내 뜰 이쨌'게넌 별'로 농'사를 아 함? {한자로 하면 "유곡"이고, 예, 그다음에 그냥은 닻, 일'번저으로 "닻실", "닻실"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 "닻실", "닻실"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편에 뭐 아,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읍내들 이쪽에는 별로 농사를 안 합니까?}

10102 # 그'르치여, 농사진'능 거'는 쯔 인 주로' 그 지'역 황경'에 따'러 사'러쓰이께네여. {그렇지요, 농사짓는 것은 저 이 주로 그 지역 환경에 따라 살았으니까요.}

10102 # 그 지'이, 지역 토지'를 가주 사'러찌, 머 다'실 싸'러미 여'게 와 지:꼬, 그'룽 건

은, 업서'따꼬, 이게. {그 지역, 지역 토지를 가지고 살았지, 뭐 "닭실" 사람이 여기에 와서 짓고, 그런 것은 어, 없었다고, 이게.}

10102 @ 거'므 안동::, 그 왜 다'실 사'암드, 안동 권'씨드른 주'로 그어기 어덜: 쪼'게 그아면 땅을', 경'자를 주'루 마이 해'쓸미까? {그러면 안동, 그 왜 다실 사람들, 안동 권씨들은 주로 거기 어디 쪽에 그러면 땅을, 경작을 주로 많이 했습니까?}

10102 @ 그여쪽쓰 \*\*? {그쪽 \*\*?}

10102 # 아이웁 거'긴 또 그, 그' 지방'에 땅'을 가주 소유해져에기. {아니 거기는 또 그, 그 지방에 땅을 가지고 소유했지.}

10102 # 그 거'이, 점'부 집'썩초이러 그'능 게 연나'레 그'래끄더, 토지'러 가:진' 사'러멈 머 뽕 마'지썩 가주'꼬으, 그'르이 엄:는 사'럼 어:꼬, 그'래이께 인제' 엄:는 사'럼 그 토지를 빌'레 가'주 인저 소'자케 가주 그'어삭 가치 사:고 그'래쓰이께네 머 곧' 지'역 켜'여게서 어어, 사'라썩, 머 여:기'저기' 농'사지꼬 그, 쁘'룽 건 드'무러따 그'이께네. {그 거기, 전부 집성촌이라 그러는 게 옛날에 그랬거든, 토지를 가진 사람은 몇 백 마지기씩 가지고, 그러니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인제 없는 사람은 그 토지를 빌려 가지고 인제 소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뭐 그 지역 지역에서 어, 살았지, 뭐 여기저기 농사짓고 그, 그런 것은 드물었다 그러니까.}

10102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102 # 예. {예.}

10102 @ 그러'므 지'금 어'썩똥 봉화'군느, 봉화'우, 읍내' 쪼'게너 아까 그 안동: 권'씨들, 머 닥'썰하:고, 여 다'으미 바라'미에 의성' 김씨하'고 이 언, 두:: 성:잉이 집'성초니고, 또 다른', 또 다른' 데'도 이썩미'까? {그러면 지금 어썩든 봉화군은, 봉화읍, 읍내 쪽에는 아까 그 안동 권씨들, 뭐 "닭실"하고, 여기 다음이 "바라미"에 의성 김씨하고 이어, 두 성이 집성촌이고, 또 다른,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10102 # 이'썩, 참 마네. {있지, 참 많아.}

10102 @ 만치요, 저 안쪼그로 감머너? {많지요, 저 안쪽으로 가면은?}

10102 # 예, 예, 예아. {예, 예, 예.}

10102 @ 예:, 그'으서 이 읍내:' 근처'에넌 두: 성씨'가 아'주 유명'한 집'성초니고 그르네, 그지예? {어, 그래서 이 읍내 근처에는 두 성씨가 아주 유명한 집성촌이고 그렇네요, 그렇지요?}

10102 # 예, 예예, 예. {예, 예, 예.}

10102 @ 그다'으메 어'르신 여'기 그 들판'하고 이야길 해' 주'션는데, 혹시 여'기에 머 유명한' 머 사'나나 또음 머 바'위나 나무'나 이'런 거에 일'쓰서 그런 데 머 전'서리나 또'너 그으 머 유'래 팔'련' 그'른 머어. {그 다음에 어르신 여'기 그 들판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뭐 유명한 뭐 산이나 또는 뭐 바위나 나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데 뭐 전설이나 또는 그 뭐 유래 관련 그런 뭐?}

10102 # 그:'룽 거는. {그런 것은.}

10102 @ 바'이 가'통 거'또 별로 업쓰? {바위 같은 것도 별로 없습니까?}

10102 # 어, 어, 어, 업, 업, 업:썩 시'프이'더. {없, 없, 없, 없, 없, 없지 싶어요.}

10102 # 업:썩 시'퍼이. {없지 싶어요.}

10102 @ 여'기 혹시 나무 가'통 경운또 머 오'래텐 나무'나 이'런 건 머 이'르미? {여기 혹시 나무 같은 경우도 뭐 오래된 나무나 이런 것 뭐 이름이?}

10102 # 업:썌'여, 나며. {없어요, 나무.}

10102 # 저'게 인제 소꺼'리라 그'는 데가, 여' 두오'다 봄' 저 소'리 선' 데 이:썌'예, 싱냐' 누 까'에, 거'가 여'기서 부'르능 게 소꺼'리라 그'래여. {저기 인제 "소꺼리"라 그러는 데가, 여기 들어오다 보면 저기 술이 서 있는 데 있지요, 신작로 가에, 거기가 여기에 서 부르는 게 "소꺼리"라 그래요.}

10102 # 소꺼'리 근'데, 요새' 거 수세 쟁:시'늘 해 가'주 그'르체 옌나'레 낭'기 이'른 아'람 도리 소'리 서 이'썌이, 저. {"소꺼리"라 그러는데, 요새 거기 수세 경신을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나무가 이런 아릅드리 술이 서 있었어요, 저기.}

10102 # 글'땡 그 참 아, 참 조완'는데, 크거욱 그 위'치르, 그 위'치를 소꺼'이라 그랜느. {그때는 그 참 아, 참 좋았는데, 그것 그 위치를, 그 위치를 "소꺼리"라 그랬는데.}

10102 # 그 낭'기일 또: 어'뜬냐 어으뜨몽, 아:, 나무' 유래'는 은, 내:간 드른' 데으 이게 인'는데, 그: 낭'글 여: 파'론 할배'미 꼬'어 저 이 제주'도 어'데 그'게 머 이 형가'므러 가: 게셔뜬제' 그 당시' 이'링가 머 그 해송'을 가조 와다 시'머따 그래드라꼬, 그게. {그 나무가 또 어떠한가 할 것 같으면, 아, 나무 유래는 어,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나무를 여기 팔오현 할아버지가 그 저 이 제주도 어디 그게 뭐 이 현감으로 가 계셨던지 그 당시 일인가 뭐 그 해송을 가져 와서 심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10102 # 그'어서 제주'도 묘'모글 가'따 여: 시릉 기'에 여 어, 여읍, 므 은, 저: 인제' 더:레 시'머 노'웅 게 이마'꿈 커'따, 그게 인제. {거기에서 제주도 묘목을 갖다 여기 심은 것이 여 어, 여, 뭐 읍, 저 인제 들에 심어 놓은 것이 이만큼 컸다, 그게 인제.}

10102 # 지'금도 꼬'게 세: 낭'깡가 네: 낭'근, 시'방 버 이, 이'따고, 거어 시방. {지금도 그 게 세 나무인가 네 나무, 시방도 뭐 이, 있다고, 거기 시방.}

10102 @ 그'게 소꺼'림미까? {그게 "소꺼리"입니까?}

10102 # 아웅, 그'게 인제 소꺼'리러 근'다꼬. {어, 그게 인제 "소꺼리"라 그런다고.}

10102 # 술, 소꺼'리. {술, "소꺼리".}

10102 # 므, 그'게 인제 표'시가 테'고, 그 묘:모'기 해송'이라, 여'기에 소'리 아'이고 제주' 두서 가'저 웅 게'래, 그 소'리. {뭐, 그게 인제 표시가 되고, 그 묘목이 해송이야, 여기의 술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가져 온 것이야, 그 술이.}

10102 @ 그'러므 소꺼'리고, 그'어 소나무'가 인제' 쯔' 맥 쭈 이쓰'니까 소꺼'리고:, 그다'음 미 혹'썌 여'기에 머 그'러므 예즈, 여'기도 예:저'네 그거: 당', 당'제나 이'링 거? {그러면 "소꺼리"고, 그 소나무가 인제 쯔 몇 그루 있으니까 "소꺼리"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뭐 그러면 예전, 여기에도 예전에 그것 당, 당제나 이런 것?}

10102 # 예:. {예.}

10102 @ 스나'으? {서낭?}

10102 # 서낭'당'이라 그'능 게 여'기 이'썌, 서낭다'이라 그'능 게. {서낭당이라 그러는 게 여기 있어, 서낭당이라 그러는 게.}

10102 # 서낭다. {서낭당.}

10102 @ 그'어기느 당나무'가 업'썌미까? {거기는 당나무가 없습니까?}

10102 @ 여'게는? {여기에는?}

10102 # 당:낭'근 어:꼬온 당'찌'블 지'이 가'주 이따 까, 당'찌'블 지'이 가'주고, 그 일 지'이 가'주구 거'게서 제살' 지낸'데, 그 사'모. {당나무는 없고 당집을 지어 가지고 있다 하니까, 당집을 지어 가지고, 그 이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사뭇.}

- 10102 # 마'자, 정'월따레 인제' 정'월, 음, 보'름 데'면 동:네'씨 인제' 그 인 제:무'럴 거쥬'럴 해따'꼬, 그얼. {맞아, 정월에 인제 정월, 음, 보름이 되면 동네에서 인제 그 이 제물을 거출을 했다고, 그것을.}
- 10102 # 이래' 머 어, 구'또 치:고 도'라탱기문 동네'씨 인제' 거:출'해 가주고 바'아 가'주 그여' 제살' 지'내구 헨'는데, 여 바로' 다:에 여'이. {이래 뭐 어, 굿도 치고 돌아다니면 동네에서 인제 거출해 가지고 받아서 그래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여기 바로 뒤에 여기.}
- 10102 # 그'래다가 박정히 대통녕 지권하'고 글'때 예:, 그 머'러', 저 미'신 철빠한'다 그'러 가'주 마아지, 각 동네 그 어으, 그거' 사, 서낭'을 점: 폐지해 빼래꼬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고 그때 예, 그 뭐야, 저 미신 철폐한다 그래서 말이지, 각 동네 그 어, 그것 서, 서낭을 전부 폐지해 버렸거든.}
- 10102 # 흑:뜨', 흑: 그으그'이 지'금도 어'텅음 음, 머 그 저: 머르', 안동', 저'런 텐 흑 지낸' 데거이그 이'따 소'릴 드께'덕. {흑, 흑 그게 지금도 어디 음, 뭐 그 저 뭐냐, 안동, 저런 데는 흑 지내는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 10102 # 그'은나 여'게는 다'실또 폐지데'꾸, 요'도 폐지데'이따꼬. {그러나 여기는 "닭실"도 폐지됐고, 요기도 폐지됐다고.}
- 10102 # 다:, 다: 안' 지낸다꾸, 이제. {다, 다 안 지낸다고, 이제.}
- 10102 @ 그라'므 인제 지금 어열, 어'쨌든 이 마으'레너 그 예저'네는 스, 그 서낭다'응, 응, 당'을, 당찌'블 해 가'주고 머 \*\* 모션'는데, 지'금 당나무'나 이'령 거느 여'기느 업'쑤 따, 그'지예? {그러면 이제 지금 어, 어쨌든 이 마을에는 그 예전에선, 서, 그 서낭당은, 응, 당을, 당집을 해 가지고 뭐 \*\* 모셨는데, 지금 당나무나 이런 것은 여기는 없다, 그렇지요?}
- 10102 # 어, 당나무'넌느 어서꼬이, 지'블 지이 가'즈 모세뜨'래꼬, 그으또 폐지데 빼려꼬, 이진. {어, 당나무는 없었고, 집을 지어 가지고 모셨더랬고, 그것도 폐지돼 버렸고, 이제는.}
- 10103 @ 그다'으메 흑'씨 요주'멈 머 이 마으'레, 아까'도 이야기하'셔쑤다마너, 의성 김문'드리 한, 마: 한 삼 부'네 일' 조금 넘:꼬? {그다음에 흑시 요즘은 뭐 이 마을에, 아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의성 김문들이 한, 뭐 한 삼 분의 일 조금 넘고?}
- 10103 # 예. {예.}
- 10103 @ 예, 그다'으메 타성바'지, 웨지 사'암드리 드와'서 또 저 나머'지 사'람들 살:고 인'는데, 이' 마을 사'암드리 주'로 그엄 어'떠케 해서 머'꼬 사라감미까? {예, 그다음에 타성바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저 나머지 사람들 살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갑니까?}
- 10103 # 여'게 사는' 사'람드른 그'리 살:기'가 참' 이, 이으 부끄러'엄 말'러 벨'로 녁'넉찌'인 모타'다꼬용.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리 살기가 참 이, 이 부끄러운 말로 별로 넉넉하지는 못하다고요.}
- 10103 # 웨 그'르냐, 인지'인 모'도 나'이 망:코 또 이 옌나'리아 토'지드리 여'게 상다'이 마'이역 가진' 사'람들또 마'내'앤데, 이 토'지 봄'배'가 데' 가'주고 이 토'지일 구'마 머 소'자간드르 봄'벨' 해 조 뿌'래써. {왜 그러냐, 인제는 모두 나이가 많고 또 이 옛날에는 토지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토지 분배가 돼 가지고 이 토지를 그만 뭐 소작인에게 분배를 해 줘 버렸어.}

10103 @ 예, 토, 으예, 이후에, 거 해방 이후에 \*\*\*?

10103 # 예, 해방 뉴워. {예, 해방 이후.}

10103 @ 예예, 해찌예? {예, 했지요?}

10103 # 그 토지 분배' 제도'가 생'기고 나'이께네 동:네'가 그마 자연'니 피'빠개 지드라고.  
{그 토지 분배 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동네가 그만 자연히 핏박해 지더라고.}

10103 # 웨: 그'른냐, 그 도'지 바똥 거'또 모 빠'찌, 그와 돈: 쪼매 타재 가'주구 다: 씨' 뿌  
래찌, 그'르이그 그'른 집'뜨리 엔:나'레 저 부호'라 호칭으 참, 아, 말: 드똥' 집'뜨룽그  
거'이가 고마 자꾸 주드'라꺼, 재'사니. {왜 그렇냐, 그 도지 받던 것도 못 받지, 그 돈  
조금 타 가지고 다 씨 버렸지,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옛날에 저 부호라 호칭을 참,  
아, 말 들던 집들은 거의가 그만 자꾸 줄더라고, 재산이.}

10103 # 주이'께네쓰 소'자긴들도 주기 매 라'이데. {주니까 소작인들도 죽기는 역시 한가  
지더라고.}

10103 # 토'지가 예를'름 부자', 잘'사는 지베 가'서 열' 마지이 이, 그 이이이, 참 쓰, 지,  
지똥' 사'러미 토지 분배'데거, 바깥' 바'더쓰너 어더이 지임 파'라' 머'어 빠'래꼬, 이'러  
이 자'여니 브이, 그 으데, 그 은, 이 동네'가 쉼태해'지거, 또 요'주'모 환경'으름 바'서  
느, 우리 여' 모'도 서이'가 다: 이'찌마는, 나'도' 마'내'지고, 또 은제 겨'쩍 벨' 기본 재'  
산도 어'꼬', 그'르이 녀'넉'찌'느 모'태'여. {토지가 예를 들어 부자, 잘사는 집에 가서 열  
마지기 이, 그 이, 참 저, 짓, 짓던 사람이 토지 분배되고, 받기는 받았으나 어디 지금  
은 팔아 먹어 버렸고, 이러니 자연히 그, 그 어디, 그 어, 이 동네가 쇠퇴해지고, 또  
요즘의 환경으로 봐서는, 우리 여기 모두 셋이 다 있지만은 나이도 많아지고, 또 인  
제 여기 별 기본 재산도 없고, 그러니 넉넉하지는 못해요.}

10103 # 너 예, 깅, 게와' 그'저 아'아드리 머 객'찌'이 나'가서 또 머, 머 땀, 마니 벨, 엄,  
머, 어, 머, 직'장' 가지'고, 머 여:러' 직'장'아 가'주' 이'찌마, 나가 인' 사'럼드이, 그'른  
싸'웅, 가' 아'드리 인제' 동'릴 위해서, 인제 부'모를 위해'서 좀 보'태 주'고, 이'래 가'주  
은제'으 사'라'가'고, 머 실'제 여'어'써'어'써'어'느 생'산'해 가'주 사'는 지'븐 머 켌 안 텐'다  
꼬. {뭐 어, 겨, 겨우 그저 아이들이 뭐 객지에 나가서 또 뭐, 뭐 또, 많이 별, 어, 뭐,  
어, 뭐, 직장 가지고, 뭐 여러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 아이들이 인제 동리를 위해서, 인제 부모를 위해서 좀 보태 주고, 이래 가지고 인  
제 살아가고, 뭐 실제 여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사는 집은 몇 집 안 된다고.}

10103 # 아'아들한테 주로' 위'타'개 가'주'우 사'는' 집'또 망:코', 또 게 이 쪼'꿈' 노'려'개 가'주  
우 머 게:와 그'저' 밤 머'꼬 사'는 지'비 그'에 데: 이'꼬, 이'런 실'찌'이시더, 웨'요. {아  
이들한테 주로 위'탁'해 가지고 사는 집도 많고, 또 그 이 조금 노력'해 가지고 뭐 겨우  
그저 밥 먹고 사는 지'비'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웨'요.}

10103 @ 거'람' 여'기에 그'엄'므 지'곰: 어, 인제 어'르'신 절'머'슬 때'너 주로 농'사를 주로 하  
이'쓰'미'까?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지금 어, 인제 어'르'신 젊'으'셨을 때는 주로 농'사를  
주로 하'셨'습'니까?}

10103 # 예, 농'사'지'예'쨌'용. {예, 농'사'지'었'지요.}

10103 @ 그'엄' 농'사', 예'저'네 농'사'지'을'려'며'너 그'냐'음, 그'냥'은 혼'자'서 지'끼'느 힘'드'니까,  
아'까 머 소'자'글:' 해'은'씨'든'지, 또'너 양 그'러'며'넌 머 토'지 분'배'하'고 나'스'너 아'무'래  
두 또' 이 쪼'꿈 토지 소유'가 주'러'드'러'스'니까 진:는 양:둔 즈, 주'러'들'기'느 해'찌'마'너  
예:저'네 그'거 입 아'까' 쪼'그'른 이'야'기'하'시'다 마'란'는데, 어:, 정'월 보'름'미'나 이'르' 때

거 스, 서낭'당에 그거, 그암'며으 그어때 동네 고사인 셈'미지예, 그케? {그러면 농사, 예전에 농사지으려면은 그냥, 그냥은 혼자서 짓기는 힘드니까, 아까 뭐 소작을 하셨던지, 또는 안 그러면은 뭐 토지 분배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또 이 조금 토지 소유가 줄어들었으니까 짓는 양도 줄,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예전에 그것 이 아까 조금은 이야기하시다 말았는데, 어, 정월 보름이나 이럴 때 그 서, 서낭당에 그것, 그러면은 그 때 동네 고사인 셈이지요, 그렇게?}

10103 # 예, 어예, 동:네' 고사' 지'내지여. {예, 예, 동네 고사 지내지요.}

10103 @ 그그'너 크, 커, 동네 고사'에 대해서 그 서낭'신 모시'면서 그'어때 그 부'우네 대'해서 쫘 함무 이야기해' 주십쇼? {그것은 그, 그, 동네 고사에 대해서 그 서낭신 모시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0103 # 그 인제' 그 서낭당' 제살' 치'내능 거'능 그 서낭당'에 가'서 어어, 엉, 그그, 그 모'돈 추주, 추'귀닐 하'고 또 구우 머 아예, 제무'레 예, 어이, 그 여, 이으 도:늘 험'쫘' 줄 내:고', 그'래쁜 보'골' 받'는'다 카'능그 그'래한 유'래'거 이'썩썩썩. {그 이제 그 서낭당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서낭당에 가서 어, 어, 그, 그 모두 축, 축원을 하고 또 그 뭐 어, 제물에 어, 어, 그 여, 이 돈을 협조를 좀 내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었어요.}

10103 # 그'래 노'이께네 동'니'썩 모'도 모에 가'즈어 노오'기도 함 겹 구'설, 웨 지'궁 거'똥 구어, 그 머 이'래 상'투'도 돌'리고 하'능 거, 응 거, 커른 니 적, 저 농'악'때가 창'서리 응, 그 농'악'때를 며'침 맨드'르 가'주우 구'또 치'고 은제' 동'네'옥 그 지'베'즐 드'가서 은제' 지'신도 받'바 준'다 그'래 가'저으, 그 지'임 마'다'아 가'서 구 치'고 머 이'게 이, 이'래고 나'면 커 지'베서 또' 인제' 그 오'신 손'님들 접'때도 하'고, 또 음, 프 그'은, 치, 찬'조를 또 머 쓰'썩이, 이 도'느'로 하'능 거'능 그 드'무리, 주'로 고'마 쌀'로, 즈, 쌀'로 고'맘 한'두 대'씨그 예, 찬'조'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동네에서 모두 모여 가지고 놀기도 할 겹 곳을, 왜 지금 같으면 그, 그 뭐 이'래 상'모'도 돌'리고 하는 것, 어 그, 그런 이 저 농'악'대가 창'설이, 그 농'악'대를 몇'이서 만들어 가지고 곳'도 치'고 인제 동네 그 집에 들어가서 인제 지'신도 받'바 준'다 그'래 가'지고, 그 집 마'당'에 가'서 곳'치'고 뭐 이'게 이, 이'러고 나'면 그 집'에서 또 인제 그 오'신 손'님들 접'대'도 하'고, 또 어, 뭐 그, 찬, 찬'조를 또 뭐 저, 이 돈'으로 하는 것은 그 드'물어, 주'로 그'만 쌀'로, 저, 쌀'로 그'만 한'두 대'씩 어, 찬'조'도 하'고.}

10103 # 그'래 민'저으 그'걸 또' 팔'고' 해 가'주고, 머'독 고'기도 사'고 어'물'또 사'고 해 가'주고, 그'음 머 건 제'살' 그'래, 당'제'살 지'내고, 당'제'사'알 지'나고 나'면 그 떠'기 인'제 쫘'썩'신 나'와요. {그러면 인제 그것을 또 팔고 해 가지고, 모두 고기도 사고 어물도 사고 해 가지고, 그 뭐 그 제사를 그래, 당제사를 지내고, 당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떡이 인제 조금씩 나와요.}

10103 # 그 떠'기 그'으 머'으른 조'타'이'더, 그'게. {그 떡이 그 먹으면 좋습니다, 그게.}

10103 # 당'제'살' 지'낸 그 떠'글 어'른'드리, 가'따 온 분'드리 인'제', 제'관'드리 쫘'썩'썩' 농'게 가'주우 동'네' 드' 농'기 주'이'게'도 하'기도, 그'래 머'끼'도 하'고으, 그'른 네'가' 이'썩'썩'썩. {당제사를 지낸 그 떡을 어른들이, 갔다 온 분들이 인제, 제관들이 조금씩 나눠 가지고 동네 뭐 나눠 주기도 하기도, 그래 먹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10103 @ 그'엄'며'느 그 당:, 당'제'사 가'통 얻, 당'제'옥 까'통 경'우'너 그'으 누'가 모'심'미'까? {그러면은 그 당, 당제사 같은 어, 당제 같은 경우는 그 누가 모십니까?}

10103 @ 서낭'당 끄언? {서낭당 그것은?}

10103 # 어예:이, 그정' 모:시'능 그'너 동:니'서 모'에 가'주으 그을그, 그'해에 이 그 인제' 제과'늘 으, 그 당'제살 지'널 제과'늘 선정'을 해'용. {어, 그것을 모시는 것은 동네에서 모여 가지고 그, 그해에 이 그 인제 제관을 어, 그 당제사를 지낼 제관을 선정을 해요.}

10103 # 선정'을 하'머이, 예를' 또'르 내가' 선정'이 데'따 그'몽 그, 그'날 정'월달 버'트멍 예음, 참' 모'멸 깨'끄시 하'고 마'리야, 그 제사'이 제관' 자'겨글 가차' 가'주고 그 지'베 머 황'토도 칠해 노'코 마'아쎄, 이'래 가'주 인제' 제과'니 선정'데'몽 그'에 지, 즈과'릴 제사 지'널 때까'지느 그'어으 모'멸 청'결히 하'고 으, 그'래으 조:심스'러끼이 으 이, 인 제사'알 지'내고 해'싸요. {선정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 그날 정월달 같으면 어, 참 몸을 깨끗이 하고 말이야, 그 제사 제관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그 집에 뭐 황토도 칠해 놓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인제 제관이 선정되면 그 저, 저 팔월 제사 지낼 때까지는 그 몸을 청결히 하고 어, 그래 조심스럽게 이, 이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10103 @ 그럼'머느 그'어기, 예, 그어'긴 제관' 정하'능 거'슨 도라가'면서 함'미까, 양 그'암면 어'뜨게 동네'에서 어'떠게? {그러면은 거기, 어, 거기 제관 정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동네에서 어떻게?}

10103 # 결과'에'찌그러 그'으 동네'씨 올'개능 고'만 지, 자네' 해'라, 어 니에' 니 해'라, 고'마 이, 이'래 가'주 구마 정하'능 게'래에, 머요. {결과적으로 그 동네에서 올해는 그만 자, 자네가 해라, 아니면 너가 해라, 그만 이, 이래 가지고 그만 정하는 거예요, 뭐요.}

10103 # 또 그'룽게으 그 트'키 인제' 그'어 인, 지, 쯔, 예, 이 제:주'로 선저'잉텐' 사'래미 으:, 상'주도 아이'고, 보'기니 아이'래이 데'그, 처'쎄, 상'주로 그'능 게' 예, 질, 쯔 머 부'물 이'러따든지, 그'른 보'기니 아이'래이 데'고, 그 머' 그여 저 어'엔'느, 현'서판 트'어'씨갑 이'쓰'면 그'걸 모: 타'고 그'래쎄요. {또 그런게 그 특히 인제 그 이, 저, 저, 어, 이 제주로 선정된 사람이 어, 상주도 아니고, 복인이 아니라야 되고, 첫쎄, 상주라 그러는 게 어, 저, 저 뭐 부모를 잃었다든지, 그런 복인이 아니라야 되고, 그 뭐 그 저 어, 부정한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못 하고 그랬어요.}

10103 @ 어'쎄든 도라가'면서? {어쎄든 돌아가면서?}

10103 # 예:아. {예.}

10103 @ 예, 그'어 할' 수 인'는 위'치아 데'에'쓸 때 동네'에스 정해'서 한'다, 그'지예? {예,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동네에서 정해서 한다, 그렇지요?}

10103 # 아양, 아, 아먼 동:네 정'애 가'주 하'주. {아, 아, 아무래도 동네에서 정해 가지고 하지요.}

10103 @ 그'엄'면 그:: 정해'서 그 제'광'니 정해'지'며너 어'터게 정월'대보'름메 인제' 그'거 고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암'머여 보'통 어'디 쯔 그'거 정성' 드려 가'주고 머 기'도도 하'고 함'미까, 제관'년? {그러면 그 정해서 그 제관이 정해지면은 어떻게 정월대보름에 인제 그것 고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어디 저 그것 정을 들여 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합니까, 제관은?}

10103 # 제관'드리 그'래 가'주 은제'엔 정'월 머 이 열'라'홀랄, 열'사'혼날 그 인제' 거' 당'쎄' 별, 똥 그'이다 동네' 뎡'기'미쎄, 농'악'때가 뎡'기'십쎄 거'출'한 미'를 가'주 파'라 가'주



고, 정성'을 뜨'레 제:무'를 장만하'우 그 제관'드러 또'으 그, 그'날 창관할' 제관'드른 그: 모'멸 단'저~이 하'고, 머 험항' 걸' 보잔뜨'룩 하'고, 그'래 가'주우 그 지'베서 이 점'부 그 인제' 그 이 제물::을 맨드'고 거 이 제사' 지'낸 꺼집', 당'에 가'주 가'능 꺼' 정 그'어서 다: 이 주'과느 하'고 그'래 지'내'이더. {제관들이 그'래 가'지고 인제 정월 뽕 이 열나흔날, 열사흔날 그 인제 그 당집을, 저 그 인제 동네를 다니면서, 농악대가 다니면서 거출한 쌀을 가'지고 팔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장만하고 그 제관 들은 또 그, 그'날 참관할 제관들은 그 몸을 단정히 하고, 뽕 험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집에서 이 전부 그 인제 그 이 제물을 만들고 그 이 제사 지'낼 때까지, 당'에 가'지고 가는 것까지 거기에서 다 하, 이 주'관을 하고 그'래 지'냅니다.}

10103 @ 그'염'며 혹'씨 당'제 지'낼려며너 매:년' 그 거두'우 가'주고, 거출해' 가'주우 그'르' 게 함'미까, 앙 그'러'며너 당'제 그'거'또 하'기 위'해'서, 당'제 지'내'기 위'해'서 으아, 게'를', 게 형'시그로 그'러'케 해'짜'니시며? {그러면 혹'씨 당'제 지'낼려면은 매'년 그 거두' 어 가'지고, 거출해 가'지고 그'렇게 함'니까, 안 그'러'면은 당'제 그'것도 하'기 위'해'서, 당'제 지'내'기 위'해'서 어, 게'를, 게 형'식을 그'렇게 했'습니까?}

10103 # 그'러'치. {그'렇'지.}

10103 # 커'룽 거'는 업'씨'씨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10103 # 업'씨'꼬, 웨' 그'른'냐 하'게 테'뜨, 그 당'제'사에, 으, 고'사'에 예, 추'기'그'를 내'기 테' 먼 제'수도 이'꼬, 보'글 받'다 그'러 가'주고, 점'부가 거'게 대'해'씨'능 애'끼'지 안' 해'씨, 모'도'요요. {없'었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 당'제'사에, 어, 고'사'에 어, 축'의'금을 내'게 되'면 제'수도 있'고, 복'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전'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안' 했'어, 모'두'요.}

10103 # 고'마 머' 즈 자'기 형'편' 대'러, 두: 대' 내'은 사'람'테 구 서: 대' 내'은 사'람'도 이' 꼬, 그'거' 내'능 거'능 애'끼'질 안' 해'따'꼬, 보'글 받'다 카'능 허'그, 그'게 이'씨 가'주' 우'요. {그'만 뽕 저 자'기 형'편' 대'로, 두 되 내'는 사'람'도 있'고 세 되 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내'는 것은 아'끼'지'를 안' 했'다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있'어 가' 지'고'요.}

10103 @ 그'염' 어'째'뽕 그'위'거'는 따'로 게'를' 결'성'해'가 하'능 게 아'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따'로 게'를' 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103 # 예:, 동:니', 동:니' 자'체'서. {예, 동'네, 동'네 자'체'에서.}

10103 @ 그'날, 동'네'에'슨 머 자'체'에서 거출해 가'주고 어, 스, 성'이'꾼 내'에서 그'날 해'따, 그'지'예? {그'날, 동'네'에서 뽕 자'체'에서 거출해 가'지고 어, 성, 성'의'껏 내'서 그'냥 했'다, 그'렇'지'요?}

10103 # 예'아. {예.}

10103 @ 어:, 그'라'면'스 제'수 장'만'하'우 그'르'케 하'능 그'고, 요'즈'믄 머 꼬'어, 그'럼 게 적' 썸'미'다'마'느, 어'르'신 머: 예'저'네 한 절'머'쓸 때'나 어::, 이'럴 때'너 동'네'에 게: 가'통' 게 썸' 이'씨'씨'예? {어, 그'러'면서 제'수 장'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요'즘'은 뽕 그, 그'런 게 적'습'니다'만'은, 어'르'신 뽕 예'전'에 한 젊'었'을 때'나 어, 이'럴 때'는 동'네'에 게' 같'은 게 썸' 있'었'지'요?}

10103 @ 게: 모'임' 가'통' 게? {게 모'임' 같'은 게?}

10103 # 게: 모'임' 거'통' 이'씨'씨'예, 그'럼 거'뽕. {게 모'임'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10103 # 게:라' 그'능 거'는 마'내'씨'어, 그'룽 게, 게 모'임, 쪼'구'미'하'이 이'래. {게'라 그'러'는

것은 많았지요, 그런 것이, 계 모임, 조그마하게 이래.}

10103 @ 어:, 어'쁜 계:가 이'서썸미까? {어, 어떤 계가 있었습니까?}

10103 # 그 미 여'러 가지 위에, 예를' 뜨'러, 우리' 거'트머 인제' 계:끼'리 모에' 가'즈엔 또 '래 또'래 인제' 그 열령'별로 모엔'다든지에 머 이, 이래: 가'주'고 머 이 도:늘' 거출해' 가'주 아이예, 한 다'레 함' 머 이, 예, 금, 일' 러네 은, 으, 한 다'레 함 번'씨 모'엔다 든지, 머 그, 크'래 가'주우 그걸' 또' 쪼끔 머'꼬여 늘'구'끼이도 하'고, 또 그'래 머 장: 녀'빠'지라 그'음 또 그'래 가'주우 그걸' 마'아 가'주 또 인제' 그 예, 이, 계원'들끼리 이자'를 조' 가'주 이:자' 바'다 가'주우 도'흔' 늘'구'코 므, 그, ㄲ, 그'룽 계'도 마'내'꼬. {그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인제 계끼리 모여 가지고 또래 또래 인제 그 연령별로 모인다든지 뭐 이, 이래 가지고 뭐 이 돈을 거출해 가지고 어, 한 달에 한 뭐 이, 어, 그, 일 년에 어, 어,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든지, 뭐 그, 그래 가지고 그것을 또 조금 먹고 늘이기도 하고, 또 그래 뭐 장리'빚(+還穀)이라 그러면서 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또 인제 그 이, 이, 계원들끼리 이자를 줘 가지고 이자를 받아 가지고 돈을 늘이고 뭐, 그, 그 그런 것도 많았고.}

10103 @ 그'음 어'트에 동'갑 까'통 경우 동'갑계라 함'미까? {그러면 어떻게 동갑 같은 경우에 동갑계라 합니까?}

10103 # 예야, 동'가'계도 이기, 이'째'여이. {예, 동갑계도 있지요.}

10103 # 주로' 동'가'계고. {주로 동갑계고.}

10103 @ 그'담'메 혹'시 도, 고로 계 인지 동'갑'계고, 혹'씨 여'기에 머: 어, 예'저'네너 여:기'엔 장'네' 가'통 경우'에 어'르'신평 누'가'뜨 동'네'에 어'르'니 도'라'가'심'머는 장'네'어 거 치'러야 데'니'까, 이 요'즈'미'암 머: 장:이'업'체'드리 마'암 벼, 영'안'실'레'도 가'고 머' 지'베서 하'는 분'들도 이'찜'마'너 주'로 벼, 병'원 영'안'실'레 가'서 마'니 하'는데? {그'다음에 혹'시 동'갑, 그런 것이 인제 동'갑'계고, 혹'시 여'기에 뭐 어, 예'전에 여'기에 장'래' 같은 경우에 어'신'들 누'가 동'네'에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장'래'를 그 치'뤄야 되'니'까, 이 요'즘 이야 뭐 장'의'업'체'들이 많이 병'원, 영'안'실'에도 가'고 뭐 집'에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로 병, 병'원 영'안'실'에 가'서 많이 하'는데?}

10103 # 마'인, 주'로 그'르'치, 머 여'세. {많이, 주로 그렇지, 뭐 요'새.}

10103 @ 그'은'테 예'저'네는 동'네'에서 다: 해'쓰'니'까, 도'라'가'심'므 그'때'에'너 혹'씨 이 상'녀'계'나 이'러'ng 건 업'서'썸'미'까? {그러'나 예'전'에는 동'네'에서 다 했'으니'까, 돌아'가'시'면 그 때'에는 혹'시 이 상'여'계'나 이'러'ng 건은 없'었'었'습니까?}

10103 # 상'여'계'그'이'드 이'서'썸'용. {상'여'계'도 있'었'었'지요.}

10103 @ ㄲ'어 상'녀'계'에 대'해'서 함'분 이야'길 해. {그 상'여'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103 # 예:, 상'여'계'라 그'능 거'는 인제' 우리 동'네' 사'는' 사'러'므'로'썸'능, 거'젠, 상'여'계'는 머' 어, 어, 아이, 아'인, 때'금, 머 타'성'도 다: 안, 해'다'~'이 다: 텐'다'꼬, 그'계'요. {예, 상'여'계'라 그'러'는 것은 인제 우리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거'기'에는, 상'여'계'는 뭐 어, 어, 어, 그, 뭐 타'성'도 다 안, 해'당'이 다 된'다'고, 그'계'요.}

10103 # 머'우 그'은' 머 자'기가 비'용 내 가'주 하'능 이'게'네, 계:를' 모'을 때'능 계:그'를 거'출'해 가'주'고 그'거'또 늘:구'키'도 하, 하'고, 또' 협'쪼'도 바'끼'도 하'고, 해'래 저 상'포'계'라 그'르, 상'이'계'가 아'이'거'이. {뭐 그'것'은 뭐 자'기가 비'용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계:를 모'을 때'는 계'금'을 거'출'해 가'지고 그'것'도 늘'이'기도 하, 하'고, 또 협'조'도 받'기

도 하고, 해서 저 상포계라 그래, 상여계가 아니고.}

10103 # 꼬 엔:날' 상포'계러 그림미거. {그 옛날에는 상포계라 그랬습니다.}

10103 # 상포'계러 근:테, 꼬, 그'룽 계를 마'아 가'주 인제' 머 어, 참 상'을 다'하다은지으, 부모에 상'을 당'한다은지 머', 형'제 가'이라든지여 머, 어'데 머' 대소'가에 상'을 당하 '든 톱' 부'조도 하'는 수도 나오'고, 또' 거'게서 또우 그 사'러를 은, 사이'계'에서 저 사'러미 상'을 다해씨이께네 군새'까에 참' 쪼끔 응, 어'려으이긴네 보태' 주'규도 여여, 찬:조'도 내 주'고 참 으음, 찬:조'가 아'이래 부이'제 그리웁, 부이'도 내 주'고 그, 그' 룽 계:가 상포'계랑 계 동:네'에 다: 이'씨씨에, 글'때느. {상포계라 그러는데, 그, 그런 계를 모아 가지고 인제 뭐 어, 참 상을 당했다든지, 부모의 상을 당했다든지 뭐, 형제 간이라든지 뭐, 어디 뭐 대소간에 상을 당하면 또 부조도 하는 수도 나오고, 또 거기 에서 또 그 사람을 어, 상여계에서 저 사람이 상을 당했으니까 궁색하니 참 조금 어, 어려우니까 보태 주기도 어, 찬조도 내 주고 참 어, 찬조가 아니고 부의지 그러니까, 부의도 내 주고 그, 그런 계가 상포계라는 게 동네에 다 있었어요, 그때는.}

10103 @ 요즈'든 상포'계느 업'씨저썸미까? {요즘은 상포계는 없어졌습니까?}

10103 # 요쎌' 머: 상포'계가 여'계느 업'씨여, 누'가 상포'계 할 사'럼도 업, 어:꼬'요, 또 인 제'능 계:원 머어듬 모'을 사'럼도 어:꼬'요. {요새는 뭐 상포계가 여기에는 없어요, 누 가 상포계 할 사람도 업, 업고요, 또 인제 계원 뭐 모을 사람도 업고요.}

10103 @ 연'세드리 마능 \*\*\*? {연세들이 많이 \*\*\*?}

10103 # 예:, 연'세도 망:코' 또 인제'능 머 그'르코 또 절'든 사'암드 마카 객'찌'이 가: 이' 꼬. {예, 연세도 많고 또 인제는 뭐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은 모두 객지에 가 있고.}

10103 @ 그'어르 혹'씨 인제' 상포'계고, 혹'씨 머: 인제' 예정:네'느, 그거 어'르신 절'머쥔 때'에너 자녀들 혼'신'키이 위해'서 혼'게 이'령 거또 드'러썸미까? {그러면 혹시 인 제 상포'계고, 혹시 뭐 인제 예전에는, 그것 어르신 젊었을 때에는 자녀들을 혼'인'시키 기 위해'서 혼'인'계 이런 것도 들었습니까?}

10103 # 호:닝'계는 엔:나'른 이'씨언지 모를두어이 요주안'뉴, 우리' 철'하'곤능느 업'서쥔. {혼'인'계는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에는, 우리 철'에는 없었지.}

10103 # 업'씨'쓰 께'테이더, 그 호'닝'계러 그능 거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혼'인'계라 그러는 것은.}

10103 @ 그'암'머 혹'씨 인자' 아까' 이야기'하'션는디 그'암'미 상포'계나 동'갑'계에, 그'룽 거, 혹'씨 그'람'머 여'기느 의성 김'씨 집'썸초느이기 때무래:', 혹'씨 의성 김'씨들끼리 모이 '능 머 화'수'계나 이'령 거느 이'서썸미까? {그러면 혹시 인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러면 상포'계나 동'갑'계, 그런 것, 혹시 그러면은 여기는 의성 김'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혹시 의성 김'씨들끼리 모이는 뭐 화'수'계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10103 # 이'썸'나'다. {있습니다.}

10103 @ 그거'느 어'뜨에? {그것은 어떻게?}

10103 # 어:, 진, 처'에게 지'금'도 화'수'웨라 그'룽 거너 으성' 강'가'들끼리 모'이느 화'수'웨간 따로 이'꼬, 또: 여' 우, 우리' 이, 으, 여 저: 얼, 가'튼 으성 강'가'라도 멀:리' 떠'러진 데'더 이'꼬, 한, 한 종'파'허아 아:인' 파'간 또 이'꼬더. {어, 지, 저기 지금도 화'수'회'라 그러는 것은 의성 김'가'들끼리 모이는 화'수'회가 따로 있고, 또 여기 우, 우리 이, 어, 여기 저 어, 같은 의성 김'가'라도 멀리 떨어진 데도 있고, 한, 한 종'파'가 아닌 파'가 또 있거든.}

- 10103 # 그'른 데는 요: 우리' 도니'게라 그'룽 걸 또: 마'아 가'주 이'써용. {그런 데는 요 우리 돈의게라 그러는 것을 또 모아 가지고 있어요.}
- 10103 # 우리' 동네'러 말'할 꺼 텀, 여 머 도니'게러 건'능 거'눔 이: 으, 즈, 쯔아, 머 으, 두터울 도' 짜드, 에로울 위' 짜, 그으 도니'기, 뜨'스 짐, 머 꼬 가'따고 인제', 그 도니'게라 그'래요. {우리 동네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뭐 돈의게라 그러는 것은 이 어, 저, 저 뭐 어, 도타울 돈 자, 의로울 의 자, 그 돈의, 뜻은 저, 뭐 그 같다고 인제, 그 돈의게라고 그래요.}
- 10103 # 꼬, 그'룽 게:를 마'아 가'주오 초보'게에 짜, 중보'게암 하'내 한' 철씨 그 중보'게 모'에 가'주 개:를' 자'바 가'주요, 이, 예, 기, 개:를' 자'바 가'주고 으, 그 동네끼'리 모:에' 가'주움 머'꼬, 엉, 그 노오'고, 거'른 응, 게:가 인니'더요. {그, 그런 게를 모아 가지고 초복에 저, 중복에 한 해 한 철씩 그 중복에 모여 가지고 개를 잡아 가지고, 이, 어, 개, 개를 잡아 가지고 어, 그 동네끼리 모여 가지고 먹고, 어, 그 놀고, 그런 어, 게가 있어요.}
- 10103 # 우리'느 황저'니러 근: 동:네하'꼬으 우리' 동네하'꼬 가치 마'아가 진니더. {우리는 황전이라고 그러는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같이 모아서 지내요.}
- 10103 # 여' 황저'니라고, 요: 우'에 가다 보'므, 안동'으녀 사안, 나가또 오'른 요' 어, 포저'리 지나 가'주어 가다 명 응, 그'으 공옥 단'지 이'찌 안통'겨, 그예, 코, 꼬, 고: 아'폐 게아지'비 만치 안팅'겨, 고 동네'가 황저'니러 그랜니'더, 검. {여기 황전이라고, 요 위에 가다 보면, 안동 산, 나가다 보면 요기 어, 포저리를 지나 가지고 가다 보면 어, 그 공업단지 있지 않던가요, 거기에, 그, 그, 그 앞에 기와집이 많지 않던가요, 그 동네가 황전리라 그랬어요, 거기.}
- 10103 # 그' 동네'도 으:성 강가씨'더. {그 동네도 의성 김가예요.}
- 10103 # 거'게 예:, 그, 그' 동네하'꼬 으성 강가'들끼리 우리'가 인제' 옌:나'레 어른'드리 쯔, 도니'라 겔 거'이, 뜨'시 뚜텃떠'락 한'다그 도니'게라 건'능 게:를 맵그'르떼, 하, 하'머 수:십' 으우, 커게 하'맵 띄' 오'래데, 수백' 년 덴'는 그 유래'를 지'궁까지두 내'리와서 음, 내'리와요. {거기 예, 그, 그 동네하고 의성 김가들끼리 우리가 인제 옛날에 어른들이 저, 돈의라 그런 것이, 뜻을 두텃게 한다고 돈의라 그러는 게를 만들어서, 별, 별써 수십 어, 그것이 별써 띄 오래돼, 수백 년 된 그 유래를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음, 내려와요.}
- 10103 # 응어, 맵: 금녀'에도 인제' 줌복', 금년' 주, 중보'젠 맵: 이이, 으, 게:를' 병가'라 감, 금녀'네눔 바'러미썬 하면' 내이'네는 저'어서 하'고, 이래' 병가'라감 마 하'는데, 올'개드 맵: 함'니다, 그건. {어, 역시 금녀에도 인제 중복, 금년 중복, 중복에는 역시 이, 이, 게를 번갈아 가면서, 금년에는 "바러미"에서 하면 내년에는 거기에서 하고, 이래 번갈아 가면서 뭐 하는데, 올해도 역시 합니다, 그것은.}
- 10103 # 도니'게라 그'능 거'느. {돈의게라 그러는 것은.}
- 10103 @ 도니'게가 이'꼬, 예, 머 혹씨: 머 다른'른: 게:느' 머 송계'나 이'룽 건 어:폼 머 그 이 여기는? {돈의게가 있고, 예, 뭐 혹시 뭐 다른 계는 뭐 송계나 이런 것은 없고 뭐 그 여기는?}
- 10103 # 숄, 송'계라 그'능 게 인, 이'싸썬요. {송, 송계라 그러는 게 있, 있었어요.}
- 10103 # 송'계라 그'으능 게 이 사'늘 팔리한 게'그더요. {송계라 그러는 게 이 산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 10103 # 이', 이 사'니 점'부 우, 우리' 으성 강가'들 소유'루 데 이'썌요. {이, 이 산이 전부 우, 우리 의성 김가들 소유로 돼 있어요.}
- 10103 # 흐레 가'주 이, 썌, 이, 이, 케 사, 어, 이, 그 참 상', 이 산' 어이, 꺼 산계'예를 따' 아 가'주 이'썌데, 요지가'네 와'선으 중 고'마 해'이해져 뿌래썌요. {그래 가지고 이, 저, 이, 이, 그 산, 어, 이, 그 참 산, 이 산 어, 그 산계를 모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좀 그만 해이해져 버렸어요.}
- 10103 # 그더이 그점 머'야, 맹 은, 소:유'는 앵에읍, 으이, 강가'들 소유'이께네 그금 머 여, 이 계:가' 머 피료 이젠'나, 이'른 시규를 데 가주썌며 음, 참, 음, 음, 머 유:명무'썌라이 데 이썌, 이젠뇨. {그러니 그것 뭐야, 역시 어, 소유는 어, 어, 김가들 소유니까 그것 뭐 여기, 이 계가 뭐 필요 있겠나,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음, 참 음, 음, 뭐 유명 무실하게 돼 있어, 이제는요.}
- 10103 @ 어, 예저'네느 그람'마? {어, 예전에는 그러면?}
- 10103 # 예, 이, 이깁' 이'썌썌요. {예, 있, 있기는 있었어요.}
- 10103 @ 예저'네 그'음 그 계, 프 송:게 하'며늘 머 어떻 법, 머: 함미까? {예전에 그러면 그 계, 뭐 송계를 하면은 뭐 어떤 것, 뭐 합니까?}
- 10103 # 그 인제' 송:계를 하'기 텨먼 동네'서 인제' 이, 엔:나'레는 낭'기 귀해'짚니겨, 그 나무 사'네 가'서 엄, 땀, 무, 왓, 맘: 데'르 몬 다억, 가'서 인제' 동:네끼'림느 쏘매 그 인느 지여'글 룡'기 가'주우 마'래, 요만느 산'느, 요게' 산똥'그어레 그먼, 마나'엡 배' 코러 금, 요 사'늘 백' 개르 쪼갈'라 가'즈으 마'리야, 요거'는 나:가' 해 떼'에라, 요'젠 내가' 해 따르수음, 나무'드 그'룡 거 은지' 예:도 이'썌썌. {그 인제 송계를 하게 되면 동네에서 인제 이, 옛날에는 나무가 귀했잖아요, 그 남의 산에 가서 어, 뭐, 뭐, 어, 마음대로 못 하고, 가서 인제 동네끼리 조금 그 인제 지역을 나눠 가지고 말이야, 요만한 산을, 요게 산등성이 그러면, 만약에 백 호라 그러면, 요 산을 백 개로 갈라 가지고 말이야, 요것은 네가 해 때라, 요것은 내가 해 때겠다, 나무도 그런 것 이제 예도 있었고.}
- 10103 # 또' 그'을 카'구 그어서 인제' 머 도:니' 생'점 머 흑: 그'은 머 기 개'가늘 한:다'든 지 인자' 마'레여, 엔:나'렌느, 요주'뭉 머 어'데 토'지가 무능' 게 만:치'만 떼 태, 해방 전'후에 해 가주'우넌 사'늘 개간하'능 게 마내꺼'드요.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인제 뭐 돈이 생겨서 뭐 흑 그 뭐 그 개간을 한다든지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어디 토지가 묵는 게 많지만 몇 해, 해방 전후에 해 가지고는 산을 개간하는 게 많았거든요.}
- 10103 # 그'래 산비'안비'싸이 개간해' 가'주우 머'으멍 거'게두 인제' 도'질 머 싸'리 머오 방 가'미임 방 가'마, 항, 바'다 가'주우 이결' 늘가' 가'즈으 또 계운'들끼리 머 쓰'기도 하'고, 이'른 네도 더'러 이'꼬, 그'랜니더, 우게, 그께'에라등가. {그래 산비탈을 개간해 가지고 먹으면 거기에도 인제 도지를 뭐 쌀이 뭐 반 가마니면 반 가마, 한, 받아 가지고 이것을 늘려 가지고 또 계원들끼리 뭐 쓰기도 하고, 이런 예도 더러 있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 10103 @ 그어 요즘' 하'이튼 그'렷 계:가 머 별'로? {그 요즘 하여튼 그런 계가 뭐 별로?}
- 10103 # 별로' 엡:썌', 이'으게. {별로 없어, 이게.}
- 10103 # 이끼'는 음, 이'썌더 지'그뭉 머 우:명무'썌라이 데' 이'썌요. {있기는 음, 있어도 지금은 뭐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요.}

10103 @ 그'르치야? {그렇지요?}

10103 # 예. {예.}

10103 @ 이음 머 거'이 요주'업먼 머 유명무'실하고 머' 거'이야말로 어, 다름 거'는 거'이  
어:꼬 인제'는 화'수계 \*\*\*? {이것 뭐 거의 요즘에는 뭐 유명무실하고 뭐 그야말로  
어, 다른 것은 거의 없고 인제는 화수계 \*\*\*?}

10103 # 예예, 화'수계하꼬 도니'게거든. {예, 화수계하고 돈의계거든.}

10103 # 도니'게 거'똥 거'는 우'때 어런'드리 어으, 거 으제 정:해 노'응 게:이께'네 업셀'  
쭈'거 업:썩요. {돈의계 같은 것은 윗대 어른들이 어, 그 인제 정해 놓은 것이니까 없  
앨 수가 없어요.}

10103 # 그'래 가주 사문 내'리오고요. {그래 가지고 사뭇 내려오고요.}

10103 # 화'스헤 하'능, 그으'눔 머 으연, 거'이가 다: 하'능 게고, 그'르티여. {화수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 어, 거의가 다 하는 것이고, 그렇데요.}

10103 @ 머 그으 뻘:고 나'머는 게: 모'이른 별'로 안 한'다, 그'지예? {뭐 그것을 뻘고 나  
면은 게 모임은 별로 안 한다, 그렇지요?}

10103 # 게: 모'이미 업:찌', 머'어요. {게 모임이 없지, 뭐요.}

10103 # 동니' 드'러 모'에 바:야 머, 머, 초상'이 난'다든지, 일 때'는 인제' 초상'찌'벙에 문'  
상을 가'니까 마'리에요, 글'때 모'도 모'에'고, 머 또 길룡'사 가'네 주로' 마이 모'에고,  
그랙규오. {동네 더러 모여 봐야 뭐, 뭐, 초상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인제 초상집에  
문상을 가니까 말이에요, 그때 모두 모이고, 뭐 또 길룡사 간에 주로 많이 모이고, 그  
랬고.}

10103 # 머' 옴 뚜려탄' 혹' 한'내 한' 찢찌그 동:훼'가 하이그, 동웨'. {뭐 이래 뚜렷한 혹  
한 해 한 철씩 동회를 하거든, 동회.}

10103 # 동훼'를 한' 때, 글'때 모'도 모'에'가 또 머 기탄 업:는 애기'도 하'고. {동회를 할  
때, 그때 모두 모여 가지고 또 뭐 기탄 없는 애기도 하고.}

10104 @ 예:, 어'르신 혹'씨 이 마으'레 다름 마을하'고 쫘 달리:' 머' 문화재 가'통 거 이썸  
미'까? {예, 어르신 혹시 이 마을에 다른 마을하고 쫘 달리 뭐 문화재 같은 것이 있  
습니까?}

10104 # 다른:: 머' 어, 달룡: 게:, 문하'재라 그'능 게, 여: 인제 어. {다른 뭐 어, 다른 게,  
문화재라 그러는 게, 인제 어.}

10104 @ 동네'와 달'리, 무나재? {동네와 달리, 문화재?}

10104 # 어, 집' 꺼'통 거, 이 내'내 어, 그 구:택', 고태'기 인제' 그 잉 문화재라. {어, 집  
같은 것, 이 내나 어, 그 구택, 고택이 인제 그 이 문화재야.}

10104 @ 마내 \*\*. {만회 \*\*.}

10104 # 만:해' 고택, 예, 그'른 인제' 고태'근 또 이'꼬. {만회 고택, 어, 그런 인제 고택은  
또 있고.}

10104 @ 만해' 고태'어건, 만해' 고태'게 대해'서 함무 이야'기를 해' 주십썩요, 그암머. {만  
회 고택은, 만회 고택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104 # 만:해'라 그'능 게 그 우', 우'때 어르'니 그 어응, 막, 영어, 호텔'름 만해'러 그'러  
저 만해' 고태'기러 근:데, 머' 별: 기 유래'엔 업썩유, 겹. {만회라 그러는 게 그 윗,  
윗대 어른이 그 어, 만, 어, 호를 만회라 그래서 만회 고택이라 그러는데, 뭐 별 그  
유래는 없어요, 그.}

10104 # 그' 양반드 머' 어, 어'테어 김'해 꼬을 사'라쎄. {그 양반도 뭐 어, 어디 김해 고을에 살았지.}

10104 # 예:, 김해 고'을 형:가'므로 가 이또 가'아주 거 태코을 김'해떠이라 그'으고, 또 그 만:해' 고태'기라 그'고, 그 지'븐 만해 고때'기라, 그 우'때 어르' 호:를' 따 가'주 만해 고태'기라 그으'고. {어, 김해 고을 현감으로 가 있어 가지고 그 택호를 김해택이라 그러고, 또 그 만회 고택이라 그러고, 그 집은 만해 고택이라, 그 윗대 어른 호를 따 가지고 만회 고택이라 그러고.}

10104 @ 만해 고택', 그 만훼'야, 그 호를' 머 만' 짜 므슴 만' 짜을 썸'미까? {만회 고택, 그 만회, 그 호를 뭐 만 자를 무슨 만 자를 썸니까?}

10104 @ 느'즐 만' 쩌? {늦을 만 자?}

10104 # 느'즐 만' 짜. {늦을 만 자.}

10104 @ 훼', 훼'는, \* 훼 썸'미까? {회, 회는, \* 회 자입니까?}

10104 # 아, 아, 응, 거, 응, 그믐' 훼 짜. {아, 아, 어, 그, 어, 그믐 회 자.}

10104 @ 그믐'? {그믐?}

10104 # 응허, 무이'실 해' 짜쎄, 그'케 마'이야. {어, 뉘우칠 회 자일세, 그렇게 말'이야.}

10104 @ 예, 뉘으, 그'룽까 느'즐 만' 짜, 뉘우치'느 해' 짜을 썸'능 그'어 마'내? {어, 뉘우, 그러니까 늦을 만 자, 뉘우칠 회 자를 쓴 그 만회?}

10104 # 호 호루, 호. {호, 호야, 호.}

10104 # 호:래' 마'으쎄. {호라는 말이지요.}

10104 @ 혼테', 그 만해쎄, 그'아므 그' 분너 언'제쩍쓰 부, 사'러뎌 부'님'미까? {호인데, 그 만회, 그러면 그 분은 언제 적 분, 살았던 분입니까?}

10104 # 천:칠배 칸' 오륙'십 년' 전돈 데 잔'나 그'래 생가카'능 게'러, 여'어 파'론 할배'미 천칠'배 녀'네 이'팡을 해'쓰이'끼네 천', 천칠, 천칠백오십 년 정'되 안 데'게나, 그'래 보 '응'겨'눔 머 확'셀'치'느 안'해. {천칠백 한 오륙십 년 정도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 것이, 여기 팔오'현 할아버지가 천칠백 년에 입향을 했으니까 천, 천칠, 천칠백오십 년 정도 안 되'겠나, 그'래 보'니까 뭐 확'실'하'지는 않'아.}

10104 # 나'도 확'실'창'고, 모'르'이'끼네. {나도 확'실'하'지 않'고, 모'르'니까.}

10104 # 대'강' 이', 이 양'바'니 이 채'게 어'데 이:이:, 이, 직, 기로'그로 바'선' 천칠'배 녀'네 이'팡을 해'쓰이'끼네 그 만'해' 그' 양'반도 아'매' 천칠'백오'십, 천칠'백사'십, 그'이 정도 안 데'겐'나, 그'래 생'가'감'니다. {대'강' 이, 이 양'반이 이 책'에 어'디 이, 이, 저, 기'록'으 로 바'서는 천칠백 년에 입향을 했으니까 그 만'회 그' 양'반도 아'마 천칠'백오'십, 천칠'백사'십, 그' 정도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10104 # 이'거 으, 그'뽀'보다'뎡 후:예'이'끼네. {이'것 어, 그'분'보'다'는 후'예'이'니까.}

10104 @ 예, 파'로'언 쓰'앵'의 그'암'머'너 후'손'임'미까, 만'래' 쓰'애'잉'께? {예, 팔오'현 선'생'님 의 그'러'면'은 후'손'이'니까, 만'회 선'생'님'께'서?}

10104 # 후'소'이'지'여, 그'게'. {후'손'이'지요, 그'래.}

10104 @ 그'래'슨 그, 그'읍, 거'우 고:, 고'태'기 지'곰 화'에'뎌 여: 이'따, 그'지'예? {그'래'서 그, 그, 그 고, 고'택'이 지'금 하'여'튼 여'기 있'다, 그'렇'지요?}

10104 # 예, 예, 만'해 고'태'기'여. {예, 예, 만'회 고'택'이'요.}

10104 @ 만'해 고'택 이'꼬, 그'다'열'혹'씨' 여'기'에 머 그'거 만'해 고'탕 말:고' 또 다'른 머 고'태'기 이'썸'미'까? {만'회 고'택 있'고, 그'다'음'에 혹'시 여'기'에 뭐 그'것 만'회 고'택 말'고 또

다른 뭐 고택이 있습니까?}

10104 # 만해'암, 마, 만네'아. {많아, 많아, 많아요.}

10104 @ 어'트게, 언, 어'땡 게 이썸미'까, 만해 고택 말:고'너? {어떻게, 어, 어떤 게 있습니까, 만해 고택 말고는?}

10104 # 음'적띠기 금 프'승 고태'기지, 그'어가. {음적택 거기가 무슨 고택이지, 거기가?}

10104 # 이기 으, 기어'기 잘: 안 나, 이으 자'끄 이'저 빠르 싸'안테. {이게 어, 기억이 잘 안 나, 이 자꾸 잊어 버려서.}

10104 # 나모' 고택', 아:, 으, 음, 나모', 그 응, 나모'라 그'능 겹 딸: 가'주 나모'러 그'제, 근 나는. {남호 고택, 아, 어, 음, 남호, 그 응, 남호라 그러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남호라 그러지, 그 남호는.}

10104 # 그'래 어응, 어으, 언, 켜, 이 짐 문화재'는 마네아. {그래 어, 어, 어, 저, 이 짐 문화재는 많아.}

10104 # 그', 그'르꼬 지, 짐: 문화'재로능 크, 그'르꼬, 여'게 옥, 우리' 여 저어, 저, 켜 신, 언, 제:사' 지내'엔 데'는 여 인제' 이 향:사'털 어, 즈, 제살' 처낸 리 요'게 바로' 요, 요 추'원사, 여'게서 인제', 인제' 거 야, 향:사'를 우, 우리'가 어, 춘'하 켜 열, 아, 아 언, 저, 어, 어, 봄 가'을로 지'내능 게 향:사'라 그'능 이 여'게 이, 여'여서 지내'미가. {그, 그렇고 짐, 짐 문화재로는 그렇고, 여기에 우, 우리 여기 저, 저, 저 신, 어, 제사 지내는 데는 여기 인제 이 향사를 어, 제, 제사를 지내는 데가 요기에 바로 요기, 요기 추원사, 여기에서 인제, 인제 그 어, 향사를 우, 우리가 어, 춘하 저 어, 아, 아, 저, 어, 어, 봄 가을로 지내는 게 향사라 그러는 게 여기에 이, 여기에서 지냅니다.}

10104 # 그'게 하나 이'꼬으, 그'체이, 그'겨. {그'게 하나 있고, 그렇지요, 그'게.}

10104 @ 그'어 봄가'을로 향사: 지'내능 거'기느 어디 제'실립미'까? {그 봄 가을로 향사 지내는 거기는 어디 제실입니까?}

10104 # 예:, 요'게 제'실 데'고, 요'거 언제' 추'원사라 그'고, 그'러이더. {예, 요'게 제실 되고, 요'것 인제 추원사라 그러고, 그러니다.}

10104 @ 그'암 봄 가'을로 인제'어, 보'멘 언제'어'엔? {그러면 봄 가을로 인제, 봄에는 언제?}

10104 # 엔'나'렌 봄 가'으'레 지'내'데이, 요즘' 한' 생, 한' 십 년' 음, 덜: 떼'가 한 칠'팔'런' 데'에 가'주고 제:관'드리 마'카 객'찌이 가: 이'꼬, 이 제'과' 참석'카'이가 예'로와 가'주 한'내 한' 칠'씨 지'내'기레 한'네, 고'마. {옛날에는 봄 가을에 지냈는데, 요즘 한 십, 한 십 년 음, 덜 되어서 한 칠'팔'년 돼 가지고 제'관'들이 모두 객'지에 가 있고, 이 제'사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 해 한 칠'씩 지'내'기로 했어, 그만.}

10104 # 으으, 어, 보'메 으, 보'메 고'마 사: 월'따레 겹'머 세'째 주'이'룽가, 으, 그'래 곱'마 제'사'을 으, 그, 향'사'을 지'내'기로 해 가'주'고 예, 웨:지'에 인'는' 자'손'들'또 머 모'두 참'서'카'우, 그'래 이 하'내 한' 칠'씩만 지'내'기로 데'한'니드, 그'애. {어, 어, 봄에 어, 봄에 그만 사'월에 그만 셋'째 주'일'인가, 어, 그'래 그만 제'사를 어, 그, 향'사를 지'내'기로 해 가지고 어, 외'지에 있는 자'손'들도 뭐 모두 참'석'하고, 그'래 이 한 해 한 칠'씩만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

10104 @ 그'암'마 여기 그 보'메 인제' 향'사'늬 보'메 한' 칠'만, 예'저'네'너 가'을'에도 지'낸'는데? {그러면 여기 그 봄에 이제 향'사는 봄에 한 칠'만, 예'전'에는 가'을'에도 지'낸'는데?}



10104 # 예, 언, 예, 예, 으, 예예, 예, 뽕, 가을', 보'므어 다: 지'낸데, 요샌 한, 한 철씩 지 내기 데고. {예, 어, 예, 예, 어, 예, 예, 봄, 가을, 봄으로 다 지냈는데, 요새는 한, 한 철씩 지내게 되고.}

10104 @ 요즈'으른 그람'며느 한' 철마 지'내고, 그다'으메 저:기' 그어: 으, 한 철 지'내고, 그 다'으메 어, 요즘' 가으'레능 그'러며 시'사 지'내능? {요즘은 그러면은 한 철만 지 내고, 그다음에 저기 그 어, 한 철 지내고, 그다음에 어, 요즘 가을에는 그러면 시사 를 지내는?}

10104 # 시'사는. {시사는.}

10104 @ \*\* 산'소에 가서? {\*\* 산소에 가서?}

10104 # 어, 산'소에 가' 지'내응 게, 예. {어,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게, 예.}

10104 @ 가, 가서 이제 시'사는 따'로 지내'고 그'러치예? {가, 가서 이제 시사는 따로 지 내고 그렇지요?}

10104 # 예, 예, 따'로 지'내고, 예. {예, 예, 따로 지내고, 예.}

10104 # 여'게 인제' 추'원사에 모:시'는 은, 니 양반'들, 이, 이, 임, 뭉, 어, 양바' 아'이러 모신'느 어른'드리 세 부'널 모시'구 이'썸, 여게여. {여기 인제 추원사에 모시는 어, 이 양반들, 이, 이, 이, 뭉, 어, 양반이 아니라 모시는 어른들이 세 분을 모시고 있어, 여기예요.}

10104 @ 예, 하문 이야길 해 주십씨요, 그암머? {예,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 면?}

10104 # 추'원사에? {추원사요?}

10104 @ 어, 예. {어, 예.}

10104 # 아아, 그, 그 웹, 예, 처'째 이 주봉고~'이고, 고다'으메 처'뉴당공이고, 고다'으 학 쟁고'이고, 고래 인제' 세: 부'늘 여'게 추'원사에 음, 모:시'고 은제 으예, 어, 보'메 향 사'를 지내'인더, 모시'느 분'드롱 그'래 세: 부'늘 모시'고 인니'더, 그이. {아, 그, 그 왜, 예, 첫째 이 주봉공이고, 그다음에 천유당공이고, 그다음 학정공이고, 그래 인제 세 분을 여기에 추원사에 음, 모시고 인제 어, 어, 봄에 향사를 지내는데, 모시는 분 들은 그렇게 세 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

10104 @ 그 세 분'드른 어'트케이 머 어'데 벼'스를 하'셔쑈느 부'님니까, 앙 그'럼 웹: 세 부'늘 모십니까? {그 세 분들은 어떻게 뭐 어디 벼슬을 하셨던 분입니까, 안 그러면 왜 세 분을 모십니까?}

10104 @ 여 이'광조느 암 모시고? {여기 입향조는 안 모시고?}

10104 # 그'래, 뻘, 벼'슬또 하'시썸. {그래, 벼, 벼슬도 하셨지.}

10104 # 벼으, 벼으, 주봉고~'이라 군'홍 거, 예. {벼, 벼슬, 주봉공이라 그러는 것, 예.}

10104 # 그 얘:길' 하'모 할쩍 업. {그 이야기를 하면 한정 없어.}

10104 @ 이' 마'으레 혹'씨 그거 특'삼물 가'통 거 이'썸니까? {이 마을에 혹시 그것 특산물 같은 것 있습니까?}

10104 # 으? {어?}

10104 @ 특'삼'물? {특산물?}

10104 @ 쫌 머 농'삼'물? {쫌 뭐 종산물?}

10104 # 농'삼'무'리 마'르지예? {농산물 말이지요?}

10104 @ 예', 특'뻘리 쫌 \*? {예, 특별히 쫌 \*?}

10104 # 머어, 특퍼, 업:싸'요. {뭐, 특별, 없어요.}

10104 @ 특빨항 걸, 네? {특별한 것, 예?}

10104 # 어아, 특빠래 거 업능기더, 여. {어, 특별한 것 없어요, 여기.}

10104 @ 업 머 특빨하'기 재배하'능 그'나 그렇 거'느 예전'네? {여기 뭐 특별하게 재배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예전에?}

10104 # 어으 ,업썬, 주:로' 고'마이 여'언 논농'사거 반농'사, 고'마으 머. {어, 없어, 주로 그만 여기는 논농사고 밭농사, 그만 뭐.}

10104 @ 특빨하'게? {특별하게?}

10104 # 어이, 감자', 옥썬'수, 머 어'데아 어역, 머여, 거 콩', 그'룽 게고 나'라이그, 나라기요. {어, 감자, 옥수수, 뭐 어디 어, 뭐야, 그 콩, 그런 것이고 벼, 벼고.}

10104 @ 특빨항' 건 업따, 그'지예? {특별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10104 # 예:, 특'빨항 걸 업썬머. {예, 특별한 것은 없어요.}

10105 @ 지'곰 인젠' 마으'레 특'삼물 가'통 거, 문화재', 이'렇 거 이야기해 주'션는데:, 그'으 예저'네 어르'시니 어'릴슬 때하'고 지'금 어르'시 인제' 연'세 마너'으신 지'금하'고 비교하'며넌 연'날:' 이 마을하'고 지'금 이 마을하'고는 좀 마니' 달'라져찌야? {지금 인제 마을의 특산물 같은 것, 문화재, 이런 것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어 예전에 어르신이 어렸을 때하고 지금 어르신 인제 연세가 많으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옛날 이 마을하고 지금 이 마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지요?}

10105 # 마'이 달'라져찌요, 무. {많이 달라졌지요, 뭐.}

10105 # 마'이 다을썬, 고'마 거기. {많이 다르지요, 고만 그것이다.}

10105 @ 그'암맘 머, 그'업 어떤' 시'그로 달라전'는지 함분 썬' 이야기해 주'이소. {그러면 뭐, 그럼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한 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10105 # 글'세' 글 달라. {글'세 그 달라진.}

10105 @ 머 마으'리, 마을', 마으'리 그'업 머 아까' 이야기해썬미다마'너, 어르'신 어'려썬 때 에 그 성씨들또' 머 그'때 의성 김'씨들드리 더: 마니' 사'라서썬 께 따고 이야'기 아 해'쓰미꺼, \*\*? {뭐 마을이, 마을, 마을이 그럼 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르신 어렸을 때 어 그 성씨들도 뭐 그'때 의성 김'씨들이 더 많이 살았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

10105 # 예. {예.}

10105 @ 그'러트시 머' 썬' 바뀐'넝 기 이'따며 어'뎡 게 바뀐'는지 함' 이야'길 해 주'십씨요. {그렇듯이 뭐 좀 바뀐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105 # 글'세 그 박꾸'웅 게'라 그'룽 게 머 보편'썬그로 이야'길 한'다 그 거'트면 우리'각 클 때'는 여 참' 노:는' 지'비 마넌'니더. {글'세 그 바뀐 것이라 그러는 게 뭐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클 때는 여기 참 노는 집이 많았습니다.}

10105 # 놀러' 머 사랑'도 조코' 마'리도 조코' 사'람 점'부 놀러' 다, 우리' 머 여' 끼'리끼'리 모'여 가'주 고 델 동'대끼리 마'리여, 동'대라 그'웅 건 나이' 비스탄' 사랑'끼리, 모'에 가'썬 머 밤'나'즈로 모'에' 노기'도 하'구 그'랜데, 요'새'는 이'점 업 모'도 고 고'마일 지'점' 썬'서네 나가 가'주, 객'찌'이 나아 가'주고 마'콧'떼음 머 인'는 나가~'이'께네 인제'는 놀: 떼'가 업'썬'유, 우리'는, 허'이'구, 우리 또'래는, 은, 연:날' 때'면. {놀러 뭐 사랑도 좋고 마루도 좋고 사람들 전부 놀러 다, 우리 뭐 여기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고기

저 동년배 끼리 말이야, 동년배라고 그러는 것은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뭐 밤낮으로 모여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것 어 모두 그 고만 직업 전선에 나가 가지고, 객지에 나가 가지고 모두 뭐 이래 나가니까 인제는 놀 데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고, 우리 또래는, 어, 옛날에 대면.}

10105 # 이 지'그메도, 우리' 나'에도 이래' 머 모엠' 너대빠'께 어꼬' 모에' 놀: 떼'도 어꼬', 또 예히, 옛날'거친 그 어'네 지'베 가'서, 머 어연 가 가주우 맘: 노'코 머 어 폭: 쉬: 고' 할' 지'비 업:서'요, 노기'도 맘:대'로 노오'고. {이 지금도, 우리 나이에 또래 뭐 모이면 네댓밖에 없고 모여서 놀 데도 없고, 또 옛, 옛날같이 그 어느 집에 가서, 뭐 어 가 가지고 마음 놓고 뭐 어 폭 쉬고 할 집이 없어요, 놀기도 마음대로 놀고.}

10105 # 으 그'릉 거또오 또 마이' 달'라져꼬, 또 달'라징 거'슨 옛날' 대'른 사기'는 조아져' 켜요. {어 그런 것도 또 많이 달라졌고, 또 달라진 것은 옛날에 대면 살기는 좋아졌지요.}

10105 # 멍, 멍능' 게'이 기'롭나, 여썸 머 고'길 시'라거는 세사'이끼네 마'래요. {먹, 먹는 게 괴롭나, 요새는 뭐 고기를 싫어하는 세상이니까 말이에요.}

10105 # 근네 하'때 옛날'래는 노다' 보'몽 그 지'베서, 쪼끔' 잘'사는 지'베서 마'라, 머 정시 '물 한' 때 내온'뜯는 저녁'글 한' 때 내'온너, 그 잠 언 잘: 머'꼬 잘: 노다'도 나'완테, 요샌'느 그'릉 거또 어:꼬' 워 그거'또 인제' 이금 트 업서'져 뿌'래꼬, 또: 엠'배 가'넌 모'에 놀 장'서독 업서'져'꼬, 황:경'은 조아져'쓴 하'테 지금 생'할 황경'은 옛날'마 모태' 저따꼬 바요. {그런데 하여간 옛날에는 놀다 보면 그 집에서, 조금 잘사는 집에서 말 이야, 뭐 점심을 한 때 내온다든지 저녁을 한 때 내온다든지, 그 참 어 잘 먹고 잘 놀다가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 거도 없고 뭐 그것도 인제 이것 뭐 없어져 버렸고, 또 연배 간에 모여서 놀 장소도 없어졌고, 환경은 좋아졌지만 어디 지금 생활 환경은 옛날만 못해졌다고 봐요.}

10105 # 웨 그'르냐, 마음 노'코 모에' 가유 좀 머 욱'또 하'고 마어찌, 머 썸:도 하'고 헤 이, 이'를 때'덕 일, 이쌍 게, 그공 양' 그'러케썸미까? {왜 그러냐, 마음 놓고 모여 가지고 좀 뭐 욱도 하고 말이지, 뭐 싸움도 하고 허 이, 이럴 때도 있,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10105 # 짜근 너게, 절'물 때 모여' 노'움, 양, 아'아들 때 마'라 니: 오'르이 내 오라 함세 떠, 요샌' 그'른 세대'도이쓰 지나가 뿌'래꼬, 그'릉 거'에 으에 대'른 영: 모탕' 꼬꼬, 사:는' 황경'은 조'아져꼬, 그'르치, 머용. {작을 때에, 젊을 때 모여 놀면, 아, 아이들 때 말이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도, 요새는 그런 세대도 지나가 버렸고, 그런 것에 이래 대면 영 못한 것 같고, 사는 환경은 좋아졌고, 그렇지, 뭐요.}

10105 # 잘 머'꼬 잘' 사이께네 마알가. {잘 먹고 살 사니까 말이야.}

10105 @ 그'엠'머느 그:: 혹시' 인제' 아까' 거 이야기를 쪼금'머 하'션는데, 성씨:'별로 본'다 머너 어르'신 어'려슬 때'에넌 의성 김'씨드리 훨심' 마나썸미까, 지금보'다넌? {그러면 은 그 혹시 인제 아까 그 이야기를 조금은 하셨는데, 성씨별로 본다면은 어르신 어렸을 때에는 의성 김씨들이 훨씬 많았습니까, 지금보다는?}

10105 # 예, 마내'씨여, 글'때 대'엠노. {예, 많았지요, 그때 대면요.}

10105 @ 그'땐 한' 어느 정도 대'썸미까? {그때는 한 어느 정도 났습니까?}

10105 # 글'때 때거 사람' 수짜'로 바 가주거여? {그때에 대어서 사람 숫자로 봐 가지고요?}

10105 @ 어예. {예.}

10105 # 사람' 수짜'루 보'어똥 한 육십 사십 뽐' 데 께'레요. {사람 숫자로 보면 한 육십 대 사십으로 보면 될 거예요.}

10105 @ 한' 늑셋 포' 가구 이'서뜨, 이'서꼬? {한 육십 호 가구 있었, 있었꼬?}

10105 # 어, 야예, 예, 예, 사시' 포는 타'성이고. {어, 예, 예, 예, 사십 호는 타성이고.}

10105 @ 그'런데 여즈 음제 꺼꾸로' 대'애따, 그'지예? {그런데 요즘 인제 거꾸로 되었다, 그렇지요?}

10105 # 예, 거 꺼꾸'로 바께' 덴 세'미지요, 머이. {예, 그 거꾸로 바뀌게 된 셈이지요, 뭐.}

10105 # 타'성이 그아이 더 만'타구 바예, 지'그문뇨. {타성이 그러니 더 많다고 봐요, 지금은요.}

10105 @ 어:, 그다'음메 혹'씨 그 인제' 성씨: 구성'으로 바'서느 의성 김'씨가 더 저'거져꼬, 예, 인제' 타성바'지가 더 마'나져꼬, 혹'씨 무 풍'습 까'통 거또 엔나'레 비'해서 요즘 바깥' 게 좀 이'쌔미'까? {어, 그다음에 혹시 그 인제 성씨 구성으로 봐서는 의성 김씨가 더 적어졌고, 예, 인제 타성바지가 더 많아졌고, 혹시 뭐 풍습 같은 것도 옛날에 비해서 요즘 바뀐 게 좀 있습니까?}

10105 # 풍:스'비 엔:날' 때'음 마이 바께져'따꼬 보'제요. {풍습이 옛날에 대면 많이 바뀌어졌다고 보지요.}

10105 # 엔나'레는 우리게이 머'으 거'러서 마'알시디, 이래 나선' 장' 거'튼 데, 시내 가'암 말'시디, 올'리 이래' 서게 나가다' 봄' 마제, 미췌, 아눔, 아무꺼'시 장'에 까'세꼬 마'리이, 부르:기'도 하'고, 또 차자가'서 귀뉴'도 하'고, 이'래 자'아 가'서 뭐 구경'도 하'고, 이'래 이용 거'러 땡'기고 이'게, 일 '때는, 머 중간 중가'이 그으 주, 취, 엔나'릉 주마'기라 그'래엔데, 거 술찌'베 드'아서 땡 모기 마'름 머 마'꼴'리도 한' 잔시 사 머'꼬 서로 일해 내'려오게 해'엔데, 요새'느 그'릉 거또 업'써져 빠'레꼬, 여어 불. {옛날에는 우리끼리 뭐 걸어서 말입니다, 이래 나셔서 시장 같은 데, 시내 가면 말입니다, 오늘 이래 설설 나가다 보면 말이지, 밀에, 아무, 아무개야 장에 가자고 말이지, 부르기도 하고, 또 찾아가서 권유도 하고, 이래 장에 가서 뭐 구경도 하고, 이래 이래 걸어 다니고 이래, 이럴 때는, 뭐 중간 중간에 그 주, 주, 옛날에는 주막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술집에 들어가서 뭐 목이 마르면 뭐 막걸리도 한 잔씩 사 먹고 서로 이래 내려오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고, 여기 불.}

10105 @ 어, 이, 즈 예, 예, 예저'네 여 주'마기 좀 이'쌔쌔미'까? {어, 이, 저 예, 예, 예전에 여기 주막이 좀 있었습니까?}

10105 # 예, 여, 여 우째' 땡 마넨'니데, 여쭙 쪽 올'러가머. {예, 여기, 여기 윗쪽에 좀 많았어요, 요쪽으로 쪽 올라가면.}

10105 # 그'래, 그'른 데 모에' 가즈 참' 정담'도 나누'고 헨'데, 요새'느 차'를 타고 다니이'께네 요: 우'에 사는 사'람, 요 우'에 사온 설, 마카 차'로 다니이'께네여 그이 이 임정'이랑 겐 떠' 부래요. {그래, 그런 데 모여 가지고 참 정담도 나누고 했는데, 요새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요 위에 사는 사람, 요 위에 사는 사람, 모두 차로 다니니까 그이 인정이라는 게 떠 버려요.}

10105 # 위으 사라'미랑 거'느 자'주 숨 접초'기 데'고 마:래'요, 얘기'도 나누'꼬, 머 조:은 얘'기도 하'구 나쁜 얘기' 따어 이, 이래 모에'야 정다'미 나오'고 즈, 쯔, 정'이 가'는

데, 이러 머이 일' 러느 한'두 범 만'내찌 말'째 하'이께네 이 정'이 저거지'구요. {이 사람이란 것은 자주 좀 접촉이 되고 말이에요, 얘기도 나누고,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고 이, 이래 모여야 정답이 나오고 정, 정, 정이 가는데, 이래 뭐 일 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하니까 이 정이 적어지고요.}

10105 # 그 밤며'네 잉감'미도오 점'맘 모태'요. {그 반면에 인간미도 전만 못해요.}

10105 # 고옴른 니'는 네'고 나'는 나'오 고마 그'래 지'내고 또 자'주 모엘' 기'해도 어꼬', 그'래 데드'러꼬. {고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고만 그래 지내고 또 자주 모일 기회도 없고, 그래 되더라고.}

10105 # 그'르기 그거'는 옴날'맘 모태'이. {그러니 그것은 옛날만 못해요.}

10105 # 고어뜰 이야그, 으느이 톡 드라꼬 꼬트머. {그것들 이야기, 어 꼭 들라고 할 것 같 으면.}

10105 @ 그 흑'시 머 농사진'능 거'또 예저네하'고 요'즘 머 품'스비 쯔' 달려져'썸미까? {그 흑시 뭐 농사짓는 것도 예전하고 요즘 뭐 품습이 좀 달라졌습니까?}

10105 # 아이, 마:이 달'라져찌이. {아이고, 많이 달라졌지요.}

10105 # 옴나'레는 이 점'뵈 포마'실 헨'니더. {옛날에는 이 전부 품앗이를 했습니다.}

10105 # 내'가 에이, 예옴, 아이, 입, 이' 지베 가'서 모'를 하러 예, 저, 지, 시'머 주 잔니' 켜? {내가 어, 어, 어, 이, 이 집에 가서 모를 하루 어, 저, 저, 심어 주지 않습니까?}

10105 # 또' 저' 부이 내 지'베 와'썸 시'머 주우, 이릅 포, 푸마'씨로. {또 저 분이 내 집에 와서 심어 주고, 이래 품, 품앗이로.}

10105 # 이'옴, 이' 농'사랑 게'이 옴나'른 소'느로 모'를 시'뜨끼 때므'네 사라'미 한'들 카지 암 트이 여나'암씩 데'이 데'그더. {이, 이 농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손으로 모를 심었 기 때문에 사람이 한들 가지고는 안 되고 여남은씩 되어야 되거든.}

10105 # 그'래 그 이등 모'도 푸'떨 마아' 가'주 한'동네 사느끼'르노 머 이 가조 오'느를 이' 지븨 머 시'머 즈고 저 집 모' 시'머 저고, 그'래 모'도 농'사를 지'인는데, 요새'능 기' 게가 발'팔데 가'주우, 기'게가 조옴 게' 나와 가'주 고'망 개이'니 이, 지, 지:가' 지 해' 해' 뿌래, 마'카요. {그래 이 이래 모두 품을 모아 가지고 한 동네 사람끼리니까 뭐 이래 가지고 오늘 이 집 모 심어 주고 저 집 모 심어 주고, 그래 모두 농사를 지었는데, 요새는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기계가 좋은 것이 나와 가지고 개인이 이, 자기, 자기가 자기 것을 해 버려, 모두가요.}

10105 # 그'르이 농'사도 옴날'고 인제' 확'씨리 달'러져 뿌리뎡 머' 푸마'씨하자 소'리거 업 썸'이. {그러니 농사도 옛날과는 인제 확실히 달라져 버리면서 뭐 품앗이하자는 소리가 없어.}

10105 # 기, 기'계로 해 뿌'이께, 인제 머 고마. {기, 기계로 해 버리니까, 인제 뭐 고만.}

10105 # 지' 기'게 가'주우 또 마, 오이, 지 기'게 옴:는 사'러므 나'무 기'게 하록' 품' 주'고 사 가'주 고마 기'게루 시'머 뿌'이께 웨:부' 사'럽 살 피'루가 어꼬'. {자기 기계 가지고 또 뭐, 어, 자기 기계 없는 사람은 남의 기계를 하루 품을 주고 사 가지고 고만 기계로 심어 버리니까 외부 사람을 살 필요가 없고.}

10105 # 그'래 데 가'즈으, 그걸' 바 가'즈우도 농'사 진:능거'또 옴날' 가찌 이, 이 정'미가 저거'져요. {그래 돼 가지고, 그것을 봐 가지고도 농사짓는 것도 옛날 같지 이, 이 인정'미가 적어져요.}

10105 # 인정'미가 저거'져 뿌'래요. {인정'미가 적어져 버려요.}

10105 # 그'이 보'몬서이 시스마'꿈 하'이께네. {그래 보면서 스스로 하니까.}

10105 # 멍 모에' 가'주 머 얘기하'주 시간'도 어'허꼬. {뭐 모여 가지고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10105 # 허', 그, 그램, 농'사도 마이 변적떼'째윤, 지'금 머. {허, 그, 그래, 봉사도 많이 변질되었지요, 지금 뭐.}

10105 @ 그암' 어'째튼 예저'네느 쪼'곰 이 마으'레 사:는 사'암드리 서로 인정'을 마니 주고바'던는데, 요즘'면 그런 부'분드리 머' 영: 적따', 그'지예? {그러면 어쨌든 예전에는 조금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인정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뭐 영 적다, 그렇지요?}

10105 # 그'르체요. {그렇지요.}

10105 # 적째'예요, 으녀, 작, 그이 사라'미느이랑 건 자'주 모에' 가'주 얘:기를, 대활' 하'고 이'래 나'출 자주 보고 해'야 정'이 나능 게드더요. {적지요, 어, 인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주 모여 가지고 얘기를, 대화를 하고 이래 낫을 자주 보고 해야 정이 나는 것이거든요.}

10105 # 구, 구, 구, 그게' 머'러지이께네 자'연히 고'마 정'도 뜨'고 또: 그'르 쯔, 접'썩 수 썩'더 썩음, 자 썩'꼬 그'래 데드'라꼬요. {그, 그, 그, 그게 멀어지니까 자연히 고만 정도 뜨고 또 그래 접, 접촉 숫자도 잦, 잦지 않고 그래 되더라고요.}

10105 @ 검 그게' 혹'씨 머' 어 예저'넨 글 어 웨부' 사'암드리, 타성바'지가 자꾸' 마니 드러와'서 그'런 영향'도 이썩'미'까, 앙 그림'며년 그그하'움 머 별 광'게 업씨' 인자' 세워'리 바껴' 가'주우 그'러썩'미'까? {그럼 그게 혹시 뭐 어 예전에 그 어 외부 사람들이, 타성바지가 자꾸 많이 들어와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것하고는 뭐 별 관계 없이 이제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그랬습니까?}

10105 # 그'른 광'게는 별'로 업씨'요. {그런 관계는 별로 없어요.}

10105 # 머 타'서이 드온'다 그르 가'주 머 거 정'이 플리'덩데음. {뭐 타성이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뭐 그 정이 떨어지거나.}

10105 # 타'성 역'씨도 그'래요. {타성도 역시 그래요.}

10105 # 여: 두와 가'주 자'기 농, 자'기 일: 하'고 여 똥'어 이 시내' 가'서 머'는 사'러른 고'마 다 엔 자'고 머 시내 가 뿌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자기 논, 자기 일 하고 여기 또 이 시내 가서 머는 사람은 고만 다 어 자고 뭐 시내 가 버리고.}

10105 # 그'르히 또옹'니 사'람하'구 접초'기 잘 안 데'미. {그러니 동네 사람하고 접촉이 잘 안 되고.}

10105 # 예'이 그, 그그른 경야'이지 므 꼬으 머 승, 썩'씨가 달'리 와 가'주우 그'룽 건 업씨'에. {어, 그, 그런 경향이 지 뭐 그 뭐 성, 성씨가 달리 와 가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10201 @ 그다'으메 어: 지'점까지는 주'로 마으'레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꼬, 어 그다'으멘 어르'신네 대'해서 쪼:곰 함분 여'주어 보, \*\*, 바오게'썩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까지는 주로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어 그 다음에는 어르신에 대해서 좀 한 번 여'주어 보, \*\*, 보겠'썩니다.}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예, 예.}

10201 @ 어: 어르신께선 태어나서 지웅까'이 사'러오오신 그'런 내'려게 대'해서 쯔' 이야'길 해 주'십씨오. {어, 어르신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내력에 내대서 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201 @ 혹:시 태'언, 태어난 고'시나, 그다음 나'이나, 띠'나, 이'럼 부'부네 대'해서 함분 이야'길 해 주'십씨여, 어예? {혹시 태어, 태어난 곳이나, 그 다음 나이나, 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201 # 글'세유, 그게', 나:는' 머 능기 나'이 시'방 팔'시비라도 여'게, 성'장을 여'어서 헨' 니더. {글쎄요, 그게, 나이는 뭐 그러니까 나이가 시방 팔십이라도 여기에서, 성장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10201 # 여'어가 아: 참' 출'생지가 여'게고, 또:: 내'가 성'장을 여'어서 해'꼬, 또 이때끔'음 나'이 팔'시빈 데'두룩 머 어, 어여이, 또 여'게를 벨'러 떠나 본' 네가 어:꼬', 그'래 사'러와'꼬. {여기가 아 참 출생지가 여기이고, 또 내가 성장을 여기에서 했고, 또 이때까지 나이 팔십이 되도록 뭐 어, 어, 또 여기를 별로 떠나 본 예가 없고, 그래 살아왔고.}

10201 # 또' 웅으 생'화으랑 게' 그리두 웨 우리게', 내간' 떼어, 여: 머 태'어나긴 태어나'쓰나, 하데 어'릴 때 내마'근 모'르고 여'게 머 저 쪼맨할 찌'는 참' 코릴' 흘'레고 쪼언, 쪼'차덴길 찌'느 서로 머 흘'글 퍼부'어거 장'난도 하'고 마래이, 이'릉 거또 씨'름도 하'고 무어 이른:홍홍 이'히 경'과도 이'서쫘, 그'르고 또 머 그 옌다'르능 고 궁민하'꼬라 그'은능 그 그 쪼매 다'닝 거'또 머 여'선, 옌다'레느 군새'케 찐니겨, 모'두가. {또 어 생활이라는 게 그래도 왜 우리가, 내가 태어, 여기서 뭐 태어나기는 태어났어나, 그렇기는 하되 어릴 때 내막은 모르고 여기에 뭐 저 조그마할 적에는 참 코를 흘리고 쫓아, 쫓아다닐 적에는 서로 뭐 흠을 퍼부어서 장난도 하고 말이야, 이런 것도 씨름도 하고 뭐 이런 이 경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그 옛날에는 고 국민학교라고 그러는 것 그 조금 다닌 것도 뭐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궁색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10201 # 머 식생'활또 쯔' 녁'넉짱'꼬 이'식또 녁'적짱'코, 그'른 황경'에서 그 뜨 이음 머' 인자'라자 하'이께네 아 머 언 올'케 먹'또 모타'고, 어우 바른 성'장도 모'태따고바요. {뭐 식생활도 넉넉지 않고 의식도 넉넉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그 또 이 뭐 이 자라자고 하니까 아 뭐 어 옳게 먹지도 못하고, 어 바른 성장도 못했다고 봐요.}

10201 # 그이 웨이 지'금드, 글'때가 요새'거치 명'능' 게데 참' 식쌍'화리 조아'따므 키'도 쯔 더 커스 께'라고 바:요. {그 왜 지금도, 그때가 요새 같이 먹는 것이 참 식생활이 좋았다면 키도 쯔 더 컸을 것이라고 봐요.}

10201 # 그'르나 더 옌나'레옌 그기' 생'화리 그'마꿈. {그러나 저 옛날에는 그게 생활이 그 만큼.}

10201 @ 거'럼', 그'럼'므 어'르신 그: 태'어나신 해'가 먼' 년도심미까? {그럼, 그러면 어르신 그 태어나신 해가 몇 년도이십니까?}

10201 # 경'오새이께네이 경'오여니고, 예 서기'로느 청구백삼'심녀니고, 그러치 머예. {경오

생이니까 경오년이고, 예 서기로는 천구백삼십 년이고, 그렇지 뭐요.}

10201 @ 예:, 천구백삼십 년도 경오생'이고? {예, 천구백삼십 년도 경오생'이고?}

10201 # 으예이, 경'오새~이고. {예, 경오생'이고.}

10201 @ 예, 여, 그다'음메 그'럼며 글 어, 그다'음메: 어'르신 그암 태어나'시기넌 여 바라'메에서 태어나서따, 그지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그 어, 그다'음에어르신 그럼 태어나'시기는 여기 "바라미(+해저리)"에서 태어나'셨다, 그렇지요?}

10201 # 예, 바'러미, 바'러미. {예, "바라미", "바라미".}

10201 @ 어:, 항'녀근 어'떠게 데'심미까? {어,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0201 # 항'녀근 게아' 구, 궁민하'교 가차 유명'함미다이. {학력은 겨우 국, 국민'학교 갖춰 \*\*합니다.}

10201 @ 그으 그르'며는 지'거븐 어'뜨게 데'심미까? {그 그러'면은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0201 @ 주'로 농'사어를 하'셔'씀미까? {주로 농'사를 하'셨습'니까?}

10201 # 예', 농'사도 진, 지'따'가 또 요'샌 나'이 마'느'이 농'사를 지'일 수 인'나'끼, 므 노'니'덩. {예, 농'사도 짓, 짓'다가 또 요'새는 나'이가 많'으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놓'니다.}

10201 # 그 몸, 몸, 뭐 아'아'드리 이'그 머'거 이'글 떠, 돈'냐'이'던 주'고 하'능 까'주 머'꼬 사'니'더. {그 뭐, 뭐, 뭐 아이'들이 이'것 뭐'냐 이'것 돈, 돈'냥'이나 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니다.}

10201 @ 예'저'네'느 그'아'므 주'로 머 하'셔'씀미까? {예'전'에는 그러'면 주'로 뭐 하'셨습'니까?}

10201 # 예:'나'레 농'사'지'어'찌, 머'요. {예'날'에 농'사'지'었'지, 뭐'요.}

10201 @ 그럼'며'너 여 어'르신 그'걸 형'제'늘 머' 뿌'니'나 게'셔'씀미까? {그러'면은 여'기 어'르신 그'것 형'제'는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10201 # 아::, 형'제'는, 남'자는 으'호, 은 머'서 명'어'겨'이 형'제'뿐'이'래'꼬, 아:: 그'르'이 오' 남'매'지, 응' 남'매'래'찌, 우'리'가'요. {아, 형'제'는, 남'자는 어, 어 뭐 \*\*\*\* 형'제'뿐'이'었고, 아 그러'니 오' 남'매'지, 육' 남'매'였'지, 우'리'가'요.}

10201 # 응' 남'매'래'엔'데, 다: 죽'꼬 인'지'는 뚜, 두'리'가 나'마 인'니'대. {육' 남'매'였'는데, 다 죽'고 인'제는 둘, 둘'이 남'아 있'습'니다.}

10201 # 내'하'코 누'님 하'나'하'우'까'구 나'마 이'꼬, 너'이'는 주'거'꼬'요, 인'제는. {나'하'고 누'님 하'나'하'고'가 남'아 있'고, 넷'은 죽'었'고'요, 인'제는.}

10201 @ 가'므 어'드'게 어'르'싱'게'서 형'제, 거' 응' 남'재' 중'에서 어'드'집 메'째 부'니'심'미'까? {그러'면 어'떻'게 어'르신'게'서 형'제, 그' 육' 남'매' 중'에서 어'떻'게 몇' 째' 분'이'십'니까?}

10201 # 세'째' 부'니'이, 세'째'시'더, 내'가. {셋'째' 분'이, 셋'째'입'니다, 내'가.}

10201 @ 세'째'고'예? {셋'째'고'요?}

10201 # 예. {예.}

10201 # 우'로 누'니'미 두' 부'니'고. {위'로 누'님'이 두' 분'이'고.}

10201 @ 미'트로'는? {밑'으로'는?}

10201 # 미'트로'는 인'제' 남'동'새'이 하'나'이'고 여'동'새'이 두'리 이'꼬, 그'랜'니'더. {밑'으로'는 인'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둘'이 있'고, 그'랬'습'니다.}

10201 @ 가'아'여 지'그'든? {그러'면 지'금'은?}

10201 # 그' 응' 남'매'래'찌'요. {그'래' 육' 남'매'였'어'요.}



10201 @ 그암'므 위'에 누'임 함' 분 계시'고, 지금도 사'러 계시'고? {그러면 위에 누님 한 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10201 # 예, 예, 예, 내고' 그'래쥬요. {예, 예, 예, 나고 그랬지요.}

10201 @ 나머지 뿌우, 형'제 분'드른 다: 자'꼬를 하'셔따, 그'지예? {나머지 분, 형제 분들은 다 작고를 하셨다, 그렇지요?}

10201 # 응거, 다, 더, 떠여, 으, 읍쥬, 예, 예, 주'꼬 그'이더, 모'두. {응, 다, 다, 떠, 어, 없어, 예, 예, 죽고 그랬습니다, 모두.}

10201 @ 그 혹시 어르'싱 그 부'몬님 고'향은 어디심미까? {그 혹시 그 부모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10201 # 부모 고'향도 여'게시더. {부모님 고향도 여기입니다.}

10201 @ 그암' 부'모 여, 그'엄므 어르'신 그거 떠 아까' 이야기하'셔썸다만, 이'팡조 이'래로 쭉? {그럼 부모님 여기, 그러면 어르신 그것 뭐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입향조 이래로 쭉?}

10201 # 사'무 여' 이'썸께. {사뭇 여기 있었으니까.}

10201 @ 여 사'뭇, 조'상드른 다: 여 이'따, 그'지예? {여기서 사뭇, 조상들은 다 여기에서 있었다, 그렇지요?}

10201 # 예, 야, 야, 야, 여'기서 예. {예, 예, 예, 예, 여기서 예.}

10201 @ 예 여'이서 다 거주하'시고 그래 해따, 그'지예? {어 여기서 다 거주하시고 그랬다, 그렇지요?}

10201 # 예, 예예, 예. {예, 예예, 예.}

10201 @ 그러'며너 아버'님, 어르'신러이 아버'님께서 여'기서 태어나셨께따, 그'지예? {그러면은 아버님, 어르신의 아버님께서는 여기서 태어나셨겠다, 그렇지요?}

10201 # 예', 여'기서 태어난'데여. {예, 여기서 태어나셨지요.}

10201 @ 여'기서 태어나셔'꼬', 그'럼며너 어'르신 어머'님 고'향은 어디심미까? {여기서 태어나셨고, 그러면은 어르신 어머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10201 # 어머'니 고'향은 저:: 옌나'레는, 아, 거 인능 그, 거 예엔, 풍기 따'이야, 아'이 저에 충'청'도 다'냥'이라 근' 데, 단'양'. {어머니 고향은 저 옛날에는, 아, 거기에 있는 그, 거기 옛, 풍기 땅이야, 아니 저 어 충'청'도 단'양'이라고 그러는 데, 단'양.}

10201 # 다'냥'군 대강'며니라 근' 데 거'게에선. {단'양군 대강면이라고 그러는 데 거기에서.}

10201 @ 예, 다'냥'이고? {예, 단'양이고?}

10201 # 음, 예, 웨'각, 웨'가'는 거'게시더. {음, 예, 외가, 외가는 거기입니다.}

10201 @ 예, 웨'가' 거'이, 으 그럼 어머'니께서 이'리로 한' 언'제썸 시'지오'셔썸미까? {예, 외가가 거기, 어 그럼 어머니께서 이리로 한 언제썸 시집오셨습니까?}

10201 # 크'르'익게네. {그러니까.}

10201 @ 므 하'이'뜬 오'래드, 오래 전' 니'미다, 그'지예? {뭐 하여간 오래된, 오래 전 일이다, 그렇지요?}

10201 # 오래'테'쥬요. {오래됐지요.}

10201 # 오래'테'쓰게 거' 확'씨리 물'썸, 내가 야 자'꾸, 이'자'뿌려쥬용. {오래됐으니까 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 자꾸, 잊어버렸어요.}

10201 @ 혹시 그'어 어'르신 글 조'부모, 조'부'께서도 여'기 태어나'셔썸 켜고'? {혹시 그 어르신 그 조부모, 조부께서도 여기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10201 # 예:, 여'겐씨더. {예, 여기입니다.}

10201 @ \*\*\* 계속?

10201 # 야, 예, 이야, 예, 조'부모온, 조'부모도 여 태어나여. {예, 예, 예, 예, 조부모, 조부모도 여기에서 태어나셨어요.}

10201 @ 그암'머느 혹'씨 어르신 어 태어나'셔슬 때 할머'니미 게셔'씀미까? {그러면은 혹시 어르신 어 태어나셨을 때 할머니가 계셨습니까?}

10201 # 예:, 할머'니 게선'니더, 네. {예, 할머니 계셨습니다, 네.}

10201 # 내가' 국민하꼬:' 이, 이, 일 항'년 땐'지, 이팍할' 때'에 그, 그'해 도'러가신는데. {내가 국민학교 일, 일, 일 학년 때인지, 입학할 때에 그, 그해에 돌아가셨는데.}

10201 @ 가'머 할머'니느 어디?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

10201 # 할'머니인 다'시리시더, 요'게, 요, 요'게, 보, 여. {할머니는 답실마을이십니다, 요기에, 요기, 요기에, 보면, 여기.}

10201 @ 아, 아, 여, 여쭙이 다, 다'시레서 오션네예? { 아, 아, 요기, 요쪽에 답실, 답실마을에서 오셨네요?}

10201 # 야, 예, 예, 권씨, 권씨 거 \*\*. {예, 예, 예, 권씨, 권씨 거기 \*\*.}

10201 @ 예, 아, 권'씨씨고예? {예, 아 권씨씨고요?}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 꼬다'으메 그 어머'님 머' 가'머는 다냥' 어느', 성씨'가 어트게 데심미까? {그다음에 그 어머님 뭐 그러면은 단양 어느,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10201 # 예, 예, 다냥. {예, 예, 단양.}

10201 # 거'게능 기, 김녕 김가씨'더. {거기는 김, 김영 김가이십니다.}

10201 @ 아, 김녕? {아, 김영 김씨?}

10201 # 예, 예이, 김녕 김'씨로 쓰'고, 예이, 김녕'이고 거'언뇨. {예, 예, 김영 김씨로 쓰고, 예, 김영 김씨이고 거기는요.}

10201 @ 예예예예, 김녕? {예, 김영 김씨?}

10201 # 이 김가'요, 예예예. {이 김가요, 예.}

10201 @ 그다:으멤 어'르신 그 부'몬님들게셔느 하'신 니'른 그암' 주'로 어떠 닐 하'셔쓰미 거, 생'어브로? {그 다음에 어르신 그 부모님들께서는 하신 일은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생업으로?}

10201 # 글'세 그 생'어비라 그'릉 건느 우리' 이 찜 땡'이 주'로 농'사지, 머요. {글쎄, 그 생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이 저 역시 주로 농사이지, 뭐요.}

10201 # 농'사지:꼬 머 그'래 그'래 머 거으 궁그'이 사'러와찌, 머예, 예. {농사짓고 뭐 그래 그래 뭐 그 근근이 살아왔지, 뭐요, 예.}

10201 @ 거'므 어'르신 부몬'님들도 여'게서 은제' 주'로 생'어브로 농'사를 하셔짖? {그러면 어르신 부모님들도 여기에서 이제 주로 생업으로 농사를 하셨지요?}

10201 # 예예, 생'어븐 농'사지, 그언 나니, 농'사지, 머 이 주'로. {예, 생업은 농사이지, 그 뭐, 농사지, 뭐 이 주로.}

10201 # 머' 이 옌나'르 다'릉 게 이서께씀미까. {뭐 이 옛날에 다른 것이 있었겠습니까.}

10202 @ 그으다'으메 어'르신 그: 인제 그 배우'자께서는, 푸, 부이'는 지'곰 어느 지'여게서 태어나셔씀미까? {그 다음에 어르신 그 인제 그 배우자께서는, 부, 부인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10202 # 크, 거'게는 여 봉와'군 추'냥'면 서'배기라 그르'는 데씨요. {그, 거기는 여기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라고 그러는 데요.}

10202 # 이으 그어여 땡' 추'냥'며니 그은넌 청주' 정으으은씨에서, 이 정가'로, 이 정가'고 요, 네. {이 그 역시 춘양면이 거기인데 청주 정씨에서, 이 정가고, 이 정가고요, 네.}

10202 @ 가'므 청주 정씨'에서, 봉:화' 추'냥'에서 태'어나서 가'주고 거 어'르신 인제' 이'리로, 어 바'래미로 시지블 오'션는데, 주'로 언'제쫘, 머 며, 어르'신 연'세 메 싸'레 거 화'초글 받거? {그러면 청주 정씨에서, 봉화 춘양에서 태어나서 가지고 그 어르신 인제 이리로, 해저리로 시집을 오셨는데, 주로 언제쫘, 뭐 몇, 어르신 연세 몇 살에 그 화축을 밟혔습니까?}

10202 # 그게' 내개 시물일고'베이 결'홍을 해쓰'이께네. {그게 내가 스물일곱에 결혼을 했으니까.}

10202 @ 부인'께서는 여, 그'때 연'세가 어'떠게 데'에쫘미까?

10202 # 거'가 내보'다 네 사'리 쩌그, 여 네 사'리 저그'이께네. {거기가 나보다 네 살이 적으니, 어 네 살이 적으니까.}

10202 @ 스물세'시다, 그'지예? {스물셋이다, 그렇지요?}

10202 # 어 시물세시'우 그'르치, 머여. {어 스물셋이고 그렇지, 뭐요.}

10202 @ 꼬엄'며너 그, 그: 봉화' 추'냥'에 대'어서는 쫘곰' 함봉 거, 아까'어 부'잉께선 청주 정씨'라고 하'서쨌예? {그러면은 그, 그 봉화 춘양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그, 아까 부인께서 청주 정씨라고 하셨지요?}

10202 # 예, 예, 예, 청주 영'가. {예, 예, 예, 청주 정가.}

10202 @ 그암'은 그, 그, 그'통까 처가'때'기 데는데, 거 처가'택 마으'레 대'에서 쫘' 함무 이 야'기를 쫘' 해 주'이소. {그러면 그, 그, 그러니까 처가'택이 되는데, 거기 처가'택 마을에 대해서 쫘 한 번 이야기를 쫘 해 주십시오.}

10202 # 거'기가 요'기서 한 오십' 니 떠'러진 녀 봉고'군 추'냥'면 서'변니라 근 텐데, 그 금'정광산 드'가'능 고 사'인 동네'데, 그' 동네'에는, 땡' 산중' 똥네라. {거기가 요기에서 한 오십 리 떨어진 여기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라고 그러는 데인데, 그 금정광산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의 동네인데, 그 동네에는, 역시 산중 동네야.}

10202 # 산중' 동네'데, 이으 거'어서으 그, 어:, 음, 우리'이 시'꾸도 거'어서 태'어나고 거'어서 성장해'꼬, 그'래 가'주 봉화', 이리 해저'르 출가'홀', 참' 히 시지'블 와'꼬, 나'능 그'리 장가'을 가'고 히케 헨'는데, 그 머 동네'가 이 조아'요. {산중 동네인데, 이 거기에서 그, 어, 음, 우리 식구도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성장했고, 그래 가지고 봉화, 이리 해저리로 출가를, 참 이 시집을 왔고, 나는 그리로 장가를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머 동네가 이 좋아요.}

10202 # 거' 인심' 조코' 어 또'놈 머으 거'으'가 어:, 머 어, 이 벨, 흥푸'이 엄뜨'라꼬, 거'가, 보'이'겐 머, 은데 전'다'븐 머 산중 비스'탄' 땅'이라'도 농'사'도 잘 떼'고, 머 생와'룽 대다'수'거 께, 여'그, 여'게'보다 차'라'리 나'야' 쩌'나, 그'래 바'따'꼬, 나'는'녀. {거기 인심 좋고 어 또'는 뭐 거기가 어, 뭐 어, 이 벨, 흥풍이 없더라고, 거기가, 보니까 뭐, 인제 전답은 뭐 산중 비슷한 땅이라'도 농사'도 잘 되고, 뭐 생활은 대다'수가 떼, 여'기, 여'기 보다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 봤'다고, 나'는'요.}

10202 @ 춘'냥' 쫘'게'도 그 너 받'춘 어 건, 그'쫘'에'드 땅'은 쫘' 널'름 퍼'닝 거 가'쫘'떠'다, 추'냥\* \*\*\*? {춘양 쪽에도 그 뭐 밭은 머 거기, 그쪽에도 땅은 쫘 넓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춘양\* \*\*\*?}

10202 # 예예아, 예예, 거'가 예 산전똥, 전'지라도 어 글 땅'이 갠차'너요. {예, 예, 거기가 예 산전, 전지라도 어 그 땅이 갠찮아요}

10202 # 거, 그'르구 살기'가 모'도 갠창'코, 거'어난 또' 그'래 그 머 집성'초니 아이'고, 그'른 동네'는. {그, 그리고 살기가 모두 갠찮고, 거기는 또 그래 그 뭐 집성촌이 아니고, 그런 동네는.}

10202 # 이스 점'브가 머' 각쌍'이 모'도가 머 모'에 사는 동네'고, 으호 그'르습따다. {이 전부가 뭐 각성이 모두가 뭐 모여 사는 동네고, 어 그렇더라고요.}

10202 # 어게 장개'을 가 보'이께네. {거기에 장가를 가 보니까.}

10203 @ 그러'며닌 어르'신 그거 머' 그 배우, 부'이는 그'암 어'떠캡 만'나서 결혼해'씀미까? {그러면은 어르신 그것 뭐 그 배우자, 부인은 그럼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10203 # 옛날'른 그게 인제' 이 중매'결혼이라찌, 머요. {옛날에는 그게 인제 이 중매결혼이었지, 뭐요.}

10203 # 저:기 중매'결혼이라앤데, 그래 왜 내가' 그 당시' 파, 바 가'주우는 이 그 글'때는 쫌:꿈 내가'열 장가'가 느'즌 세미라요. {저기 중매결혼이었는데, 그래 왜 내가 그 당시 봐, 봐 가지고는 이 그 그때는 조금 내가 장가가 늦은 셈이에요.}

10203 # 그게' 머' 그 글'뎌 시'무 살, 시무대'애 쌀 모두 장개'앤데, 나느 그 시물일'고꺼집 니이'씨쓰니까 그래 머어 으으 그래 장개'가 느'져꼬, 예 중매'렐 어 해 가'주오 결'호니 데 가'주 장갈' 간니'더. {그게 뭐 그 그때는 스무 살, 시물대여섯 살 모두 장가인데, 나는 그 스물일곱까지 있었으니까 그래 뭐 어 그래 장가가 늦었고, 예 중매를 어 해 가지고 결혼이 돼 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10203 # 그'래 중매'결혼해꼬요. {그래 중매결혼했고요.}

10203 @ 쭈, 중매'는 누가 하'서씀미까? {중, 중매는 누가 하셨습니까?}

10203 # 중매'결혼은 그'르이 우리' 땡' 족치'닌데, 이용, 일'간데, 일가' 어르'니 그으, 그 지'비 거'어도 왜가'이 데'예요. {중매결혼은 그러니 우리 역시 족친인데, 일, 일가인데, 일가 어른이 그, 그집이 거기에도 외가가 돼요.}

10203 # 왜가'이 데 가'주설랑은 그래 나를' 그리 중뎌 해 가주 그래 예 그, 이, 그, 이 결'호니 데'앤니더. {외가가 돼 가지고설랑은 그래 나를 그리로 중매를 해 가지고 그래 예 그, 이, 그, 이 결혼이 됐습니다.}

10203 @ 아:, 족'친께서 인저 하'서따, 그'지여? {아, 족친께서 인제 하셨다, 그렇지요?}

10203 # 예예. {예.}

10203 @ 그'래스스 거'쫌옥' 족'친부닌 저쪽 천장'접하'고 영'겨리 데다' 보'니까, 예, 어, 하'서꼬? {그래서 그쪽 족친분이 저쪽 천정'집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 어, 하셨고?}

10203 # 예예예, 아웨, 예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0203 @ 그다'음 보', 요주'우미야 머 여내'결'혼하는 사'암들도 망'코, 예예, 그다'으미 머 중매'하'으서 만'나서 결혼'하'능 거또 마'는데, 그'암 그'때 그: 결혼'하', 중매'으를 해'써 결혼'할' 때 머 중매:해'써 결혼'하'능 과정'이 이'씨쓸 꺼 아'임미'까? {그다음 보, 요즘이야 뭐 연애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다음에 뭐 중매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많은데, 그럼 그때 그 결혼하, 중매를 해서 결혼할 때 뭐 중매해서 결혼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0203 그'레요 그'르체. {그래요, 그렇지요.}

- 10203 # 네:, 과거'이 이'째요. {네, 과정이 있지요.}
- 10203 @ 그'때 드 대충' 어'떤 시어러 결혼'하'선는지, 어르'신 결혼: 때'에? {그때 뭐 대충 어떤 식으로 결혼하셨는지, 어르신 결혼 때에?}
- 10203 # 글때' 결혼'능 그'래 가'주 은제' 결'호누 과거~'이 그'래 인제 머 이 결'호니 적찌 이 양가'가, 이 양가'에 어름'드리 승'나기 나'면 거 이 즈 총오, 그은 중개'르, 어 참' 중매'를 하'든 사'람 와'서 승'나기 데'쓰이께너이 결'호늘 성'사어이, 성'사가 데'쓰이 준비'를 하'라, 그게'지, 머'. {그때 결혼은 그래 가직 인제 결혼 과정이 그래 인제 뭐 이 결혼이 적절히 양가가, 이 양가의 어른들이 승낙이 나면 그 이 저 저, 그 중매를, 어 참 중매를 하던 사람이 와서 승낙이 됐으니까 결혼을 성사, 성가가 됐으니 준비를 하라, 그것이지, 뭐.}
- 10203 # 인 줍빌 하'미 인제' 여'기서는, 남'자 쯔'게사 강서'늘 써 가'주 은제' 심부 쯔'으로 보내'코, 또 어으 그'래고 인제' 날짜'를, 결혼 날짜'을 바다 가'주 홀'렐 치루'코, 그'래 처 머이, 좌으 쪽 과'정어. {이 준비라 하면 인제 여기서는, 남자 쪽에서 강선을 써 가지고 인제 신부 쪽을 보내고, 또 어 그러고 인제 날짜를, 결혼 날짜를 받아 가지고 혼례를 치르고, 그랬지 뭐요, 좌우 쪽 과정어.}
- 10203 @ 그'엄면 어'드겅 그:거 인저스 날쓰, 결혼 날짜'너, 호닌 날짜'넌, 호닌 날짜'는 처가 쯔'게서 자'바슬 꺼 아임미'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 인제 날, 결혼 날짜는, 혼인 날짜는, 혼인 날짜는 처가 쪽에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 10203 # 이히, 예', 마'자여, 그'래 자'만너, 거'어서 자'만니더. {예, 예, 맞아요, 그래 잡았, 거기에서 잡았습니다.}
- 10203 @ 여, 여, 여'기서 사주단자하'고너 여'기서 보내'쓸 꺼'고? {여, 여, 여기에서 사주하고는 여기에서 보냈을 것이고?}
- 10203 # 예, 어예예, 여'어서 보내, 으야, 야아. {예, 예, 여기에서 보내, 예, 예.}
- 10203 @ 예, 어르'신 사주단자하'고너 저쯔'으로 보내'애고? {예, 어르신 사주단자하고는 저쪽으로 보내고?}
- 10203 # 예예. {예.}
- 10203 @ 어, 그엄'며너 꼬어, 그 사주:단자하'고 이거 보내'앨 때'느 어'뜨게 보낸'는직 함븐? {어, 그러면은 그, 그 사주단자하고 이것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는지 한 번?}
- 10203 # 어, 사주:단'자 보'낸능 거느이 여'기썬 인제' 그 머으 그거' 어 사주'를을으 머 구 그 사주'을하 그능 거 머 지 땡' 점 비스탕' 케라, 그르. {어, 사주단자 보내는 것은 여기서 인제 그 뭐 그것 어 사주를 뭐 그 그 사주라 그러는 것은 뭐 저 역시 점 비슷 한 것 이야, 그것은.}
- 10203 # 그결' 인제' 으 써 가주'고 그 강서'니라 그'능 결 맨드'르, 꺼 머' 인제 머 머 형: 겁'꺼툇 거또 머 쯔매 여'코 그'러썬따다, 보'이께네. {그것을 인제 어 써 가지고 그 강선이라고 그러는 것을 만들어, 그 뭐 인제 뭐 뭐 형겅같은 것도 뭐 조금 넣고 그렇 더라고요, 보니까.}
- 10203 # 해 가주'고 사라'를 보내', 여' 우리' 동네' 사라'를 그리 보내'뜨'라꼬. {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 여기 우리 동네 사람을 그리로 보내더라고.}
- 10203 @ 그열' 강서'니라 함'미까? {그것을 강선이라고 합니까?}
- 10203 # 예, 강선'뇨. {예, 강선이요.}
- 10203 @ 그결' 사람' 누'구한, 누'우한테 보내, 누'가, 누'구 시'켜스 보냄'미까? {그것을 사

람 누구한, 누구한테 보냄, 누가, 누구를 시켜서 보냅니까?}

10203 # 그'래어 으어 우리 동:네' 사'라미래, 맹노. {그래 어 우리 동네 사람이예요, 역시요.}

10203 # 그커 으 글'때 여'게 사'아똥 그 윤: 썬'데, 윤달출 씨'라고, 응 그' 부니 강서'늘 가'조 가떼'래써, 글'때. {그 어 그때 여기에 살았던 그 윤 씨인데, 윤달출 씨라고, 응 그 분이 강선을 가지고 갔더랬어요, 그때.}

10203 # 그'래 가주 그어 전내 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해 주고.}

10203 @ 거'우 강서'네놈 머' 머' 드러감미'까, 그'럼머너? {그 강선에는 뭐 뭐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10203 # 강서'네 인제' 사:주'학코 그그 머 어 저: 양가'에 하'비한 호닌 날짜'하코 고'래가고 머 저 오'까지가 하'나 먼 드가'지 씹'쓰더, 명'가, 보'이께네. {강선에 인제 사주하고 그것 뭐 어 저 양가에서 합의한 혼인 날짜하고 그래서 거기 뭐 저 옷가지가 하나 뭐 들어가지 싶습니다, 뭔가, 보니까.}

10203 @ 예:. {예.}

10203 # 은 그'르치 시폰 모'시여, 오'래텐 니리 가'주고 멈 오까'미 하나' 머' 그 드가'지 시'퍼에. {어 그렇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라 가지고 뭐 옷감이 하나 뭐 그 들어가지 싶어요.}

10203 # 머 저고'리까미이니 치마까'민지 근 이이 오'래땡 기'라서 끼'여그. {뭐 저고릿감인지 치맛감인지 그것인 이 오래된 것이라서 기억이.}

10203 # 그'롱 거 하나'가 보내'코, 그래 보내'습따다. {그런 것 하나 보내고, 그래 보내더라고요.}

10203 @ 그엄'머너 어'째뜬 어 그'르가 강서'늘 보내 가'주고 그럼'머너 저쭈'게서, 처가 쯔'게서 날짜'를 자'버 가'지오 그럼머너 이'리로 통'보를 함'미까, 어뜨케 하미까? {그러면은 어쨌든 어 그래 가지고 강선을 보내 가지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처가 쪽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러면은 이리로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0203 # 아이'래, 이그 강서'니 갈 찌'젠 함'머, 여'게서 날'짜에 자버찌지 시'프이더. {아니야, 이것 강선이 갈 적에는 벌써, 여기에서 날짜를 잡았지 싶습니다.}

10203 # 그 호닌' 날짜'는 여, 여, 으영, 우리'가 자'버찌 시'퍼이. {그 혼인 날짜는 여기, 여기, 우리가 잡았지 싶어요.}

10203 # 심부 쯔'게서 잡짜'네, 여'기서 강서'네 날짜꺼'저 자버 가'즈 아저 보내찌 시'프이드, 이제 생카 보이. {신부 쪽에서 잡지 않고, 여기서 강선에 날짜까지 잡아 가지고 아주 보냈지 싶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10203 # 그 저짜'서 바'등 게 아이'고. {그 저쪽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10203 # 으 그'램 거'어성 고'마 그 바'든 날짜'르 매 승'나기 텐 게고. {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 그 받은 날짜로 역시 승낙이 된 것이고.}

10203 # 그래, 그래. {그래, 그래.}

10203 @ 그럼'머너 어: 인제 그 날짜 자'꼬 은제' 강성' 보내'고 난 다'으메는 어르'시니 저: 리'로, 심부 쯔'오고, 처가 쯔'그로 가서 인자' 호닌시'글 거'기서 하'지 안씀미까? {그러면은 어 이제 그 날짜 잡고 이제 강선 보내고 난 다음에는 어르신이 저리로, 신부 쪽으로, 처가 쪽으로 가서 이제 혼인식을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10203 # 예예, 그, 그'르체요, 거거 그. {예, 그, 그렇지요, 거기 그.}

- 10203 @ 거'므 여'기 가실 때 추낭까'지느 어'뜨에 가'서쓰미거? {그러면 여기 가실 때 춘양까지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 10203 @ 누구호'랑 어'떠게 가'서쓰미까? {누구랑 어떻게 가셨습니까?}
- 10203 # 그, 글'때는 여'게 인제' 장개'가'능 게 인제' 내, 으 부'모 어 인지 참' 부친하'꼬 내 아'꼬 그어 또 저: 그극 강서'널 그어 이 그 머'로, 어, 혼수'를 가'주 가능 혼수에'비라 그'능 사람하'꼬, 맹: 글'때도 하나 데'리고 그래 서이' 가'썩요. {그, 그때는 여기 인제 장가가는 게 인제, 나, 어 부모 어 인제 참 부친하고 나하고 그 또 저 그 강선을 그 이 그 무야, 어, 혼수를 가지고 가는 혼수아비라고 하는 사람하고, 역시 그때도 하나 데리고 그래 셋이서 갔어요.}
- 10203 # 서:이로' 그쭈우'서른 빠'수로 가 가주고, 으 글'뎌 거' 빠'쓰가액 귀해'썩에, 길'또 마'거 자갈'끼레 투덜투더하'고, 그'래 조'일 거'어 가'서 거'어서 내리 가주'고 그 동네'에서 인제' 가마'알 보내'뜨라꼬, 문제' 실랑'이 인제 가마 타고 두오'라 그'래 그, 그 거'객 가'서 그 여, 여'관찌베 숙'빠글 하'고 므 고 이'트나 인제 은 홀'텔 치'루키 때'므 레 거 응 거 이'튼날 거'어스 자고 나'이께네 가:마'털 보내' 가주 그 가마 타고 장개'가'딱, 고래 배움 본다. {셋도 그쪽까지는 버스로 가 가지고, 어 그때는 그 버스가 귀해서, 길도 모두 자갈길에 울퉁불퉁하고, 그래 종일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인제 가마를 보냈더라고, 뭐 인제 신랑이 이제 가마 타고 들어오라 그래 그, 그 거기에 가서 그 여, 여'과에 숙박을 하고 뭐 그 이'튼날 인제 어 혼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 어 그 이'튼날 거기에서 자고 나니까 가마를 보내서 그 가마 타고 장가갔다, 그렇게 보면 돼요.}
- 10203 @ 그엄'머는 거으 지'음 상개'그로 따러'가'심 분'느너? {그러면은 그 지금 상객으로 따라가신 분은?}
- 10203 # 상개'글 아부'지고 그'르치, 머. {상객은 아버지고 그렇지, 뭐.}
- 10203 @ 아브'지 혼'자 가'서쓰미까? {아버지 혼자 가셨습니까?}
- 10203 # 그'르체요. {그렇지요.}
- 10203 # 에 여 곱마 혼수애'비하콘. {어 여 그만 혼수아비하고.}
- 10203 @ 혼수애'비하고? {혼수아비하고?}
- 10203 # 예, 내하'쿠 서이' 간 세미너. {예, 나하고 셋이 간 셈이지요.}
- 10203 @ 그럼'머 거'기 거 글'때 가'슬 때 혼수'눔 머' 주'로 머 가'지고 감미'끄슴미까? {그러면 거기 그 그때 갔을 때 혼수는 뭐 주로 뭐 가지고 갔습니까?}
- 10203 # 혼:수'는 그 맹' 머 어 그'게' 머 일 치마저구'리지 시'퍼에, 내 생'가게 치마저구'리 래찌 시'퍼요. {혼수는 그 역시 뭐 어 그'게' 뭐 이 치마저고리지 싶어요, 내 생각에 치마저고리였지 싶어요.}
- 10203 # 그'래 가'주 그점 머 엄' 머 비담보'에 싸' 가'주우 그'래 가주 가찌 시'퍼임미다. {그래 가지고 그것 뭐 어 뭐 비담보에 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갔지 싶습니다.}
- 10203 @ 어 감' 치마저구'리 처'루 가주 가'꼬, 그다'음메 보통' 인즈' 상'개'건 어'트게 머 그어 크나부'지너 자은아부'지도 보통 가'시는데, 어'떠게 부몬'니미 웨'동이서쓰미까? {어 그럼 치마저고리를 저리로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보통 인제 상객은 어떻게 뭐 그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보통 가시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외동이셨습니까?}
- 10203 # 아, 아이'래래여, 여우 크'나부지가 여 게'서'썩두 크'나부지보다 아부'지가 가신따이. {아, 아니에요, 여기 큰아버지가 여기 계셨어도 큰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십니다.}

10203 @ 짐' 어'째든 스, 상객'으로느 머 그'냐 아번집마 머 카, 보통 가'신다, 그'지예? {그럼 어쨌든 상, 상객'으로는 뭐 그냥 아버지만 뭐 가, 보통 가신다, 그렇지요?}

10203 # 네, 예예예, 예, 예, 아버지만요. {네, 예, 예, 예, 아버지만요.}

10203 @ 그러'며느 거'이서 그럼'며느 가서 가'주고 어르'신 그'날 거'이서 초'례를 거'기서 치'러쨌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러면은 가서 가지고 어르신 그날 거기에서 초례를 거기에서 치렀지요?}

10203 # 예, 초'례을 치루'체, 초'렐 치루'고. {예, 초례를 치르지, 초례를 치르고.}

10203 @ 그'읍, 그럼'며너 아까' 이제 으 어디 추냥 거 머 현동이나 그췌'게서 주'무셔췌미까? {그,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어 어디 춘양 거기 뭐 현동이나 그쪽에서 주무셨습니까?}

10203 # 아이'래, 그 동네' 은 아'피 바라 예. {아니야, 그 동네 은 앞에 바로 예.}

10203 @ 아니, 예를 드 그 동네' 아'페서 인제' 주무'시고 그쪽: 인제' 처가 췌'게서 보내응 가마:를 타'고 거 초'례르 치른 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앞에서 인제 주무시고 그쪽 인제 처가 쪽에서 보낸 가마를 타고 그 초례를 치른 날?}

10203 # 예하, 예, 어이, 초'례 장그까'지 가'제요. {예, 예, 예, 초례 장소까지 가지요.}

10203 @ 가가:션'는데, 그 가'서 인제' 초'례를 치려'슬을? {가셨는데, 그 가서 인제 초례를 치렀을?}

10203 # 예', 초'례얼 치르'쳐. {예, 초례를 치르지요.}

10203 @ 치르'지예? {치르지요?}

10203 # 예. {예.}

10203 @ 어 초'례를 치러'고 그림'며너 어르'시너 꺼 초'렐 치르'고 거'기스 머 췌 게셔'췌미까, 앙 그암'며너 어'떠케 하'셔췌미까? {어 초례를 치르고 그러면은 어르신은 그 초례를 치르고 거기에서 뭐 췌 게셨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203 @ 바로 오'셔췌미까? {바로 오셨습니까?}

10203 # 거'기스, 아이'지엑. {거기에서, 아니지요.}

10203 # 거'기스 한 이'틀 이'써제요. {거기에서 한 이틀 있었지요.}

10203 # 이, 이'틀 이스. {이, 이틀 있었.}

10203 # 예, 천'날빠를 거'어서 자'고 으 그 이'튼날 와'제요. {예, 첫날밤을 거기에서 자고 어 그 이튼날 왔지요.}

10203 @ 오시'고 또 그다'으메 그 상개'그로 가'서편 아번'니른 당'일랄 바로 오'셔꾸에? {오시고 그다음에 그 상객'으로 가셨던 아버님은 당일에 바로 오시고요?}

10203 # 예', 당'일랄 바로' 오'시고. {예, 당일에 바로 오시고.}

10203 @ 혼췌애'비하곤 \* 도라오'셔꼬? {혼수아비하고 \* 돌아오셨고?}

10203 # 아, 아이, 가래, 야, 혼췌애'비야췌 가'치 오'고, 예, 나'능 거'어서 어어 하루'뺨 자'고 은즈 그 이'튼날 와'꼬 그'러치요, 머 이. {아, 아, 그래, 예, 혼수아비하고 같이 오고, 예, 나는 거기에서 어 하룻밤 자고 인제 그 이튼날 왔고 그렇지요, 뭐 이.}

10203 @ 그럼'면 거'기 으인제 그어 인제' 그게 인제' 장개'가'능 건테', 에에 장개'가'어서 거'이 글 하고 거'므 하얼, 하 니'틀 거'이스 주'무시다가 일'로 혼'자 오'셔췌미까, 앙 그러'며너 그'때 부임 가'치 오이, 어'떠케 하'이시췌미까? {그러면 거기 인제 그 인제 그게 인제 장가가는 것인데, 어 장가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한 이틀 거기에서 주무시다가 이리로 혼자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때 부인과 같이 오셨, 어떻게 하셨습니까?}



10203 # 아이'지여, 글'때, ㄲ, 글'때는 저: 무'근 신행'독 이'쨌데, 그겨 글'때능 고'마 영  
 잉 내'가 오능 기'때 고'마 신행꺼'중 다 해'쓰미다. {아니지요, 그때, 그, 그때는 저  
 묵은 신행도 있었는데, 그게 그때는 그만 어 이 내가 오는 김에 그만 신행까지 다  
 했습니다.}

10203 # 안', 안'식꾸두 가'치 와'씁니다. {안, 안식구도 같이 왔습니다.}

10203 @ 신행'을? {신행을?}

10203 # 어 사'밀 신행'이지, 그게. {어 삼일 신행이지, 그게.}

10203 @ 이제 쯔' 개화'가 데'따, 그'지예? {이제 쯔 개화가 됐다, 그렇지요?}

10203 # 예, 개화'가 떼아, 예예. {예, 개화가 돼서, 예.}

10203 @ 예전 까트며넌 무'근 신행 해' 가'주고 한 일 녀'니나? {예전 같으면은 묵은 신행  
 을 해 가지고 한 일 년이나?}

10203 # 예, 어, 예, 옴나'렌 머' 이 때 태'씩 익이, 인는' 수두 이'써쓰이게네요. {예, 어,  
 옛, 옛날에는 뭐 이 몇 해씩 있, 있는 수도 있었으니까요.}

10203 @ 머' 저'께 이'써드 일 러'니고, 머 아'이 나'아 가'주고 보통 오, 도라오'능 게, 그유  
 신행 오'는데? {뭐 적게 있어도 일 년이고, 뭐 아이를 낳아 가지고 보통 오, 돌아오는  
 게, 그 신행 오는데?}

10203 # 어흐, 그'르차하, 오'능 게 만투먼, 네예, 마내'찌, 브여, 예, 그'릉 게 마녀'쨌이.  
 {어, 그렇지, 오는 게 많더만, 네, 많았지, 뭐, 예, 그런 게 많았지요.}

10203 @ 어 그'런데 인저' 마니' 인저 개화'가 데 가'주고? {어 그런데 인제 많이 인제 개화  
 가 돼 가지고?}

10203 # 예, 개화'데'예꼬, 그'르코, 그'기 또' 그 그'른 예'건 또 이'써요이. {예, 개화됐고,  
 그렇고, 그게 또 그 그런 예가 또 있어요.}

10203 # 개와'도 덴'찌만느 그 무'근 신행'이라 그'으녀 환경'에 따'라 데'예요. {개화도 됐지  
 만은 그 묵은 신행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돼요.}

10203 # 예: 그, 어뜨'냐 하'게 데'모, 황겨'이라 그'검 머 실랑 쯔'기 황겨'이 조튼'지 심부  
 쯔'기 황겨'이 조튼'지, 비스빠스태'야 그'게 무'근 신행'이 데'능 게'라요. {예를 들  
 어 그, 어떠냐 하게 되면, 환경이라는 것이 뭐 신행 쪽이 환경이 좋든지 신행 쪽이  
 환경이 좋든지, 비슷비슷해야 그게 묵은 신행이 되는 거예요.}

10203 # 무'근 신행'을 한'다 그'능 거'는 겨우 그'르이 그'어 머 거'게서 사'모 머'꼬 자'고  
 땡: 그'래 생'가, 생'활비도 머 으 그'짜'쉽 부담 데'야 데'고으, 그'른 네'르 나'아지머, 우  
 리'거튼 환경'이느 머' 저'짜'아도 녀'넉찌 모'타'고, 우리' 녀'넉찌 모'따으, 그'르니까 이'  
 거 머 무'근 신행 할' 피'료 업:따', 으'르'이 그'마 사'밀 신행 하'자, 이'래 음 하'비하'에  
 서 사'밀 치'내'이 땡 게'래요. {묵은 신행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 그러니 그것 뭐  
 거기에서 사'뭇 먹고 자고 역시 그'래 생'활, 생'활비도 뭐 어 그'쪽에서 부담 돼야 되고,  
 그런 예'라면 나가지만, 우리 같은 환경은 뭐 저'쪽에도 녀'넉지 못하고, 우리도 녀'넉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 뭐 묵은 신행 할 필요 없다, 그러니 그만 삼일 신행 하자, 이  
 래 음 함'의하'에서 삼일 신행이 된 거예요.}

10203 # 꺼 머 으 그'게 개화'가 떼 가'즈 텡' 겨'뚜 아이'고, 자'여'니 그 환경'에 따'러서도  
 그'래 데'능 게. {그 뭐 어 그'게 개화가 돼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자연히 그 환경에  
 따라서도 그'래 되는 거야.}

10203 # 이'궁 그'으또 방'개화'지, 그'러이'께네. {이 그것도 반'개화지, 그러니까.}

10203 @ 머 어여 일'단 그 머 그 경제저'그로나 이럼 부'부네서 양가'가 어느 정도 비슷할' 때 그'를 수 인는 부'분인데? {뭐 어 일단 그 뭐 그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양가 가 어느 정도 비슷할 때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10203 # 아헤야, 아예아, 예, 그'르체요, 아예예, 무'근 신행~'이 마이 성행테'에쫘. {예, 예, 예, 그렇지요, 예, 묵은 신행이 많이 성행됐고.}

10203 @ 어, 어'쨌든 쫘' 머 저'라글 하'시는 겜해'서? {어, 어'쨌든 쫘 뭐 절약을 하시는 겜해서?}

10203 # 예, 거, 그'르치요, 저'라카'능 거'지야. {예, 그, 그렇지요, 절약하는 것이지요.}

10203 @ 예예, 그'르서 금 신행'을 빨'리 이자' 오'신능 그'른 세'미다, 그'지예? {예, 그래서 그럼 신행을 빨리 이제 오신 그런 셈이다, 그렇지요?}

10203 # 예, 예, 그'르쳐요. {예, 예, 그렇지요.}

10203 @ 그'어므 인제' 그'어 신행::월 인제' 여' 오서 가'주고 여'기서도 어 인제' 그'어 그 뭇미'까, 어르'신 대'게서도 잔치'를 하, 하'지예? {그러면 인제 그 신행을 인제 여기 오서 가지고 여기에서도 어 인제 그 뭇니까, 어르신 댁에서도 잔치를 하, 하지요?}

10203 # 그'르치여, 잔칠' 해야' 데'지요이, 잔치'를 해'야 데'. {그렇지요, 잔치를 해야 되지요, 잔치를 해야 돼.}

10203 # 잔'쨌'럴 하'능 거'시 오'면 인제' 췌 이, 인제' 내:학'코 시꾸하'꼬 거 으 가치'입 오'른 동네'슨 새'득 꾸경하'러 온'다 그'고 마'리야, 이 지'배 내애호애호으 저'익 여자'잘'르 보'로 모'도 오'능 게라. {잔치를 하는 것이 오면 인제 저 이, 인제 내하고 안식구 하고 그 어 같이 오면 동네에서는 새댁 구경하러 온다 그러고 말이야, 이 집에 내 저 여자를 보러 모두 오는 거야.}

10203 # 으 새드'기 와'씨이 이, 임'무리 으어, 어'뜨노, 머' 어'뜨노, 늘'건나 절'튼나 이거'또 보'고 머으 그'래 동리'이서 모'도 어 그으 잔치'를을를르 보'로 와'요. {어 새댁이 왔으니 인, 인물이 어, 어떻나, 뭐 어떻나, 늙었나 젊었나 이것도 보고 뭐 그래 동리에서 모두 어 그 잔치를 보러 와요.}

10203 # 그'래 인제' 신행' 잔'체'라 그'러췌, 그너 인제. {그래 인제 신행 잔치라고 그랬어, 그것인 인제.}

10203 # 신행', 여'자가 오, 오'능 거'는 신행' 잔'치'라 그'러 가'주고 동니'서 모'도 인제' 구'경'을 와'요. {신행, 여자가 오, 오는 것은 신행 잔치라고 그래 가지고 동리에서 모두 인제 구경을 와요.}

10203 # 그'래업 오'మ్머 머 잘'사는 지'배는 머 특수한' 대'지'블 하'제염. {그래 오면 뭐 잘사는 집에서는 뭐 특수한 대접을 하지요.}

10203 # 머 그 머'검 음식'또 마이' 장'마'나'고, 머' 손'님도 마이 히에'음 망'코'으, 그'르'쳐'면 또 그 황'경'에 따'러서 어 그'케 녁'넉'짜'는 음, 음 머'어'시는 켜' 손'님'도'욱 어'꼬' 그'저 동'네'서 어 즈 정'니저'그로 우 와 가'즈 모'두 신행 구'경'하'고, 그'런 수'로 이'꼬. {뭐 그 먹을 음식도 많이 장만하고, 뭐 손님도 많이 이래 많고, 그렇지만 또 환경에 따라서 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어, 어 사람은 큰 손님도 없고 그저 동네에서 어 저 인정 상 어 와 가지고 모두 신행 구경하고, 그런 수도 있고.}

10203 # 그으'너 이제' 황'경'에 따'르서 좌'우'테'능 게'래'여, 이거 보'이'게'네'요. {그것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요.}

10203 @ 거'므 신행' 오'실' 때'에'너 그'쫘'게'서'는 어'땸' 부'니 오'심? {그러면 신행 오실 때에는 그쪽에서는 어떤 분이 오십니까?}

- 10203 # 그'게서는 어찌 텡'가 궁가영그, 나'는 올' 때 그 인 쯔 이 내' 자:인' 데'늬 부는' 도러가'시 띠래꿈미, 함'마.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그러면, 나는 올 때 그 이 저 이 내 장인 되는 분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별써.}
- 10203 # 내' 즈 이, 이 초행 저'네. {내 저 이, 이 초행 전에.}
- 10203 # 그'러꾸 그'어 내 처'오촌 데'늬 부'니, 오촌' 데'늬 부'니 여'얼 와'띠'래서, 사'앙, 그 상'개'그로. {그'렁고 그 내 처'오촌 되는 분이, 오촌 되는 분이 여기를 왔었어, 상, 그 상'객으로.}
- 10203 # 어 그'래 내 으, 우리'집' 상'개'그로 와'서 여'게 와'간'녀 하'로'뻘 주'무'시고 그 이'튼' 널 도'러가'시고, 에 텔'따 주'고 그'래 가'고, 그'래'따고, 그'래. {어 그'래 내 우, 우리'집' 상'객으로 와'사 여'기에 와'서는 하'룻'밤 주'무'시고 그 이'튼'날 도'러가'시고, 어 데'려다 주'고 그'래 가'고, 그'랬'다고, 그'래.}
- 10204 @ 그'다'으'메 그'때 머' 혼'수 가'통 경'우'너, 어 결'혼 예'물' 가'통 거'너 주'로 어'뎡' 거 주'를? {그 다'음에 그'때 뭐 혼'수 같'은 경'우는, 어 결'혼 예'물' 같'은 것'은 주'로 어'뎡' 것'을 주'로?}
- 10204 # 결'혼' 예'무'이'러 그'늬 게 인'제' 참' 쪼'끔 저'네'드 얘'기'했'데 마'이, 그'은 끼'리'끼'리 모'여'야 데'잉 게'라'꼬'요. {결'혼 예'물'이라 그'러는 게 인'제' 참' 쪼'끔 전'에도 얘'기'했'는데 말'이지, 그'것'은 끼'리'끼'리 모'여'야 되는 거'라'고'요.}
- 10204 # 예', 이 지'금'도 그'른 서'얼'미 이'게'찌'요. {예, 이 지'금'도 그'런 성'질이 있'겠'지'요.}
- 10204 # 연'날'또 땡' 그'룩 께'리'끼'리'그 데'늬' 겐'데, 어'이 덴' 하'게 땡'면, 이 여 호'년' 예: 무'리'라 그'늬 거'시 머' 도'니 이'스'뎡 머' 금'반'지'도 해'이고 금'모'꼬'리 해'도 데'고 머 으 금'장'시'글 해' 준' 거'시 조'치'마'는, 황'경'이 허'락 짜'늬 사'러'른 머' 움 모'탄 사'람'도 이'게 이'꼬. {옛'날'에도 역'시 그'래 끼'리'끼'리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었'나 하'게 되'면, 이 여'기 혼'인 예'물'이라 그'러는 것'이 뭐 돈'이 있'으면 뭐 금'반'지'도 하'고 금'목'걸'이'도 해'도 되'고 뭐 어 금'장'식'을 해' 주는 것'이 좋'지만'은, 황'경'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어 못' 하'는 사'람'도 이'런'게 있'고.}
- 10204 # 또' 머'으 으 그'보 쪼'끔' 모'탐' 또 거 더 음'반'지 한 사'람'도 이'꼬, 또 으 금'반'제' 핵, 해:도 머 한 돈'쥬'이나 으 이 쪼'매'냥' 결'로 이'래 먼 표'시'만 하'고, 또 잘'사'는 지' 벤 머 항'저' 업'썬 해' 주'고, 우리' 거'뜯' 추, 처'지'에'너 그'저 머' 다'일 이, 이, 금' 머 음, 조'선' 오'시'르 그'제, 함:보'글 잉'으, 다'일 닝'게, 이'별' 함' 불' 정'도 해' 주'고 또' 그 머' 어 반'지'라 그'늬 거'늬 머 쪼'매'냥' 거'즈 실:반'지 정'도 데'찌 시'꼬, 응' 거, 그'욱, 그'래 지'내'서'여. {또 뭐 어 그'보'다 쪼'끔 못'하'면 또 그 저 음'반'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어 금'반'지 해, 해'도 뭐 한 돈'쥬'이나 어 이 쪼'그'마'한 것'으로 이'래 뭐 표'시'만 하'고, 또 잘'사'는 집'에'서는 뭐 한'정' 없'이 해' 주'고, 우리' 같'은 처, 처'지'에'는 그'저 뭐 당'일 입, 입'을, 그 뭐 음, 조'선' 옷'이'라'고 그'러'지, 한'복'을 이, 당'일 입, 입'을 한' 별' 정'도 해' 주'고 또 그 뭐 어 반'지'라 그'러는 것'은 뭐 쪼'그'마'한 그'저 실'반'지 정'도 땡'지 싶'고, 음 그, 그, 그'래 지'냈'어'요.}
- 10204 @ 그, 그'때 혹'씨:' 그'어 그'럼'며 시, 실'라, 어'르'신 쪼'게'서 그'어: 심'부 쪼'게' 머' 예'물' 해' 드'링 거'너 머, 머 해' 드'려'썬'미'까? {그, 그'때 혹'씨 그 그'러'면 신, 신'랑, 어'르'신 쪽'에'서 그 신'부 쪽'에 뭐 예'물' 해' 드'린 것'은 뭐, 뭐 해' 드'렸'습'니'까?}
- 10204 # 그'어 그'케 인'제' 말'항' 게' 이 예'무'리'랑' 게'. {그 그'래 인'제 말'한 게 이 예'물'이라'는 게.}

10204 @ 온? {웃?}

10204 # 모 태 조'따꼬. {못 해 줬다고.}

10204 # 그'래 이그 금, 실:반'지 비스탕' 거' 그어, 금반'지 한 돈쭙'도 그'어 자 란 데께'라.  
{그래 이것 금, 실반지 비슷한 것 그것, 금반지 한 돈쭙도 잘 알 될거야.}

10204 # 한 동쭙', 몰'래 그은 내마'겐. {한 돈쭙, 몰라 그 내막에 대해서는.}

10204 # 여' 그그 하나' 해:꼬', 그 머 이브, 다'임 이'블 저 온' 함' 불 해꼬'. {여 그것 하나  
했고, 그 뭐 입을, 당일 입을 저 웃 한 벌 했고.}

10204 @ 치마저고리 해돈? {치마저고리 했고?}

10204 # 마에, 치마저구'리 해꼬'으, 그게'지 머'. {맞아, 치마저고리 했고, 그것이지, 뭐.}

10204 @ 요즈'음, 요 그, 예전, 요즘'도 머' 업는' 사'암드렁 그'르게 그 하'고 그래 함'미다  
는, 예저느, 그 당시엔 더 그러쉴께따, 그'지예? {요즘, 요 그, 예전, 요즘에도 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더 그랬었겠다, 그  
렇지요?}

10204 # 예아, 예나'레는 머' 익 기'양 자'수 성네하'는 사'람도 마내 짚니'꼬에. {예, 옛날에  
는 뭐 이 그냥 자수 성례하는 사람도 많았지 않습니까.}

10204 # 그 참'물 향 그'룩 떠 노'코 기'양 고'마 마쩔하'구 곱마 결혼한' 네'도 이'꼬, 엄: 사  
'러미 황겨'이 허락 짜느'면 그'른 네:도 이'써꼬. {그 찬물 한 그릇 떠 놓고 그냥 그만  
맞절하고 그만 결혼한 예도 있고, 없는 사람이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예도 있  
었고.}

10204 @ 그: 그어'기 혹시 그 꼬어름머는 심부 쪼'게서, 심부 쪼'게서 이 씨이집을' 때, 예  
시집을' 때아 혼수'너 보통', 그 땅시'에눔 보통' 어'뜨게 해'씀미까? {그 거기 혹시 그  
그러면은 신부 쪽에서, 신부 쪽에서 이 시집을 때, 어 시집을 때 혼수는 보통, 그 당  
시에는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10204 # 예, 예. {예, 예.}

10204 # 심부 쪼'게서 머'시어 여'게업 올' 때는 아 머 칭:구', 이'부자리, 또: 머' 그 으 온',  
머 오 꺼'통 거, 오감' 거'통 거 마에때여, 오'시머 시어'런 멍 오감', 시어, 어 이, 어  
이그 이, 양 애분능 오감', 머' 또' 실랑' 바지저구'리 머 이 정도'라 해' 가지 오'지 머'  
예. {신부 쪽에서 뭐 여기에 올 때는 아 뭐 침구, 이부자리, 또 뭐 그 어 옷, 뭐 옷  
같은 것, 옷감 같은 것 말이지요, 옷이면 시어른 뭐 옷감, 시어른, 어 이, 어 이것 이,  
양 어른들 옷감, 뭐 또 신랑 바지저고리 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오지, 뭐요.}

10204 # 그'래 그 잘'사는 지'벤 또' 황정 어:꼬', 그'룽 거는뇨'. {그래 그 잘사는 집에서는  
또 한정 없고, 그런 것은요.}

10204 # 잘'사는 지'벤 먹 우웁 머, 음' 브 차'로 메 빠'리시 실'꼬 땡긴 집'또 이 짚니겨.  
{잘사는 집에서는 뭐 어, 어 뭐 차로 몇 바리씩 싣고 다니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10204 @ 잘사는 지'븐 그'르코? {잘사는 집은 그렇고?}

10204 # 이여, 그르치'만 이 고고, 황경'이 혁, 허락 짜'느멩 게와' 그저' 나'리나 냉'긴 수도  
이'꼬, 그래 짚'닉, 글'때느. {예, 그렇지만 이 뭐냐, 환경이 허, 허락하지 않으면 겨우  
그저 날이나 넘기는 수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10204 @ 그'영까 머' 다: 살:기' 나름네 \*? {그러니까 뭐 다 살기 나름으로 \*?}

10204 # 네', 그'케요. {예, 그러게요.}

10205 @ 예:, 살:기 나르'므로 그'래 헨'능 게 그 당시 그으'고, 어 그람'머 그'때 어'르신 그

'어 인제' 결혼하'서 가'주고 어 인제' 부'잉께서 오'셔쉴 때' 그거 어르'신 그거 부'몬니  
를 모시'고 사셔썸'미까, 어'떠케 사셔'썸미까? {예, 살기 나름으로 그래 했는 게 그  
당시 그것이고, 어 그러면 그때 어르신 그 인제 결혼하'서 가'지고 어 인제 부'인께서  
오셨을 때 그것 어르신 그것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10205 # 예', 가'치 사'몽 모시'고 사'러쎄요, 머'. {예, 같이 사'뭇 모시고 살았지요, 뭐.}

10205 # 으 글'땐 내어 머' 장:남 처지'루설랑은 으에 머' 또' 황겨'이 녀'너칸' 다'으메삼 머  
이'르 줌' 떠'르여스 사은' 수도 이'짜모, 황경'도 웅와 생'와를 뺏'뜨탄'데 이, 이, 이,  
입 두 꺾' 살리'면 살 수'도 어, 어쎄, 그'래 은 그'래 금 머 어으이, 머 그여 사모' 모:  
시'고 사'러찌 머이. {어 그때는 내가 뭐 장남 처지로서 어 뭐 또 환경이 넉넉한 다음  
에 뭐 이래 줌 떨어져서 사는 수도 있지만, 환경도 어 생활은 빠듯한데 이, 이, 이,  
이 두 집 살림은 살 수도 없, 없고, 그래 어 그래 그 뭐 어, 뭐 그 사'뭇 모시고 살았  
지, 뭐요.}

10205 # 도리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10205 @ 머' 그 당시'엔, 머' 지'금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대:개 꼬'어 어'쨌든 그 당시'에너  
머 장남' 가'통 경우'너 어'쨌든 다: 모시'고, 부'몬님 모시'고 사'쎄'스니까? {뭐 그 당  
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그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장남' 같은 경  
우는 어'쨌든 다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사'셨으니까?}

10205 # 예, 그'케, 예, 예예, 그르'디키탕 그, 궁, 그르'타'꼬'고 바'끄'드, 글'땡 고'르 점'부 다  
가' 어 부'몰' 모시'거 사:능' 게' 그 윈'치기'라'꼬 바'꼬', 그래 으'때, 이'요서. {예, 그'렇  
게, 예, 예, 그'렇다고 그, 그, 그'렇다고 봤'거든, 그때 고'만 전'부 다'가 어 부모'를 모시  
고 사는 게 윈'칙'이라고 봤'고, 그래 그때, 요'기'에서.}

10205 @ 거'므 그'때 그 부'잉께서 시'집오'셔쉴 때 부'모님 웨'에 누'거 형'제'분'드'른 누'우'구  
, 시'집 앙' 간: 형'제'분'드리'나? {그러면 그때 그 부'인'께서 시'집오'셨을 때 부'모님 외'에  
누'가 형'제'분'들은 누'구, 시'집 안' 간 형'제'분'들이'나?}

10205 # 이'서'쨌'용. {있었지요.}

10205 @ 누'구 누'우 게'셔'썸'미'까? {누'구 누'구 계'셨'습'니까?}

10205 # 어 시'동'새~'이 하나 이'쨌'꼬, 내 바'러 미'테 동'새'이. {어 시'동'생'이 하나 있었'고,  
내 바'로 밑'에 동'생'이.}

10205 # 또' 그다'으'메 이'기 여'동'새~'이 이, 이, 두'리 이'쨌'꼬 그'래'쓰'미'네'여. {또 그 다음'에  
이'게 여'동'생'이 이, 이, 둘'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10205 @ 그'럼'머 어'쨌'든 거 여'동'생' 둘: 이'쓰'꼬, 어 그다'으'메 미'테 남'동'생'하'오 그'르'게  
세: 부'니 더 형'제, 저 시, 시'집' 앙' 가'고 장'가' 앙' 간' 세 부'니 더 게'셔'따, 그'지'예?  
{그러면 어'쨌'든 그 여'동'생'이 둘 있었'고, 어 그 다음'에 밑'에 남'동'생'하'고 그'르'게 세 분  
이 더 형'제, 저 시,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세 분'이 더 계'셨'다, 그'르'지'요?}

10205 # 예, 예. {예, 예.}

10205 @ 그'래'서 그'업'머는 부'잉'께서 오'셔 가'주고 어'쨌'든 머 나'머'지 동'생' 세 부'는 장'가' 보  
내'고 십'브'집' 가'고, 이'러'케 한'네'예? {그'래'서 그'러'머는 부'인'께서 오'셔 가'지고 어'쨌'든  
뭐 나'머'지 동'생' 세 분'은 장'가'보'내'고 시'집'가'고, 이'러'게 한'네'요?}

10205 # 결'과'저'그'로'으 그'른 세'미'저. {결'과'적'으로 그'런 썸'이'지요.}

10205 # 그'게' 인'제' 이 제'일' 미'아'녕' 거'십' 그 참' 그 장'남'미'야 전'는 채'기'미 그'객' 이'  
꼬 보'면 참' 조'은'데, 어'어, 어'쎄' 보'면 낭'감'하'다'꼬. {그'게 인'제' 이 제'일' 미'안'한

것이 그 참 그 장남이라는 것은 책임이 그게 있고 보면 참 좋은데, 없, 없고 보면 난감하다고.}

10205 # 웨:냐', 후우 머' 오 부모한테 재'선 물레바능 거'또 만 창'코, 그 어:꼬', 게와' 식쭈, 여 참느 인 식쟁'와런 해 나'간데, 그 결혼쓰'게자 그'능 게 머열 쯔 참' 그'게' 쉬운 니'리 아이 리이이리래겔머은. {왜냐, 그것 뭐 어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은 것도 많지 않고, 그 없고, 겨우 식생활, 여 참 이 식생활은 해 나가는데, 그 결혼시키자고 그려는 게 뭐 저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 일이었거든요.}

10205 # 쉬운' 니'리 아이'래유.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205 # 그 머' 나'미 볼' 뎡느 그'까'지 꺼'또 장, 으 참느, 잔체'라 글'찌 몰래'도, 그 당사자는 버겁'따꼬, 그어'또요. {그 뭐 남이 볼 때는 그'까'짓 것도 잔, 어 참, 잔치라 그럴지 몰라도, 그 당사자는 버겁다고요, 그것도요.}

10205 # 으어, 그'러'쑤'따다, 그'게. {어, 그렸더라고요, 그'게.}

10205 # 예, 사라보'이'께네. {예, 살아보니까.}

10205 # 으, 그'마'끔 예'릅'뜨라, 구'게'요. {어,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그'게'요.}

10205 @ 마쓰미드, 쯔 녁'너'하'머'넌 쯔' 더? {맞습니다, 쯔 녁'너'하면은 쯔 더?}

10205 # 예, 녁'너'카'르 쯔'그. {예, 녁'너'하면 조금.}

10205 @ 혼수'도 쯔' 더 잘해 줄 수? {혼수도 쯔 더 잘해 줄 수?}

10205 # 예아, 녁'너'캄머 이에예, 내 마'음'버'트'문 더' 조'우 께'래'업. {예, 녁'너'하면 예, 내 마음부터 더 좋을 거예요.}

10205 # 우선' 동'생'이'든지 머' 매'부'라'든지, 그'른 사'암'인'데 흡'쫓'케 해 보내 주'른 얼마'나 조'케'쓰'에, 그'에. {우선 동'생'이'든지 뭐 매'부'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흡'족'하게 해 보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10205 # 그'른'데 그'게' 안 데'이'께네 그 잠' 남'감'하'더'라'꼬.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참 난감하더라고요.}

10205 # 그'그'보'다 더 서 참' 어'혼 안'타'까'운 일'히'히으 업'습'따'다. {그것보다 더 저 참 어 안타까운 일이 없더라고요.}

10205 @ 어'쨌'픈 그'르'케 보'며'늬 머' 지'곰 부'잉'게'스'도 아마 고'새'을 마이 하'셔'술 꺼 가'코'?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뭐 지금 부'인'계'서'도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10205 # 예', 해'쑤'니다. {예, 했습니다.}

10205 @ 아, 어, 어, 미'테 세 분' 장'가'보'내'고 하'시'고 시'\*\*\*\*? {아, 어, 어, 밑에 세 분 장'가'보'내'고 하'시'고 시'\*\*\*\*?}

10205 # 예, 예아, 예아, 이'여'인, 이'거' 머' 그 예', 자'랑'말' 이'른 아'임'니'다'마'능 고'생'도 해'쑤'니다. {예, 예, 예, 이, 이것 뭐 그 예,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 고'생'도 했습니다.}

10205 # 음' 머' 그, 그'걸', 고'생'항' 걸' 자'랑'을 하'니'꺼'쑤'니다'마'는 고'생'을 쯔' 해'쑤'니다. {어 뭐 그, 그것'을, 고'생'한 것'을 자'랑'을 하'겠'습'니'까'만은 고'생'을 쯔' 했습니다.}

10205 # 어', 업':는' 지'베 와 가'주'고 그 침' 이'만'침 어 예, 썩, 상: 거'도 마이 사'라'꼬. {없, 없는 집에 와 가'지'고 그 참 이'만'큼 어 예, 산, 산 것도 많이 살'았'고.}

10205 머' 그 당'시'에. {뭐 그 당'시'에.}

10205 @ 그 당'시'에 머' 다: 어'려'워'쑤' 때'니'까? {그 당'시'에 뭐 다 어'려'웠을 때'니'까?}

10205 # 허아, 참: 내 그'거' 이'야'기 참'. {아, 참 나 그'것' 이'야'기 참.}

10205 @ 아마 그'런 부'분'드'리 쯔'그'른 어 또' 나'쨌' 고'세 와'서 아무'래'도 살'기'그 쉬운' 니'

른 아니네여?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 또 낯선 곳에 와서 아무래도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요?}

10205 # 그'래요, 그르, 예, 예, 예, 쉬운 니롱 아이지르, 또 군'나따나 나'썬 동네 와 가'주 오 나, 집' 설고', 나'썬 지'배우 와 가지운 더군두'나 군:새'칸 살림한'다 그'능 게 열: 마'나 예'로워께써예, 그'게. {그래요, 그래, 예, 예,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거기 에다 낯선 동네에 와 가지고 낫, 집 설고, 낯선 집에 와 가지고 더군다나 궁색한 살림한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게.}

10205 # 여, 참' 말: 모탈' 사저'이지요. {예, 참 말 못할 사정이지요.}

10205 @ 어르'싱께서으 흑씨 처가찌'배 가'서슬 때너어' 처가 시'꾸드른 어'떠케 구성데가 이'써씀미까? {어르신께서 흑시 처갓집에 가셨을 때는 처가 식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10205 @ 아까' 장인어르'는 도'러가셔따 하'서꼬? {아까 장인어른은 돌아가셨다고 하셨고?}

10205 # 예', 그'이 처가'에 가'이께네 그 당시'는 썬을르 그 머거'로, 그 어 인 장:모'가 게 셔'꼬, 또' 마쳐나'든, 썬겔 처나'미 형'제부이래꼐 처'제가 두리'래엔데야, 허'르이 마쳐 나'명 객'찌이 나가 이, 이'써꼬, 두째 처나'미 그'어서 인제' 참' 지'별 꾸'리고 사'아'고 구'련데, 거거우 가 보~'이께네 머 구 그'릅써다으, 거'어도 머' 그'키 잘'사는 집'또 아 이'고 프 내나' 그'어나 조쌍. {예, 그 처가에 가니까 그 당시는 저기 그 뭐냐, 그 어 이 장모가 계셨고, 또 말처남은, 저기 처남이 형제분이었고 처제가 둘이었는데, 그러 니 말처남은 객지에 나가 있, 있었고, 둘째 처남이 거기에서 인제 참 집을 꾸리고 살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뭐 그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도 뭐 그렇게 잘사는 집 도 아니고 뭐 나나 거기나 비슷하게.}

10205 # 그'르이 머' 내'게 꺼 니 경'계라꼬 내 지'비 군새카'이께네 나'무 지'배 가'도 맹 조 심스'럽따고. {그러니 뭐 내 것이 너 경계라고 내 집이 궁색하니까 남의 집에 가도 역시 조심스럽다고.}

10205 # 맹' 잘'사는 집' 꺼'똥멕 갠잔, 빠빠탄 지'에 맹: 저'도 내' 거튼너이 심저'익 아이젠' 나 하'는 생'가기 프러 가'주 하로' 도' 노오 꼬'또 몬: 놀'래드라꼬요. {역시 잘사는 집 같으면 괜찮지만, 빠듯한 집에 역시 저기도 나 같은 심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어 가지고 하루 더 놀 것도 못 놀겠더라고요.}

10205 @ 마슴미'다, 예. {맞습니다, 예.}

10205 # 피히'가 텐'다꼬 마리지어. {피해가 된다고 말이지요.}

10205 # 목 그'래 가주'우 프안 데, 다~'일 나온' 수도 이'꼬. {뭐 그래 가지고 뭐 당, 당일 에 나오는 수도 있고.}

10205 # 으 그'른 네:가 마네'니드. {어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10205 # 그'런데 잉 그 으 그'게 인제' 이 결'호니라으 게' 이'게' 맹' 며 으 서로' 비스태'야 데엑, 이, 이, 테드'라꼬. {그런데 이 그 어 그'게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게 이'게 역시 뭐 어 서로 비슷해야 돼, 이, 이, 되더라고.}

10205 # 그'여 너무 잘'사는 지'배 또' 즈 장개까보오 너'어므, 바리' 마'리음 너그 머 잘'사는 지'비 장개간 사'름 얘기' 드'르며 홀'때바은다 그래'고. {그 너무 잘사는 집에 또 저 장가를 가 놓으면, 다른 이의 말로는 뭐 잘사는 집에 장가간 사람 얘기 들으면 홀대받는다 그러고.}

10205 # 꼬 어이 지, 저까'집 프 사'이 온달 잘'또 보고 사'은다 그 홀'때바다 소'리음 나오'

고. {그 어 저, 저까짓 뭐 사위 온달을 잘도 보고 산다 그러면서 홀대받았다는 소리만 나오고.}

10205 # 우리'잉 겨'꺼 보지 아'너씨이 그'룽 거는 모'르고. {우리는 겨어 보지 않았으니 그런 것은 모르고.}

10205 # 그래도' 사정'어영 그'르트라꼬, 그게'요. {그래도 사정은 그렇더라고, 그게요.}

10205 @ 그러미 지'금 그 부'잉께서 그암'며너 처가찌'베션 형제 중'에서 가운'땀심미까? {그러면 지금 그 부인께서 그러면은 처갓집에서 형제 중에서 가운데이십니까?}

10205 # 딸'로눔 마'지고요, 딸'로눔 마'지고, 어 이 형'제 수:니'느 세째'고 그'래지요. {딸로는 맏이고요, 딸로는 맏이고, 어 이 형제 순위는 셋째고 그렇지요.}

10205 @ 아, 예, 위에 인자 까므 오, 오'라비 쫘? {아, 예, 위에 인제 그러면 오, 오라비가 쫘?}

10205 # 야, 예어, 그 위에 예예, 두리'고, 예. {예, 예, 그 위에 예, 돌이고, 예.}

10205 @ 오'라비 두: 봉' 게신'고? {오라비 두 분 계시고?}

10205 # 으예, 예, 예. {예, 예, 예.}

10205 @ 은절 딸, 부이니시고, 그다음 미테 처제 두 봉' 계시고, 그래 계시다, 그찌예? {인제 딸, 부인이시고, 그 다음 밑에 처제 두 분 계시고, 그래 계시다, 그렇지요?}

10205 # 아, 이제에 아 \*\*, 예, 응어예, 그러컨, 예, 드, 그'랜니더. {아, 이제 아 \*\*, 예, 예, 그렇고, 예, 그, 그랬습니다.}

10206 @ 지'그몽 그럼'며너 머 부인 입'짱에서 보'며년 시대'게 지'곰 게심 분'드너 다른 분'드른 아무'도 앙 계시지'예? {지금은 그러면은 뭐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시댁에 지금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10206 @ 아, 머' 형'제분들, 누'님 함 분 계시'고? {아, 뭐 형제분들, 누님 한 분 계시고?}

10206 # 예', 누'님 함 부릴 계시'고여 땀 부'는 다: 모. {예, 누님 한 분이 계시고 다른 분은 다 뭐.}

10206 @ 다 도러가시, 자꼴 하셔꼬? {다 돌아가셨고, 작고를 하셨고?}

10206 # 예, 예, 예, 음, 머, 머 어 그'르이. {예, 예, 예, 어, 뭐, 뭐 어 그러니.}

10206 @ 지움 다른 분'드르 앙 계신다, 그'지예? {지금 다른 분들은 안 계신다, 그렇지요?}

10206 # 예예. {예.}

10206 @ 그엄'므 혹시' 어르'신 여'기에 그어 머 사촌: 가'니나 유, 육촌 가'니나 그'렁 경우'나 이릭 똥네이 게심미까? {그러면 혹시 어르신 여기에 그 뭐 사촌 간이나 육, 육촌 간이나 그런 경우가 이 동네에 계십니까?}

10206 # 예아, 아 사촌', 육초'는 민', 인니'더, 여'게더 모'두. {예, 아 사촌, 육촌은 있,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두.}

10206 # 큰지'비 여' 이'꼬 그른데', 거'게 역씨'도 또 며'천 개찌'이 가: 이'뽕, 요 머 살, 으테 여가 여, 여, 음 머시그, 여 저 음 한 지'비 사:고 인니'더마능그 거'어도 뽕' 그'으한 집빠'께 업씨', 여게더, 예. {큰집이 여기 있고 그런데, 거기 역시도 또 몇은 객지에 가 있고, 요기 뭐 살, 어디 여기 여, 여, 어 뭐냐, 여 저 어 한 집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한 집밖에 없어요, 여기도, 예.}

10206 @ 아, 그 살:고 계시'눔 분'도? {아, 그 살고 계시는 분도?}

10206 # 어예, 이예. {예, 예.}



10206 @ 그 그'엄 객찌'에 주'로 은전 출향'아 하'셔따, 그'지예? {그 그러면 객지에 주로 이제 출향을 하셨다, 그렇지요?}

10206 # 예, 서울, 서, 예아, 예, 출향, 출. {예, 서울, 서, 예, 예, 출향, 출.}

10201 @ 그다'으미 그' 어르'신 흑'시웁 군대'느 다녀오오오셔썸미까? {그 다음에 그 어르신 흑시 군대는 다녀오셨습니까?}

10201 # 내가' 군대'을 모 까'썸니다. {내가 군대를 못 갔습니다.}

10201 # 왜: 모 칸'냐 하기 데'문, 내'경 누'널 다'치뜨래썸다. {왜 못 갔냐 하게 되면, 내가 눈을 다쳤더랬습니다.}

10201 # 누'늘 다쳐 가'주 글'때 신체검사 하'이께네 불하껴'기 데 가'주오 군대'늬 모 까'쓰여. {눈을 다쳐 가지고 그때 신체검사를 하니까 불합격이 돼 가지고 군대는 못 갔어요.}

10201 # 그'래 가'주'고 또' 결'호'니 쪼'끔 느'저꼬 그'래썸다, 내'가, 예. {그래 가지고 또 결혼이 조금 늦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

10201 @ 누, 누'늘 다치셔 아'주구 그러셔따, 그'지예? {눈, 눈을 다치셔 가지고 그러셨다, 그렇지요?}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 보통' 어웁 그웁 어르'싱 게셔:, 어르'신 연'배 때'년 군대' 다 가'셔썸예, 대개'너? {보통 어 그 어르신 게실, 어르신 연배 때는 군대 다 가셨지요, 대개는?}

10201 # 대:개' 다: 가'썸용. {대개 다 갔지요.}

10201 @ 이, 그러치'예? {이, 그렇지요?}

10201 # 예이. {예.}

10201 # 대개' 다 가 주'고 신'체 머 어 이, 어 이'짜'기 결'하미 인는 사'럼드런 모 까'꼬. {대개 다 가 가지고 신체 뭐 어 이, 어 이'쪽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못 갔고.}

10201 # 으'우 군대'는 모 까'썸도 군대'에'이으 강' 거보'다 더' 겨'꺼썸니다. {어 군대는 못 갔어도 군대에 간 것보다 더 겪었습니다.}

10201 # 술'탄' 험'항' 거 다' 바'쓰웁다. {술한 험한 것 다 봤습니다.}

10201 # 머' 이이 보'구'때르 건'늬 명'칭' 띠'아 가'주 마'리야 여'어도 끌'꼬 가'고 저'거또 끌'꼬 아우 수'타'이 따라 탕'기다 봄'덜, 으 군대'에 가'슨 차'라리 더 나'아쓰 게'레요. {뭐 이 보급대라 그러는 명칭을 붙여서 말이야 여기도 끌고 가고 저기도 끌고 가고 술하게 따라 다니다 보면, 어 군대에 갔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거예요.}

10201 # 그거 이 요'새' 말'하'땀 썸 이 제'대'썸이라두 하나 이'썸요. {그것 이 요새 말하면 저 이 제대증이라도 하나 있지요.}

10201 # 이거'또 어'꼬' 저'거'또 어'꼬', 전'쟁'은 더: 겨'꺼썸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전쟁은 더 겪었습니다.}

10201 # 머' 수'탕', 아'군'도 전'쟁' 겨'꾸오 이, 임'밍'군' 전'쟁'도 겨'꾸꼬 마'리, 여'게도 끌'래'에 따 저'어도 끌'래'따, 이'리, 이'래 데 뿌'르나 마'래. {뭐 술한, 아군도(+ 아군과 함께) 전쟁을 겪었고 인, 인민군 전쟁도(+ 인민군과 함께) 겪었고 말이야, 여기에도 끌려 갔다, 저기에도 끌려 갔다, 이래, 이래 돼 버렸단 말이야.}

10201 # 으'격 그, 커, 커, 거, 그'거'는 어으 말'하'라 금' 말'로 참' 전, 지, 채'그로 썸'도, 채'그도 모 쓰 게'레요. {어 그, 그, 그, 그, 그것은 어 말하라 그러면 말로 참 저, 저, 책으로 썸도, 책으로도 못 쓸 거예요.}

10201 # 하, 하'이따, 고생한' 건뇨. {하, 하, 고생한 것은요.}

10201 # 어을땡' 꼬'새~이 데 가'주우요, 아이구' 키아냥' 고생해'씁니다. {엉뚱한 고생이 돼 가지고요, 아이고 희한한 고생했습니다.}

10201 @ 혹'썸 머 할' 때 기어나::시능 거' 이'쓰면 함무 이야'기 썸' 해 주'실람미까? {혹시 뭐 할 때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시렵니까?}

10201 @ 유;기오 절란' 때? {육이오 전란 때?}

10201 # 아하, 예:, 유기'오용. {아하, 예, 육이오요.}

10201 @ 거 억 고생하'서땡 그'런 부'부네 \*? {그 어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에 \*?}

10201 # 제엘' 가차'운 요'게소부툼 함'시더. {제일 가까운 요기에서부터 함시다.}

10201 # 글때'가 오십 년도올째, 그이 유월' 그게 이식구'일라립니다. {그때가 오십 년도지, 그 유월 그게 이십구 일입니다.}

10201 # 여'게으 구 강원'도오서 응, 기, 옥, 어 가원 경찰'때가 여'게 나와'쓰네, 요 아'페 다리 아'페 여'게 와 이썸, 주'두늘 해'씀미다. {여기 그 강원도에서 어, 그, 어, 어 강원 경찰대가 여기에 나왔었는데, 요 앞에 다리 앞에 여기에 와 있었는데, 주둔을 했습니다.}

10201 # 주'둥을 해 이'썸꼬, 그'르다 이께넥 거'기서 우리으 동네'에다 가'따 사라'므 차'출하능 게'라요. {주둔을 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동네에 갔다 사람을 차출하는 거예요.}

10201 # 사:람' 차출하능 게' 내보다' 절'문 사'암더 구 내보다' 나'이 마은 사'암더 겐, 다'서 시 차'추리 데 가, 테우 그 사'암들 따러 가'썸요. {사람 차출하는 게 나보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다섯이 차출이 돼 가지고, 되어서 그 사람들 따라 갔어요.}

10201 # 따르 가'니거 저'어서부툼 보고'푸를 나르'랑 게'러, 시'러 가'주. {따라 가니까 저기에서부터 보급품을 나르라는 거야, 실어 가지고.}

10201 # 으 탄:도' 날'러 주'고 땅 음 만 포'탄도 나'르아 그'오 탄, 그'래 가'주 그'어 저 인, 저 사'닙니다, 바로 요 이, 요 딴'네, 여'게 군대'가 걱 강원도 경찰'때'거 열' 지는' 쳐'쓰미다. {어 포탄도 날라 주고 다른 것 뭐 포탄도 나르라고 그러고 포탄, 그래 가지고 그 저 이, 저 산입니다, 바로 요 이, 요 뒷산에, 여기에 군대가 그 강원도 경찰대가 진을 쳤습니다.}

10201 # 거'어서, 저'어서 인제' 으 삼'째에석 그'날 비'가 와연데으 군대'가 둥'오능 게'래요. {거기에서, 저기에서 인제 어 삼재에서 그날 비가 왔는데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10201 # 꼬' 이겨 총' 쏘'능 어 그'닐 침 바'쌌니당. {그 이것 총 쏘는 것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10201 # 총'을 떠리' 말그 기완'총을 싸: 대'고 하'이그 저'어서도 쏘'고 마'리지, 야단 나'느 꺼 떠, 이 은지' 주'거따 시'퍼떠라고호, 난. {총을 이리 막 기관총을 쏘 대고 하니까 저기에서도 쏘고 말이지, 야단 났는 것 같더니, 이 인제 죽었다 싶더라고, 나는.}

10201 # 크'래 가'주고 그날 마'썸 너므가'이께음 으 그 쳐'어선 드오'능 게' 아구'니랑 게'라요. {그래 가지고 그날 마침 넘어가니까 어 그 저기에서 들어오는 게 아군이란 거예요.}

10201 # 그'래 가'주이 여'섬 모에' 가'조 고'서 달'째마네 이 즈 저'기서 후테'엘 한'데, 그 군대'엘 따'라가즈 저'꺼'춤 나'가스음당.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모여 가지고 고기에서 땃새만에 이 저 저기에서 후퇴를 하는데, 그 군대를 따라서 저기까지 나갔습니다.}

- 10201 # 저'으, 저 안농께'지 거'이 다: 가'쫘다. {저, 저 안동까지 거의 다 갔습니다.}
- 10201 # 거'어 가'이께 예:고'개라 그'언테익, 그'어 가'이께 산똥'게에서 먼딩기른 임핑구'니 막' 총'을 쏘'데 마'리예요, 머 잉 베'라기 납'따다. {거기 가니까 예고개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산등성이에서 뭐 인민군이 막 총을 쏘는데 말이에요, 뭐 이 벼락이 나더라고요.}
- 10201 # 구'루이 머' 오우 궁 어 겨'어먼 처미'제, 이어 으, 어, 어트'게 처살' 해'야 사:나 하'능 거'빠'게 생'각찌 앓트'라꼬. {그러니 뭐 어 그 어 경험은 처음이지, 이 어, 어, 어떻게 처사를 해야 사나 하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
- 10201 # 그래 가'주우 거'어서늬 머 음 이, 인지'는 이, 여'이슨은 이 중'는 수배'께 업'따 한 생'가인 텔, 드'르거 거'서 그'마 다'라나쫘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뭐 음 이, 인제는 이, 여기서는 이 죽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들어서 거기에서 그만 달아났습니다.}
- 10201 # 아:이구 그 인 내'가 사자 하'니까 마알, 총'아른 비빨치'지여, 머 포'타는 떠러지'지에, 포'타넵 빠'러지제, 머' 명녕' 게'통독 업'서'요. {아이고 그 이 내가 살자고 하니까 말이지, 총알은 빗발치지요, 뭐 포탄은 떨어지지요, 포탄은 떨어지지, 뭐 명령 게 통도 없어요.}
- 10201 # 머' 어 구 군대'고 머'고 미 니' 어애'라 소'리 하'는 사'렴도 어:꼬', 장교'도 어'꼬 사병'도 업'써여, 고'만 지머때'르 그'마. {뭐 어 그 군대고 뭐고 뭐 너는 어떻게 해라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장교도 없고 사병도 없어요, 그만 제멋대로 그만.}
- 10201 # 머 구 주 구 여 산, 산똥'미에서잉 께이 기총 사'결드리 해 대'이 차'에서 내'리이 께네 짐마'끔 다: 다'라나 뿌'능 게'라. {뭐 그 저 그 여 산, 산등성에서 그 기관총 사격을 해 되니 차에서 내리니까 저마다 다 달아나 버리는 거야.}
- 10201 # 어 늬 차'출' 떼'도 업'써', 어름 검 르 난' 내대'로 내'빠'고, 저' 늬 저 늬대'로 내'빠'고. {어느 늬 찾을 것도 없어, 그런 것 뭐 나는 나대로 도망가고, 저 늬는 저 늬대로 도망가고.}
- 10201 # 그'래 가'주우' 그' 길라 해 가'주우 와 유'에 동네'꺼짐 드와'써, 여'기르 또'. {그래 가지고 그 길로 해 가지고 어찌 어떻게 동네까지 들어왔어, 여기를 또.}
- 10201 # 그'래가 참' 스, 쓰, 사, 사라'완니드. {그래서 참 살, 살, 살아왔습니다.}
- 10201 # 그'른 쩌'기드 이'쨌니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 10201 @ 그, 그'엄 그'래가 그'때 이? {그, 그럼 그래서 그때 이?}
- 10201 # 그'래 가'주거 거' 인제' 이 이거 그 엘 다'라나기, 차'에 내'리 가'주우 막 난 사:람 중'능 그 거'리 참' 바'쫘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제 이 이것 그 어 달아나기, 차에서 내려 가지고 막 나는 사람 죽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 10201 # 꼬'유 구'니'니 총'에 마'자'가'조 공'막 각 카'몽거 꼬'고 머 게'누안 자'빠'지디 고'마 머' 고'만 다'시 소'시기 업'뜨'러꼬. {그 군인이 총에 맞아서 그만 각하면서 그러고 뭐 괴로워 넘어서더니 그만 뭐 그만 다시 소식이 없더라고.}
- 10201 # 그'이께 나'느 또' 이 여'게서 구 우리' 참' 이어'여 순'지'난 마'으'미러'여 큰 그, 그'걸'로 사'러'미 주'거'씨이 어'예 데서 간 자'바'때'기이'께'넌 뽁'뽁 소'리'르 나'고 마'알'지, 말: 또' 모 타'더'라꾸. {그러니 나는 또 이 여기에서 그 우리 참 이 순진한 마음에 큰 그, 그걸로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었나 하며 가서 잡아당기니까 뽁뽁 소리만 나고 말이지, 말도 못 하더라고.}

10201 # 그러'이께네 이 여'페 사'람 이따'그, 그 주'궁 구 머하'러 만'지누 쿠며 얼: 내'뻔' 다, 그'래써허.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이 있다가, 그 죽은 것을 뛰하러 만지나 하면서 얼른 도망간다, 그랬어.}

10201 # 그'래가주 내' 거 사'람 주'웅 그 침' 바쓰음다. {그래서 내 그 사람 죽은 것 처음 봤습니다.}

10201 # 그'래가 함'든 겨'꺼썸다. {그래서 한 번 겪었습니다.}

10201 # 그'래가이 끄'거 사'미 켜'상한' 니'를 다: 이'써찌, 머히. {그래서 그것 참 괴상한 일이 다 있었지, 뭐요.}

10201 @ 거 유'기오 때 그'어 어'띠에 보'며너, 마쓰임더, 어르'심 말'씀대'로 군대' 가'쓰며 너 그'전'네 정'경 참'전 그'거 여'저? {그 육'이오 때 그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군대' 갔'으면은 그'전에 전'쟁 참'전 그'것 여'기 저?}

10201 # 예'아, 응'응, 예, 예, 참'전, 요'새' 으'이 그 이'찌으 으'어 기 다:명'능 귀'지 참'전 용'사'비'라도 타 먹'제, 이'구 그'으'또 모'타 머'구, 고'생은 수'탕' 고'생하'고. {예, 응, 예, 예, 참'전, 요'새 어 그 이'저 어 그 타'먹는 그 저'참'전 용'사'비'라도 타 먹'지, 이것은 그것도 못'타 먹'고, 고'생은 술'한 고'생하'고.}

10201 # 응, 그'뿌'이'겨, 그'래'거 또', 또'고 다'가'뻔 또'불'레'나가 가'주'설'랑 또'겨'꼬'곰, 벨'겨'며 다'애, 그'까'이 다: 애'기하'견 어'어'꼬' 함'번 겨'꺼'썸 데'꼬, 사'라'웅'께 그'래'썸'니다. {응, 그'뿐'입'니까, 그'리고 또, 또 다'음'에 또'불'려 나'가 가'지'고'설'랑 또'겪'었고, 별'것'도 다'애'기, 그'것'까'지 다'애'기'할 것'은 없'고 한'번 겪'었'으면 댔'고, 살'아'온 게 그'랬'습'니다.}

10201 @ 그'뻔' 머'어'터'에 그'럼'며너 이'피'난'늘 가'셔'썸'미'까, 여'기'서? {그'때 뭘 어'떻'게 그'러'면은 이'피'난'을 가'셨'습'니까, 여'기'에'서?}

10201 # 여'기'서 피'란' 모'까'썸'요. {여'기'서 피'란' 못'갔'지'요.}

10201 # 그'르'이 글'뻔' 따'라 나'가'썸' 피'라'니 텐'는데, 지'베'업 부'모'드'리 여'객' 이'씨'이'께 그'갈' 쭈'거 업'떠'룻. {그러'니 그'때 따'라 나'갔'으면 피'란'이 댔'는데, 집'에 부'모'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갈' 수'가 없'더'라'고.}

10201 # 나'도 구'오, 거'우, 거'으'가 고'마 그'차'로 고'마 가'사'며 그'군'대 따'러 가'썸'든 또'우'에'썸'든지 주'거'썸 사'러'찌 모'르'제. {나'도 거, 거, 거'기 그'만 그'차'로 그'만 가'서 사'뭇 그'군'대'를 따'라 갔'으면 또'어'떻'든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지.}

10201 # 그'느 하'으'때 그'어'서 기'스'별 당'애 가'주'우'탁 티'이'께'네'엔 저'리 가'기'보'던 지'브'로 와'에 텍'뿌'엔'누. {그'래 하'여'튼 거'기'에'서 기'습'을 당'해 가'지고 탁'달'아'나'니까 저'리 가'기'보'다는 집'으로 오'게 돼 버'렸'지.}

10201 # 구'우'뻔 내'아'머' 객'찌'랑 거'도'통 상'상'도 모'태'쓰'이'께'네, 우'선 지'베'브'팅 가'이'데'이'따, 그'래 가'주'운 데'두'오'이'께'네 피'란' 모'간 세'미 데'찌, 머'이 그'러'이'께'네. {그'때'는 내'가 뭘 객'지'란 것'을 도'통 상'상'도 못'했'으'니까, 우'선 집'에'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되'돌'아'오'니까 피'란' 못'간 썸'이 댔'지, 뭘 이'그러'니'까.}

10201 @ 그'르'가 그'라'고'느 여'기 머'도 임'민'군'드'리 그'암'며너 여'어'겐 주'루'아 해'썸? {그'래'서 그'러'고'는 여'기 뭘 또'인'민'군'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주'둔'안'했'습'니'까?}

10201 # 임'민'군'두'와: 이'씨'쥬, 유'게. {인'민'군'도 와'있'었'지'요, 여'기'에.}

10201 @ 주'둔'해'썸'찌'야? {주'둔'했'었'지'요?}

10201 # 여'게'와'이'씨'썸'다. {여'기'에 와'있'었'습'니다.}

10201 # 여'기가 으여이, 이, 이, 여'이가 으엥 밍 병워'니 여'기 채'리 가즈 이'서쓰미당.  
{여기가 어, 이, 이, 여기가 어 뭐 병원을 여기 차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10201 @ 아', 임밍군 병'워네? {아, 인민군 병원이요?}

10201 # 응, 예예예, 임밍군 병워'니 여' 와 이'써썬요. {응, 예, 인민군 병원이 여기 와 있었어요.}

10201 # 그'래가주 여 이, 임밍군'드림 망 머 이 썬 거'이 집점매'딩 다 와 이'써쓰미다. {그래서 여기 이, 인민군들이 막 뭐 이 저 거의 집집마다 다 와 있었습니다.}

10201 @ 점' 그'때 흑시으 몸:미'까, 그 임밍구'네서느 징'집 아 해가주 과'셔쓰미까, 어르'신? {그럼 그때 흑시 똥니까, 그 인민군에서는 징집 안 해 가지고 가셨습니까, 어르신?}

10201 # 임밍구'니이히, 임밍군'네라 그'롱 그'또 역씨 보급매' 그여 당' 해따꾸, 기암 머에.  
{인민군이, 인민군이라 그러는 것도 역시 보급대 그래 다 했다고, 그 뭐.}

10201 # 임밍군'니라 그'능 게', 그'으또 내'거이 이른 소'리꺼집 할' 피'룬 업찌'만느, 웨: 그'른나 하'게 떼른 동네' 우리' 또'래드리 매'찌이 이'써썬다. {인민군이라 그러는 게, 그것도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동네 우리 또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201 # 여' 매 썬 이'썬데, 그게' 이'게 흥'이 텐'데. {여기 몇 집 있었는데, 그게 이게 흥이 되는데.}

10201 @ 그'래서 어'썬든 그럼 :, 그럼 부'부네서 예저'네 참' 고'생을 마니 하'서따, 그'지예? {그래서 어썬든 그런,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지요?}

10201 # 고'생 마이 해'썬요, 마 애딩. {고생 많이 했지요, 많이 했어.}

10201 @ 언, 어에, 어'르게 본'다머너 언? {어, 어떻게, 어떻게 본다면은 어?}

10201 # 또' 나'능 그'르코음, 웨'나 하게 땀' 내' 종배'씨가 순사'러 이'써썬에, 글'때요. {또나는 그렇고, 왜냐 하게 되면 내 종배씨가 순사로 있었어요, 그때요.}

10201 # 경찰과'니은 이'써 가주설랑 여'기 내'가 두'와 주' 주목'또 마이 바'다쓰임다. {경찰관이 있어 가지고설랑 여기 내가 들어와 가지고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10201 # 예에 이'거 머' 거 백'씨가 즈 종백'씨가 순사'라 카'는 명칭 때쁘'래도 그 이 임밍군'들또 날: 조케 암' 바'꼬, 으 그른 네:덩어 마내'썬다, 그. {예 이거 뭐 그 백씨가 저 종백씨가 순사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도 그 이 인민군들도 날 좋게 안 봤고, 어 그런 예도 많았습니다, 그.}

10201 # 그건' 머' 까'지 애긴' 치'아 뿌, 그'래 이'거 상: 거'먼 다'행이고요, 우리'가. {그것은 뭐 까짓것 얘기는 치워 버리고, 그래 이것 산 것만으로 다행이고요, 우리가.}

10201 # 그'르기 동네' 덕태'기 모'두 사'라꼬, 그'롱 이 아이끼. {그러게 동네 덕택에 모두 살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0201 # 그 험:한' 세상'에. {그 험한 세상.}

10201 @ 그'으도 으 참' 이' 그 당시에 에 그'음 어뜨헤 피난' 양, 모 까'고 도려가'심 분'들도 망:코? {그래도 어 참 이 그 당시에 에 그 어떻게 피난 안, 못 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10201 # 만체'여. {많지요.}

10201 # 만체'요, 거'이 고'생 다: 해'썬, 머'요. {많지요, 거의 고생 다 했지, 뭐요.}

10207 @ 어: 꺼 어'르신 아까' 그'어 어 썬 이야'기를 해 주시, 어'르신 보'닌 이야'기를 썬'

해 주'선는데, 이제' 보'닌 이야기 아니고'오, 어 요즘'문 점'부 결'호를 하게 데'며너  
예식'장 가;서 안 함'미까? {어 그 어르신 아까 그 어 좀 이야기를 해 주셨, 어르신  
본인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이제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 요즘은 전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예식장 가서 안 합니까?}

10207 # 예시'장, 그'르차. {예식장, 그렇지요.}

10207 @ 예, 요즘 절'른 싸'암들? {예, 요즘 젊은 사람들?}

10207 # 점'부 예식짜'이저, 글'체. {전부 예식장이지요, 그렇지.}

10207 @ 예, 읍 아마 요즘' 예전'처럼 시고'레서 또'느 자기 지'배서 초'레 치'르거나 이'른  
사'암 아무'도 업찌' 안씀미까? {예, 어 아마 요즘은 예전처럼 치골에서 또는 자기 집  
에서 초레 치르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10207 # 허'르체거. {그렇지요.}

10207 @ 가:꿈' 머' 어'디 향'교나 저'런 데'서 옛날'씨, 방'시그로 저'여 그 홀'레' 치'르'능 경  
우 인'는데, 너, 옛'나'레 그'어 이 동네'에 쫘' 잘:사'는 집'뜰 가'통 경우'에: 쟈' 홀'레' 치  
를' 때' 어'뜨게, 어'떤 시'그로 함'미까? {가꿈 뭐 어디 향교나 저런 데서 옛날식, 방  
식으로 저 그 혼례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 옛날에 그 이 동네에 좀 살사는 집들  
같은 경우에 저 혼례 치를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207 # 옛'나'레 홀'레 치'르'능 가'능 닝 그, 그'르테 보'이께네, 옛, 어 머 조'이' 전'텐 집,  
쫘' 황'경이 조은 집'뜨런 그'업 엄 마' 침 날'짜'도 머 거'게 동네'가 다 아:고', 머' 온:  
동네'가 축'뽕도 하'고 마'아찌, 추'카도 하'고, 그'래고 또' 그'언 어 이 거 이 결'혼, 응  
그 머 초'레장 예'버요복 꺼'뜨른 그 호, 쫘'은 호'와스'러꼬 머 꼬'똥' 거'통 거'또 노'코  
마'리야, 이래 머 그'래 호'와 쫘'그'르이, 요'새'로 말: 꺼'뜨 호'와' 결혼'식'짜'이'인 데'미, 응  
거 그'른 시'그로 하'는 지'또 이 읍 마'내'쓰'찌여. {옛날에 혼례 치르는 것은 이 그, 그  
렇더라고 보니까, 옛, 어 뭐 좋게 건'딘 집, 쫘' 환경이 좋은 집들은 그 어 뭐 참 날'짜  
도 뭐 거기 동네가 다 알고, 뭐 온 동네가 축'복도 하고 말'이지, 축'하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어 이 그 이 결혼, 어 그 뭐 초'레장 예'복 같은 것은 그 호'화, 쫘 호'화스'럽고  
뭐 꽃'등 같은 것도 놓고 말'이야, 이래 뭐 그'래 호'화'롭게 조금, 요'새로 말'할 것 같으  
면 호'화 결혼'식'장이 되'겠는데, 어 그 그런 식으로 하는 집도 이 어 많'았'었'지요.}

10207 # 마'내'꼬, 잘'사는 집'뜨너. {많'았고, 잘'사는 집'들은.}

10207 @ 그럼'며너 꺼 이'젠' 이으 그 초'레:, 보'통 여'이 집'배서도 언'저' 시'집'보'낼 경'우'에  
여'기서 초'레 지'낼' 꺼 아'님'미'까, 그'지'예? {그러면은 그 이제 이 그 초'레, 보'통 이  
집'에서도 인'제 시'집'보'낼 경'우'에 여'기'에서 초'레를 지'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207 # 나, 예'야, 초'레, 여'야. {네, 예, 초'레, 예.}

10207 @ 그'어'임'며너 어 실'랑'인'하고 상'개'기 와'서 어'인'저 여'기 오'며너 초'레를 지'래'으'내  
는데, 초'레 보'통', 초'레 어'떤 시'우'루 지'냅'미'까, 예'전'네? {그러면은 어 신'랑'하고 상  
객'이 와'서 인'제 여'기 오'면은 초'레를 지'내'는데, 초'레 보'통', 초'레 어'떤 식으로 지'냅'니  
까, 예'전'에?}

10207 # 그'이 초'레'라 그'능 건' 이 인'제' 이 심'부 쟈'배 이 인'제' 마'당'에'다'설'르 이'른 상'을  
노'코 달' 라'코, 머 꼬'꼬'향 거 이'스'이'건, 달' 로'코 머 이'래'오 화'분'도 꼬'바 노'코 마'  
아'지'여, 머 이'룽 거 예' 쫘:: 채'리 노'코'설'랑. {그 초'레'라 그'러는 것은 이 인'제 이 신'부  
집'에 이 인'제 마'당'에'다'설'랑 이'런 상'을 노'코 답'을 놓고, 뭐 꼬'꼬'하'는 것이 있'으'니까,  
답' 놓고 뭐 이'래 화'분'도 꽃'아 놓고 말'이지요, 뭐 이'런 것 어 쫘' 차'려 노'고'설'랑.}

10207 @ 검므 그어 초례상'에 올'리능 게 달'하'고, 그다'음 먹 어 화분'도 올'리고? {그러면 그 초례상에 올리는 게 닭하고 그다음 뭐 어 화분도 올리고?}

10207 # 어, 예 훈, 화분 나'꼬. {어, 예 화, 화분 놓았고.}

10207 # 오'리가 인'능가, 그'르치, 암'마. {오리가 있는가, 그렇지, 아마.}

10207 @ 오리? {오리?}

10207 # 마, 예. {뭐, 예.}

10207 @ 오리', 그 나무', 나무' 오리' 가튼? {오리, 그 나무, 나무 오리 같은?}

10207 # 응, 예, 예, 나무' 어리, 그'케 마'리야, 앵 그 그'르코. {응, 예, 예, 나무 오리, 그렇게 말이야, 어 그 그렇고.}

10207 @ 그다'음 쌀' 가'통 거또 노'쌈미'까? {그 다음에 쌀 같은 것도 놓습니까?}

10207 # 그 싸:른' 논'능 거 모 빠'안데. {그 쌀은 놓는 것을 못 봤는데.}

10207 @ 예, 감' 꺼 거게또 다른' 머 머'글 거'뚜 올'림미'까? {예, 그럼 그 거기에도 다른 뭐 먹을 것도 올림니까?}

10207 # 예. {예.}

10207 # 머'그 꺼'느 안' 올'려, 거'게요. {먹을 것은 안 올려, 거기에요.}

10207 # 머'그 꺾' 안 올'리고, 거' 인제:: 어 이기 인 끼, 교'배레할 쪼 술' 으 술'뽕'을 가따 노'코. {먹을 것은 안 올리고, 그 이제 어 이것 이 교배레할 때 술 어 술병만 갖다 놓고.}

10207 @ 술'뽕'을 가따 노'코? {술병을 갖다 놓고?}

10207 # 여 잔' 나'코 이래 노'코. {여기 잔 놓고 이래 놓고.}

10207 @ 예예, 잔하'고 술'빠'은 가따 노'코? {예, 잔하고 술병은 갖다 놓고?}

10207 # 예아. {예.}

10207 # 근 노'코 인제'엑 그'래 인제' 심부 쪼'베서 초'례싸잉 마당'에 채'레지면 그어'르 인제 상'에다 그래 노'코설랑 실라~'이 그'으 초'례장어를 두우'더라고. {그래 놓고 인제 그래 인제 신부 집에서 초례상이 마당에 차려지면 그것을 인제 상에다 그래 놓고설랑 신랑이 그 초례장으로 들어오더라고.}

10207 # 실랑'이 인제' 머' 그 가마' 타고 오'는 집'또 이'꼬, 말' 타고 오'는 계'입또 그, 물'룽 그'르께 해'쪼, 잘'사는 지'변 황'겨'이라 건, 그'르코 머' 엄:느 쪼'뽕'니 거'러 두 오'고, 그'러치면 그 마당'에 두'와서 은제 이 실랑'이 예 그 이 저 초'례, 예, 예, 예 이즈 장'엘 대:길' 하'멈 심부'가 또 은제' 그 나와'요. {신랑이 인제 뭐 그 가마 타고 오는 집도 있고, 말 타고 오는 집도 있고, 물론 그렇게 했지, 잘사는 집의 환경이라고 하면, 그렇고 뭐 없는 집에는 걸어도 오고, 그렇지만 그 마당에 들어와서 인제 이 신랑이 예 그 이 저 초례, 예, 예, 예 이 저 초례장에 대기를 하면 신부가 또 인제 그 나와요.}

10207 # 응 기 심부'울 나온' 데'느 인제' 그 지'베서 인제' 머' 심부' 화장'얼 쓰'게가주 마'리지, 그래 먹 가'치 모시'거 나와가'즈 거 와 가지 이즘 만', 두:리' 인제 마'뽕'터 가주 저'를 쓰'게더라고, 보'이끼네이, 여자'들. {어 그 신부가 나올 때는 인제 그 집에서 인제 뭐 신부 화장을 시켜 가지고 말이지, 그래 뭐 같이 모시고 나와 가지고 거기 와 가지고 이래 맞, 둘이 인제 맞붙어 가지고 절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여자들.}

10207 # 음 남'자는 단'도그로 저'떨 하'데', 여자'늬 보'이 양:쪼'게 부'터가주 이리 저'를 쓰'게더라고. {음 남자는 단독으로 절을 하되, 여자는 보니 양쪽에 붙어 가지고 이래 절을 시키더라고.}

10207 @ 예, 거, 그이 티, 히'미 드'니까? {예, 그, 그 힘, 힘이 드니까?}

10207 # 이야. {예.}

10207 @ 기이 여자으 치마'도 머 이'꼬? {특히 여자는 치마도 뭐 입고?}

10207 # 그래, 이야, 예아, 예, 그, 그'래가지 인제' 저'를 쓰'게고 인제' 그 그래 머 거 어이  
저 흘:기'라 그'으제, 거러루, 그걸' 이'르멈 머' 저'털 하'고 또 술잔'꼭 여 이인 낸, 나  
나' 마'시드라꼬, 보'이께네. {그래, 예, 예, 예, 그, 그래 가지고 인제 절을 시키고 인  
제 그 그래 뭐 그 어 저 흘기'라 그러지, 그것'을, 그것'을 읽으면 뭐 절을 하고 또 술  
잔도 여 이 나, 나눠 마시더라고, 보니까.}

10207 # 심부 머'꼬 실랑 머'꼬 크'런 시'그려 은제'. {신부 먹고 신랑 먹고 그런 식으로  
인제.}

10207 # 그'래 저를' 하'고 그래거 인제 예은, 예잉 그래은 초'례사~이 끝나'든 인제' 심부'  
는 심부 빵'으론 드가'고, 또 실랑'은 그 인제'. {그래 절을 하고 그리고 인제 어, 어  
그렇게 초례상이 끝나면 인제 신부는 신부 방으로 들어가고, 또 신랑은 인제.}

10207 # 사랑방'으론 드'어가주 은제' 그 동:네' 그어열 친'척'들하코 모에' 안'자 가주우 인'  
사 나누'코 인자' 가'치 얘기도 하'고 놀다'가 인제 은 은제 바'매 인제 그 심부하'꼬  
심방' 치루'코, 그 또 잘'사는 지'베'능 거 실랑'이 고'마 한' 달'또 사는' 사'람'도 이'꼬,  
두 달'또 사는' 사'람'도 이'꼬, 또 머 엄' 머'얼 또 그 여 하' 타아, 한' 대'에'쎄 사는' 사'  
람'도 혹' 이, 이'쓸'지도 모르, 그래도 인제'으 저' 무'근 신'해~'이 데'드라꼬. {사랑방으  
로 들어가서 인제 그 동네 그 친척'들하고 모여 앉아 가지고 인사 나누고 인제 같이  
얘기도 하고 놀다가 인제 어 인제 밤'에 인제 그 신부'하고 신방' 치르고, 그 또 잘'사는  
집에서는 그 신랑'이 그만 한 달'도 사는 사'람'도 있고, 두 달'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 뭐 또 그 여 한' 다섯, 한' 대'엿'새 사는 사'람'도 혹' 있,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인제 저 묵은 신'행'이 되더라고.}

10207 # 그'래에 또' 실랑'은 인제' 자기 지'베 가'따가 또' 은정 오고 수'푸'무 또 오'고, 머  
으 그'른 네가 데'드'라꼬. {그리고 또 신랑은 인제 자기 집에 갔다가 또 인제 오고 싶  
으면 또 오고, 뭐 어 그런 예'가 되더라고.}

10207 # 그'래가주 인제'어 어느 정도 떼'므 인제' 에 실랑'이 심'분 은제' 신'행'을 쓰'게드라  
꼬.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되면 인제 에 신랑'이 신부'를 인제 신'행'을 시키더라고.}

10207 # 자기 지'브로. {자기 집으로.}

10207 @ 검' 쭈 그 초'렌'날 그: 초'례 지'내고 나'며'너 거'기서 잔'치를 함'미'까? {그럼 저  
그 초'렛'날 그 초'례 지'내고 나'면은 거기'에서 잔'치를 함'미'까?}

10207 @ 처'가', 거 시, 심부? {처'가, 그 신, 신부?}

10207 # 예'예, 잔'첼' 하'제'요. {예, 잔'치를 하'지'요.}

10207 @ 꼬'어 잔'치'넵 보'통' 그 초'례 잔, 그 흘'레' 거 활' 때 잔'치는 주'로 어'떤 사'람'더  
리 위'우, 모'여'가 함'미'까? {그 잔'치는 보'통' 그 초'례 잔'치, 그 흘'레' 그 활' 때 잔'치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읍, 모여'서 함'미'까?}

10207 # 잔'치'는 주'로 인'제' 그 집', 그 동'네' 사'람, 그 집 지'반, 머' 형'제 자'매'아, 또 그'  
루'코 어, 웅'언, 또 그르'코 어'우 그'은 처'가'쩍' 시'꾸'들, 우'우 동:네' 사'람'들, 그래 머 그  
또 고 그래 읍, 읍 모'에' 가'즈'어 잔'체'엘 하'며 인제 실랑'어'느 인제' 그으 이 동'네'  
사'람'들, 절'문 칭'구'드리'부 와' 가'주'이, 예:를' 뜨'르 으'성' 강'가' 거'뎡 강'가'드리, 구'원  
타'성'도 더'러 써'께', 그래 온, 오'머'에 실랑'한'테 인제' 여 읍 머 처'가'에 머'를' 쯔' 멩



능' 걸' 마이 내오'라, 요굴' 하'능 게'라. {잔치는 주로 인제 그 집, 그 동네 사람, 그 집 집안, 뭐 형제 자매, 또 그렇고 어, 어, 또 그렇고 어 그 처갓집 식구들, 우리 동네 사람들, 그래 뭐 그 또 그 그래 음, 음 모여 가지고 잔치를 하면 인제 신랑은 인제 그 이 동네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 의성 김가 같으면 김가들이, 그 타성도 더러 섞였고, 그래 오, 오면 신랑한테 인제 여 음 뭐 처가에 뭐를 좀 먹는 걸 많이 내오라, 요구를 하는 거야.}

10207 # 멍능' 걸' 머' 수'리 맨 말', 머 씨 멍'태가 맨' 따하, 머이 기 이'른 씨'그로 해 가' 주우 머 다라매'고 발'또 뚜테'래고, 그'래가주 인제' 에 음 울짜'내:는 리, 예:가' 테드'라고, 잔채'가. {먹는 것을 뭐 술이 몇 말, 뭐 저 멍태가 몇 마리, 뭐 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달아매고 발도 두드리고, 그래서 인제 어 음 우려내는 예, 예가 되더라고, 잔치가.}

10207 # 그'래 테'며 인제' 실랑'어 은 다라매'에 가주설'랑 시'끈 음 바'를 인제' 은 똥 때'리 가'주우 인지' 처가찌'베이 요구'울 해 노'코는, 여 어 과:바~'이라 그'령 게 이'씨여, 인제' 그거 그'날 결혼즈 치'낸 지'베서, 심부 찌'베서 음시'글 장'만해땡 그러음 방'이 이'씨업, 과:바~'이나 채'린 나, 거'게 실랑' 끝'꼬 가'용. {그래 되면 인제 신랑은 어 달아매 가지고설랑 실컷 어 발을 인제 어 딱 때려 가지고 인제 처갓집에 요구를 해 놓고는, 여 어 과방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인제 그것 그날 결혼을 치른 집에서, 신부 집에서 음식을 장만했던 그런 방이 있어요, 과방이라고 채려 놓은, 거기에 신랑을 끌고 가요.}

10207 # 그'어 이 정 머하르 청항' 거으 내오'라꼬 마이, 그래가주 은저' 쓰어, 실랑'이 청해 가'주우 나옴' 그'어스 인제 그거' 머'꼬, 노'래도 하'고 머 그래 어음 바'미 느뜨'룽 노:다' 으 가'고, 그'르치, 머. {그 이 저 뭐를 청한 것을 내오라고 말이지, 그래서 인제 신, 신랑이 청해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서 인제 그것을 먹고, 노래도 하고 뭐 그래 어 밤이 늦도록 놀다가 어 가고, 그렇지, 뭐.}

10207 # 너 그'른 제'게 이'따꼬이. {뭐 그런 적이 있어요.}

10207 @ 가'므 인제' 그언 보통 장가: 은저 온 사'람 머 실랑' 데'르고 인제' 그래 안 함'미까, 그지? {그러면 인제 그 보통 장가 인제 온 사람 뭐 신랑 데리고 인제 그래 안 함니까, 그렇지요?}

10207 # 예아, 야. {예, 예.}

10207 @ 그엄'머넌 꼬으거 아까' 초'렐 지영, 초'레 지내'고 나'며너 인저 상개'근 보통 하루뺨' 무'꼬 가'기도 하'고, 앙 그암머 지'반 형편'네 따'러서 당'일랄 도라가'기도 하'고 그'러쓰미까? {그러면은 그것 아까 초레 지내, 초레 지내고 나면은 제인 상객은 보통 하룻밤 묵고 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집안 형편에 따라서 당일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10207 @ 상개기 \*? {상객이 \*?}

10207 # 이 뜯 크 아무'리 모싸'러도 하루'빠른 상개'기 자'오 간' 수느 이, 이'따구. {이 저 그 아무리 못 살아도 하룻밤은 상객이 자고 가는 수는 있, 있다고.}

10207 # 그'기 영 가차'운 데'는 머 예두 다'인 칸 새임 머 이땡만. {거기 영 가까운 데는 뭐 어디 당일에 가는 사람 뭐 있지만.}

10207 @ 보'통어 하루뺨 주'무시고 그 다음날? {보통은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10207 # 근, 응에, 헤, 예, 예, 하루뺨므 자우 가, 예, 고 다음 가능 게 마찌. {그, 예, 예,

예, 예, 하룻밤만 자고 가, 예, 그 다음날 가는 게 맞지.}

10207 @ 가'르 천'날뽐, 응 거 보통' 여'기에 천'날뽐 가'들 경우'에, 초'레 지'내고 여'이 천'날뽐 어 지, 저, 할' 꺼 아'임미'까? {그러면 첫날밤, 어 그 보통 여'기에 첫날밤 같은 경우'에, 초'레 지'내고 여'기에서 첫날밤 어 저, 저, 할' 것 아'닙니까?}

10207 # 예, 예. {예, 예.}

10207 @ 심방'을 꾸며 가'주고 거 천'날뽐를 그 하'는데, 심방'을 그 어'떤 시으, 어, 주'로 어'디에 꾸'밈미'까? {신방'을 꾸며 가'지고 그 첫날밤을 그렇게 하'는데, 신방'은 그 어'떤 식, 어, 주'로 어'디에 꾸'밈미'까?}

10207 @ 그어 안'채가, 안'채에 함'미'까, 어'떠케 함? {그 안'채에, 안'채에 함'니까, 어떻게 함'니까?}

10207 # 그, 아'게, 그, 그'러치, 심방'은, 썸방'은 그 심부' 큰 집'베이그, 그 자'직 크'게, 자'기가 성'장하'들 그, 크, 그 방'에 채'리드'라'꼐, 쭈'로가. {그, 안, 그, 그렇'지, 신방'은, 신방'은 그 신부' 큰 집'에, 그 자'기가 컸'던, 자'기가 성'장했'던 그, 그, 그 방'에 차'리드'라'고, 주'로가.}

10207 # 그 심부'가, 르 예:를 뜨'르 꺼'뜨르 중'감 뽐'이'럼 중'감 뽐'에서 거'칠'락, 그'어서, 처'녀' 때'으 거'겔 이으 거'칠 해'따 그'머 그 방'열 사'용하'는 수'가 열 주'로 만'트'라'꼬. {그 신부'가, 뭘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중'간 방'이면 중'간 방'에서 거'취'를, 거'기'에서, 처'녀' 때' 거'기'에 어 거'취'를 했'다고 그러'면 그 방'을 사'용하'는 수'가 주'로 많'더'라'고.}

10207 # 거'으'되' 인'제' 심방'을 채'린'데, 그 심방'을 채'리'면 그'기 예'날' 수, 수, 속'땀'미 그 이 심방'을 채'리'면 머' 실'랑'을 어'으 더'러 그 머' 사'별'하'는 쭈'간, 천'날'뽐'에 사'별'하'는 수'어 이'따 카'능 게'데, 그'게 인'제' 풍'스비 데'가'주 뭉'꾸'꼐 뽐'우'꼬 들'다'보'고 그'래'드'라'꼬, 상'개'칸'다'꼬 마'레, 상'지'칸'다'꼬. {거'기'에'다'가 인'제' 신방'을 차'리'는데, 그 신방'을 차'리'면 그 예'날' 속, 속, 속'담'에 그 신방'을 차'리'면 뭘 신'랑'을 어 더'러 그 뭘 사'별'하'는 수'가, 첫'날'밤'에 사'별'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인'제' 풍'습'이 돼'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고 그러'더'라'고, 상'직'하'는'다'고 말'이야, 상'직'하'는'다'고.}

10207 # 그'래' 인'제' 실'랑' 심부'가 방'에 드'가'서 은'제' 치'치'를 하'기 데'른 그 어 그, 그 무'를 뽐'꼬' 마'아'찌, 이'래'어 송'까'라'우 뽐'꼬'이 머 너'거 엠 마'구 시'즈'마'꿈 매'달'렌 들'다'보'고. {그'래' 인'제' 실'랑' 심부'가 방'에 드'가'서 인'제' 취'침'을 하'게 되'면 그 어 그, 그 문'을 뚫'고 말'이지, 이'래' 손'가'락'으로 뚫'고 뭘 이'래' 어 마'구 추'녀'마'다 매'달'려'서 들'여'다'보'고.}

10207 # 그'래' 그 상'지'글 하'는' 거'는 그, 그'어'는 예:가 은'제' 이 실'랑'을 보'호'하'는 뜨'시'라, 그'래' 예' 애'기'엔 데'드'라'꼬. {그'래' 그 상'직'을 하'는 것'은 그, 그'것'은 예'의'가 인'제' 이 실'랑'을 보'호'하'는 뜻'이라, 그'래' 어 애'기'가 되'더'라'고.}

10207 @ 무, 뭉'꾸'멍' 뽐'룽' 그'얼' 머 한'다고 함'미'까? {문, 문'구'멍' 뚫'는 그'것'을 뭘 한'다고 함'니까?}

10207 # 상'지'칸'다 그'래, 상'직'. {상'직'하'는'다'고 그'래, 상'직'.}

10207 # 마'저, 상'지'카'로 간'다, 상'지'칸'다, 그'어'는 인'제' 여'자'드'리 주'로 해', 남'자'가 아'이'고. {맞'아, 상'직'하'러 간'다, 상'직'하'는'다, 그'것'은 인'제' 여'자'들'이 주'로 해', 남'자'가 아'니'고.}

10207 @ 꼬'업'머'는 주'로 여'자'드'리 그'어 뭉'꾸'녕' 뽐'러 가'주고? {그러'면'은 주'로 여'자'들'이 그 문'구'멍'을 뚫'어 가'지고?}

10207 # 응, 상'지'글 한'다 게'지. {응, 상'직'을 한'다고 그러'지.}

10207 @ 그엄'머느 보통' 그으거 시, 심방'에 검' 초레 지'내고 한 저녁', 저녕 머'꼬 심방'에 감'미깁, 실르너? {그거면은 보통 그것, 신, 신방에 그럼 초레 지내고 한 저녁, 저녁 먹고 신방에 갑니까, 신랑은?}

10207 # 예', 저, 저녕 머'억 까'제. {예, 저, 저녁 먹고 가지요.}

10207 # 저녕' 머'꼬. {저녁 먹고.}

10207 @ 감' 실랑'언 저녕 머'끼 정까'지느 어디'에 이썸미'까? {그러면 신랑은 저녁 먹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10207 @ 초'레 지'내고 나서'? {초레 지내고 나서?}

10207 # 맹' 에잉 그어 이인 즈 초'레은 즐 지'나고 나'명 그 집 사랑방'에 가'. {역시 어 그 이 저 초레 저 지내고 나면 그 집 사랑방에 가.}

10207 # 사랑'에 가가'주 인제'이 칭'구들하꼬 술'또 머'꼬 노게'드, 인'사도 나누'꼬, 그'래 은제' 음 장난 소'리도 하'고, 장난'도 치'고 머', 그'래 실랑' 다룬'다 크'고 머야 매다'러 노'꼬 물건' 요구'도 하'구 마에주, 음'싱 머' 수'리 메 초'롱 으이'따, 머 이 이래 인제' 어 불꾸'꼬 그'래 인저 장난'드 하'고, 그'래으 저녕 머'꼬. {사랑에 가서 인제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놀기도, 인사도 나누고, 그래 인제 음 장난 소리도 하고, 장난도 치고 뭐, 그래 신랑 다룬다 하면서 뭐 매달아 놓고 물건 요구도 하고 말이지, 음식 뭐 술이 몇 초롱 있다, 뭐 이 이래 인제 어 불 끄고 그래 인제 장난도 하고, 그래 저녁 먹고.}

10207 # 으 저녕 머'꼬 또' 노'라. {어 저녁 먹고 또 놀아.}

10207 # 맹' 노머 바'미야 열두 시 거'익 가차'이 테'야 헤'어지더라꼬, 모도, 어. {역시 놀면 밤에 열두 시 거의 가까이 되어야 헤어지더라고, 모두, 어.}

10207 @ 아, 거러 인저 스, 그'때 인저' 심방'에 감'미까? {아, 그래 인제 신, 그래 인제 신방에 갑니까?}

10207 # 암, 아 무 실랑'은 영에으 인저 그 심방을 거기, 어읍, 어이 여자 방'으로 드가'고. {암, 아 뭐 신랑은 어 인제 그 신방을 거기에, 어, 이 여자 방으로 들어가고.}

10207 @ 가'므 심바', 심방', 심방' 가'기 정까'지너 여자어, 심부 얼굴'도 제대로 모 뽀'젠네 예? {그러면 신방, 신방, 신방 가'기 전까지는 여자, 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 봤겠네요?}

10207 @ 초'레 지'낼 때'늬 머 화장해 가 이꼬? {초레 지낼 때는 뭐 화장해 가지고 있고?}

10207 # 그, 그'르치, 모' 빠'제, 그'르찌이그. {그, 그렇지, 못 봤지, 그렇지요.}

10207 # 화장가이그 이래' 가'주웁 마'가'가주 이쓰'이게르 모 빠'제예. {화장해서 이래 가지고 막아서 있으니까 못 봤지요.}

10207 @ 적'똥, 족'뚜'리 쓰'고 이'꼬 그래 너이, 그지예? {족두리, 족두리 쓰고 있고 그래 놓으니, 그렇지요?}

10207 # 거으 거, 그'러치, 모 빠'찌, 이'거 확'씨리 모 빠'찌. {거 그, 그렇지, 못 봤지, 이것 확실히 못 봤지.}

10207 # 그'래고 은제' 이 심방'엑 가' 가'주우 쪽'또'리 베'끼미 인제' 확'씨리 볼' 수 이'찌, 심부'러. {그리고 인제 이 신방에 가 가지고 족두리 벗기면 인제 확실히 볼 수 있지, 신부를.}

10207 @ 거: 족'뚜'리 인저 심방 그아'며 인저 천'날'빠'민테에, 검' 쪽'뚜'리를 그어은 심랑'인 버'깁'미까? {그 족두리 이제 신방 그러면 인제 첫날밤인데, 그러면 족두리를 그러면 신랑이 벗깁니까?}

10207 # 메, 시야이, 실라'이 베'끼지여이지, 쪽또'리네. {예, 신랑이, 신랑이 벗기지요, 족두리는.}

10207 @ 그'암머 족두'리 버'끼고 그'냥 잠'미까, 양 그'러명 거'이 머' 수'리라도 한' 잔 하'고 잠'미까? {그러면 족두리 벗기고 그'냥 잡니까, 안 그러면 거기 뭐 술이라도 한 잔 하고 잡니까?}

10207 # 하, 아이'래, 그 수'리랑 게' 호게 먼: 주'라 그르잉'가, 그'게 욱, 거'게 인제 술' 라'꼬 음식'글 가따 노은'다꼬. {아, 아니야, 그 술이라는 게 그'게 무슨 주'라 그러는지, 그'게 어, 거기에 인제 술을 놓고 음식을 갖다 놓는다고.}

10207 # 으, 머'꼬 얘기하'라꼬. {어, 먹고 얘기하라고.}

10207 # 허러 인제' 그거 머'웁' 사'랑도 이'꼬, 기'양 꿈 암 머'꼬 고다나'이 꿈'머 자'는 사'람드 이'꼬, 그'르트락, 구'게 인제'. {그래 인제 그것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만 안 먹고 고단하니 그만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게 인제.}

10207 @ 거'욱 그'에서 어'째든 그'래가 머' 천'날밤 그'어 한다, 그'지예? {그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첫날밤 그'래 한다, 그렇지요?}

10207 # 예. {예.}

10207 @ 꼬: 보통: 그 인제 그'언 은저 그'를때 인제'어 초'레 예 그 하'고, 그럼'머너 인제'머 아까'두 이야기해'짚마는, 무'근 신'행 하'는 사'암머 실랑'이 머' 처'가찌'베서 무'꼬 어 지'내다가 또 머' 가끔' 자기 집, 봉'가에 가'따가? {그 보통 그 이제 그 이제 그'때 이제 초'레 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묵은 신'행 하'는 사람은 신'랑이 뭐 처'갓집에서 묵고 어 지'내다가 또 뭐 가끔' 자기 집, 본'가에 갔다가?}

10207 # 따'가 또' 오'구오, 그리 쯔도. {갔다가 또 오고, 그럴 수도.}

10207 @ \*\* 와'따 가'따 하'음면서 그'래서 어 나'중'에 인제'어 결'과저'그로 인제' 무'근 신'행 끈'날 무'려베? {\*\*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어 나'중에 인제'어 결'과적'으로 인제'묵은 신'행 끝'날 무'렵에?}

10207 # 그'키 양'가'이 타'압패'가'주 인제' 신'행'을 해'가'쭈 그만. {그'래 양'가'에서 타'합해서 인제'신'행'을 해서 그만.}

10207 @ 그'르'쭈, 신'행'을 가'며 인제'여'자 입'짱'에서'넌 시'집'까'능 거' 아'임'미'까, 그'지'예, 입'짜'이? {그'렇'지'요, 신'행'을 가'면 인제'여'자 입'장'에서'는 시'집'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장'이?}

10207 # 그'어, 그, 그'르'찌'여, 여'자'저'이, 여'자'로'튼 실'랑' 찌'베 가'능 게'고. {그, 그, 그'렇'지'요, 여'자, 여'자'로'서는 신'랑' 집'에 가'는 것'이'고.}

10207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207 # 어, 야, 예. {어, 예, 예.}

10207 @ 네'예, 인제'결'구'은 시'집'가'능 건'데, 시'집'까:'서 인'제'예'어 저'쭈'게 인'제', 저'쭈'게 어 실'랑' 찌'베 인제'시'집'까'서'넌 거'이'서'느 머' 잔', 잔'치'만 하'지 머' 아'까'치'럼 머' 흘'레 치'르'고 인제'이'통 건 업'따' 아'님'미'까, 그'지'예? {예, 인제'결'국은 시'집'가'는 것'인 데, 시'집'가'서 인제'어 저'쭈'에 인제', 저'쭈'에 신'랑' 집'에 인제'시'집'가'서'는 거'기'에서'는 뭐 잔, 잔'치'만 하'지 뭐 아'까'치'럼 뭐 흘'레'치'르고 인제'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0207 # 그'러'치'요, 그 신'행'찌'베'는 꼬'으 머' 잔'치 게'양 머'꼬 영 예, 머'꼬 심'부' 보'러 오'

지, 머 다'릉 건. {그렇지요, 그 신행 집에는 그 뭐 잔치 그냥 먹고 어 에, 먹고 신행 보러 오지, 뭐 다른 것은.}

10207 # 남'자드른느 벨'러 안 온'다 그'이께네, 어이 거 신행 찌'베는 여자'드리 주'로 와 고'마. {남자들은 별로 안 온다 그러니까, 어 그 신행 집에는 여자들이 주로 와, 그만.}

10207 # 아이 지여 새'득 뽀'로 온다 그'래, 새'득. {어 저 새댁 보러 온다고 그래, 새댁.}

10207 # 심부'를 새드'기라 그'래그더, 여. {신행을 새댁이라 그러거든, 여기에서는.}

10207 # 요 구경하'러, 머 잘절, 잘'난나 몬나'나 보'로 온'다, 그'르고 머' 그'래가주 주'로 인'제 친'척, 남'자드른 친'척 웨'에는 아' 나이. {요기 구경하러, 뭐 잘, 잘났나 못났나 보러 온다, 그리고 뭐 그래서 주로 인제 친척, 남자들은 친척 외에는 안 와요.}

10207 @ 꼬'염'며너 그'워 폐'배'글 그'때 함'미까? {그러면은 그 폐'배'를 그'때 함'미까?}

10207 # 폐'배'기라 거'능 게 인'제 신행' 가' 가'주고 어: 여자'가 인'제 샤'할랑' 찌'베 신행' 올라'갈' 때 으 폐'배'기라 그'능 걸' 멀' 장'만해'가주 간'다귀. {폐'배'이라 그러는 게 인'제 신행' 가'가지고 어 여자'가 인'제 신행' 집에 신행'을 갈' 때 어 폐'배'이라 그러는 것 을 뭘' 장'만해'서 간'다고.}

10207 # 달'또' 이'꼬 머', 머' 고'기도 이'꼬 머', 머' 밤'도 이'꼬 대'추'도 이'꼬, 그'릉 걸' 싸 ' 가'주'고, 이'래 쟁'바'네 싸' 가'주'고 응 그 가:마' 여'어가주 우'어이 씨'래이, 신행'어르 카, 가'른, 신행'을 드'려'닥 어여 그, 가'른 응 그 시'어른는, 시'부모'한테'음 인'사를 드' 랜'다꼬. {답'도 있고 뭐, 뭐 고'기도 있고 뭐, 뭐 밤'도 있고 대'추'도 있고, 그런 것 을 싸 가'지고, 이'래 쟁'반'에 싸 가'지고 어 그 가'마'에 넣'어서 어 신행, 신행'을 가, 가면, 신행'을 들'여'다 어 그, 가면 어 그 시'어른, 시'부모'한테' 인사'를 드'린'다꼬.}

10207 # 그'게 폐'배'기라 그'드'라꼬, 보'이'께네. {그'게 폐'배'이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10207 # 그'래 심부'가 아'아이 썩'이, 시'어른 양'어'분'한'때 제'이, 저'릴 하'고, 그 폐'배'글 내' 노'으면, 그 요'새'로 말'허'꺼, 바:땀' 대'추' 거'통' 거'를 땀'저 주'문'상은 머 어'언 참 은 어 으'응 마'낸' 아'드'를 로'으'란 시'그'로'흥 그'래 힌'제'으 머' 무'루'폐' 땀'저 주'드'라꼬, 그'른 네'게 인'제 그'게 폐'배' 드'랜'다 그'드'라꼬. {그'래 심부'가 아' 시, 시'어른 양'어'른' 한'테 절, 절'을 하'고, 그 폐'배'를 내' 놓'으면, 그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밤'이며 대'추' 같'은 것 을 던'져 주'면서 땀' 어 참 음 어 음 많'은 아'들'을 놓'으'라는 식'으로 그'래 인'제 땀' 무'릎'에 던'져 주'더라고, 그런 예'가 인'제 그'게 폐'배' 드'린'다꼬 그러'더라고.}

10207 # 그'게 인'제'버 예'이 요'새'로'우, 글'때'능 그'게 폐'배'기라 그'래'드'라'꼬요. {그'게 인'제 어 요'새'로, 그'때'는 그'게 폐'배'이라 그러'더라고요.}

10207 @ 그'암' 폐'배' 그'으'게 인'제' 악, 폐'배'글 그'때 머 신행' 와'서 폐'배'할' 때 보'통' 시'으, 실'랑' 시'부모'만 폐'배' 뽀'미'까, 앙 그'암' 머 폐'배' 어'디'까'지 뽀'미'까, 보'통'? {그러'면 폐'배' 그'게 인'제 아'까, 폐'배'를 그'때 땀' 신행' 와'서 폐'배'할' 때 보'통' 신행, 실'랑' 시'부모'만 폐'배' 뽀'니까, 안 그러'면 땀' 폐'배' 어'디'까'지 뽀'니까, 보'통?}

10207 # 폐'배'기 그'르'이'젠 인'제'으 그'으' 큰 응, 그'이 자'기 실'랑' 지'베'아 머 구'오'우 그'거 인'제' 땀' 가'차'운 친'처'궁 어'름'분'더'드'어'런 마'쨌'를 하'고, 보'긴' 보'드'라'꼬. {폐'배'이 그 러'니까 인'제 그 큰 어, 그 자'기 실'랑' 집'에 땀' 그 그'것 인'제 역'시 가'까'운 친'척' 어'름'분 들'은 맞'절을 하'고, 보'기는 보'더라고.}

10207 # 어: 그 마'쨌' 하'드'라'꼬. {어 그 맞'절 하'더라고.}

10207 # 마'쨌' 하'거'우 보'드'라'꼬, 그. {맞'절 하'고 보'더라고, 그.}

10207 # 글'때 으 그거' 땡' 그제거꼬, 그거 노'꼬 땡' 저'를 하'드라꼬옹. {그때 어 그것 역시 그것, 그것을 놓고 역시 절을 하더라고.}

10207 # 폐배 그걸 로'꼬. {폐백 그것을 놓고.}

10207 @ 머 수를 한 잔 올리고 그래 함? {뭐 술을 한 잔 올리고 그래 합니까?}

10207 # 예, 으예, 예. {예, 예, 예.}

10207 # 궁, 그'래등 거 타'꼬, 예. {그, 그랬던 것 같다고, 예.}

10207 # 확씨'리 딸', 므'어 그 다: 이저 뿌'래 인제', 아허으 그'르치 십'따꼬 인제'이 기'어 기 나'능 게'. {확실히 뭐, 뭐 그 다 잊어 버리고 인제, 허허 그렇지 싶다고 인제 기억이 나는 게.}

10207 # 그'래 인제' 그 시'어른 외'에 가차'운 머' 삼'촌이라든지 사초어'나라든지, 이'른 사'람드롱 그거 마'쩌르 하'고 보'드라꼬 마디. {그래 인제 그 시어른 외에 가까운 뭐 삼촌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 맞절을 하고 보더라고 말이지.}

10207 # 철, 철'이인'사라꺼 그으래뜨라꼬. {첫, 첫인사라고 그러더라고.}

10207 @ 그'때 처음 인제' 어 심부 입'짱에서느 그'때 인제아 지'반 어른들 처음' 뽕'찌예? {그때 처음 인제 어 심부 입장에서느 그때 인제 집안 어른들 처음 뽕지요?}

10207 # 그래 잉 그, 으어, 그아 저이 인'살 드'래능 게비, 거. {그래 이 그, 어, 그 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

10207 @ 그다'은, 그다'으메 시:, 거음 시'부모 중'에서 머' 시'아버지너 초'래 뽕 어 즈 그 엄 뽕, 봐, 초래 하'는 날 볼 수, 보 숨? {그 다음, 그 다음에 시, 그 시부모 중에서 뭐 시아버지는 초래 때 어 저 그 봐, 봐, 초래 하는 날 볼 수, 볼 수 있습니까?}

10207 # 아'이래에영. {아니예요.}

10207 @ 그'때도 모 뽕'미까? {그때도 못 뽕니까?}

10207 # 그'얼롱음 모 빠'찌. {그때는 못 봤지.}

10207 @ 도 그'영 어'제뜰 처음' 뽕'능 거는? {뭐 그럼 어쨌든 처음 뽕는 것은?}

10207 # 어예, 그'날, 폐백' 드'랜 날 보'지. {예, 그날, 폐백 드린 날 보지.}

10207 @ 신행 와'서? {신행 와서?}

10207 # 그 폐백' 드린 날'오 확'씨리 보'지요. {그 폐백 드린 날 확실히 보지요.}

10207 @ 시'어머니눔 므' 처'어, 처음' 인사 드'리능 겨우, \*\*\*\* \*\*, 그'지예? {시어머니는 뭐 처음, 처음 인사 드리는 것이고, \*\*\*\* \*\*, 그렇지요?}

10207 # 예, 예아. {예, 예.}

10207 @ 웨아, 그르스 그 하'고, 어 그다'으메으 인제' 보통: 그거' 신행 움'며너 여자'들한테 거, 새'댁한테 상'을 주'지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그다음에 인제 보통 그것 신행 오면은 여자들한테 그, 새댁한테 상을 주지요?}

10207 # 예', 상'을 인제' 그. {예, 상을 인제 그.}

10207 @ 그 상'은 무슨 상'이라 함'미까? {그 상은 무슨 상이라 합니까?}

10207 # 그'게 어여, 으, 이 큰사~'이라 그랜너이, 큰사'아. {그게 어, 어, 이 큰상이라 그랬습니다, 큰상.}

10207 @ 큰사~'이라 하'지예? {큰상이라 하지요?}

10207 # 예. {예.}

10207 @ 큰상에너 \*\*\* 어뜨게 함'미까? {큰상에는 \*\*\* 어떻게 합니까?}

10207 # 꺼으, 꼬 큰상을 바더. {그, 그 큰상을 받아서.}

10207 # 큰상'을 저'럴 하'능 게 아이'고. {큰상을 질을 하는 게 아니고.}

10207 @ 머' 큰상'에 멀 차'려 줌'미까, 보통'? {뭐 큰상에 무엇을 차려 줘니까, 보통?}

10207 # 그'르이 머' 그'게' 옛날'로 말하 꺼 머, 머이 칠첩' 방상'기니 머', 머' 에듬 메 처'꺼 반상'기 그뜨썬 그 썬'에 그 머아 바'네 노엔' 수짜'를 인제' 쟁으, 그 집'씨가 일'고 껌 칠'쳐비거고, 머 썬이, 열 껌' 십쳐'비래 그, 그'릉 꺼 테, 보'이께네. {그러니 뭐 그'게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뭐 칠첩 반상'기니 뭐, 뭐 이 몇 첩 반상'기 그러면서 그 저 그 뭐 반에 놓인 숫자를 인제 접, 그 접시가 일곱 개면 칠첩이고, 뭐 십, 열 개면 십첩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10207 # 그'어 칠'첩 반상'기에다 음식'글 여'래 채리 가'주어 밥바'꼬 가따 노'으면 큰상'을 인제' 그으, 거 가차'운 친'처기에 가따 주'면 그 새'드기 그'질' 음 명'는'다꼬. {그 칠첩 반상'기에다 음식을 요래 차려 가지고 밥하고 갖다 놓으면 큰상을 인제 그, 그 가까운 친척이 갖다 주면 그 새'덕이 그'것을 음 먹'는'다꼬.}

10207 # 그'질' 인제' 신행 와'가'주 인제' 처 썬', 큰사~'이라 그래드라꼬. {그것을 인제 신행 와서 인제 첫 상, 큰상이라 그러더라고.}

10207 @ 그아'임 보통' 큰상' 그'저 은제' 심부'가 와'서 큰상'얼 바'더 가'주고, 어 처음 바'블' 명'는'데, 그아'므 그'어때 그'냥 여'자'어가, 시'음부'간 직'접 자기 이'베 먼'전 떠'러'썬 '미'까, 앙 그'암 다른 사'암'한테, 누'구 줌'미까? {그러면 보통 큰상 그'것 인제 신'부가 와'서 큰상을 받아 가지고, 어 처음 밥을 먹'는데, 그러면 그'때 그'냥 여'자가, 신'부가 직'접 자기 입'에 먼'저 떠'넣'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누'구 줘'니까?}

10207 # 아이'래, 그'게, 옛날'레'를 마'르'지'예. {아니야, 그'게, 옛날'에는 말'이지'요.}

10207 @ 예, 예, 옛날'얼'러'르'? {예, 예, 옛날'에는'요?}

10207 # 얼 그' 잘'산, 어 이 옛날' 애'기'레'예'이. {어 그 잘'사는, 어 이 옛날' 애'기'레'예'이.}

10207 @ 예, 예, 옛날' 꺼 하'무, 요즘 안 하'니'까? {예, 예, 옛날' 것 하'시면, 요즘 안 하'니까?}

10207 # 잘'사는, 잘, 지'베'는 그'게 어'이 시, 신행'얼'룩 갈 썬'게 그 어으 그 시'녀'를 데'루' 가'여, 하나. {잘'사는, 잘, 집'에는 그'게 어 신, 신행'을 갈 적'에 그 어 그 시'녀'를 데'리고 가'요, 하나.}

10207 # 시:녀'럴. {시'녀'를.}

10207 # 자기 몸'썬'을 데'루' 간'다'꼬. {자기 몸'썬'을 데'리고 간'다'고.}

10207 # 잘'사는 지'베'는. {잘'사는 집'에서는.}

10207 @ 그'르'치'예, 몸'썬'에 함 명 데'르 가'지'예? {그'렇'지'요, 몸'썬'을 한 명 데'리고 가'지'요?}

10207 # 어, 어, 몸'썬'을, 처:녀'래, 그'또. {어, 어, 몸'썬'을, 처'녀'야, 그'것도.}

10207 # 데'리'구 가'면 그 이드 몸'썬'의 거'게'서 인제' 바'벌 떠'매'기 준'다'꼬, 그 큰상'을 바'드'마. {데'리고 가'면 그 이 몸'썬'이 거'기'에서 인제' 밥'을 떠'먹'여 준'다'고, 그 큰상'을 받'으면.}

10207 # 그 몸'썬'이 그 인제' 어 보'잘' 해 준'다'꼬. {그 몸'썬'이 그 인제' 어 보'좌'를 해 준'다'고.}

10207 # 어'에 하'라'꼬 밥'또 떠'미'게 주'고 마'리'지'여, 오'또 이'래'으 가'사' 주'고 마'리'지, 이 르 인제' 에 그 시'녀'를 데'루 가' 가'주고, 몸'썬'을 데'루 가'서 그'어'으 보'줄' 받'는 집' 또 이'꼬, 몸'썬'이 엄:는 지'베'는 여'뻘 가'차'운 지'베'서 머 한 술 떠'미'게 주'고, 그'른

네드 임 머. {어떻게 하라고 밥도 떠먹여 주고 말이지, 옷도 이래 발라 주고 말이지, 이래 인제 어 그 시녀를 데리고 가 가지고, 몸종을 데리고 가서 그 보조를 받는 집도 있고, 몸종이 없는 집에는 옆에 가까운 집에서 뭐 한 술 떠먹여 주고, 그런 예도 있는 모양입니다.}

10207 @ 그'르쵸, 어딤 머 하능미나 머 이런 시우러 데'리우 가'지영? {그렇지요, 어디 뭐 하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지요?}

10207 # 야, 예, 예아, 예, 예, 예어, 그, 그래. {예, 예, 예, 예, 예, 예, 그, 그래.}

10207 @ 그엄'든 그 웨감 프 가'서 저'를 해'야 데'니까, 으에 또' 절'도 해'야 데'고, 쓰어? {그러면 그 왜 뭐 가서 절을 해야 되니까, 어 또 절도 해야 되고, 저?}

10207 # 아 그, 그'인 저'리랑 게' 그'케 거 인제' 저 이. {아 그, 그 절이라는 게 그러게 그 인제 저 이.}

10207 @ \*\* 시'부모 폐백 빨라 함머너? {\*\* 시부모 폐백 보려 하면은?}

10207 # 아, 시여, 씨부모 폐백' 드'릴 쯔'이 저'럭, 큰'저를 다: 하'능 게'라. {아, 시, 시부모 폐백 드릴 적에 절을, 큰절을 다 하는 거야.}

10207 @ 그'르쳐, 여자 혼'자는? {그렇지요, 여자 혼자는?}

10207 # 꼬어, 그 가차'운 친'척 다' 대'릴 다: 하'능 게'라, 글'때느. {그, 그 가까운 친척 다 대례를 다 하는 거야, 그때는.}

10207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207 # 인'살 라'눔' 게'라. {인사를 나누는 거야.}

10207 @ 여자' 혼'자 절하, 남'자느 혼'자 머' 절하'기 쉬운'데, 여자'너? {여자 혼자 절하기는, 남자는 혼자 뭐 절하기 쉬운데, 여자는?}

10207 # 여잔' 여'페서으 보조'올 해' 주'제이. {여자는 옆에서 보조를 해 주지.}

10207 @ 그'열치예, 큰절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요, 큰절하기가 힘드니까?}

10207 # 아, 예예, 예. {아, 예, 예.}

10207 # 이 양짜'어 부'터가주 보조'올 해' 준다, 꼬래, 큰저'얼 한 텐. {이 양쪽에 붙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래, 큰절을 할 때는.}

10207 @ 그엄'머는 그'때 머' 그 보통' 그 밥 까튼 경우'에 어 풍으이, 이'런 데너 풍'스비 머 땅 거 업'숨'미까? {그러면은 그때 뭐 그 보통 그 밥 같은 경우에 어 풍, 이런 데는 풍습이 뭐 다른 게 없습니까?}

10207 @ 거'어 어 시작'짜, 시'지배 와'서 머 시'누'나 누구'항그, 누구'한테 이'거 머 밥' 제일, 한' 술' 제일 먼저 떠'가'지 누구'한테 주'라, 그'롱 건 업'숨'미까, 이 동네'에'넝 그'렁? {그 어 시집, 시집에 와서 뭐 시누이나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것 뭐 밥 제일, 한 술 제일 먼저 떠 가지고 누구한테 줘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런?}

10207# 모르'시'더, 그거'느느 자'시 모'르'겐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10207 @ 여자'들 끼'라서? {여자들 것이라서?}

10207 # 어예아. {예.}



##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 어르신 그음 어, 이여, 어제 이어스 계속 하게씀니다. {어르신 그러면 어, 이어서, 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까.}

10226 # 예'예', 그'래시더, 예예. {예, 그렇시다, 예.}

10226 @ 어:, 어르신 어제 우리 그엄, 이 마을 유'래라든지 이럼 부'부네 대'해서 좀슴 말 쓰'를 해' 주'선는데, 꼬어 어, 혹'씨 그 요즈'므언 머' 주'로, 어'제도 잠시' 이야기해'쓰 미다마는, 장어, 누'가 도러가'시게 데'며느, 초상나'며너 점'부 장이사'라든지, 병어, 영안씨', 병원' 영안씨 가씨 예여, 마이 하쳐? {어, 어르신 어제 우리 그것, 이 마을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어, 혹시 그 요즘은 뭐 주로, 어제다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장,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초상나면은 전부 장의사라든지, 병, 영안실, 병원 영안실 가서 어, 많이 하지요?}

10226 # 다: 하'쳐, 요습, 예. {다 하지요, 요새는, 예.}

10226 @ 예, 예, 하'어게 데'서 쪼곰' 그르'치마니, 예전 가'트머는 대개' 지'베서 안 해'씀미까, 거르'치에? {예, 예, 하게 돼서 조금 그렇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대개 집에서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10226 # 예, 예전 거'트면 은, 지'베서 마가' 장미, 장:니' 치'루조. {예, 예전 같으면 어, 집에서 모두 장례, 장례를 치르지요.}

10226 @ 혹'씨 그'언, 사라'미이 이 주'거서 장네'를 치를' 때에' 쯔 이 자으 저, 예저'네 장네' 치'를 때 어'떤 시'으루 치린'는지 함무 이야길 하'문 해 주이'소? {혹시 그, 사람이 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 저 이 장례 저, 예전에 장례 치를 때 어떤 식으로 치렀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10226 @ 요즘' 머 사'암들 잘 모르'니까, 예? {요즘 뭐 사람들 잘 모르니까, 예?}

10226 # 엠, 으, 예, 예. {옛, 어, 예, 예.}

10226 # 이 옛날' 예임, 장례 치른' 버'블 얘기하'까요? {이 옛날 어, 장례 치르는 법을 얘기할까요?}

10226 @ 예, 예, 예. {예, 예, 예.}

10226 # 예. {예.}

10226 # 옛날'에는 인제음 부'모가 머 편'찬해 가주 상'을 당하'든 상'주가, 그 문중' 어른'드리 모'도 모에'고 해서 그 인제' 별세해'따는 부고'를 씀'니다. {옛날에는 인제 부모가 뭐 편찮아 가지고 상을 당하면 상주가, 그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이고 해서 그 인제 별세했다는 부고를 씁니다.}

10226 # 읍 부고'를 인자 하'모에, 하'모 임, 머 이 유인내 그애 해 가주 그 으, 부'치니 어'제 날'짜로 마 인 메 시경'에, 이 경여 머 유씨므 유씨야, 마 으 그른 씨로 해 아'주이 별세해'쓰니께 자'이 부고한'다, 이'래 인제' 그 부골' 내면', 그으 부골'르 가'주고, 옛날'에는 우체'부가 업'썸'니다. {그 부고를 인제 항목, 항목 이, 뭐 이 유인을 그 해 가지고 그 어, 부친이 어제 날짜로 뭐 이 몇 시경에, 이 경에 뭐 유시면 유시, 뭐 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별세했으니까 아들이 부고한다, 이래 인제 그 부고를 내면, 그 부고를 가지고, 옛날에는 우체부가 없었어요.}

10226 # 여'에 동네' 사'람드리 모'도 한' 동네쓰 마'타 가'즈어 이마'꺼이, 여'나음' 장씨에이,

시무 장'석 가'주고 전'넌니더, 동네매'동. {여기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한 동네씩 맡아 가지고 이만큼씩, 여남은 장씩, 스무 장씩 가지고 전했어요, 동네마다.}

10226 # 가서 인'제, 집째매'동 가서 인제 이여 부골' 전나'고 꼬으, 그'래 와 가주'고 인제 또' 부골' 전나 따'으메으, 그 사람'드름 부고' 전하도'르 켜 노'꼬 동네 문중 어른'드름 또 망이'네 대한'느 장이'를 정'해요. {가서 인제, 집집마다 가서 인제 이 부고를 전하고 그, 그래 와 가지고 인제 또 부고를 전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부고를 전하도록 해 놓고 동네 문중 어른들은 또 망인에 대한 장의를 정해요.}

10226 # 제, 장이'르이, 예를 뜨'러 가'주 말'하음, 오'늘 도러가씨미, 요샌' 먼' 주'로 사'밀 짜일니더, 머 암, 나음, 머 더'도 모 타'고 그'래두구만. {인제, 장의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면, 오늘 돌아가시면, 요새는 뭐 주로 삼일장입니다, 뭐 어, 음, 뭐 더도 못 하고 그러더구만.}

10226 # 그'느 옌나'렌 머' 사'밀짱도 마이 해'찌만, 보통' 오일'짱', 치'릴짱, 그'래 머탄' 지'벤 머' 어어, 근 열'흘, 으을, 보'름장도 지낸 지'비 이'씨씨, 유유한 지'베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삼일장도 많이 했지만, 보통 오일장, 칠일장, 그래 무엇한 집에는 뭐 어, 근 열흘, 어, 보름장도 지내는 집이 있었어, 여유있는 집에서는.}

10226 # 그'래어 황겨'이 줌' 느잉, 경제'가 나꼬 한' 지'베는. {그래 환경이 좀 낫고, 경제가 낫고 한 집에서는.}

10226 # 그'래 장네'을 채루'코, 그게 찌, 장녀'는 인제' 쓰 에, 그'래 테'면 인제 지, 에 상가'에서는 인제 그, 금 망이'니 주'근 다'으메 인제 수으, 소리'미라 근'능 어이, 소리'미라 그'능 거, 소리'를 하'니더. {그래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장, 장례는 인제 저 어, 그래 되면 인제 저, 어 상가에서는 인제 그, 그 망인이 죽은 다음에 인제 소, 소렴이라 그러는 것, 소렴이라 그러는 것, 소렴을 합니다.}

10226 # 소리'미러 그'능 거'느 인제' 망이'닐 인제 소'늘 거다' 가'주 무'꺼 조요. {소렴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제 망인을 인제 손을 거두어 가지고 묶어 줘요.}

10226 # 마' 발'라꼬, 거 이게. {뭐 발하고, 그 이게.}

10226 # 그 이'스, 예, 사라'미랑 전' 숨: 떠'러지면 고'마 사지'가 구'더 뿌거드요. {그 이, 어, 사람이라는 것은 숨이 떨어지면 그만 사지가 굳어 버리거든요.}

10226 # 구'더 뿌'면 소'닐 모치'럴 모 하'이게네 달: 구'더슬 찌'게 소'닐 모'코, 바'를 마'아 가'주 무'끼 조트'룩 배 우'에 요'래 은'저 가'주이, 요골' 소리'미라 그'래여. {굳어 버리면 손을 모으지 못 하니까 덜 굳었을 적에 손을 모으고, 발을 모아 가지고 묶기 좋도록 배 위에 요래 인제 가지고, 요것을 소렴이라고 그래요.}

10226 # 그'래 소리'를 마'치고 나'머 인제 그'나알 거'트면 그 인제'으 상'주는 머 그어를, 찌꺼, 성'보기라 그'은 또 제사'알 지'내요. {그래 소렴을 마치고 나면 인제 그날 같은 그 인제 상주는 뭐 그것을, 저것, 성복제라 그러는 또 제사를 지내요.}

10226 # 성'보글 지'내면, 성복 찌'네는 다리'이능 고'글 모 태'여, 상'주도. {성복제를 지내면, 성복제 전에는 다른 사람은 곡을 못 해요, 상주도.}

10226 # 으 성'보기라 그'능 거'느 인제' 머 어이, 이'트레 음, 머 오늘 주'거썸므 내'일썸 성'복 제사'을 치'내'요. {그 성복제라 그러는 것은 인제 뭐 어, 이틀에 음, 뭐 오늘 죽었으면 내일썸 성복 제사를 지내요.}

10226 # 상'복 제사'러 그'능 거'느 인제' 머 어, 떠'늘 해 어으, 어, 하고 머 그'래 가'주 인제' 불각'찌 성'복 제사'을 지'내면, 성'복 제사'을 지'냄 인제' 상'주는 상'보글 이, 이'

버이 데'요. {성복 제사라고 그러는 것은 인제 뭐 어, 편을 해 어, 어, 하고 뭐 그래 가지고 인제 불 같이 성복 제사를 지내면, 성복 제사를 지내면 인제 상주는 상복을 입어야, 입어야 돼요.}

10226 # 상, 베오'스로 인제'이 가라이'이'꼬, 커'래 가주'우 그'날브툼 인제'으 고'걸 해'서, 상'주가. {상, 베옷으로 인제 갈아입고, 그래 가지고 그날부터 인제 곡을 했어, 상주가.}

10226 # 머' 어, 이 사'목 고'글 모 타'다가도, 성'보글 지'내어 보'글 이'븐 다'으메느 아이고 러 그'는 고'글 해'요. {뭐 어, 이 사'목 곡을 못 하다가도, 성복제를 지내고 성복을 입은 다음에는 "아이고"라 그러는 곡을 해요.}

10226 # 그'래가주' 인제' 상문서, 문상'객뜨리 오'던 문상'객뜨또 가'치 인제' 에, 엠, 만'재배'하'고 이니 영'위를 다'니고, 인저' 상'주한테 만'재배'을 그, 만'재배'을 한'데 인제 문상'온' 사'람드른 초'로 그 인제' 므어 써, 기'양 절'만 하'기 쑥쑥'로 하'이께네, 그 머 상'고을 당'에서 열'마나 으, 앵, 이, 그 머 애'서칸'냐꼬 마'이제, 이'른 시'그로 인제' 인사 말'씀 해'요. {그래서 인제 문상객, 문상객들이 오면 문상객들도 같이 인제 어, 어, 맞재배를 하고 이 영위를 다니고, 인제 상주한테 맞재배를 그, 맞재배를 하는데 인제 문상 온 사람들은 주로 그 인제 뭐 쑥, 그냥 절만 하기 쑥스러워 하니까, 그 뭐 상을 당해서 얼마나 어, 어, 이, 그 뭐 애'석하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인제 인사 말씀들을 해요.}

10226 # 그'래 참' 이미, 이그, 잉으, 저 어, 부/시에 상'을 당'에서 응우, 어 후, 우옌'냐코 마'욱, 그'른 소'리로도 인'살 하'고. {그래 참 이, 이, 이, 저 어, 불시에 상을 당해서 어, 어, 우, 어떻게 하냐고 말이지, 그런 소리로도 인사를 하고.}

10226 # 그'래 인제' 상지를 치, 치루'면, 고다'으민 인제' 성'복 지'내면 그 인제' 그'음 망'이'네 장'네 줌'비를 해'여. {그래 인제 상례를 치, 치르면, 그 다음에는 인제 성복제를 지내면 그 인제 그 망'인의 장'례 준비를 해요.}

10226 # 오오, 관'늘 사 오'고, 관'니라 그'웅 게 너:'리 말'씨더, 너'를' 가'서, 시'자'아 가'서 멈, 머 이'떠, 옌'나'옌'너 시'장'에 사 옹 거', 이'잔 보'통' 지'베 노'코 해'씨인, 너'으'르'아. {오, 관을 사 오고, 관이라 그러는 것은 널을 말해요, 널을 가서, 시장에 가서 뭐, 뭐 이, 옛날에는 시장에서 사 온 것, 이것을 보통 집에 놓고 했어요, 널을.}

10226 # 옌'날'버'뚝 어'르'니 게'시'음'마 너'를' 장'만'해' 나'씨요. {옛날부터 어른이 계시면 널을 장만해 놓았어요.}

10226 # 그'걸 인제' 대'모'글 불'러 가'주, 그'걸' 은'제' 짜'요. {그것을 인제 대'목을 불'러 가지고, 그것을 인제 짜요.}

10226 # 너'으'릴' 짜'가'주 인제' 에, 예'끄, 크'래'가'주 인제' 성'복 찌'내고 너:'를' 짜 가'주어 느 이'관'할 땐'능 글' 인제' 에, 대'르'미'라 캐'요. {널을 짜서 인제 어, 어, 그래서 인제 성복제 지내고 널을 짜 가지고는 입'관'할 때는 그것을 인제 어, 대'럼'이라고 해요.}

10226 # 소'리'밀' 때', 소'럼', 대'럼' 한'데, 대'려'미'라 그'능 거'느 인제' 에:, 시'신'에'다'서'령'을'랑 그 어, 이, 옌'날' 마'끼' 수'이'라 그'니'더, 웨, 으'이 주'구'꼬, 어'이, 주'거'씨 이, 이'꼬 가'늬 오'설 수'이'라 그'능 게'으, 허'게 주'로 인제' 베'로 해'요, 명'주'로 하'고. {소'럼'일 때, 소'럼, 대'럼' 하는데, 대'럼'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어, 시'신'에'설'랑 그 어, 이 옛날 말로 수'의'라 그'룹'니다, 왜, 어 죽고, 어, 죽'어서 입, 입'고 가는 옷을 수'의'라 그러는 게, 그'게 주'로 이제 베'로 해요, 명'주'로 하고.}

- 10226 # 그글 은제' 이'페 거주'고 그'래 인제' 머 아, 씨'케고 그래가주 인제' 국 과'네 여' 가정 이'파'늘 하'면, 이'파'늘 해가'주 인제' 하'면 그 상'주드리 모'도 옥, 어허이, 영'위에 나'와씨우 고'글 하'고 그'래그 난' 디에'는 그 인제' 예, 장이'리 사'릴짜이맘 머 그'날 고'마 배'께 야간' 내나'따가여 한 전느때 씨', 시'릴짜이나 치'릴짜이나 오일'짜이네 테'마 그'으, 급 과'늘 바'아 몬' 나'두그으요. {그것을 인제 입혀 가지고 그래 인제 뭐 아, 찢기고 그래서 인제 그 관에 넣어 가지고 입관을 하면, 입관을 해서 인제 하면 그 상주들이 모두 어, 어, 영위에 나와서 곡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그 인제 어, 장일이 삼일장이면 뭐 그날 그만 밖에 약간 내놓았다가 한 저 십, 십일장이나 칠일장이나 오일장이나 되면 그, 그 관을 방에 못 놔두거든요.}
- 10226 # 웅, 거 부패하'기 때'무래. {어, 그 부패하기 때문에.}
- 10226 # 그'래 배'께 가따설랑, 토롱'이라꼬 해'요. {그래 바깥에 가져다설랑, 토롱이라고 해요.}
- 10226 # 토롱'이라 그능' 거'는 인제' 근 너:를' 언, 배'께서 땅'알 이'래 널' 드'갈 만찌음, 쪼끔' 파'고, 고다' 노'코 이, 영'개라 그'니드이. {토롱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제 그 널을 어, 밖에 땅을 이래 널이 들어갈 만큼 음, 조금 파고, 거기에 놓고 이, 이영이라 그러니다.}
- 10226 # 엔나'레이 지'프로 이'래 소'느로 여'견능 거, 그, 그걸' 가'주어 둘러논'니더. {옛날에 짚으로 이래 손으로 엮은 것, 그, 그것을 가지고 둘러놓습니다.}
- 10226 # 그' 둘러노능 거'는 거'을그로논 더 러'어라꼬도 조꼬', 온'도도 떠이떠, 여'르므로 너잉여 거느'을 방지해' 주'고, 또' 그'램 우중'에능 그 비'도 바'다 주'고, 크'래 거주어 그'래 영'개라 그'능 건 더'퍼 논니단. {그 둘러놓는 것은 겨울으로는 털 열어서 좋고, 온도도 따뜻하고, 여름으로는 그늘을(+ "더위를"로 표현해야 할 부분이지만 발화실수한 부분임.) 방지해 주고, 또 그리고 우중에는 그 비도 받아 주고, 그래 가지고 그래 이영이라 그러는 것을 덮어 놓습니다.}
- 10226 # 더'퍼 거주'우 그'래고 인제 머' 에에해, 그러'고 인젠' 장니'리 다오'멍 어, 고 사니 인제' 모'도 싸, 혼녀 문상'객뜨리 오'제, 머예, 장일까'지느. {덮어 가지고 그리고 인제 뭐 어, 그리고 인제 장일이 다가오면 어, 그 사이는 인제 모두 상문, 인제 문상객들이 오지, 뭐요, 장일까지는.}
- 10226 # 인제' 그 동네' 모'두 부골' 해 나'이쓰이께네. {인제 그 동네 모두 부고를 해 놓았으니까.}
- 10226 # 부골' 바'덤 븐'드리 오'늘 온' 사'람더 꼬, 내이리 음 사'람 머 치' 릴랄, 다'일 오'는 사'람더 이'꾸 머 그'런데, 그'건 머'엿 대'정웁씨 치'릴짜이라 급' 그'날 와' 자, 상'주 무는 사'람더 이'꼬, 그래이 치'릴'가능 꾸주니 문상'개글 바'꼬, 그'래 인제'이 장:이'리 다오'면 은, 인제 엔나'레는 장:이'리 다오'면, 요새'능 굼 머 차'로 실꼬' 저'래 가 뿌'이젠 펜'언데, 엔나'렌너 행상'이라 그'느 걸 꾸'메느게. {부고를 받은 분들이 오늘 오는 사람도 있고, 내일 오는 사람 뭐 칠 일에, 당일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것은 뭐 대중없이 칠일장이라 그러면 그날 와서 저, 상주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 칠 일간은 꾸준히 문상객을 받고, 그래 인제 장일이 가가오면 어, 인제 옛날에는 장일이 다가오면, 요새는 그 뭐 차로 싣고 저래 가 버리니까 편한데, 옛날에는 행상이라고 그러는 것을 꾸몄어요.}
- 10226 # 행사~'이라 그능' 거', 인제' 그거 행사~'이라 그능' 거'는 내'이리 장:사 거'땸머 인

제' 오'늘 모'도옌 저녀'겐 그 고'찌비라 그'능 그 행상'을 이 때'끼 논는 지'비 인니'더,  
그어'고 가'따 노'현 지'비. {행상이라 그러는 것, 인제 그것 행상이라 그러는 것은 내  
일이 장사 같으면 인제 오늘 모두 저녁에 그 곳집이라고 그러는 그 행상을 이 맡겨  
놓는 집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놓은 집이.}

10226 # 그'어 그, 그게' 고찌'비러 근'데으 거'어 가'서 인자' 마카' 그 자료'을 어잉어, 매  
상가찌'브로 그 음, 미'이 나르'나'다. {거기에 그, 그게 곳집이라고 그러는 거기에 가  
서 인제 모두 그 재료를 어, 뭐 상갓집으로 그 음, 메 나릅니다.}

10226 # 미'이 나르'고 인제' 널' 아치'메 인제'이 시, 식찌'네 동'니 사'러미 그 인제' 장사'  
지'느러 운' 사'럼 상두구'니러 근'니다. {메 나르고 인제 내일 아침에 인제 식전, 식전  
에 동네 사람이 그 인제 장사 지내러 온 사람을 상두꾼이라 그러합니다.}

10226 # 으, 상두꾼'. {어, 상두꾼.}

10226 # 상두꾼'드리 모'도 와 가'주어 그'어서 인제' 예, 상가찌'베서 아'치를 가치 머'꼬,  
그'래 인제' 그거으 으어, 거 인제' 행상'을 꾸'메지, 머', 조리'블 하'지, 머'에. {상두꾼  
들이 모두 와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어, 상갓집에서 아침을 같이 먹고, 그래 인제 그  
것 어, 그 인제 행상을 꾸미지, 뭐, 조림을 하지, 뭐요.}

10226 # 인제' 서'와가주 인제 그'래 가주은 조리'비 다: 마'치믄 클짜즈 인제', 상가찌'베서  
줍비 다: 데'따 그'면 그러 인제' 느어'털, 토'롱 해 나'아편 느어'털 응어, 씨, 시시'널,  
구, 과'늘 파내 가'주고 머 이, 이래 그, 그래 그, 거 주'털 거'러 나'써, 멍 데. {인제  
세워서 인제 그래 가지고 조림을 다 마치면 그쪽에서 인제, 상갓집에서 준비 다 됐다  
고 그러면 그래 인제 널을, 토롱을 해 놓았던 널을 어, 시, 시신을, 관, 관을 파내 가  
지고 뭐 이, 이래 그, 그래 그, 거기에 줄을 걸어 놓았어, 묶는 데.}

10226 # 그'래 마뜩'고 상두꾼'드리 와'서 그이 어어어에, 고 행상'에 땅' 마뜨'롱 논는' 통'  
이 이'써용, 고다' 여'어가주 인제' 더퍼씨'여며 인제' 그'르 인제' 행쌍', 예에읍, 그'걸  
다: 떠퍼씨'에먼 상두꾼'드리 소'릴 해'요. {그래 맞들고 상두꾼들이 와서 그 어, 그 행  
상에 딱 맞도록 놓는 통이 있어요,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인제 덮어씌우면 인제 그래  
인제 행상, 어, 그것을 다 덮어씌우면 상두꾼들이 소리를 해요.}

10226 # 인제' 줍비'그 다: 제즈 출발해'두 데'느'냐우, 그'래면 그'래 인제' 그'어 상가찌'베스  
넌 으어 저: 바'린제를 또' 지'내으. {인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출발해도 되느냐고, 그  
러면 그래 인제 그 상갓집에서는 그 저 발인제를 또 지내요.}

10226 # 바린'니러 그'능 건 인제' 예:, 이, 이, 이 부'니 이 지'베션 주'거 가'주고 영영' 인  
지'느 떠'난다 카'능 거, 인제' 바린'제를 지'내엔데, 그읍, 음, 바리'니러 그'능 그'년 그  
인제'들 추'기 인니'더, 웨'여. {발인이라 그러는 것은 인제 어, 이, 이, 이 분이 이 집  
에서 죽어 가지고 영영 인제는 떠난다고 하는 것, 인제 발인제를 지내는데, 그, 음,  
발인이라 그러는 것은 그 인제 축이 있어요, 왜요.}

10226 # 바린' 추'기 인데, 그, 친, 추, 추'기러 거'능 겐 드'러보옵 마으'메 안 데'찌, 머'  
예. {발인 축이 있는데, 그, 축, 축, 축이라고 그러는 게 들어 보면은 마음에 안 됐  
지, 뭐요.}

10226 # 영구종처'니라 그'느 인제' 그'른 몸'편 나오잔니'껴. {영구종천이라 그러는 인제 그  
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10226 # 그, 그'른 추'걸 이르'면 상'주두른 마'찌를 해'요, 인제 그. {그, 그런 축을 읽으면  
상주들은 맞절을 해요, 인제 그.}

- 10226 # 느으, 그 너레' 실렌' 어른하'꼬 영결중천하'면, 추'게서, 상주하'코 널하'코 마'쩌르 해'용. {어, 그 널에 실린 어른하고 영구중천하면, 축에서, 상주하고 널하고 맞절을 해요.}
- 10226 # 그' 해, 행상'이 젤: 아'페 미'이뻐 사'러미 야까'누 구, 구'퍼 조용'. {그 행상, 행상을 제일 앞에서 뗏던 사람이 약간 굽, 굽혀 줘요.}
- 10226 # 그'럼 인진' 저'리 데는 세'민데, 그'래른 인제' 예헤웨, 출발하'지, 뜨, 행상'이 인제' 다: 지느, 그'릴 지'베또 은제' 함 바'꾸 도'라가는 데'도 이', 이'썬요. {그러면 인제 저렇게 되는 셈인데, 그러면 인제 어, 출발하지, 뭐, 행상이 인제 다 지내고, 그 집에도 인제 한 바퀴 돌아가는 데도 있, 있어요.}
- 10226 # 어, 연' 내가' 사던' 지'비라가 마당'을 도'라 디아'느로 도'라간 사'름도 이'꼬, 그'르 저 지'비 저:근 지'벙 고'마 마다'으서 그검 머 작빨하'고여, 중천'을 하'고, 추초, 출발 허'만 그'래 가서 산'지이 가서 인제' 장사'을 치, 지'나고, 장사' 지'나온당긴 데 매'장이그더, 그 인제' 이 시시'늘 무'꼬, 그'어서 인제' 또 시시'느릅 다: 무'드몽그 그'어서 인제' 머' 추'기 또 이'썬, 머' 평'토어제이니 머'에 하'능으 그'롱 거 머'우 여'러 가지어. {어, 여기 내가 살던 집이라서 마당을 돌아 뒤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이 작은 집에서는 그만 마당에서 그것 뭐 작별하고, 중천을 하고, 출, 출발하면 그래 가서 산에 가서 인제 장사를 지, 지내고, 장사 지낸다는 게 매장이거든, 그 인제 이 시신을 묻고, 거기에서 인제 또 시신을 다 묻으면 거기에서 인제 뭐 축이 또 있어, 뭐 평토제니 뭐라 하는 그런 것 뭐 여러 가지야.}
- 10226 # 평'토 제사'도 이 썬, 여, 그'래 즈 제사'알 다: 지음 평'토 제사'랑 게 또 이즈에. {평토 제사도 이 저, 여, 그래 저 제사를 다 지내면 평토 제사라는 게 또 있어요.}
- 10226 # 떠'글 가 가'주에, 해' 가'주고 가똥 그어 인제 예, 산소 아'페 노'꼬 그 인제' 상'주 드리 저털' 하'고 고'겔 하'고, 그'래 인즈' 정보'기라 그능 거 참, 그래 예, 평토 제사'라 근드아, 어으'랄 여'기 이 자'리에 모셔'썬니러 하'능 그' 뜨'시지, 머' 평'토라 궁 게'. {떡을 가지고 가서, 해 가지고 갔던 것 인제 어, 산소 앞에 놓고 그 인제 상주들이 절을 하고 곡을 하고, 그래 인제 성복이라 그러는 것 참, 그래 어, 평토 제사라 그런다, 어른을 여'기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하는 그 뜻이지, 뭐 평토라 그러는 게.}
- 10226 # 그래'구 은제' 다: 차'나'면, 그'래 평'토 제사'그 끄나'면 인제' 그'어서 상'주드리 그으, 그이 영'위를 함 바'꾸 도'라 가'주고, 함 바'꾸 도'라 가'주고 인제' 예헤, 어이, 출, 추, 지, 지'브로 오'지, 머'에. {그러고 인제 다 지내면 그래 평토 제사가 끝나면 인제 거기에서 상주들이 그, 그 영위를 한 바퀴 돌아 가지고,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인제 어, 어, 출, 출, 집, 집으로 오지, 뭐요.}
- 10226 # 어르'얼 그이 다: 무'더시이께네. {어른을 그 다 묻었으니까.}
- 10226 # 지'베 오'미 인제' 그 또' 제사'가 또' 인니'더, 웨요. {집에 오면 인제 그 또 제사가 또 있어요, 왜요.}
- 10226 # 으, 일 체계 도우'면 어::, 커'게 인제' 오'래탱 그, 그어'능 거', 평'토 제사' 지'내고 여 쯔, 쯔, 차'며 노'으면 인제' 그 멀, 반흔'제에라 그'롱 게 인니'더. {어, 이 집에 들어오면 어, 그게 인제 오래된 것, 그것은 그, 평토 제사 지내고 저, 저, 차려 놓으면 인제 그 무엇을, 반흔제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 10226 # 반:흔' 제사'라 그'능 게 인제', 인제' 이 예, 심'주를 모시'고 내'리와따, 지, 지'베 와'따 카'능 거 인제', 그래 반흔' 제사'을 치'나면 그 인제' 요'론 상: 우'에다설랑 그'

인제' 신'주르 모시'니다. {반흔 제사라 그러는 게 인제, 인제 이 어, 신주를 모시고 내려왔다, 집,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 인제, 그래 반흔 제사를 지내면 그 인제 요런 상 위에다설랑 그 인제 신주를 모십니다.}

10226 # 신'주러 그'능 게, 그, 이 금 머 오, 여'르에따 꺼'뜯 머' 현:고, 유인' 머, 음, 머 이 현:비'유인 머 그'래 가'주써 은제' 어른' 어'내 언, 아'베 표'씨를 헐, 해 가주고 신'줄 요'래 모셔 노'움 그'게' 인제' 변소'라 그랜네결, 옌나'러 말하' 까똥. {신주라고 그러는 게, 그, 이 그 뭐 어, 여자다 할 것 같으면 뭐 현고, 유인 뭐, 음, 뭐 이 현비유인 뭐 그래 가지고서 인제 어른 어머니, 아버지 표시를 해, 해 가지고 신주를 요래 모셔 놓으면 그'게 이제 빈소라 그랬어요,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10226 # 이'런 사랑방'에아야, 암뽕'에, 이'른 데 채리 로'우먼 그, 그 거'게 에이으, 대'해 가주우 인제' 상'주드리 초호'루, 보'루무로 그어 으, 상:망'을 지'내인니다. {이런 사랑방에, 안방에, 이런 데 차려 놓으면 그, 그 거기에 어, 대해 가지고 인제 상주들이 초하루, 보름으로 그 어, 삭망을 지냅니다.}

10226 # 상'마'이라 궁' 인 초하루', 보'르미고, 또' 그'르금 아침 저어'그로는 그 인제' 이 변:소'에 거으, 그이 기'양 인젠' 조'서그로 보통' 으, 사'라 게:실' 때때'똥 정시'만 안' 드래업 야'침 지여'그론넌 그'우 웨 이, 그어 이 에든, 능, 이, 으, 바'별 올'리니다. {삭망이라 그러는 게 초하루, 보름이고, 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 인제 이 빈소에 그, 거기 그냥 인제 조석으로 보통 어, 살아 게실 때처럼 점심만 안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 왜 이, 그 이 어, 어, 이, 어, 밥을 올립니다.}

10226 # 그'래그 인제' 특'뽕한 제사'는 인제' 초하루', 보'르르로 인제' 그'른 여 상'마'이라 그'는 제사'를 지너. {그리고 인제 특별한 제사는 인제 초하루, 보름으로 인제 그런 이 삭망이라 그러는 제사를 지내고.}

10226 # 그'래 머' 삼: 녀느, 그'래 가'주우 이 옌나'레 그'게' 참: 므 꺾 상'주줄 하'기에 꺾' 에'로와떠이여. {그래 뭐 삼 년을, 그래 가지고 이 옛날에 그'게 참 뭐 그 상주질 하기가 꺾 어려웠어요.}

10226 # 예'이, 요새' 거뜨 그'래 모 타시 꺾'르요. {옛, 요새 같으면 그래 못 했을 거예요.}

10226 # 그 더'우나 추'우나 그' 삼 년'가'늘 아침 저'으로 바'블, 조'서글 떠 나 디'래이 덴, 또 초하루', 보'르르로 머 익 기'양 하'능 게 야'이르 떠'늘 해 가'주오 상'망' 제살' 지' 내이 데'제, 그'을 삼 녀'늘 해'용. {그 더우나 추우나 그 삼 년간을 아침 저녁으로 밥을, 조석을 떠 놓아 드려야 돼, 또 초하루, 보름으로 뭐 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편을 해 가지고 삭망 제사를 지내야 되지, 그것을 삼 년을 해요.}

10226 # 그 삼 녀'이러 그'능 게 그'그 참' 긴: 세워'리시더. {그 삼 년이라 그러는 게 그것 참 긴 세월입니다.}

10226 # 그'래 모시'구동 그 인제'이 옌나'레능 거 이 효:자'라 카'는 등'명을 할'라꼬, 모'두 거 불'효 소리 드'짜 놀라'꼬, 또' 그 인제' 나'는 이 내 어른 이'키 잘: 모:신'다 카'는 뜨'스로 인제' 그 삼 년', 삼 년' 또' 대'상을 지'내인띠아. {그래 모시고도 그 인제 옛날에는 그 이 효자라고 하는 득명을 하려고, 모두가 불'효 소리 듣지 않으려고, 또 그 인제 나는 이 내 어른을 이렇게 잘 모신다고 하는 뜻으로 인제 그 삼 년, 삼 년 또 대상을 지냅니다.}

10226 # 삼 년' 날' 때능 그이 대'사~'이라 그'니더. {삼 년 날 때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그러합니다.}

- 10226 # 이'태마넨 소사~'이라 그'으고. {이태만에는 소상이라고 그러고.}
- 10226 # 꼬' 이 대상'을 참' 어여, 성:대'히 그 제살' 찌', 지'나고, 모'두 동네 사'람, 인척 가'네, 염비사가'이, 연사가가'네 점'부 모'도 와가'주 그'래 인제', 허러으, 그'랜 대상' 뜨'는 또 웨쳐', 사가'기늬 머 사'돈 찌'비라든지, 메'느리 지'비라든지, 또' 내가' 보'낸 따'르 지'비라든지 거'게서늬 그 인제' 으, 아엘, 정서~'이라꼬 그'래가주 인제' 그 머 거'지'베 그얼 찌, 여, 그 승, 념읍, 그으거 주'굶 부'늘 위해가썩얼 퍼'늘 해가'주 온'니다. {그 이 대상을 참' 어, 성대'히 그 제사를 지, 지내고, 모두 동네 사람, 인척 간에, 연사 간, 연사간에 전부 모두 와서 그래 인제, 어, 그래 대상 때는 또 외척, 사가이거나 뭐 사돈 집이라든지, 며느리 집이라든지, 또 내가 보낸 딸의 집이라든지 거기에서는 그 인제 어, 어, 정성이라고 그래서 인제 그 뭐 그 집에 그 저, 어, 그 승, 어, 그것 죽은 분을 위해설랑 편을 해서 옵니다.}
- 10226 # 허릉여 거'게 인네' 제무'늘 지:꼬', 머' 그'래 가주'우 그 저, 응, 고걸' 하'고 그래 참' 머 꺼 여, 성대'히 치룬니'더, 대상'얼. {그리고 거기에 인제 제문을 짓고, 뭐 그래 가지고 그 저, 응, 곡을 하고 그래 참' 뭐 그 어, 성대'히 치룹니다, 대상을.}
- 10226 # 응, 그, 그'랜 인제' 삼' 녀'니 다' 낭'게 인제' 보'걸' 버'꼬, 대상' 낱, 상'주가 삼' 녀'널' 라'쓰이께네 인지'는 상', 상'보'걸' 버'썩니'다 하'는 뜨'시 대사~'인데, 그'래 상'보'걸' 보'꼬 일반' 평이'느루 도'라가지, 인. {어, 그, 그러면 인제 삼'년이 다 지났으니 인제 복을 벗고, 대상 지냈으니, 상'주가 삼'년을 지냈으니까 인제는 상'복, 상'복을 벗습니다 하는 뜻이 대상'인데, 그래 상'복을 벗고 일반' 평'인으로 돌아가지, 인제.}
- 10226 # 그래 인제' 변소'오도 그거 인제' 심'즈도 응혀, 매'호'널'흙, 매'즈, 음, 매'호'널' 해' 뿌'우, 가'썩. {그래 인제' 빈소'도 그것 인제' 신'주'도 어, 매'혼'을, 매'혼, 음, 매'혼'을 해' 버'려, 가서.}
- 10226 # 고' 인제' 꼬' 가차'운 언'느, 어'데 삼'빠'씨리나 이'른 데 가'서 무'더 뿌'래요, 그'어'느. {거기 인제' 그 가까운 어디, 어디 산'기'습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 버'려요, 그 것은.}
- 10226 # 허구 인제' 매'호'니라 그'래고, 그'래 무'드'드 인제' 다: 으, 그' 부'네 대'항 거'는 예:, 삼'년 제사'가 다: 끝'나'고, 고'다'음 인'젠' 나'뭉 거'능 기'제사'배'께 남'찌 안'찬'나. {하고 인제' 매'혼'이라 그러고, 그래 묻으'면 인제' 다 어, 그 분'에 대'한 것은 어, 삼'년 제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인제' 남은 것은 기'제사'밖'에 남'지 않'잖'아.}
- 10226 # 그'래 인'지' 조'짜~'이 삼' 녀'널' 나'도 어'르'니 도'라'가'신 날'짜'를 귀'해 가'어'주'주고 제'살' 지'내'이'더, 기'제사'라 그'능 거, 영, 거 바'므'로. {그래 인제' 조'상'이 삼'년'을 지나도 어'른'이 도'라'가'신 날'짜'를 기'해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기'제사'라 그'러는 것, 어, 그 밤'에.}
- 10226 # 열'뚜' 시 한' 시 사'이'예. {열'두' 시와 한' 시 사'이'예.}
- 10226 # 그'걸' 기, 끼, 기'제사'라'꼬'열' 지'내고, 그'랜'니'드. {그것'을 기, 기, 기'제사'라고 지'내고, 그'랬'어'요.}
- 10226 # 그, 그'래'머 인제' 삼'년'상'이 닷' 끝'나'능 게'지. {그, 그러면 이'제 삼'년'상'이 다 끝'나는 것'이지.}
- 10226 @ 그'르'치'예? {그'렇'지'요?}
- 10226 # 예. {예.}
- 10226 @ 어'르', 어'르'시 그'럼'며'너 그'어 이'제' 방'금 이'야'기'를 어, 대'강 그'으'거, 이 그'어'우,



어르신께서 이 동네'에 장네'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어, 그러, 꼬'러케 해' 주'셨는데, 꼬'언 아까'엄 보통' 궁어 요주'웁먼 머 사밀장하'고 어, 그 다'음메 또 탐 마? {어르신,어르신 그러면은 그 이제 방금 이야기를 어, 대강 그것, 이 그것, 어르신께서 이 동네의 장례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 그렇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 아까 보통 그것 요즘은 뭐 삼일장하고 어, 그 다음에 또 다음 뭐?}

10226 # 오일'짱 프'어 치'릴짱, 곰 머 움, 머 시'빌짱, 그'래 지낸 사'암더 영, 보'름짱 지내 인또 인네, 엔네다. {오일장, 뭐 칠일장, 그 뭐 어, 뭐 십일장, 그래 지낸 사람도 있고, 보름장 지내는 사람도 있, 있어요.}

10226 @ 예저'네너 마이' 해'따, 그'지예? {예전에는 많이 했다, 그렇지요?}

10226 # 예, 예. {예, 예.}

10226 @ 그다'음메 음, 그'어스 대상 하'는 사'암도 이'꼬, 소상 하'는 사'암드 이'스꼬, 그지 예? {그다음에 음, 거기에서 대상 하는 사람도 있고, 소상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요?}

10226 # 아이'래, 소상', 대상'은 맹' 다: 지'내요. {아니요, 소상, 대상은 역시 다 지내요.}

10226 @ 다 하'고 \*\*\*? {다 하고 \*\*\*?}

10226 # 예', 이패'마네, 아, 예를' 드'러서 도'라가신 내으 금너'네 도'라가쓰른 내여'네느 소상'이고, 삼 년'째 든' 텐 대상'이고, 그'러이더. {예, 이태만에, 아,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해가 금년에 돌아가셨으면 내년에는 소상이고, 삼 년째 든 데는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10226 @ 그'름, 그'름습 보통' 탈'상을 삼 년'까'지를 해'따, 그'지예? {그래, 그래서 보통 탈상을 삼 년까지는 했다, 그렇지요?}

10226 # 예, 예으, 삼 년'까'지는 다 해뜨, 예. {예, 예, 삼 년까지는 다 했어, 예.}

10226 # 소상'엔 탈쌍'을 모 타'고 머 이애, 예. {소상에는 탈상을 못 하고 뭐 이래, 예.}

10226 @ 그: 아웁, 보통쓰, 그어 한은, 그 무'더메, 인지 무'덤, 봉분 만들'고, 어, 매'장을 하'고 난 다'음메 한' 사 밀째 데'는 나'른 검'며너 사무제'도 함'미까? {그 어, 보통, 그 한, 그 무덤에, 이제 무덤, 봉분을 만들고, 어,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삼일 째 되는 날은 그러면은 삼우제도 합니까?}

10226 # 예, 예, 사므'이제. {예, 예, 삼우제.}

10226 # 사뽀'제를 지'낸니더. {삼우제를 지냈어요.}

10226 # 요'이, 요새'도 거'이 다: 그건' 하 께'레요. {요, 요새도 거의 다 그것은 할 거예요.}

10226 # 그'엄 머 사미'제로설랑 다: 마'치능 께 떠'라꼬, 요새'엔 마'료. {그것 뭐 삼위제로 설랑 다 마치는 것 같더라고, 요새는 말이야.}

10226 # 고'마 보'글 버'서 뿌드'라꼬. {그만 상복을 벗어 버리더라고.}

10226 # 근 녀 사미'제는 능이 요새'도 합'따다. {그 이제 삼우제는 이 요새도 하더라고요.}

10227 @ 그: 은저 이 예전', 요주'우메 비하'면 예정 가통 경'우넘 어, 이 장네: 절차'도 복'잡하고, 그대'앰 머 일도 마'나어'찌짐? {그 이제 이 예전, 요즘에 비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어, 이 장례 절차도 복잡하고, 그 다음 뭐 일도 많았지요?}

10227 # 보'짜패'요, 망:코' 마'고'지요, 예. {복잡해요, 많고 말고지요, 예.}

10227 @ 그'른테 이 요주'웁, 엔나'레 비해'서 요주'웁먼 쯔'머 어'떤 시'어루 간'소화가 대'썸미까, 요주'웁 장네'는? {그런데 이 요즘,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쯔 어떤 식으로 간소

화가 됐습니까, 요즘 장례는?}

10227 # 요새'는 기'양 머 장녀' 지'내능 거'또 말시'더, 상'주가 할 리'리 업써'용. {요새는 그냥 뭐 장례 지내는 것도 말입니다, 상주가 할 일이 없어요.}

10227 # 왜냐', 옴나'네능 거 상'주 채'기미 참 즐, 조, 중했'니더. {왜냐, 옛날에는 그 상주 책임이 참 중, 중, 중했습니다.}

10227 # 그걸', 참'부 그걸' 초'아늘 해 가'주우 마'리지, 으이, 주이, 문중' 어른'들하꼬 이래 이러 하'자건 타하'블 해' 가주어 겨'짱언, 상'주 결'짱이 나'이 데'그더. {그것을, 전부 그것을 초안을 해 가지고 말이지, 어, 저, 문중 어른들하고 이래이래 하자고 타합을 해 가지고 결정은, 상주 결정이 나야 되거든.}

10227 # 상'주구 조타' 그'레이 텐'데, 그, 그게' 어끄'더. {상주가 좋다 그래야 되는데, 그, 그게 없거든.}

10227 # 요새'는 고'마 사아, 저, 어어이, 병위'네 가'서 이 그'움마 장사'을 지'내이께네 마' 리야. {요새는 그만 상, 저, 어, 병원에 가서 이 그만 장사를 지내니까 말이야.}

10227 # 거'기 장이'사 곱'마 하, 하'란 데루 해' 뿌래, 고'마. {거기 장의사가 그만 하, 하라는 대로 해 버려, 그만.}

10227 # 예를' 뜨'러 가'주여, 규저'이 업뜨'라꼬, 머, 지, 장이'사가 내'엘 머, 어이 금, 음, 인 저거 하베, 이관함'니다, 거'서 결'짱해' 뿌드'라쑹. {예를 들어 가지고, 규정이 없더라고, 뭐, 장, 장의사가 내일 뭐, 어 그, 음, 이 저것 하지, 입관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해 버리더라고.}

10227 # 그'레이 장, 응, 거'으 상'주는 따'를 수배'깁 업뜨'러쑹. {그러니 장, 어, 그 상주는 따를 수밖에 없더라고.}

10227 # 구'러 고뎡 이관함' 날' 고 모'도 억, 가차'운 머' 이 자네질떠'리여 가, 까, 가치 가'서 보'고, 이이관하'고 그'래떠더. {그래 그만 입관하는 날 그 모두 어, 가까운 뭐 이 자녀들이 같, 같, 같이 가서 보고, 입관하고 그러더라고요.}

10227 # 그'울꼬 머' 요새'는 또 그'르꼬 그게 머' 이관해' 뿌고 나'이 마'리암, 기'양 상'주는 그'이 영아, 어이, 영안'시를 떠'나 가'주고 이쪽 빵'으 와'서 고'마 그어 으어어이이, 예, 여를' 뜨'러 마'하 꺼비, 옴날' 그뎡 변소' 태'기지, 그 세, 신'니를 모셔 논' 요'른 쪼마냥' 으 머 사지'늘, 요샌' 시'닐 안 써 노'꼐 사지'늘 읍, 가따 노뜨'라, 영'위라 그'래고, 거 사진 아'페써 머 절 라'고 서로, 상'줄 무꼬', 바'꼬, 그'래고 고'만 매'장일또 구넌 내'엘 곱'마, 사'밀짱 꼬'은다 금 내'열 궁 어영, 메 씨'에 즈, 짜엑, 음, 매'장지를 출발함'니다, 그 이 즈 장이'사가 그'레이께네 우우머 상'주능 그'래 딸트'라꾸, 또. {그렇고 뭐 요새는 또 그렇고 그게 뭐 입관해 버리고 나니 말이야, 그냥 상주는 그 영안, 어, 영안실을 떠나 가지고 이쪽 방에 와서 그만 그 어, 예,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빈소인 셈이지, 그 신위, 신위를 모셔 놓은 요런 조그마한 것 뭐 사진을, 요새는 신위를 안 써 놓고 사진을 어, 갖다 놓더라, 영위라 그러고, 그 사진 앞에서 뭐 절 하고 서로, 상주에게 묻고, 받고, 그러고 그만 매장일도 그냥 내일 그만, 삼일장 지낸다고 그러면 내일 그 어, 몇 시에 저, 저, 음, 매장지로 출발합니다, 그 이 저 장의사가 그러니까 그만 상주는 그렇게 따르더라고, 또.}

10227 # 그'르이 상'주능 고'마 꼬'으 인 장이'싸써, 옴날'거치 멩에 내' 부모라꺼연 내'가 이'레이 한'더, 저래 한'더, 거거인 주장'을 모 타'고, 그 병위'네서, 영안'시레서 정하'는 데'로 함'따다. {그러니 상주는 그만 그 이 장의사가, 옛날 같이 뭐 내 부모니까 내가

이래 한다, 저래 한다, 그 주장을 못 하고, 그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정하는 대로 하 더라고요.}

10227 # 그르 나 가'주 구마 영:구'차 불'러 가'줍 실:꼬 나갈 찌'이 고'마 그, 거게어 인제', 단:지' 인제' 그'깁 예, 출발할 찌'게 예, 그 맹'으 형'시기지맘, 본지'비 아인'데으, 그 바린'제에를 지넌 피'로고 엄:는'데, 응, 그'래두 거이 영안'시레서는 자'기느 수'이불 바'래 가'주우여 바린'제을 지'넌따다. {그래 놓아 가지고 그만 영구차 불려 가지고 싣고 나갈 적에 그만 그, 거기에 인제, 단지 인제 그것 어, 출발할 적에 어, 그 역시 형식이지만, 본집이 아닌데, 그 발인제를 지낼 필요가 없는데, 응, 그래도 거기 영안실에서 자기네 수입을 바라 가지고 발인제를 지내더라고요.}

10227 # 근'데 응, 이, 나도' 그'른 썰렁 해', 해'썸, 그 이 몫, 버 물'린 영안'시레서 하'라그에 하기'넌 네, 바리'나라 근'능' 근'는 찜' 영구종천 이, 인'사를 하'능 겐'데, 내 지'베가' 가'주설러 하'능 게'지, 병위'네 머' 영구종청 배 끼 머 인느, 요 와서 어뜨나, 그 바린'제을 지'넌능 그 상'줍 머' 부다'물 더 쓰능 거'빠'께 아이'라, 그'러이께네. {그런데 어, 이, 나도 그런 소리를 했, 했어, 그 이 물론, 뭐 물론 영안실에서 하라니까 하기는 해도, 발인이라 그러는 것은 좀 영구종천, 인사, 인사를 하는 것인데, 내 집에 가지고설랑 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뭐 영구종천 할 게 뭐 있나, 요기 와서 어떻게, 그 발인제를 지내는 것은 그 상주에게 뭐 부담을 더 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10227 # 꼬어 인제' 이, 장이'싸으저, 아이, 그'르치 아내'우, 어:른' 그'른 소'른으호흔 마이'소, 크은 여'아 다: 하'기 데' 인니'더, 금, 아유, 글썽아 한'다그 내' 모 타'그러 한'냐고, 금 원'처 그 피'로가 엄'능' 거 아이'냐점, 그'래도 이야기한' 제'기 인니'더마는, 꼬'러 상'주 부다'물 자꾸' 쓰게'지 마고, 은, 그'래 지내'앵 게' 나 짚'나, 그 소'리래찌, 내 금 머 하'라 소'리너, 안 하'라 소'리능 안' 해' 짚'냐고, 그'래구, 므 그'래 얘'기도 하'고누. {그 인제 이, 장의사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른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기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길래, 아니, 글썽 한다는 것을 내가 못 하게 하느냐고, 그 원체 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상주 부담을 자꾸 시키지 말고, 어, 그래 지내는 게 낫지 않냐, 그 소리였지, 내가 뭐 하라는 소리, 안 하라는 소리는 안 했지 않냐고, 그러고, 뭐 그래 얘기도 하고.}

10227 # 그'르고 나'이 머'으 기'양 고'마 또' 구어이 저'으, 저 엉으, 장이'산 출발해' 가'주운 직쩍 머' 어'뻐, 어'뻐 지'베는 매'장하는 집'또 이'꼬, 어'뻐 지'이능 고'마 화장'해가'주 굶'머 그래음 우우, 머, 움, 모 곱'마 어, 어, 치'아 뿐' 집'또 이'꼬으, 그'르이 그머 이, 이게' 올'따, 저거' 열'따, 소'리온 할' 쑈 어'꼬', 그'래으 머' 상'주드리 펜트'라꼬, 요샌' 마'러. {그러고 나니 뭐 그냥 그만 또 그 저, 저 어, 장의차 출발해 가지고 직접 뭐 어떤, 어떤 집에서는 매장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그만 화장해 가지고 그만 그래 어, 뭐 어, 뭐 그만 어, 어, 치워 버리는 집도 있고, 그러니 그 뭐 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뭐 상주들이 편하더라고, 요새는 말이야.}

10227 # 머'응 어, 그'키 머 애'쓰 꺼'또 어:꼬', 머' 으, 숨: 떠'러징 고'음 상'주 구'머 어, 보'도 모 태'꼬. {뭐 어, 그렇게 뭐 애쓸 것도 없고, 뭐 어, 숨 떨어진 것을 상주는 그만 어, 보지도 못 했고.}

- 10227 # 또' 요새'는, 옴나'렌 그겨 참' 어르'늘 모시고 사다설'랑 그 어웅, 그걸' 그 인 도라가'시능 걸' 응, 그걸' 모 뽀'먼 불효가' 데'따, 그랜니'더. {또 요새는, 옛날에는 그것 참 어른을 모시고 살다가설랑 그 어, 그것을 그 인제 돌아가시는 것을 어, 그것을 못 보면 불효가 됐다, 그랬습니다.}
- 10227 # 꼬'은데 임중'을 모 타'멈 마'리아. {그런데 임중을 못 하면 말이야.}
- 10227 # 그 요새'는 거'이가 임중'을 모' 태용. {그 요새는 거의가 임중을 못 해요.}
- 10227 # 웨:냐', 객찌이' 가 이쁜 사'럼드리 매일' 와: 이'찌도 모 타'지르 또 어여, 지'베서 요주'먼은 보'이께네 아옴, 병:이' 드'러 가'주에일 지'베 편'차네옴 주'거도 고'머 장이'사로 갑'띠르, 고'마 이 실꾸', 장이쓰' 차 불'러 가'주오. {왜냐, 객지에 가 있던 사람들이 매일 와 있지도 못 하지 또 어, 집에서 요즘은 보니까 어, 병이 들어 가지고 집에서 편찮아서 죽어도 그만 영안실로 가더라고요, 그만 이 신고, 장의사 차 불러 가지고.}
- 10227 # 므'이 찌', 지'베서 안' 지'내오, 곱 머 장이'사가 저, 그거 거으, 그짜꼬 규정'대로 따'르스 지'내 뿌이 상'주는 편'해요. {뭘 집, 집에서 안 지내고, 그만 뭘 장의사가 저, 그것 그, 그쪽 규정대로 따라서 지내 버리니 상주는 편해요.}
- 10227 # 응, 이 요는', 물'론 경, 경'비두 줌' 나게'찌만능, 옴날' 드'명 경'비가 나'찌마는, 나'능 켜'데, 으 상'주가 그음 머 어, 어어, 부모'에 대정 효시'미라 그'릉 건' 나 이 영: 업씨'저뜨라꼬, 오새 보'이께네. {어, 이 요점은, 물론 경비, 경비도 줌 들겠지만은, 옛날에 대면 경비가 들겠지만은, 드는 것인데, 어, 상주가 그 뭘 어, 어, 부모에 대한 효심이라고 그러는 것은 뭘 이 영 없어졌더라고, 요새 보니까.}
- 10227 # 므 이 겨 기'양 곡또' 형'시기고, 옴나'레 꺼'튼 참' 그'게 자기 어르'느 모셔'고 이'편, 또' 그 자기 어르'니 자기일 그 귀여'위함상 마'에찌 머' 으에 주'든 그'른 정'닐 생가해' 주온 늑'무를 참' 마:이 흘'립미다. {뭘 이 그 그냥 곡도 형식이고, 옛날과 같은 참 그게 자기 어른을 모시고 있던, 또 그 자기 어른이 자기를 그 귀여워하면서 말이지 뭘 어떻게 해 주던 그런 정을 생각해 가지고 눈물을 참 많이 흘립니다.}
- 10227 # 어인, 옴날' 으이, 참', 쯔, 진, 자'녀손드른 그거 인, 찌에, 마 참' 겨우 고'걸 하'고 상'줄 무'로 나오'른 자'기가으 참' 서르'땡 북바'찌옴 아'피 땅기' 저습니다, 늑'무리 흘'러 가주오. {어, 옛날 어, 참, 저, 저, 자녀들은 그것 이, 저, 뭘 참 그 곡을 하고 상주를 눈물이 나오면 자기가 참 서러움에 북받쳐서 앞의 땅이 젖습니다, 눈물이 흘러 가지고.}
- 10227 # 므 그'른 머'신 내가' 아잉, 기, 이 나히'이, 띠, 므 그 나'이 만찌'엔 안'젠, 드'러 상가'아 다니 반니'드면, 느 그'른 혼'저그녀 항, 구:견 모 타'게뜨라꼬. {뭘 그런 무엇이 내가 어, 그, 이 나이, 저, 뭘 그 나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 상가에 다녀 봤지만, 뭘 그런 흔적은 한, 구경을 못 하겠더라고.}
- 10227 # 상'주가 자기 부모'를르, 부모'를 때'해 생가께' 가주에 애'서캐' 하는' 마으'른 영: 업뜨'라꼬. {상주가 자기 부모를, 부모에 대해 생각해 가지고 애석해 하는 마음은 영 없더라고.}
- 10227 # 고'마 이웅, 그 으으, 엑, 이 날'짜만 때'자, 고'마, 어'애등 그게' 금머 즈, 지, 짜으, 어에 봄'먼 잘 쭈'거따는 생'각 꺼'뜨라구, 내'가 보'이 마올러. {그만 이, 그 어, 어, 이 날짜만 때우자, 그만, 어쨌든 그게 그만 저, 저, 저, 어떻게 보면 잘 죽었다는 생각 같더라고, 내가 보니 말이야.}

- 10227 # 머' 저어끼'래 머' 우꼬' 머 상'주가, 글'세 머' 은제 배'께 나가소'옥 저어끼'르 머' 하'도 응능 오, 구 이 영안'실 내'에서 우'수물 나'와, 글'쎄, 그혀인 내'엔 샅, 참' 세월'리 바'께'긴 마이 바'께'따, 참' 마이' 달라져'따, 연나'레는 늬'무리 땅'을러브 적'신데, 우'수미 잉, 어, 여이, 등쳐'늘 하'이끼네 이 드'으어, 이, 이'른 니 린'노 함 생'가 뜰'따'다. {뭐 자기들끼리 뭐 웃고 뭐 상'주가, 글'쎄 뭐 인제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든 웃는 것, 그 이 영안실 내에서 웃음이 나와, 글'쎄, 그래 내가 세, 참 세월이 바뀌'긴 많이 바'꼈다, 참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눈물이 땅'을 적'셨는데, 웃음이 이, 어, 어, 등'천을 하니'까 이 뭐, 이,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10227 # 그'른'데 아'주 그'게' 나'느 마'땅'찬트'라'쿠'요. {그'런'데 아'주 그'게 나'는 마'땅'참'더'라고'요.}
- 10227 # 그'이 참' 어'예 키'아'똥 가'네 그'은' 참' 으으, 나'아 가'주'오'으 그'거 참' 응, 그'게 예'를 드'할 마'니'거, 그'으'거, 꼬 참 피'땡'걸'읍 바'더 가'주'우'설'러 그, 크, 그'걸' 그'마'꿈 먼'쓰 정'서, 성'장'하'드로'익 키'아 조'씨'면 그'점' 마 까'능 기'러'녀'임 쪼'꿈' 늬'무'려'더 홀'리 주'능 게 조 찬'나 한 생'가'근 내'인'능 해'썬'요'이. {그 참 어떻게 키'웠'던 간'에 그 참 어, 낱'아 가'지고 그'것 참 어, 그'게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그'것, 그 참 핏'덩 어'리를 받'아 가'지고'설'랑 그, 그, 그'것'을 그'만'큼 뭐 성'장, 성'장'하'도록 키'워 켜'으면 그 저 마'지'막 가'는 길'에는 조'금 눈'물'이라'도 흘'려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내'가 했'어요.}
- 10227 # 차, 예'이, 부, 불'효 거'튼 누'웨, 니'가' 아'무'르 머' 어'떤 이, 이, 니: 혼'자 켜'나 한'생'가'기 그'으'꾸 곧 나'가'드'라'꼬, 마'영 거'떤 내'가, 가'차'운 사'랑' 거'뜨'면, 웨'이, 꼬'양 말'행 궁, 그'름 버'비 어'딘 누, 그'래 내 차 술'히'으 하'지'마'는 응, 그'으'또 머' 으, 그'런 이 애'기'고, 은, 그'른 생'가'기 들'떠'다. {참, 예'이, 불, 불'효'자 같'은 늬, 네'가 아'무'리 뭐 어'떤 이, 이, 너 혼'자 켜'나 하는 생각'이 그 곧 나'가'더'라고, 막 어'떤 내'가, 가'까'운 사'람' 같'으면, 예'이, 고'약'한 그,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그'래 내 참 소'리'를 하'지만'은 어, 그'것도 뭐 어, 그'런 이 애'기'고,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10227 # 응'여, 그 어'에 키'안'데 그'열 그 어'느 으, 들 부'모'가 그'인 자'석, 손'자'털 그' 참, 자'기 다'칭 거'보'단 그, 그'게' 아'판 나 대'면 든, 더 아'프'다'꼬, 마'으'미'요. {어, 그 어떻게 키'웠'는데 그'것'을 그 어'느 어, 저 부'모'가 그 자'식, 손'자'를 그 참, 자'기 다'친 것'보'다 그, 그'게 아'픈 것'에 대'면 더, 더 아'프'다'고, 마'음'이'요.}
- 10227 @ 마'습'미'다, 예. {맞'습'니'다, 예.}
- 10227 # 으'게, 이'게 실'썬'도 그'래, 내 여'시'도 구'루'타'구, 머. {이'게, 이'게 실'제'도 그'래, 나 역'시'도 그'렇'다'고, 뭐.}
- 10227 # 나'는 아'프'뎡 보'토'인'데, 그 머 연'더 어'연, 이, 연'라'렌 자'시'기'래'찌'픈 똑' 고 이'스 엄 손'자 머' 쏘, 손'녀'드'리 머'어 다'쳐 가'주 머' 어'렁'까, 킅, 가'라 배'끼'고 함' 그 참 마'으'미 그'깁, 저'우 우'예'노 한'생'가'이 드'는데, 그'래 키'안'는'데'도 글'쎄 그'게 그'음 마'지'막 가'는 니, 잉'으'익, 꼬, 꼬, 그'날'까'지'도 늬'물 함 빠'은 홀'려'창 거 투'록 우'꼬' 장 난'하'고, 아, 안'잔'능 거 보'면 한'시'룹'따'꼬, 참. {나'는 아'프'면 보'통'인'데, 그 뭐 인'제 어, 이, 옛'날'에는 자'식'이'었'지만 또 곧 있'으면 손'자 뭐 손, 손'녀'들'이 뭐 다'쳐 가'지고 뭐 어'떻'다, 그, \*\* 벗'기'고 하'면 그 참 마'음'이 그'렇'게, 저'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키'웠'는'데'도 글'쎄 그'게 그 마'지'막 가'는 이, 이, 그, 그, 그'날'까'지'도 늬'물 한 방'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웃'고 장'난'하'고, 앓, 앓'은 것'을 보'면 한'심'스'럽'다'고, 참.}

10227 # 나 이거 이, 이, 참 이이, 인간' 사회'가 이, 이'르케 변하'나 한 새양'도이 이게 어  
이, 내' 생'가그로 해'씀니다. {나 이것 이, 이, 참 이, 인간 사회가 이, 이렇게 변하나  
하는 생각도 이게 어, 내 생각으로 했습니다.}

10227 @ 아임미'더. {아닙니다.}

10227 @ 그음 머' 만는' 말씀'이주. {그것 뭐 맞는 말씀이지요.}

10227 @ 요즈'엄 어'뜨에 봄'며너 아무'래도 어, 예저너하'고 쫘' 무 그'럼 부'부네서 보'음  
쫘' 마니 차이 나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어, 예전하고 좀 뭐 그런 부분  
에서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10227 # 예:, 마이', 암, 망언차네, 마이' 달'라져썬요. {예, 많이, 어, 많이, 많이 달라졌  
어요.}

10227 # 영: 천'지차제, 머'요. {영 천지차이지, 뭐요.}

10227 # 저'언, 엔:날' 사'러미 그'름 광'경을 보'음 마'르저, 상'문도 아 함'니다. {저, 옛날  
사람이 그런 광경을 보면 말이지요, 문상도 안 합니다.}

10227 # 가' 뽀니다. {가 버립니다.}

10227 # 머' 이'른 데 내'거 삼'문할 끄인 머' 인'노, 이, 이'랩깅 께'레요. {뭐 이런 데 내가  
문상할 게 뭐 있나, 이, 이랬을 거예요.}

10227 # 엔:날' 어른'들 거'툼머 상'주거 그'름 행'동이 요꿈'맘 비'앰 응, 가 봄'니언. {옛날  
어른들 같으면 상주가 그런 행동이 조금만 보이면 어, 가 버립니다.}

10227 # 상'주 암' 무썬드앙. {상주에게 안 묻습니다.}

10227 # 잉 거, 급 불'효 거'튼 금 머, 구어, 그. {이 그, 그 불효자 같은 그 뭐, 그, 그.}

10227 @ 그', 그러'며이 워, 인제' 쫘' 으예전'하고 요즘'하고 쫘' 그'르케 바뀐'는데, 어르'신  
그'럼며너 어, 이, 요주'엄먼 인제' 글 장이'사으, 그 병원 영안시'레스 장이'사에 이해  
스 주'로 주'도를 해'싸 이루'지고, 그서 어'쨌든 음, 매'장을 할 경우'에넌 예:전'네는  
상녀' 가'지고 \*\* 문상을 아 해'씀미까, 그지예? {그, 그러면 이, 인제 좀 예전하고 요  
즘하고 좀 그렇게 바꿨는데, 어르신 그러면은 어, 이, 요즘은 인제 그 장의사, 그 병  
원 영안실에서 장의사에 의해서 주로 주도를 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음, 매  
장을 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상여 가지고 \*\* 장례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10227 # 예예, 한 상, 예, 예, 상녀'로 해'쨌언. {예, 한 상, 예, 예, 상여로 했지요.}

10227 @ 그'엄 요주'움머어 어'떠케 함'미까?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10227 # 요즈'엄 보'이께네 마'리아, 뽀'쓰에다, 장이'사 뽀'쓰가 이, 인'는 데도 기, 이'꼬,  
또 이쨌'늬 마'리시더, 그 뽀'쓰' 마고, 리무지~'이라 거'느 조은 차'가 익, 이'뜨라우,  
구게'여, 이. {요즘은 보니까 말이야, 버스에다, 장의사 버스가 있는, 있는 데도 있, 있  
고, 또 요새는 말입니다, 그 버스 말고, 리무진이라고 그러는 좋은 차가 있, 있더라고,  
그게요, 이.}

10227 # 그쩍' 비'싸드라꼬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10227 # 그기' 여'어서, 안동'에썬 봉와'까지 도'는데, 오'십마 안 달러' 그'래드라꼬여인, 장  
이'사, 글짜요. {그게 여기에서, 안동에서 봉화까지 들어오는는데, 오십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의사, 그쪽에서요.}

10227 # 그'이 영:구'사, 하너' 실꼬 와'따 가'는데. {그 영구차, 하나 싣고 왔다가 가는데.}

10227 # 그, 그'런 차'를 가'주고 으, 그'또 형'편'니 점' 나'은 사'눔드'리고. {그, 그런 차를  
가지고 어, 그것도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고.}

- 10227 # 또' 여 머' 이내 영세한' 사람'드른 게 인 기'양 그 머 그 장이'사 거마 아, 영:구' 빠'쓰로, 디'에써 어, 고'마 어, 우'에는 상'주들 타'고, 문'상객 타'고, 미'텐너이 영:구' 차, 구'마 여 웨 시시'인 실꼬', 그'래 가는 차'도 이'꼬, 주'로 그'러쑹따다. {또 여기 뭐 이래 영세한 사람들은 그 이 그냥 그 뭐 그 장의사 그만 어, 영구 버스로, 뒤에서 어, 그만 어, 위에는 상주들 타고, 문상객 타고, 밑에는 영구차, 그만 여기 왜 시신 싣고, 그래 가는 차도 있고, 주로 그렸더라고요.}
- 10227 @ 그엄' 찌, 예전' 가'통 경우'에너 이 매장할' 때 주'로 사람'드린, 동네' 사람'드리나 아아양, 갱꾼'드리 가'서 그게 이 친'지나 그'런 사'람드리 이틀' 하지야? {그럼 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할 때 주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나 어, 계꾼들이 가서 거기에 이 친지나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지요?}
- 10227 # 예예, 동:네' 사'람드. {예, 동네 사람들.}
- 10227 @ 카며 요주'옴, 요주'옴뭉 그'어기 머어, 꼬 웨 누워 사라'미 함'미까, 어'떠케 함'미까? {그러면 요즘, 요즘은 거기 뭐, 그 왜 누가 사람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10227 # 요새'는노 장이'사에 부타'글 하'만 매'장꾸이라능 께', 이기 이'씨요. {요새는요 장의사에 부탁을 하면 매장꾼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 10227 # 잉, 으, 거'이 여나모'지금 모'도 소'개 인는 사'람드린 이뜨'라꼬. {이, 어, 거기 여남은씩 모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 10227 # 근'데 그'에 장이'사가 인제' 예, 실꼬' 가 가'주우 화장하'는 데'에는 그 화장'은, 실러, 가차'이에그 가' 가'주우 인쟁' 꼬여, 그 매'장꾼드른 피'료구 어'우꼬, 으, 카 장꼬, 꺼 인제' 화장에예예 예, 이윅, 거'게 소'개 인는' 그어 이기, 사'람'드인 나와 가'주고 인제' 이 영굴' 실꼬 가'면 크 아'네 가'따 여뻬 태'아가주 나'오며 인제' 그 인제' 그 읍, 크그'는 매'장꾸니 피'료치 아'느'이께 인제' 상'주하꼬 어, 가차'운 친'척뜨리 인제' 그거'를 바'다 가주고 어, 머 강엿' 뿌'려 뿐 사'람똥 이뜨'라꼬. {그런데 그게 장의사가 인제 어, 싣고 가 가지고 화장하는 데에는 그 화장은, 실어, 가까이 가 가지고 인제 그, 그 매장꾼들은 필요가 없고, 어, 가지 않고, 그 인제 화장에 어, 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이것,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인제 이 영구를 싣고 가면 그 안에 갖다 넣어 태워서 나오면 인제 그 인제 그, 그것은 매장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제 상주하고 어, 가까운 친척들이 인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 뭐 강에 뿌려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 10227 # 으, 근'데 또' 그'르치 아'느면 저'레 가'서 말씨'더, 그'랜네 어꾸, 고'래 곱'머 어윅, 모시'는은느 저'리 이'때, 또' 그'게요. {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으면 절에 가서 말입니다, 그래 어, 그래 그만 어, 모시는 절이 있대, 또 거기에요.}
- 10227 # 그러 보'이께 머' 수타'이 모셔 나'따, 사'짐 부'쳐 가'주우. {그래 보니까 뭐 술하게 모셔 왔다, 사진 붙여 가지고.}
- 10227 # 그'른 데 가'따 노'은 사'람도 이'꼬, 그'러쑹따다. {그런 데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그렸더라고요.}
- 10227 # 주로 인지느. {주로 인제는.}
- 10227 @ 요즘' 그'엄 사'네 봉분' 만드느 사'람도 이'씨예? {요즘 그러면 산에 봉분 만드느 사람도 있지요?}
- 10227 # 이'씨용. {있어요.}
- 10227 @ 그렇' 경우'에느 그 사'람드리 매'장꾼드리 그'암'머너 가'서 인제'아 이인?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매장꾼들이 그러면은 가서 인제 이?

10227 # 예', 매'장꾼드리 온' 데'는 그' 인제' 화:장을 하 장'꼬, 어어, 여즈, 그 인제' 예:, 묘:지에 매'장을 하'는서 사라'든 응, 그 상가'에서는 예, 그 이 장이'사에다설랑, 요샌' 농초'니 사라'땀, 어, 잉, 그, 잉, 구, 구하'기 예'루와요. {예, 매장꾼들이 오는 데는 그 인제 화장을 하지 않고, 어, 저, 그 인제 예, 묘지에 매장을 하는 사람은 응, 그 상가'에서는 예, 그 이 장의사에다설랑, 요새는 농촌이 사람이, 어, 이, 그, 이, 구, 구하기 어려워요.}

10227 # 그' 여' 우리' 동네 거'튼 데'도오 꾸, 구하'자든 힘'드러요. {그 여기 우리 동네 같은 데도 구, 구하자면 힘들어요.}

10227 # 첨'부 지, 지 이'리 바쁘'고, 다: 그'래 노'이 그'게' 이 여나무'씩, 썸나움씨' 모'키가 예'루와요. {전부 자기, 자기 일이 바쁘고, 다 그'래 놓으니 그'게 이 여남은씩, 스물씩 모으기가 어려워요.}

10227 # 그'르이 장이'시아다 고'맙 부타'글 래 뽀 그 장이'사에 소'개 인늬' 매'장꾼드리 잉, 이뜨'라꼬, 보'이께네. {그러니 장의사에다가 그만 부탁을 해 버리니 그 장의사에 속해 있는 매장꾼들이 있, 있더라고, 보니까.}

10227 # 커으, 그' 사'럼드리, 또' 그 매'장꾼드리 와'도 벨'러 할' 릴'또 업뜨'라꾸요. {그, 그 사람들이, 또 그 매장꾼들이 와도 별로 할 일도 없더라고요.}

10227 # 그 일 사:시'룽 그'게 그 매'장꾼들 기'양 고'마 어, 돈: 주'능 계납 마창'을네드'라꼬. {그 이 사실은 그'게 그 매장꾼들이 그냥 그만 어, 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더라고.}

10227 # 그 웨' 그'르나 하'이께네, 매'장꾼니 여'리 와'도 으업, 우리'가 어, 여, 인, 매'장을 하'이께네 그'으 사람' 언, 동네' 사라'미 업쓰'이께 사람' 사다'구 구'면, 며'치나 사주'노, 사주'꼬, 그'럼 아무래'또 두 카'래꾸는 데'에 데'께네, 세' 카'래꾼 내지' 두 카'래꾸는 데'에 데'이께네 아'흠 내지' 여'른 데'에 데'자'나. {그 왜 그'르나 하니까, 매장꾼이 열이 와도 어, 우리가 어, 여, 이, 매장을 하니까 그 사람 어, 동네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다오 그러면, 몇이나 사 줄까, 사 줄까, 그러면 아무래도 두 가래꾼은 돼야 되니까, 세 가래꾼 내지 두 가래꾼은 돼야 되니까 아'흠 내지 열은 돼야 되잖아.}

10227 # 그'램 인지' 자기네어 보통' 열'씩 사 가'주오 나오'면, 그 밤메'르 거 포꾸'랭'을 또' 사'요. {그러면 인제 자기네가 보통 열'씩 사 가지고 나오면, 그 반면에 그 포클레인을 또 사요.}

10227 # 포꾸'레이'러 그'능 거', 이'래 어 땅' 파'고어 문'능 거'. {포클레인이라고 그러는 것, 이'래 가지고 땅 파고 묻는 것.}

10227 # 그 니'미 와'서 매'장꾼드르 케'양 고'마 어, 으, 그'게' 인제' 예, 은, 장지'까지 인제 ' 든, 듸, 미, 예, 영안', 느응, 그'으 병위'네서 느어'털 어이, 시시'너 실:꼬 감' 그'어 가따 내라' 놔' 그 사'암드이 그'걸' 들'고 사'네 올'라 가따 논'능 거'배'끼 안' 하'드라꼬. {그 놔이 와서 매장꾼들은 그냥 그만 어, 어, 그'게 인제 예, 어, 장지까지 인제 뭐, 머, 뭐, 예, 영안, 어, 그 병원에서 널을 어, 시신을 싣고 가면 거기에 갖다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갖다 놓는 것밖에 안 하더라고.}

10227 # 나'머'지'능 그 일' 하'능 거', 저 땅' 파'고 머' 하'능 어 포꾸'레이 다' 해 뽀'예요. {나'머지는 그 일 하는 것, 저 땅 파고 뭐 하는 것을 포클레인이 다 해 버려요.}

10227 # 그'래이 그' 열 사'래미'랑 거'느 이 기, 기'양 거'여 머 거 가'에 참'서캐'따그 뽀, 뽀



이'에용. {그러니 그 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그, 그냥 거기 뭐 그 가에 참석했다 뿐, 뿐이에요.}

10227 # 잉 거, 그'르 시'기 데드'라꼬. {이 그, 그런 식이 되더라고.}

10227 # 또' 그'러언, 도 영: 그'른 데'도 이'꼬, 또 어, 그 어쁜' 데'는, 또' 머탄' 사'람드렁 그, 그 가차'운 썸, 이 친'척, 친'지드리 이걸' 썸' 해다'공, 이히 여'어거 썸' 보'기 시'르이께네 말, 삼'찌를 썸'미 해 가'주오 떼'도 썸' 더 이'피고 마'이지, 썸' 보'기 조뜨'럭 해다'고, 꺼 자꾸' 요구'울 하'든 응, 그 사'람때에 인느, 썸' 이, 공, 음, 마:지모태'해 주긴 해줍'따다. {또 그런, 또 영 그런 데도 있고, 또 어, 그 어떤 데는, 또 무었한 사람들은 그, 그 가까운 저, 이 친척, 친지들이 이것을 썸 해다오, 이 여기가 썸 보기가 싫으니까 말이지, 삼질을 썸 해 가지고 떼도 썸 더 입히고 말이지, 썸 보기 좋도록 해다오, 그 자꾸 요구를 하면 어, 그 사람도 이, 썸 이, 그, 음, 마지못해 해 주기는 해 주더라고요.}

10227 # 어, 그, 그'른 시'기 데드'라꼬, 예:. {어, 그, 그런 식이 되더라고, 예.}

10227 @ 그 예저'네너쁘 점'부 여'기 동네' 사'람드리 다 헐'는데? {그 예전에는 전부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했는데?}

10227 # 예예이, 점'부 동네', 예, 동네' 사'너미 해점'면, 그'이기 예점'뿐 아'이지, 지'금, 해방', 유'기오 사'변 점'만 해'도 점'브 동네' 사'러미 다 해'쓰예. {예, 전부 동네, 예, 동네 사람이 했지만, 그게 예전뿐 아니지, 지금, 해방, 육이오 사변 전만 해도 전부 동네 사람이 다 했어요.}

10227 # 프'인 장이'사게 이'서썸니, 꺼디, 옐나'레. {뭐 이 장의사가 있었습니까, 어디, 옛날에.}

10227 # 컴 동네' 싸'러미 그'날 아무 썸'엘 장사' 지'낸다 금' 마'이지예, 그'날 꿈'머 점'부 이 이:렐' 점'폐하'고, 으, 그'날 와서, 장니'에데 다 오싸 행상'도 미:고 가고 머', 일, 치, 썸, 이 지'베 일또'으 그, 그 집, 장산지'베으 거드'러 주'고 머', 그어, 그, 글'때느 서로 그게 상호'가'네음 뭉, 그, 그'게'음 부'조레요. {전부 동네 사람이 그날 아무개 집에 장사 지낸다 그러면 말이지, 그날 그만 전부 일을 전폐하고, 어, 그날 와서, 장례식에 다 와서 행상도 밀고 가고 뭐, 이, 저, 저, 이 집에 일또 그, 그 집, 상갓집을 거들어 주고 뭐, 그, 그, 그때는 서로 그게 상호 간에 뭐, 그, 그게 부조예요.}

10227 @ 예. {예.}

10227 # 인, 짜', 이여, 그'러 참 그읍 푸마'씨래, 가이. {이, 저, 이, 그래 참 그 품앗이야, 가히.}

10227 # 예르이, 옐나'렌느으미. {옛날, 옛날에는.}

10227 # 또' 내'가 상주데'든 저' 사'러미 와서 해 주'고, 그'런 시'기 데그'던. {또 내가 상주되면 저 사람이 와서 해 주고, 그런 식이 되거든.}

10227 @ 요주'우든 인제' 머' 주'로 그어 장이'사어드리 예, 은, 주도하'에 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 그'래 해'찌머, 예정' 가'트머너 여'기서, 동네'에서 운구하'고 행상' 그 할'려머너 동네'에서 상녀' 메:는 사'람드리 께' 마너'찌예? {요즘은 인제 뭐 주로 그 장의사들이 어, 어, 주도하에 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처럼 그래 했지만, 예전 같으면은 여기에서, 동네에서 운구하고 행상 그 하려면은 동네에서 상여 메는 사람들이 꽤 많았지요?}

10227 # 보:통' 한' 이십 명'은 다 너'머이 데'니더. {보통 한 이십 명은 다 넘어야 됩니다.}

- 10227 # 상일' 민:다' 그'멈 마'리야. {상여를 멘다고 그러면 말이야.}
- 10227 # 소형' 상'에이가 열려'서씨 미'이께네아, 이팔 썩이, 양짜'이 여'덜씩 미'이께네, 고 게' 저근' 상'에'고요. {소형 상여가 열여섯이 메니까, 이팔에 십육, 양쪽에 여덟씩 메니까, 그게 적은 상여고요.}
- 10227 # 보통' 이십' 명씩' 드'가능 건' 사십 며'이 드가' 미능' 겹'미더. {보통 이십 명씩 들어가는 것은 사십 명이 들어가 메는 겁니다.}
- 10227 # 엉, 끄언' 대영' 행사'인데, 으, 그'룽 거' 이'쩌꼬. {어, 그것은 대형 행사인데, 어, 그런 것 있었고.}
- 10227 # 클'땀 마:이'드, 상두구'인 더 마내'이 데'우 그'래찌엄. {그때는 많이, 상두꾼이 더 많아야 되고 그랬지요.}
- 10228 @ 예저'느 그엄'머너 주로' 이 동네'에서 어, 누가 장네'를 치르게 템'머너 상두꾼' 드리 여러: 명' 오'고 그다'으메 예어, 그, 그어: 상녀 땔 때' 그'어버 소'리 머'기고 어, 하'는 사'람, 그'런똥 사'람들 다 이'서썩미까? {예전에 그러면은 주로 이 동네에서 어, 누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상두꾼들이 여러 명 오고 그 다음에 어, 그, 그 상여 땔 때 그 소리 먹이고 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있었습니까?}
- 10228 # 였나'렌 다 이'서쩌요. {옛날에는 다 있었지요.}
- 10228 # 머, 어우, 그 아'빠호에, 상'에' 우'에 타가'주 마'리야, 겹 머 그 소'릴리, 요새'르 마 하' 겹' 맵이이, 거'으 참' 이, 이, 이 판' 사'운램땔 드'름름 우수'운 소'린느, 허쑈'리라 그'능 거', 해쑈'리르 그'능, 그 메'이 기'얍쌈 마', 머어 어엄, 머 어이, 인제' 가'머 언' 제 오나', 머 그'른 시'그로 슬픈' 곡짜'을 부'체 가'주 마'르아, 상'주드리 감도~'이 데 드'룽 마'이야, 일러, 그'른 새소'리르 메'게 가'얍쌈 그'래 장사'을 지'낸 데'도 이'서찌, 쫘 마 기형. {뭐, 어, 그 앞에, 상여 위에 타 가지고 말이야, 그 뭐 그 소리를,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지, 그 참 이, 이, 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구슬픈 소리는, 상엿소리라고 그러는 것, 상엿소리라고 그러는, 그 먹여 가면서 뭐, 뭐 어, 뭐 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런 식으로 슬픈 곡조를 붙여 가지고 말이야, 상주들이 감동이 되도록 말이야, 이런, 그런 상엿소리를 먹여 가면서 그래 장사를 지내는 데도 있었지, 쫘 뭐 그.}
- 10228 # 으, 그거'느 아, 이, 요새'러 말하 꿈' 부유'층에서 장사' 지'낼 때'고, 머' 서민'층이, 요새' 르' 주'로 업썩'르 서미~'이라 그랩'머'더마는 머 어, 쩌, 영세한' 사람'드런: 소영' 은, 은, 행상'을 미움'멘 소형'에느 그 타지' 모 한'텐 소'릴 몸 메'게요. {어,그것은 아, 이,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부유층에서 장사 지낼 때고, 뭐 서민층이, 요새 뭐 주로 없으면 서민이라 그러더라만은 뭐 어, 저, 영세한 사람들은 소형 어, 어, 행상을 메면 소형에는 그 타지 못 해서 소리를 못 먹여요.}
- 10228 # 몬 메'기고, 또 그'르치 아'느음 머 이 지'게 지'고 간' 수도 이'꼬, 영이 영세한' 사' 람들 마, 행상'을 몸 미:고' 저'른 고'마 사라'미 그'마 너를' 질머 지'고 상두꾼' 대여' 씨 따라가주 고'마 기'양 매'장마 하'고 오느, 오'는 장사'도 이'꼬, 그'래 대'중이 업쓰' 에. {못 먹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지게 지고 가는 수도 있고, 영 영세한 사람 들 뭐, 행상을 못 메고 저런 그만 사람이 그만 널을 짊어 지고 상두꾼 대여섯이 따라 가서 그만 그냥 매장만 하고 오는, 오는 장사도 있고, 그래 대중이 없어요.}
- 10228 # 그건' 인제' 그거 참' 은, 대영' 은, 이, 에이, 이, 그어이 이, 저걸' 메썩'다 그녕 그 '년 니엄 머어, 잉, 이, 요새'에로 말하' 꺼 땀 줌' 경제'가 중용'오에, 확'씨리 조은' 사

럼'들, 그'른 사'람드'리야 하'능 게'고, 고다'으메이 중'뉴충이 하'능 기' 인제' 열려'서세 미'능 거', 소'형' 행'상', 고'걸 가'주'우 짜'이, 지'내고, 고다'으멘 또' 영: 영'세한' 민'드'른 은, 기'양 고'마 사'라'미 지'고 가' 지'내는 수'도 이'꼬, 그'래 이'그 참' 대'중여 업'씨'에, 그'으뜨. {그것은 인제 그것 참 어, 대'형 어, 이, 이, 이, 그 이, 저'것을 모'신다'고 그'러는 것은 이 뭐, 이, 이,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좀 경'제가 좀, 확'실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류충이 하'는 게 인제 열'여섯'이 메'는 것, 소'형 행'상, 그'것을 가'지고 지, 지'내고, 그 다'음에는 또 영 영'세한 사'람들은 어, 그'냥 그'만 사'람이 지'고 가'서 지'내는 수'도 있'고, 그'래 이'것 참 대'중이 없'어요, 그'것도.}

10229 @ 그' 요'즘'뜨어'뜨언 주'로 그'거 병'원 영'안시'레서 하'니까 어, 주'로 음'식' 까'툼 경'우'도 주'로 사'서 하'어'씨예? {그 요'즘은 주'로 그'것 병'원 영'안실'에서 하'니까 어, 주'로 음'식 같'은 경'우'도 주'로 사'서 하'지요?}

10229 # 레이, 주'로 사' 뻔'에. {예, 주'로 사' 버'려요.}

10229 # 이 꼬, 거'게 인제' 병'위'네서 예, 인'찌' 병'원'니 느, 그, 장'이, 병'위'네'도 장'이'사'기 이'씨'용. {이 그, 거'기에 인제 병'원에서 어, 인제 병'원이 이, 그, 장'의, 병'원'에도 장'의 사'가 있'어요.}

10229 # 영'안'시'리 따'루'에 장'이'사 인'테, 거'게서 고'마 상'언, 상'주'더'룬 무'루 노'음'밥 밥'그'럭 쭉' 따'제'가 주' 돈' 치'드'라'꼬, 보'이'겐 마'레. {영'안실'에 따'로 장'의'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만 상, 상'주'들은 물'어 놓'으면 밥'그'릇 수'를 따'져서 돈'을 치'르'더'라고, 보'니'까 말'이지.}

10229 # 예'를' 드'러 내'가 상'주'거 데'따 그'면, 내 지'베 어'웅, 그'다'아 인제'으 그 식'당'에 당 이'렐 해' 뽀'능 게'라. {예'를 들'어서 내'가 상'주가 됐'다 그'러면, 내 집'에 어, 거'기'에 다'가 인제 그 식'당'에다 의'뢰'를 해 버'리는 거'야.}

10229 # 내 지'베 온'는 손'니'른 당'신'네'가 바'블'을 대'즈'패 주'시'요 꼬 마'이'쎄. {내 집'에 오'는 손'님은 당'신'네'가 밥'을 대'접'해 주'시'요 하'고 말'이지.}

10229 # 그'래'른 잉, 극, 그, 그'거'뜨 처'빠'네 보'이'께'네으, 그'어'또 저'이 요'샌' 자'꾸 발'따'리 데'어'거 사'라'미 그'업, 크'른'데 그 머'리 조'은 사'람'드'리 그, 그 머'리 조'웅' 걸' 웅, 그 조'은' 데' 씨'멤' 조'은'데, 어, 그 나'쁜' 데 씨'멤' 사'람'드'리 만'트'라'꼬'요. {그'러면 이, 그, 그, 그'것도 처'음'에 보'니'까, 그'것도 저' 요'새'는 자'꾸 발'달'이 돼'서 사'람'이 그, 그'런'데 그'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그 머'리 좋'은 것'을 어, 그 좋'은 데 씨'먹'으면 좋'은'데, 어, 그 나'쁜' 데 씨'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0229 # 그'러 장'녀'지'베 장'사' 지'낸 사'러'미, 내'가 상'주'거 데' 가'주'언 내 지'베 문'상' 오'은 사'람'머 시'꿔'를 조'가'즈 밤' 무'러 가'라 소'린'느 모' 탄'다'꼬, 그 차'마'이 양'심'미 그 게' 마'리'쎄. {그'래 상'갓'집'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내'가 상'주가 돼 가'지고 내 집'에 문'상 온 사'람'을 식'권'을 줘'서 밥'을 먹'으'러 가'라는 소'리'는 못' 한'다'고, 그 차'마 양'심'이 그 게' 말'이지.}

10229 # 그'른'데'욱 그'거'또 자'꾸' 쏘'기'이'께'네 마'리'야. {그'런'데 그'것도 자'꾸 속'이'니'까 말'이야.}

10229 # 상'주'가 으'어, 그 익' 계'사'늘 이'래: 해 보'이'겐, 처'이, 처 보'이'께'느 오'늘 상, 으'음, 문'상'개'기 한 시'물 래'지 시'물' 은, 서'넌' 텐'다, 하'은'서 생'가'글 행'데, 저'짜'두 청'구 동'업 머 사'심' 명' 머' 사'심'오' 명', 이'래 시, 시'꾸'늘, 참' 저' 요'구'걸 두'오'구 하'이'께 네, 요'새'늬 보'이'께'네 시'꿔'를 주'드'라'꼬'요. {상'주가 어, 그 이' 계'산'을 이'래 해 보'니

까, 처, 처 보니까 오늘 상, 음, 문상객이 한 스물 내지 스물 어, 서넛 된다,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청구 들어온 것은 뭐 사십 명 뭐 사십오 명, 이래 식, 식권을, 참 저 요구가 들어오고 하니까, 요새는 보니까 식권을 주더라고요.}

10229 # 그'르이께느 느어, 은, 내:가' 그'른 소'릴 해'써인. {그러니까 어, 어,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10229 # 대'구에 하'른 상'은, 내 거 이, 찌이, 진는, 참' 친'처긴데, 가'따 그 이 시'편 주'이, 야, 이 사람 잉 그 밥 향 그릇 누'가 예'이여으, 그금 머'어이 시'편 주 너이 그어이, 이게이 웅, 현서파다, 이 시'편 치아'러, 그' 머 백 꼬'룩 쏘'길리겐나, 내' 그'르게 너어'가 모 싸'멈 몰'래어 그이 즐, 차'아라, 응으, 그'른 소'리또 해'따코. {대구에 한 번 상을, 내 그 이, 저, 저, 참 친척인데, 갔다가 그 이 식권을 주기에, 야, 이 사람 이 그 밥 한 그릇 누가 어, 그것 뭐 식권 줘 놓으니 그, 이게 어, 섭섭하다, 이 식권 치워라, 그 뭐 백 그릇 속이겠나, 내 그렇게 너희가 못 살면 몰라 그 저, 치워라, 어, 그런 소리도 했다고.}

10229 # 그'른 네:도 이, 이뜨'라쿠요. {그런 예도 있, 있더라고요.}

10229 # 그'래 이 그, 그'게 현'사파드라꼬이. {그래 이 그,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10229 @ 그'기 어'뜨에 보'며너 쯔' 예전'네 인심'마하고 요'즘 인심'미 또'으 그'르게읍 바끼'능 가썸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쯔 예전의 인심하고 요즘 인심이 또 그렇게 바졌는 것 같습니다?}

10229 # 그'얼 바께'떼, 빠께'뜨라, 그게. {그 바졌데, 바졌더라, 그게.}

10229 @ 또' 어르'신 그'얼'며너 예즈, 예저'네는 지'베서 인제' 장네 치를' 때'너 주'로 어'편 음식' 장만함'미까? {또 어르신 그러면은 예전, 예전에는 집에서 인제 장례 치를 때는 주로 어떤 음식을 장만합니까?}

10229 # 음식'기, 장녀'라 그'닝 게' 요새'러 말하' 꺼' 뜨면 장녀'인 참' 장, 맹' 삼실과'가 다: 드'가'고, 밤', 감', 대추' 머언, 어, 그 어뜨 매: 땅콩'도 쓰'고 머, 추'자두 쓰'고, 그'르고 또 그 밤'메일 머 수, 머 요샌' 머 수박'또 썸'띠다, 보'이께르. {음식이, 장례라 그러는 게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장례 참 저, 역시 삼실과가 다 들어가고, 밤, 감, 대추 뭐, 어, 그 어떤 역시 땅콩도 쓰고 뭐, 추자도 쓰고,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뭐 수, 뭐 요새는 뭐 수박도 쓰더라고요, 보니까.}

10229 # 수박', 차'메도 머' 채'리 노썸'띠다. {수박, 참외도 뭐 차려 놓더라고요.}

10229 # 그'래고, 그 밤'며 인제' 퍼'니고, 떠'기라 그'룽 거 인제' 편떡'. {그리고, 그 반면 인제 편이고, 떡이라 그러는 것은 인제 편.}

10229 # 떠'기'래 그'이고. {떡이라 그러고.}

10229 # 떠'기'고. {떡이고.}

10229 # 그'려 사, 어, 어'무리고. {그리고 사, 어, 어물이고.}

10229 # 어'무리고, 더 위 인제' 어'무리 인제' 그'게 인제' 매아 소:고'기, 데지'고'기, 어, 인제'으 게'이끄러 달'꼬'기, 으, 그 세 가'지는 반다'실 드'가'능 게'고. {어물이고, 그 이 인제 어물이 인제 그'게 인제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어, 인제 그 닭고기, 어, 그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10229 # 고다'으멘 또' 인제'영 어'물로는 조'기가 드'가고, 고다'으메옥 고등'어가 드'가고, 요거배'끼 안' 썸'띠다. {그 다음에는 또 인제 어물로는 조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고등어가 들어가고, 요것밖에 안 쓰더라고요.}

- 10229 @ 그애쓰 주'로 인제' 어, 그 제사', 장례' 치'르 때 제사'에 쓰'는 음식뜨'리따, 그'지예?  
{그래서 주로 인제 어, 그 제사, 장례 치를 때 제사에 쓰는 음식들이다, 그렇지요?}
- 10229 # 예', 그'으 맹: 비스탐'떼드이. {예, 그 역시 비슷하더라고요.}
- 10229 # 제사'에 지'내능 게'너 장녀'이 지'내잉 게'나, 장:녀' 지'낸 데'도 맹' 제사'가엿 예,  
이'끄더. {제사에 지내는 것이나 장례에 지내는 것이나, 장례 지내는 데도 역시 제사  
가 있, 있거든.}
- 10229 # 그'음 머 송, 어, 거 은제' 바린'째가 이'꼬 머 성'복제가 이'꼬 머 반흔'제가 이'꼬,  
글'때는 제사' 지'낸 음식'파 또'까치 해'이 데능 게'래. {그 뭐 성, 어, 그 인제 발인제  
가 있고 뭐 성복제가 있고 뭐 반흔제가 있고, 그때는 제사 지내는 음식과 똑같이 해  
야 되는 거야.}
- 10230 @ 인제' 그 탈상'을 하'고 나'며 인제' 제사'를 안 지'냄미까, 그'지예? {이제 그 탈상  
을 하고 나면 인제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렇지요?}
- 10230 # 네, 예. {예, 예.}
- 10230 @ 예, 어, 그 제사'느 어'떤 중, 어'떤 제사'가 이썸'미까? {어, 어, 그 제사는 어떤  
종류,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 10230 # 크'게 인제' 일 제사'걸 조끔 저'네 얘기항' 게' 탈상'얼 하'기 텨' 인제' 예:, 아, 어  
잉, 기'제사가 이'째, 머여. {그게 인제 이 제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탈상을 하게  
되면 인제 어, 어, 어, 기제사가 있지, 뭐요.}
- 10230 # 기제사'가 이'꼬, 케이'제사라 그'능 거'느' 주'근 날'짜에세계에이 지'내고, 차'사라  
그'능 거'넌 파털 추석', 서:례', 도: 그'엄 밈, 명'저례 지'내능 게' 차'사가 이'꼬, 그'래  
치, 머이. {기제사가 있고, 기제사라 그러는 것은 죽은 날짜에 지내고, 차사라 그러는  
것은 팔월 추석, 설에, 또 그 명, 명절에 지내는 게 차사가 있고, 그렇지, 뭐요.}
- 10230 # 기제사', 차'사 지, 지내'자네, 거'으 성'보글, 참' 저으, 어, 탈'쌍을 하'기 데'면. {기  
제사, 차사 지, 지내잖아, 그 성복을, 참 저, 어, 탈상을 하게 되면.}
- 10230 # 처'째 인제' 이 기'제사는 망'니'느 주'근 날'짜 제사'을 기'제사라 그'고, 구어, 그 인  
제' 차'싸르 근' 거'능 명'절, 삼: 명'절, 추석', 설:, 또' 그'래고 머'로, 와이굼, 머, 중'기  
라 그'나, 머, 으, 그런 혹 염 명'절, 삼: 명'저례 처'나'능 걸' 차'사르 그르니다. {첫째  
인제 이 기제사는 망인의 죽은 날짜 제사를 기제사라 그러고, 그, 그 인제 차사라 그  
러는 것은 명절, 세 명절, 추석, 설, 또 그리고 뭐냐, 아이고, 뭐, 중기라 그러나, 뭐,  
어, 그런 혹 이 명절, 세 명절에 지내는 것을 차사라 그러니다.}
- 10230 # 차'사 제사'가 이'꼬, 기제서'가 이'꼬, 그러. {차사가 있고, 기제사가 있고, 그래.}
- 10230 @ 그'엄머 주'로 인제' 그거' 아까' 이야'기를 하'셔썸다마너, 그: 기'제사 이'꼬, 그다'  
으메 차'사 이'꼬, 쩌 어, 그다'으메 혹씨 그거' 가을거'지하고 난' 다'으메 어, 시'사도  
함'미까, 모심미? {그러면 주로 인제 그것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기제사  
있고, 그 다음에 차사 있고, 저 어, 그 다음에 혹시 그것 가을걸이하고 난 다음에 어,  
시사도 합니까, 모십니까?}
- 10230 # 예', 시'사라 그'응 게' 그언 쩌온똥, 추'자리라 그'래가주 이 시월'따레 인제' 응애,  
해'꼬'글 장만해'쓰이께네 그 싱어, 으이, 자기 이, 뽕이에, 참, 선'조으깬 바'친다 카'는  
뜨'스로 시'사라 그'능 게. {예, 시사라 그러는 게 그 저, 추절이라 그래서 이 시월에  
인제 어, 햇곡을 장만했으니 그 어, 이, 자기 이, 뭐, 참, 선조에게 바친다고 하는 뜻  
으로 시사라 그러는 게.}

- 10230 # 그게' 인제' 시'사라 그'능 게' 잘' 지'넬러 거'무 항정 어꼬'요, 잘' 켜'넬르 그'므이  
엔나'렌 재궁'이 이썬짜니껴'. {그게 인제 시사라 그러는 게 잘 지내려고 그러면 한정  
없고요, 잘 지내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재궁이 있었잖아요.}
- 10230 # 위토'를 마이 사가'주, 잘'사는 지'베넌, 내' 어'르를 위해가'주 노'늘 머' 열 마'지이,  
시'무 마'지이, 바'또 심' 마'지 사 가'주고, 그'래 으, 꼬, 거'게 한 지'블 사드'룩 해' 조  
'요. {위토를 많이 사 가지고, 잘사는 집에서는, 내 어른을 위해서 논을 뭐 열 마지기,  
스무 마지기, 밭도 스무 마지기 사 가지고, 그래 어, 그, 거기에 한 집을 살도록 해  
줘요.}
- 10230 # 으'으, 그게' 인제' 어, 어인, 재궁'이라 그'래니더. {어, 그게 이제 어, 어, 재궁이라  
그됩니다.}
- 10230 # 그'래몽 그, 그 사'럼드리 그 토'지일 부'쳐 머'꼴, 자기 머'꼬 사:고', 쪼끔' 나'몽  
걸' 인제' 쥐이난'테 주'면, 주이'는 그걸 까'주고 은제' 예:, 그어 제:무'를 장'만해요.  
{그러면 그, 그 사람들이 그 토지를 붙여 먹고, 자기 먹고 살고, 조금 남은 것을 인제  
주인한테 주면,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인제 예, 그 제물을 장만해요.}
- 10230 # 그 사'람한테 도느, 싸'리, 으스, 요새' 쌀'루 켜, 쌀' 머' 다'서 감'마이 감'쓰오 바'  
다썬머 다 주'든지, 그'르치 아'눔 머' 세 가'맘메 조' 가'주으, 요걸' 가'주'고 내 아'부'  
지, 내 할'배, 내 열'매, 이'래 사 미이 고 인, 지, 잉, 기, 묘' 한 니이를 그 은, 함' 붕'  
지를 가'져 한' 위:라 그'래이니데, 여. {그 사람한테 돈을, 쌀이, 요새, 요새 쌀로 저,  
쌀 뭐 다섯 가마니를 값으로 받았으면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세 가마니만 줘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이'래 삼 위 그 이, 저,  
이, 그, 묘 한 위를 그 어, 한 묘지를 가지고 한 위라 그렸습니다, 여기.}
- 10230 # 우리'가 이, 이그 여'션 위이께'넹 여'션 상'부 제사'을 지'내드루 장보'기해가주 제  
사'을 지내'라, 예, 지'내드로 해다'고, 그'램, 그 인제' 재궁지'기는 그 일 쥐인하'꼬 가  
가주으 장보'길 해'요. {우리가 이, 이것 여섯 위이니까 여섯 조상 제사를 지내도록  
장보기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어, 지내도록 해다오, 그러면 그 인제 재궁지기는 그  
이 주인하고 가 가지고 장보기를 해요.}
- 10230 # 니연 제사' 지내'까 머' 어'물 머' 이'룽 거' 침'부 거' 나물', 채소' 다 사'고 머, 제:주  
'도 사'고, 해'가주 와' 가'주고 온늘을, 내'엘 거'툼 오'늘 저 점'부 꼬어 즈 제무'를 장  
만해' 가'주'고 내'애를 으, 그으, 즈꼬, 켜'에 나:따' 설건 내'일 은제 은, 흥, 그 이, 산'  
소에 느이즈신, 지'고 올라 가니'드, 그 음식'거. {이런 제사 지내니까 뭐 어물 뭐 이  
런 것 전부 그 나물, 채소 다 사고 뭐, 제주도 사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오늘, 내일  
같으면 오늘 저 전부 그 저 제물을 장만해 가지고 내일 어, 그, 저, 돼 놓았다가 내일  
인제 어, 어, 그 이, 산소에 어, 지고 올라 갑니다, 그 음식을.}
- 10230 # 거이'뜨 재궁'에 이'편 사'럼드리 너'이먼 너'이, 다'서저일 지'고 가'치 가'면 즈째  
그 집 쥐'인, 제간'드런 따'러가서 채'여크, 채'리 가'주'고 거 은제' 저'럴 인제' 이: 배  
하'고, 거 인제' 산'소 다'니 내려오'지요, 야. {거기 재궁에 있던 사람들이 넷이면 넷,  
다섯이 지고 같이 가면 인제 그 집 주인, 제관들은 따라가서 차려, 차려 가지고 그  
인제 절을 인제 이 배 하고, 그 인제 산소 다녀 내려오지요, 예.}
- 10230 # 그거 인제' 시'사라 그'르인드, 그그 인제. {그것 인제 시사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제.}
- 10231 @ 그러'명 기'제사는 보통' 어'떠게 지, 지'넬미까, 여'기서느? {그러면 기제사는 보  
통 어떻게 지, 지넬니까, 여기서느?}

- 10231 @ 함무 절차'에 대'해서 함'머 이야기해' 주입쇼? {한번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10231 # 어, 익, 키, 기제사'는 내:가' 인제' 어르'니든 조'부들 땡' 또까'튼데, 그'날, 기제사 나'른 예:, 그 인제' 으, 감'시리이리아 그'는 지'비 인제' 이, 인'는 지'베는 심'주로 감'시레 모시' 나'시이께네 그'어서 모:시 와'가쳐 노'우먼 데'고, 거 감'시럽 엄:는 지'베넌. {어, 이, 기, 기제사는 내가 인제 어른이든 조부들 역시 똑 같은데, 그날, 기제사날은 예, 그 인제 어, 감실이라고 그러는 집이 인제 이, 있는 집에는 신주를 감실에 모셔 놓으니까 거기에서 모셔 와 가지고 놓으면, 되고, 그 감실이 없는 집에는.}
- 10231 # 그래 가'주웁 감'시레서 메시 와' 가'주설령 우후'예, 상 위'에 노'코, 그'래 어, 삼땡, 각' 실과'에더 삼실'과, 사 두에우, 그으 웬, 이 참 미, 아까'엔 시야, 지'내는 시'그로 그어 머엄 어'육, 꼬이 우'육, 점'부 다 서거이, 게'육, 다 써' 가주고 달', 달', 달꼬'기, 소고'이, 데지고'기, 점'부 그'래 그 온늘, 쓰'고, 명'태, 꼬엄 머 그'름 포', 이'릉 걷어이, 종압'패' 쓰'고, 어'무른 반다'시 그 은제' 고등'어, 조'긴 드가'이 데'고, 호'리고 득, 그걸' 채'리 노'코 인제' 제:사 지'낸 집'또 요, 이'꼬, 또' 그'르치 모탄 지'베능, 감'시리 엄:는' 지'베는 어허어, 그 인제' 이 짜', 지바~'이라꼬 쓰'니다. {그래 가지고 감실에서 모셔 와 가지고설랑 위에, 상 위에 놓고, 그래 어, 삼 땡, 각 실과에다 삼실과, 상 위에다, 그 왜, 이 참 땡, 아까 식, 지내는 식으로 그 땡 어육, 그 우육, 전부 다 써서, 계육, 다 써 가지고 닭, 닭,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전부 그래 그 오늘, 쓰고, 명태, 그 땡 그런 포, 이런 것 어, 종합해 쓰고, 어물은 반드시 그 인제 고등어, 조기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땡, 그것을 차려 놓고 인제 제사 지낸 집도 있,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집에는, 감실이 없는 집에는 어, 그 인제 이 지, 지방이라고 씁니다.}
- 10231 # 지방'을 인제' 예를' 드'러 꺼땡 아부'지 이, 이 기'제사 거'트먼 머' 형고처사부군시 나라'꾸도 쓰'고, 또 이 형고처사 므 학생부구니알 써, 고 두 가'지이 씽땡'다. {지방을 인제 예를 들 것 같으면 아버지 이, 이 기제사 같으면 땡 현고처사부군신위라고도 쓰고, 또 이 현고처사 땡 학생부군이라고 쓰고, 그 두 가지를 쓰더라고요.}
- 10231 # 처사'로 쓴' 사'암도 이'꼬, 학생'으로 쓴' 사'암도 이'꼬요. {처사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학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 10231 # 허르'꼬 또 인제' 모치'닐 겨인제' 인저' 험비유인 머 으'게, 아가, 예를' 드'르 므하'르 꺼'땡 므어 기, 감녕 김'씨 그땡 감녕김씨시니이이라꼬 여'이, 이'래 쓰'능 거'또 이'꼬, 구'래 인지 지, 지'방을 써' 노'꼬 은제' 제사'럴 치'넌데, 제사' 지'내는 데'넌 반다'시 그'어 오 집'사가 데'야 데'는데, 머 우, 그 지'바니 망:코 질, 자'소니 너'끄어경, 녀'너칸 사'럼드럼미, 친'처기 마'은 사'라땡 오 집사 너'엄 사'암드 마'으며, 보통' 어능한' 지'벤 오 집'살 몸 마'차요. {그렇고 또 인제 모친일 경우에 인제 현비유인 땡 어, 어,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땡 김, 김영 김씨 같으면 김영김씨신위라고 이, 이래 쓰는 것도 있고, 그래 이제 지, 지방을 써 놓고 인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데는 반드시 그 오 집사가 돼야 되는데, 땡 어, 그 집안이 많고 자, 자손이 넉넉, 넉넉한 사람들은, 친척이 많은 사람은 오 집사 넘는 사람도 많은데, 보통 어지간한 집에는 오 집사를 못 맞춰요.}
- 10231 # 궁 어, 구 웨'냐, 다'서씨가 오: 집'사라 그'거드요. {그 어, 그 왜냐, 다섯을 오 집사라 그러거든요.}
- 10231 # 그 은제' 으, 은점' 초'훈, 아'헌, 종'허니 인제' 예, 삼'허니고요, 고 은제' 상'주거

세 부'이람 말, 세 븐', 세 번' 수'를 이런'답 마'리고, 고 은제' 오 집'싸렁 어이 양 가'에 집'싸가 두리' 부'터 가'지움 그 인젠' 자'늘 올'릴 찌'게 부'어 바다그명 그, 바'다으 그 언제 이 시'니에 가따 논'능 결' 집'사라 그'러요. {그 인제 어, 인제 초헌, 아헌, 종헌이 인제 어, 삼헌이고요, 그 인제 상주가 세 번이라는 말, 세 번, 세 번 술을 이런다는 말이고, 그 인제 오 집사란 게 양 가에 집사가 둘이 붙어 가지고 그 인제 잔을 올릴 적에 부어 받다 그, 받아 그 인제 이 신위에 갖다 놓는 것을 집사라 그래요.}

10231 # 고'래가주 구'엔데, 삼'헌하꼬 집'사 둘하'꼬 해 가주으 오 집'사라 그'러요. {그래 가지고 그러넬, 삼헌하고 집사 둘하고 해 가지고 오 집사라 그래요.}

10231 # 그'어 다'서시 데'야 제사' 지'내능 기' 시'기 만'는데, 옌나'렌, 요샌' 머'으 그, 그게 대'중도 업'씨엄 머 아무'이따나 머 어에웅 구'마 두리'도 지'내오 혼'자도 고'마인 지'내고, 어, 구'마 그'래 지'넵따다으. {그 다섯이 돼야 제사 지내는 게 식이 맞는데, 옛날에는, 요새는 뭐 그, 그게 대중도 없이 뭐 아무렇게나 뭐 어떻게 그만 둘이서도 지내고 혼자서도 그만 지내고, 어, 그만 그래 지내더라고요.}

10231 # 지'낸 데'는 그, ㄱ으, 그게' 대'조이 업'씨', 그'게. {지내는 데는 그, 그, 그게 대중이 없어, 그게.}

10231 @ 그'염머는 그: 제사' 인젠' 그어 제상'을 마'련해'선 차'리 노'코 어어, 시'니'를 모시'든지, 앙 그'염머너 즈그, 지'방을 쓰'서 그'다음 떠 인'자' 모셔 노'코, 어, 어영, 그'럼머너 제사'느 어떤 시'그로 모'십'미까? {그러면은 그 제사 이제 그 제상을 마련해서 차려 놓고 어, 신위를 모시든지, 안 그러면은 저것, 지방을 써서 그다음 또 이제 모셔 놓고, 어, 어, 그러면은 제사는 어떤 식으로 모십니까?}

10231 # 지'방' 쓰'고. {지방을 쓰고.}

10231 # 그'게 인. {그러게 이.}

10231 @ 처음? {처음?}

10231 # 제사'을 모시'능 게' 인제' 어, 인, 처'빠네, 처'째가 인제' 제사'을 모실' 땐'늬 반 우'에따덜 시'니를 모'셔 노'코 그'르암미 지'방'얼 부'쳐 노'코 고'다'으메 인제' 제'무'를 가'따아안 논'능 게'르, 채'리능 게'러. {제사를 모시는 게 인제 어, 이, 처음에, 첫째가 인제 제사를 모실 때는 반 위에다가 신위를 모셔 놓고 그 다음에 지방을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인제 제물을 갖다 놓는 거야, 차리는 거야.}

10231 # 엄, 머 어, 흥'동백'썸'니 장'더 머 예'래우 머 중'보' 머, 그 포'털 머 어이, 어, 어데 저, 어, 판' 데'늬 머' 그어, ㄱ에, 그, ㄱ, 아, 그 머'로, 어에에, 문:중'에 따'러서 그'게' 어, 이, 입, 버'비 틀'렌' 데'가 이'따'꼬용. {어, 뭐 어, 흥동백서니 참 뭐 이려고 뭐 중포 뭐, 그 포를 뭐 어, 어, 어디 저, 어, 다른 데는 뭐 그, 그, 그, 그, 아, 그 뭐냐, 어, 문중에 따라서 그게 어, 이, 이, 법이 다른 데가 있다고요.}

10231 # 그 가'가예:무'니라'꼬요, 저 예, 이, 영:천' 저'리 감'맘미 중'포' 쓰'는 데'독 이'따 그'럽'떠은, 나'안 안'주거 참'서'근 안' 해 반'데, 중'포'러 그'능 거'는 우리' 여'기'선너 보'통'으론 포'털 을, 어이, 으, 저 좌'츠'게, 이을, 이, 제'엘 ㄱ'테 이, 이'랩 포'를 쓰'는데, 저'리는 즈, ㄱ, 제'쌍' 중'가'네 포'를 룬'다, 그, 그'걸' 중'포'라 그'래'찌'엔데, 그'래 지'낸' 데'두 이'꼬. {그 가가예문이라고요, 저 어, 이, 영천 저리 가면 중포 쓰는 데도 있다 그러던데, 나는 아직까지 참석은 안 해 봤는데, 중포라 그러는 것은 우리 여기서는 보통으로는 포를 어, 어, 어, 저 좌측에, 이, 이, 제일 끝에 이, 이래 포를 쓰는데, 저리는 저, 그, 제상 중간에 포를 놓는다, 그, 그것을 중포라 그러는데, 그래 지내는 데도 있고.}



- 10231 # 크'래 노'코 인제' 처'빠 네 인제' 그래 쯔, 제무'리 다: 진'서리 데'먼 제:과'니 인제  
' 초'형과니, 처' 뻔 잔 데능 거즈 초'호니라 그'랭이드, 웨. {그래 놓고 인제 첫 번째  
인제 그래 저, 제물이 다 진설이 되면 제관이 인제 초헌관이, 첫 번째 잔 올리는 것  
을 초헌이라 그러니다, 왜.}
- 10231 # 그 예:를 뜨'러 마알' 까뜸 장자'지. {그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장자지.}
- 10231 # 장자'라 근' 사'러미, 초'호니, 초'호니 그 시'니에, 고 예 강시'니르 그'룽이드, 그거  
너. {장자라 그러는 사람이, 초헌이, 초헌이 그 신위에, 그 왜 강신이라 그러니다, 그  
것은.}
- 10231 # 강시'니러 그'능 결', 시'니에 고한'단 뜨'스로 저'릴 하'고, 향'을 피'웁니다. {강신이  
라 그러는 것을, 신위에 고한다는 뜻으로 절을 하고, 향을 피웁니다.}
- 10231 # 그'게 인제' 이, 그 강시'니르 근'데, 시'널, 예를 뜨'르 아'부짐, 아'부지이 이, 제사'  
이'례에 제거' 오'늘 모:심니다 하'는 뜨'스래, 그'게. {그게 인제 이, 그 강신이라 그러  
는데, 신을, 예를 들어 아버지면, 아버지 이, 제사 의례에 제가 오늘 모십니다 하는  
뜻이야, 그'게.}
- 10231 # 까, 강신'네룽 어, 향'을 피'우고 저, 쩌제, 예, 저'를 하'고, 그'으, 예, 크르 노'음  
고다'으 민제' 각' 제관'드리 인제' 그'욱, 끄, 까암, 예, 처'허니 강시'널 하'엄면 저'를,  
재배'을 두: 번' 하'니더. {강, 강신례라는 것, 향을 피우고 저, 저, 어, 절을 하고, 그,  
어,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인제 각 제관들이 인제 그, 그, 그, 어, 초헌이 강신을 하  
면 절을, 재배를 두 번 합니다.}
- 10231 # 그'으, 그 각'짜' 은제' 이 시'늬에 고하'는 잉, 이, 이, 인'사지, 그'게. {그, 그, 각자  
인제 이 신위에 고하는 이, 이, 이, 인사지, 그'게.}
- 10231 # 내가' 어에, 이, 이, 참' 아'부지 으어, 이, 기'제사에 즈, 참서카'러 와'씀미다 카'능  
그'게 이, 인'사를, 저'를 하'면, 그'려구 나'아미 인제' 고다'으메는 그: 인제' 저: 자'늘  
올'려, 그르지, 쯔, 초'호니란, 즈, 초'허네르 근' 사'래미 인즈 수, 수, 술'짜늘 은제'  
어, 브'어 가주고 집사한'테 주'면 아'부'지 잔' 노'코, 또 이'짜 좌:측 집'사는 모친 즈사  
노'꼬, 이'른 수'를 바드 노'코 인제' 호'레면 예:, 인제' 그래 초'허니 그래 자'늘을 올'  
리기 데'먼 그 추'기랑 게 이'써요. {내가 어, 이, 이, 참 아버지 어, 이, 기제사에 저,  
참석하러 왔습니다 하는 그'게 이, 인사를, 절을 하면, 그리고 나면 인제 그 다음에는  
그 인제 저 잔을 올려, 그래, 저, 초헌이란, 저, 초헌이라 그러는 사람이 인제 수, 수,  
술잔을 인제 어, 부어 가지고 집사한테 주면 아버지 잔 놓고, 또 이쪽 좌측 집사는  
모친 술잔을 놓고, 이런 술을 받아 놓고 인제 그러면 어, 인제 그래 초헌이 그래 잔  
을 올리게 되면 그 축이라는 게 있어요.}
- 10231 # 추'기'라 그'능 거'년 머 그'날 도라가신 데'드 애타탄' 뜨'스로 머 이, 이'래 표'하는  
추'기 인'데, 그'게' 엄'는 지'비이, 쯔, 주'로 마네'용. {축이라 그러는 것은 뭐 그날 돌  
아가신 데에 애타한 뜻으로 뭐 이, 이래 표하는 축이 있는데, 그'게 없는 집이, 저, 주  
로 많아요.}
- 10231 # 그'점 머 추'걸 그, 그 이, 옌나'렌 축' 쓰'는 집'또 마네'찌만 요즘'몽, 글'때도 단'추  
글 한' 사'러미 어아유, 구'만 단'자네 때 금 무 축' 업씨' 음, 무'처구러 한'느 사'아미  
마'네씨. {그것 뭐 축을 그, 그 이, 옛날에는 축 쓰는 집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때도  
단축을 하는 사람이 어, 그만 단잔일 때는 그 뭐 축 없이 음, 무축으로 하는 사람이  
많았어.}

- 10231 # 꼬은 지 요새'는 으응, 그, 주'로 무'추기지, 머여. {그 저 요새는 음, 그, 주로 무  
축이지, 뭐요.}
- 10231 # 그'래 고'마 어, 세어, 스, 세: 부'니 처 뻔 초'온, 두 번'젠 아'어니 잔' 올'리고, 고  
듬매 중'오니 잔' 올'리고. {그래 그만 어, 세, 세, 세 분이 첫 번째 초헌, 두 번째는  
아헌이 잔 올리고, 그 다음에 종헌이 잔 올리고.}
- 10231 # 그'런데 고' 인지'아 항: 가'지가 또 쪼'끔 묘심'당 기아 예:, 아'허니 술'짜늘 올'릴  
쪼'게 수, 술'짜을 올리 노'으면 그을 지, 자'늘 음, 똬자'늘 쓰'게지 양'코 중'허니 뜨  
웅, 올'릴 땐 즈, 쪼, 중'허'는 자'늘 그 밥뚜'경에다 수'릴 부'어 가'즈 침'자니라꾸 세  
번'씩 개요. {그런데 그 인제 한 가지가 또 조금 묘한 게 어, 아헌이 술잔을 올릴 적  
에 술, 술잔을 올려 놓으면, 잔을 어, 퇴잔을 시키지 않고 종헌이 또, 올릴 때는 저,  
저, 종헌은 잔을 그 밥뚜'경에다 술을 부어 가지고 침잔이라고 세 번씩 해요.}
- 10231 # 중'어네. {종헌에.}
- 10231 # 제일 꼬'테 세 번'째 쪼, 잔' 올'린 사'럼머 인제' 요'래 바'다가주 양 애'분애은뎌 쪼  
'꿈 세: 번'쓰익 침'자는 해'여. {제일 끝에 세 번째 저, 잔을 올리는 사람은 인제 요래  
받아 가지고 양 어른한테 조금 세 번씩 침잔을 해요.}
- 10231 # 참' 머 고'꿀 인제' 예:, 참' 침'자이라 그'러구. {참 뭐 그것을 인제 어, 참 침잔이  
라 그러고.}
- 10231 # 그'래면 인제' 중'허니 예, 이, 재배'을 하'고 마'을까 치'면, 고다'으멘 인'젹' 으음,  
밥'수까'라글 어, 은제' 이 메'라' 그'래니더, 그'어 바'블 해 놓 거. {그러면 인제 종헌이  
어, 이, 재배를 하고 마쳤다 치면, 그 다음에는 인제 음, 밥'숟가락'을 어, 인제 이 메'라  
그됩니다, 그 밥을 해 놓은 것.}
- 10231 # 거'일 뚜'경'을 여으고 어어으, 그 우'에 인제' 수, 수'까'라글 은제' 꼬'바 논'니'더, 그  
'래 인지' 즈, 무'레 적'쎄 간. {거기를 뚜'경을 열고 어, 그 위에 인제 술, 숟'가락'을 인  
제 꽂아 놓습니다, 그래 인제 저, 물에 적'서 가지고.}
- 10231 # 그'러겨 또' 인제' 쫙'앙'내이, 즈, 삼'씨 테'면, 삼'시'정'저'이라 그'는데, 근 메' 저, 이,  
이으, 근 예'롬 마'리'고요, 그'래 삼'시'라 그'능 여 수'까'락 꼬'바 노'코 인제' 그'러 무'  
레 또 고 세' 번' 푸'러 가'주어 지, 재'차' 노'우면 고'게 인제' 삼'시'정'저'이라 근'데, 그'  
래고 나'면 그 웨 인' 뚜' 고'다'으메 인' 중'오니 인제' 잔' 올'리구어, 중'헌'니 잉, 잉, 헌  
달 하'기 테'문 고다'으메'는 각' 제'관'드려이 저'릴 또' 두 번 하'네다. {그리고 또 인제  
저, 저, 삼'시' 되면, 삼'시'정'저'라 그러는데, 그 뭐 저, 이, 이, 그것은 어려운 말이고요,  
그래 삼'시'라 그러는 것은 숟'가락' 꽂아 놓고 인제 그래 물에 또 그 세 번 풀어 가지고  
저, 재'차' 놓으면 그'게 인제 삼'시'정'저'라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그 왜 이 또 그 다음  
에 이 종헌이 인제 잔 올리고, 종헌이 이, 이, 헌'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각 제'관  
들이 절을 또 두 번 합니다.}
- 10231 # 어'녕, 인지' 작'빨'제'으저. {어, 이제 작'별'제'이지.}
- 10231 # 이 작'빨'제'제 태'기'지'여. {이 작'별'제'인 셈'이지'요.}
- 10231 # 으, 잘 가'시'요 하'능' 건 썬'그로 저'릴 두' 번' 하'면 제'사' 은'지' 철'싸~'이러 근'느,  
제'사' 다: 지'내'따고, 그'래면 그'날 기'제'산 다 지'낸 기'래. {어, 잘 가세요 하는 그 식  
으로 절을 두 번 하면 제'사' 인제 철'상'이라 그러는, 제'사' 다 지'냈다고, 그러면 그'날  
기'제'사는 다 지'낸 거'야.}
- 10231 @ 그'담' 그:'어'기' 어'연, 제'사'어 철'상'하'고 나'면 엄'보'글 함'미'까? {그러면 거기 어,

제사 칠상하고 나면 음복을 합니까?}

10231 # 예, 예, 어은. {예, 예, 예.}

10231 # 음복'수주'라꼬예, 음:보'글 하'니더. {음복수주라고요, 음복을 합니다.}

10231 # 음:보'걸 제관드'리 방'에 모'예 안'지미 인제' 그 아'네서는 은, 나, 아음, 메, 인제' 그 제사'에 서'편 제무'를 점'부 인제' 풀'고, 이래 예임, 머, 업, 마'아 가'주구 인제' 쓰  
쓸, 또 담:고' 하야, 해' 가'주고 그래 음, 음보'글 하'니더. {음복을 제관들이 방에 모  
여 앉으면 인제 그 안에서는 어, 어, 어, 뭐, 인제 그 제사에 썼던 제물을 전부 인제  
풀고, 이래 어, 뭐, 어, 모아 가지고 인제 저, 또 담고 해, 해 가지고 그래 음, 음복을  
합니다.}

10231 # 방'에 와가'주 인제' 예, 상 어, 그 은제' 이 제관들끼'리 일'가 친'척, 또' 머 그'날  
참서캐뎀 분'들 모'동 안'자 가'주우 음:보'글 하'우, 하고 인제' 그 어, 으, 바'블 멍'너,  
밥'또 멍'니더, 그영. {방에 와 가지고 인제 어, 상 어, 그 인제 이 제관들끼리 일가  
친척, 또 뭐 그날 참석했던 분들 모두 앉아 가지고 음복을 하고, 하고 인제 그 어,  
어, 밥을 먹, 밥도 먹습니다, 그.}

10231 # 밥'또 인제' 메 제사'을 지'나쓰이께네 밥 뽕 인제' 이그 그글 은제' 제사빠'비라 그  
랭이다. {밥도 인제 메 제사를 지냈으니까 밥 인제 이 그것을 인제 제삿밥이라 그러  
니다.}

10231 # 제사'빠비, 여'언 안동'에 가'면 허'제사바비라구 파'니더. {제삿밥이, 여기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팝니다.}

10231 # 그'기 마'시 이'썬요, 그'이 머'어 보'옵노. {그게 맛이 있어요, 그게 먹어 보면요.}

10231 # 그'래가주 구 머 제사'뽕 머'그러 간'다 그고, 모'도, 크'으랜니더, 웨. {그래서 그  
뽕 제삿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 모두, 그랬습니다, 왜.}

10231 # 으, 그르'꼬이, 인제'으 술'로 음:보'글 하'고. {어, 그렇고, 인제 술로 음복을 하고.}

10231 # 그 인제' 이 그 수'릴 몸' 머'영 사'람더 글'때능 그응 음복' 쭈'른 쪼'끔'식 헨'니더,  
웨. {그 인제 이 술을 못 먹는 사람도 그때는 그 음복 술은 조금씩 했습니다, 왜.}

10231 # 웨' 그'른나 하'고 잉, 그, 귀'가 발'가진다 그래 가'주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그,  
귀가 밝아진다 그래 가지고.}

10231 # 그'래 가즈어 음:복' 수'런 몸' 명 수'리라도 음, 마, 찹, 찹, 쪼'끔'심 모'두 다: 머'건  
니더, 웨요. {그래 가지고 음복 술은 못 먹는 술이라도 어, 뭐, 조, 조, 조금씩 모두  
다 먹었어요, 왜요.}

10232 @ 그다'으미 그 혹'씨 인제' 어, 쓰, 문중'이나 동네마'다 또' 다 다른'데, 지'베, 지영  
마'다 쪼'음'씩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혹씨 인제 어, 저, 문중이나 동네마다 또 다 다  
른데, 집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10232 # 예, 예, 예예, 그 가가예'무이락 거'이 달'라요. {예, 예, 예, 그 가가예문이라고 거  
의 달라요.}

10232 # 또까'쩍 아'느. {똑같진 않아.}

10232 @ 이 지'역에스너 혹'씨 어르'신 그거 제사상'에 올'리지 아'는, 올'리집, 올'리면 안  
데'는 그'런 머 엄'식' 팔' 까'통 거 이'썬미'까? {이 지역에서는 혹씨 어르신 그것 제사상  
에 올리는 앓는, 올리지, 올리면 안 되는 그런 뭐 음식들 같은 게 있습니까?}

10232 # 이'썬'에요. {있지요.}

10232 @ 어'똥 게 쪼'끔? {어'똥 게 조금?}

- 10232 # 그'으 공치' 거'통 거, 치' 짜 드'능 거'늬 모 당에. {그 쫘치 같은 것, 치 자 들어가는 것은 못 해요.}
- 10232 # 칼치', 공치', 이, 이거'늬 모 돌'린니더. {갈치, 쫘치, 이, 이것은 못 올립니다.}
- 10232 @ 그다으메 혹'씨 그'으 먼 어, 떡' 까통 거'또 어, 떡'께늬 머 모 돌링 그'렁 건 업' 쓰미꺼? {그 다음에 혹시 그 뭐 어, 떡 같은 것도 어, 떡에는 뭐 못 올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10232 @ 어'물만 그'러썸미까? {어물만 그렇습니까?}
- 10232 # 예:, 떠근' 거'이 평에음, 머:어, 굳, 떠'근능이, 음, 응, 고, 공'시기께느. {예, 떡은 거의 떡, 뭐, 그, 떡은, 음, 응, 공, 공식이니까.}
- 10232 # 그'엄 머' 썸 므 찰떡', 퍼'음, 머 인절', 므어, 참 머, 먼, 퍼'영, 거 시루떡', 송'편, 이 떠'건 거'이 다 써'요. {그 뭐 저 뭐 찰떡, 편, 뭐 인절미, 뭐, 참 뭐, 뭐, 편, 그 시루떡, 송편, 이 떡은 거의 다 써요.}
- 10232 # 으'언 므어 올'리능 게'으 워으, 어으'꼬, 그 인제' 예, 치' 짜' 등 거'느 인자' 칼:치', 공치', 이이거'는 제사'에 안 '쓰따 그랩떠'다. {이것은 뭐 올리는 게 어, 없고, 그 인제 어, 치 자 들어가는 것은 인제 갈치, 쫘치, 이것은 제사에 안 썼다고 그러던데요.}
- 10232 @ 여'김 머' 여어, 여'기는 똥' 머 해삼'물 중'에서 빠'져서느 안 데능 거'년 조기하'고 고등'언느? {여기 뭐 여기, 여기는 또 뭐 해산물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조기하고 고등어는?}
- 10232 # 예아, 반다'시 써'에 데'고, 그언노. {예, 반드시 써야 되고, 그것은요.}
- 10232 @ 머, 다룅' 거'늬 머'? {뭐, 다른 것은 뭐?}
- 10232 # 이, 쩌, 엠, 명'태하쫘. {이, 저, 어, 명태하고.}
- 10232 # 명태포'우, 그그'늬 반다'시 써'이 데'고요. {명태포, 그것은 반드시 써야 되고요.}
- 10232 # 기: 웨'에늬 머' 실과'도 그'래요, 요쌔' 머' 썰가, 므어탄' 잔, 지'배 감' 마'구 마이 올'리 론'데, 엔나'런 삼:실'과라 그'르썸요. {그 외에는 뭐 실과도 그래요, 요새는 뭐 실과, 무엇한 집, 집에 가면 마구 많이 올려 놓는데, 옛날에는 삼실과라 그랬어요.}
- 10232 # 감:, 밤:, 대추'. {감, 밤, 대추.}
- 10232 # 구'어 삼실'과라 그'그덩. {그것을 삼실과라 그러거든.}
- 10232 # 요새' 또' 구'으게으 어, 인제' 어, 배', 배', 사과'가 또' 드'가여, 이시. {요새 또 그 게 어, 이제 어, 배, 배, 사과가 또 들어가요, 이.}
- 10232 # 조율'이시'라꼬 언제 그, 그'걸 인제' 쓰'고 그'런데, 고, 기' 웨'에늬 머' 써'도 데'거, 안' 써'드 데'여, 그금 머. {조율이시라고 인제 그, 그것을 인제 쓰고 그러는데, 그, 그 외에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것은 뭐.}
- 10233 @ 그'다여 혹'씨 제사' 지낸'능 게' 예전하'고, 어르'신 예저'네 절'머썸 때하'고, 요즘' 므 제사' 지'내는 풍'습, 제사' 풍'습또 쫘' 바껴썸'미까, 어'떠쓰미까? {그 다음에 혹시 제사 지내는 게 예전하고, 어르신 예전에 젊었을 때하고, 요즘 제사 지내는 풍습, 제사 풍습도 쫘 바꼈습니까, 어떻습니까?}
- 10233 # 아'이, 마'이 달'려져썸용. {아이, 많이 달라졌지요.}
- 10233 # 마'이 달룅' 거' 아'이래 머' 거'이 머' 이 천지개'벼칸' 썸'이지, 머예. {많이 달라진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이 천지개'벼칸' 썸이지, 뭐요.}
- 10233 # 엔나'레는 기'제산나리 다'옴, 어른' 제사'거 데'뜨, 조'부 제사'거 다오'면 참' 정보'' 클 하'니드. {옛날에는 기제사날이 다가오면, 어른 제사가 됐든, 조부 제사가 다가오

면 참 정복을 합니다.}

10233 # 정보'기라운 게' 에에, 함:보'글 이'꼬, 둘매'이를 이'꼬, 그 우'에 도:포'를 이'꼬오, 어어, 가'설 쓰고', 크'래가주 인제' 이 정, 으응, 정자, 어, 참, 정보'글 하, 하, 하고설랑 그 저, 으저 시니' 아'페 가'서 지, 저'를 한'데, 요새'는 이히, 이'븐 데'르 항' 그. {정복이라는 게 어,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도포를 입고, 어, 갓을 쓰고, 그래서 인제 이 정, 응, 정장, 어, 참, 정복을 하, 하, 하고설랑 그 저, 저 신위 앞에 가서 절, 절을 하는데, 요새는 입, 입은 대로 하는 거야.}

10233 # 그게' 인제' 카나'이 영: 천지개'벼기 데' 뽀'레꼬요. {그게 이제 하나의 영 천지개벽이 돼 버렸고요.}

10233 # 꼬'래 요새'드 인제' 그 저'어 불처'니 거'튼 데' 지'낸 데'늬머' 아'주 제사' 안, 제, 제과'니 마이' 모에'고, 그음' 문중' 제사' 거'튼 데'는 그 이그 다 이, 이'꼬 지'내지마는, 기제사' 거'튼 데'은 고'에 추어'로 고'마 으, 그'르이, 믿는'다 그게게'찌, 속따'메 말하'말. {그래 요새도 인제 그 저 불천위 같은 데 지내는 데는 뭐 아주 제사 어, 제, 제관이 많이 모이고, 그 문중 제사 같은 데는 그 이것 다 이, 입고 지내지만은, 기제사 같은 데는 그 주로 그만 어, 그러니, 믿는다 그것이겠지, 속담으로 말하면.}

10233 # 아'이, 머' 아'부지한때 머, 므어, 으으응, 안' 이'봄 어'떨라우 그'래짜일러, 그, 그'른 시'기 데 잔'나 하는 세기 데에, 그. {아이, 뭐 아버지한테 뭐, 뭐, 응, 안 입으면 어떻게어 그렇지 않나, 그, 그런 식이 되지 않나 하는 식이 돼요, 그런.}

10233 # 그'리 요샌'느 영:, 응으, 음, 하'는 데'똥 이'쨌유, 머탄' 지'베는. {그래 요새는 영, 응, 음, 하는 데도 있지요, 무엇한 집에서는.}

10233 # 줌' 유유한' 지'베는. {줌 유유한 집에서는.}

10233 # 유유한' 녀, 풍조칸' 지'베는 그 맹' 정보'글 한' 사'름똥 이'쨌요. {유유한 집, 풍조한 집에서는 그 역시 정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233 # 조서언'네드 이'꼬, 둘매'이 이'꼬, 맹' 도포' 이'꼬, 갓' 쓰고, 그'래 지내엔 집'또 이'쨌든, 기 웨: 보편'찌그로 바'서능 거'이 다' 고'망 그날 으여, 이, 이, 응, 이'버튼 대'로 고'마 우, 우아'끼나 관다 달'쳐 이'꼬 고'마 그'래 제사' 지'내구 그'래지, 머'.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역시 도포 입고, 갓 쓰고, 그래 지내는 집도 있지만, 그 외에 보편적으로 봐서는 거의 다 그만 그날 어, 이, 이, 응, 입었던 대로 그만 윗, 윗옷이나 하나 걸쳐 입고 그만 그래 제사 지내고 그러지, 뭐.}

10233 # 그게' 인제' 천지개'벼기 데팅 그해. {그게 이제 천지개벽이 됐다는 그게.}

10233 @ 며 읍', 복장이'나 이'렇 거'또 차이 나고, 머 혹시 제사' 지'널 시가'니나 이'렇 거'꾸 줌 다? {뭐 옷, 복장이나 이런 것도 차이 나고, 뭐 혹시 제사 지내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줌 다?}

10233 # 시가'니 그'케으, 그, 그거'또 천지개'벼기래요. {시간이 그러게, 그, 그것도 천지개벽이에요.}

10233 # 요새'문 어'쩐냐 꺼'뜨머이 옴'나'려 안 열'뚜' 시, 한' 사'이 지'낸니더. {요새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한 열 두시, 한 시 사이에 지냈어요.}

10233 # 예'를 드'러 오'느리 어:, 으, 그'르이 치'될 시비 일' 랄'짜를 그'게 떼'면, 주'근 사'러임 오'늘 시비 일' 주'거씨면 사, 어이, 시비 일' 꺼'여, 오후', 오'저네으 차'이가 나'오 구더여. {예를 들어 오늘이 어, 어, 그러니 칠월 십이 일 날짜라 그러게 되면, 죽은 사람이 오늘 십이 일에 죽었으면, 십, 어, 십이 일 그, 오후, 오전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 10233 # 오저'네 주'거썬 십싸' 미럴 제사'을 지'내이 데', 새벼'기 지'내이 데'고, 시비 릴  
탈' 주'어쓰면 시비 일탈 어, 기, 열'두 시 한 시 싸'이일 지'나이 텐'데, 요새'능 그'거  
상'관 업시 오'늘, 시비' 일탈 도'러가썬 시비 일탈 초'저녀이 고'마 일'곱 시', 여'덜 지  
' 템 제사 지내오. {오전에 죽었으면 십삼 일에 제사를 지내야 돼, 새벽에 지내야 되  
고, 십일 일에 죽었으면 십이 일에, 어, 그, 열두 시 한 시 사이에 지내야 되는데, 요  
새는 그것과 상관 없이 오늘, 십이 일에 돌아가셨으면 십이 일 초저녁에 그만 일곱  
시, 여덟 시 되면 제사 지내요.}
- 10233 # 그게' 인제' 여'게도 그'런 풍'서비 데' 뽀'러서, 인저' 스'파니. {그게 인제 여기에도  
그런 풍습이 돼 버렸어, 인제 습관이.}
- 10233 # 웨'냐', 점'부가, 절'믄 분'드리 도'시스 사'다 마'래요, 또' 도'시서 성장해'꼬, 커'통  
걸' 포 장코 드'또 보'도 모 탄 이, 이'를 하'자 그'이께네 어으, 어정쩡하'고, 하'이께네  
고'마 이'게 간소화한'다 그'능 거', 고'마. {왜냐, 전부가, 젊은 분들이 도시에서 살다  
가 말이에요, 또 도시에서 성장했고,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듣도 보도 못 한 일, 일을  
하자 그러니까 어, 어정쩡하고, 하니까 그만 이게 간소화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만.}
- 10233 # 그'래가주 시비 일탈' 아부'지 기'제상 고'마 시비 일탈 썬'엔, 저'녁 끼웁, 일'곱 씨  
에 제살' 썬이, 여'덜 씨 제사' 썬'내고, 고'마 저녁 겸' 때'아 뽀'러요. {그래서 십이 일  
에 아버지 기제사는 그만 십이 일 저, 저녁 그, 일곱 시에 제사를 지내고, 여덟 시 제  
사 지내고, 그만 저녁 겸으로 때워 버려요.}
- 10233 # 으', 저'녀'게 곱'머 제사' 지'내 뽀'이께네 머' 그'래 으, 다' 데' 뽀'이께네 그, 그'르  
이 머' 어, 편리하'지오. {어, 저녁에 그만 제사 지내 버리니까 뭐 그래 어, 다 돼 버  
리니까 그, 그러니 뭐 어, 편리하지요.}
- 10233 # 그게' 편'리하긴 머 웅, 움, 무 망고' 편리하'지여, 그르'엔날' 대'애면. {그게 편리  
하기는 뭐 어, 어, 뭐 망고 편리하지요, 그것을 옛날에 대면.}
- 10233 # 그게' 인제' 참' 마이 달'러져썬, 머'. {그게 인제 참 많이 달라졌지, 뭐.}
- 10233 # 영', 백'팔썬 또' 달'러징 게'러여. {영, 백팔십 도 달라진 거예요.}
- 10233 @ 거'영 어'썬튼 마' 어, 봄'머'년 예'전하'고 요즘' 머' 사, 업, 퍼'에, 제:사'도 그'러코,  
장:네'도 그'러코, 사'라 인는' 사'람들 편한' 썬'그로 마'니 가지? {그러 어썬튼 뭐 어,  
보면은 예전하고 요즘 뭐 살, 어, 편, 제사도 그러고, 장례도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들  
편한 쪽으로 많이 가지요?}
- 10233 # 예', 이, 즈, 점'부'건 자'기 지, 자'기 주'자, 이이, 즈, 주'이에이, 참', 예, 편한 썬'그  
로 썬' 할'라 그'래, 머'더. {예, 이, 저, 전부가 자기 저, 자기 주장, 이, 저, 주의, 참,  
어, 편한 쪽으로 썬 하려고 그래, 모두.}
- 10233 # 또' 그 너무' 에'르게 하' 꺼' 머' 인'나, 그'런 식' 데'꼬 또'요. {또 그 너무 어렵게  
할 것 뭐 있나, 그런 식이 됐고 또요.}
- 10233 @ 머' 거'이, 거'이 인지' 요즈'어'뎌 머' 자기 편한' 시'그로 할'라 한다, 그'지예? {뭐  
거의, 거의 이제 요즘은 뭐 자기 편한 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지요?}
- 10233 # 느'그, 그'르'체요, 예'. {예, 그렇지요, 예.}

## 1.3. 생업 활동

### 1.3.2. 밭농사(10307 ~ 10318)

10307 @ 어르'신 그' 머' 어제 이'어서 쯔' 이야'기를 쯔' 해' 주'십썬요. {어르'신 그 뭐 어 제 이'어서 쯔' 이야'기를 쯔' 해 주'십썬요.}

10307 # 예아. {예.}

10307 @ 어'제 우리' 논'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쯔' 하'선는데, 그, 그'래서 오'느'롱 그 반 농'사에 대'해'스도 쯔'곰 어'이'씨너, 어르'싱'께서 아'시'는 대'로 쯔'곰 이'야'기를 해' 주' 시'면 조'케'썬미다. {어제 우리 논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쯔 하셨는데, 그, 그래서 오 늘은 그 밭농사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 어르신께서 아시는 대로 조금 이야기르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10307 # 예, 예. {예, 예.}

10307 @ 그'래'습 어, 어'제 급 반'농'사'어'너 주'로 어'똥 게 인'는'지, 여'기 진'농' 반'농'사가? {그래서 어, 어제 그 밭농사는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여기 짓는 밭농사가?}

10307 # 여'게, 이 지'여'게는 주'로 인'제' 머'어 참' 어, 언'제' 콩', 보'리', 서:숙', 밀:, 또 그 다'으'멘 인'제' 고'구'마, 그'래 크 이, 이, 쯔 요'중' 간 인'제' 한 며 태 쯔'부'튼, 저'넨 너 땅'콩'을 안' 해'은데, 한' 해'방' 후' 한' 오'륙' 년 은, 은, 저'우, 후'버'트'면 여' 땅'콩'도 한' 다'꼬'요. {여기에, 이 지역에는 주로 인제 뭐 참 어, 인제 콩, 보리, 조, 밀, 또 그 다 음에는 인제 고구마, 그래 그 이, 이, 저 요즘 와서 인제 한 몇 해 전부터, 전에는 여 기 땅콩을 안 했는데, 한 해방 후 한 오륙 년 어, 어, 저, 후부터는 여기 땅콩도 한 다 고요.}

10307 # 딸, 땅'콩'도 지'이'꼬, 극, 극, 꼬, 감'자', 주'로 그'롱 게 왜 반'농'사'른'네. {땅, 땅콩도 짓고, 그, 그, 그, 감자, 주로 그런 게 왜 밭농사는요.}

10307 @ 그'언'너 거'기 그 반'농'사, 논'농'사에 비'해'섭 그'어 반'농'사 하'는'데에:, 여'기'선'너 주'로 그'럼 제'일' 마'니 하'는' 겹 버'리'하'고? {그러면 거기 그 밭농사, 논농사에 비해서 그 밭농사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보리하고?}

10307 # 감'자'지, 머'. {감'자'지, 뭐.}

10307 @ 버'리'하'우 감'자'가 만'썬'미'까? {보리하고 감자가 많습니까?}

10307 # 글'치'여'우, 고'담' 콩'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이 콩이고.}

10308 @ 뽕'어, 버'리'는 그'람'머 언'제 주'로 심:꼬, 어'똥'케 함'미'까? {보, 보리는 그러면 언 제 주로 심고, 어떻게 합니까?}

10308 # 버'리'는 인'제' 어, 으, 갈:버'리'라 그'농' 거'농' 궁, 으, 참' 쯔'어, 그 갈:버'리'라 그'응 가'을'게 감'니'자, 나'락 비 네'구, 추'수'하'고. {보리는 인제 어, 어, 가을보리라 그러는 것은 그, 어, 참 저, 그 가을보리라 그러는 것은 가을에 갑니다, 벼를 베 내고, 추수 하고.}

10308 # 크'럼 인'제' 언'농, 그 나'락 똥'거'리 인'는 쓰, 새'에'다 인'제' 수'루'루 후'끼'로 가'을'상 타' 뿌'고, 타' 뿌'고'설'랑 거'게 버'릴' 뿌'래'고, 그 저'어, 그 썬'레'라 그'농 녀 까'주'어 이'래 드 소'에 메' 가'여 땡'기'고 나'오, 와'따 가'따 그'러 뿌'면 그 버'리'가 무'썬'니다. {그러면 인제 어, 그 벼 묶음이 있는 사이, 사이에다가 인제 수루룩 쟁기로 가면서 타 버리고, 타 버리고서는 거기에 보리를 뿌리고, 그 저, 그 썬레라고 그러는 것을 가

지고 이래 저 소에 메 가지고 당기고 나오며, 왔다 갔다 그래 버리면 그 보리가 묻힙니다.}

10308 # 커'려 음제'읍 고 사'이다 인제' 고:러', 사람' 땡'길 고, 고를' 쥐'이 노코, 그'래가주 인제' 나' 두면 내염 보'메, 까, 이지야, 저, 지 느'점문능 가을'게 가'몽 그 싸'기 틈'니다. {그러면 인제 그 사이에다가 인제 골, 사람 다닐 골, 골을 지어 놓고, 그래서 인제 놓아 두면 내년 봄에, 그, 이, 저, 저 늦은 가을에 가면 그 싹이 틈니다.}

10308 # 싸'기 터: 가'지 이'래 조와' 오르문 추'울 때 가'면 한 송꾸'락 한: 기'리택 땡'다, 버리'가 조웅' 게'. {싹이 터 가지고 이래 좋게 오르면 추울 때 가면 한 손가락 한 길 이쯤 됩니다, 보리가 좋은 게.}

10308 # 그'릉 게 인제' 파랑' 게 나와 이썸'몽 그'게 기'여를 람'니다. {그런 게 인제 파란 게 나와 있으면 그'게 겨울을 납니다.}

10308 # 기'여를 람'몽 보'메 인제' 또' 그'넘머 그'이 보'메 거 인제' 이 시비'라 그'능 이, 여 인제'에 비료'라 그'능 게 이썸'다. {겨울을 나면 봄에 인제 또 그러면 그'게 봄에 그 인제 이 시비'라 그러는 게, 여기 인제 비료'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10308 # 요'쌔 은지 이 연'나'레능 머' 똥짱'구~이 지'곰 마'리야 오줌하'콩 이'래 가'주이즌 지'고 이 텅'기'민썸 인제' 쪼'꿈'씨 쫑우'섭 뿌'래 주고 행'데, 요'새'에능 그'거'느 인제' 요'곰머 숙' 저' 뿌'고 비료'릴 가'주 인제' 야'깁'씨 조'노'쌔다. {요'새는 인제 이 옛날에는 뭐 똥장군을 지고 말'이야 오줌하고 이래 가지고 지고 이 다니면서 인제 조금씩 조금씩 뿌려 주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은 인제 그만 싹' 저 버리고 비료'를 가지고 인제 약간씩 쥐 놓습니다.}

10308 # 주, 쭈, 조'노'코 인제' 또' 고다'으메 인제' 어아, 봄'빠리러웅 게' 또 이썸'미'다. {쥐, 쥐, 쥐 놓고 인제 또 그다음에 인제 어, 봄'보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10308 # 봄'빠래르 그'웅 근 보'메, 기'열 라'고, 봄' 한: 양'녀 칸'능, 음'나 칸'사'떨 리, 양'녀 칸'사'월', 사'월'경 트, 데'가'주 인제 버리'를 감'니다. {봄'보리'라 그러는 것은 봄에, 겨울 나고, 봄 한 양'력 한, 음'력 한 삼'월 이, 양'력 한 사'월, 사'월'경에 뭐, 돼 가지고 인제 보리를 감'니다.}

10308 # 보'메 가'라, 그'은'간. {봄에 갈아, 그러니까.}

10308 # 바'테도 가:고', 노'네도 가:고', 다: 가'는데, 그 인제' 그, 그 봄'빠리는 쌀'버리'가 또' 이'꼬, 주'로 쌀'버이'르 그'웅 그'느 췌'기가 적'썸'니다. {밭'에도 갈고, 논'에도 갈고, 다 가'는데, 그 인제 그, 그 봄'보리는 쌀'보리'가 또 있고, 주'로 쌀'보리'라 그러는 것은 췌'기가 적'썸'니다.}

10308 # 요'래: 인제' 껍'떼'이거 똥'뚜안 나오'고 인제' 쌀'버리'두 하'고 껍'버리'드 하'고. {요'래 인제 껍'질이 똥'글똥'글하게 나오'고 인제 쌀'보리'도 하'고 겉'보리'도 하'고.}

10308 # 그'래 인제' 땡' 갈'버리'도 땡' 꺼'빠리', 봄'빠리' 함'니다. {그'래 인제 역시 가을'보리'도 역시 겉'보리, 봄'보리' 함'니다.}

10308 # 그'래 똑'까'지여'그 그'진, 추, 추'수하'고, 그'담'메 웅, 감'자'라 근 거'는 양'녀 칸: 사'떨, 웅, 그, 그'으'또 땡' 마'치여, 사'월' 초'생'쭈' 데'머 인제' 바'철 갈:고', 고:를 타'고, 거 인제' 이으 거'르'떨 러'콩, 허'래 가'주이 요'쌔' 비'를' 쪼'꿈'시'웁 꼬'래 가 인제'으 그 감'자'썰' 여'어 가'주고, 인제' 그, 그'느'미 나'명 가'짜' 가'주고, 그'래 간'까, 감'자'는 양'녀기 유:월' 초'순', 치'털 초'에 캬'니다, 그'거'너. {그'래 똑'같이 그것, 추, 추'수하'고, 그 다음에 웅, 감'자'라고 그러는 것은 양'력 한 삼'월, 웅, 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



월 초순쯤 되면 인제 밭을 갈고, 골을 타고, 그 인제 이 거름을 넣고, 그래 가지고 요 새는 비료를 조금씩 뿌려 가지고 인제 그 씨감자를 넣어 가지고, 인제 그, 그놈이 나면 가꿔 가지고, 그래 가꿔, 감자는 양력 유월 초순, 칠월 초에 캐니다, 그것은.}

10308 # 캐가'지 머'꼬. {캐서 먹고.}

10308 # 버리'도 역'씨 유:월 참', 오월' 초'이, 유월' 음, 마'릴경 데'른 이 켜, 다: 여, 다: 여'뭉니다. {보리도 역시 유월참, 오월 초, 유월 음, 말일경 되면 이 패고, 다 여, 다 여'뭉니다.}

10308 # 그'래므 그으' 가'주쓰쫌에 인제' 비 가'주웁 추술' 하'고, 거러 인제' 거 콩'이라 그 능 거'는 엔나'레는 어이, 요새'느 인제' 이 기'양 콩'을 고'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제 베 가지고 추수를 하고, 그러고 인제 그 콩이라 그러는 것은 옛날에는 어, 요새는 이 그냥 콩을 그만.}

10308 # 노'지로 가는' 데'두여, 노'지라 그'능 거 인제' 받' 전체 앙 꺼'또 안 하'고 콩'만 가능' 게' 이'씨요. {노지로 가는 데도, 노지라 그러는 것은 인제 밭 전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콩만 가는 게 있어요.}

10308 # 그게' 인제'웁 그'르코. {그게 인제 그렇고.}

10308 # 엔나'레는 버리:', 감잘', 으, 인제' 그 새'애 꼬'레다 그'리라 그'음상 인제' 그 콩'얼 시'머슴다. {옛날에는 보리, 감자를, 어, 인제 그 사이 골에다 "그리"라 그러면서 인제 그 콩을 심었습니다.}

10308 # 소를' 메'아 호'끼루 수루 타'고, 또' 그'르음 사라'미 끌'꼬 함 타'고, 거' 여'어가주 은제' 그 콩', 으으흙, 머'로, 버리', 감자'를 추수'얼 한 디엔'는 그 거랑'을 또' 탐'니다. {소에 메어서 쟁기로 썩 타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끌고 한 번 타고, 거기 넣어 가지서 인제 그 콩, 음, 뭐냐, 보리, 감자를 추수를 한 뒤에는 고랑을 또 탐니다.}

10308 # 후'끼로 타'면 그그 콩'을 무'더 줌'다. {쟁기로 타면 그 콩을 묻어 줍니다.}

10308 # 이'래이 야간' 무채'머으 글티 사라'미 감' 호'무로 이자' 무썸'니다. {이래 약간 묻히면 그때 사람이 가면서 호미로 인제 묻습니다.}

10308 # 무'더가'드 그 인제' 가을'게 추수하'꼬, 그'르코. {물어서 그 인제 가을에 추수하고, 그렇고.}

10308 # 서:수'진 또' 인제', 서승' 농'사는 예:, 버리보'다 초:꿈' 느께' 감:니'다. {조는 또 인제, 조 농사는 예, 보리보다 조금 늦게 갑니다.}

10308 # 요즘' 가'아껴이, 요즘' 아'이따, 오'월 한' 금: 저'께 데'면 그, 그거' 역'씨도 인제' 으 그리'라 그'꼬 인제' 그 감자'밭 새'에도 여'꼬 버리'밭 새'에도 여, 맹' 콩'과 마'차이래. {요즘 갈 거야, 요즘 아니다, 오월 한 지금 정도 돼면 그, 그것 역시도 인제 "그리"라 그러고 인제 그 감자'밭 사이에도 넣고 보리'밭 사이에도 넣는, 역시 콩과 마'찬 가지야.}

10308 # 그'래으 그리'라꺼 그 탕'을 여'어 가'주고 그으 가을'게즈 추수하'능 게'고, 그'래가 반'농'사느인 주'로 고'마요. {그렇게 "그리"라고 그 땅을 넣어 가지고 그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밭'농'사는 주로 그만요.}

10308 @ 그'람 그'러가 여'기느 혹시 미'른' 아 해'썸'미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혹시 밀은 안 했습니까?}

10308 # 여'어도 미'를' 하'인, 엔나'레 해'씨여, 점'노. {여기도 밀을 하긴, 옛날에 했어요, 조금이요.}

10308 # 요새'엔 밀: 아 합'니다, 여'느. {요새는 밀 안 합니다, 여기는.}

10308 # 예, 미리' 잘' 안 데', 또 요새'엔요. {예, 밀이 잘 안 돼, 또 요새는요.}

10308 @ 아, 여이? {아, 여기?}

10308 # 저으, 예. {저, 예.}

10308 # 이, 끄이, 기후'가 왜' 변도~'이 생'기니, 여'언 미른' 쪼:끔 정' 거치 안 데드'라꼬.  
{이, 그, 기후가 왜 변동이 생겼는지, 여기는 밀은 조금 전 같이 안 되더라고.}

10308 # 그'래거 미른' 드'무고. {그래서 밀은 드물고.}

10308 @ 주'로 그'점 머 볼, 버리'나 이'런 점마 한'다, 그'지예? {주로 그것 뭐 보, 보리나  
이런 것만 한다, 그렇지요?}

10308 # 예, 예. {예, 예.}

10308 # 고욤아'음메 인제' 땅콩' 거, 가'는 사'람도 망코'. {그 다음에 인제 땅콩을 가는, 가  
는 사람도 많고.}

10308 @ 땅콩'은 머' 언'제 갈'르가 언'제 하'미까? {땅콩은 뭐 언제 갈아서 언제 합니까?}

10308 # 땅콩'은 구, 구, 코'게 인제' 양'넉 사'멸, 은, 삼'월 맹: 감자 시들' 때 으, 글'때 합  
떡' 시뭇'니다, 그언. {땅콩은 그, 그, 그제 인제 양력 삼월, 어, 삼월 역시 감자 심을  
때 어, 그때 한 번에 심습니다.}

10308 # 그'언 시'머 노'으면 그'전느 인제' 가을'게 가'서 근 다룽' 게 텨'므 쪼'끔 느 때'  
지. {그것은 심어 놓으면 그것은 인제 가을에 가서 그것은 다른 것에 대면 조금 늦  
게 되지.}

10308 # 으, 그, 그 땅콩'은 일'모작빼끼 모 합'네더, 거'느. {어, 그, 그 땅콩은 일모작밖에  
못 합니다, 그것은.}

10308 # 곧' 땅콩바'텐 다룽' 거' 어이, 시가'니 업'써, 할 썬'가 업'써. {거기 땅콩밭에는 다  
른 것 어, 시간이 없어, 할 여유가 없어.}

10308 # 곱'미 땅'콩'망 캐' 가'주어 하'고. {그것 뭐 땅콩만 캐 가지고 하고.}

10308 # 그다'으메 인제' 므'어 가을 떼'몽 그 밭: 바'테 머 저 채:마'도 가:고', 배추'도 시므  
'고, 심:꼬', 그 무'꾸'도 갈:고, 그다'음 이어' 창'깨도 함내. {그 다음에 인제 뭐 가을  
되면 그 빈 밭에 뭐 저 채마도 같고, 배추도 심고, 심고, 그 무도 같고, 그 다음 여기  
참깨도 합니다.}

10308 # 창'깨', 뜯'깨는 그'키 마이'느 아 합'니다, 요새'에는. {참깨, 뜯깨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요새는.}

10308 # 자'기 머'글 만'침 해'찌만, 저'네느, 또' 머 태 저'네는 그 땅', 깨, 이, 즈, 칠, 창'깨'  
를 마이' 해'쓰임다. {자기 먹을 만큼 했지만, 전에는, 또 몇 해 전에는 그 참, 깨, 이,  
저, 참, 참깨를 많이 했습니다.}

10308 # 왜'구, 왜'냐, 창'깨 깎'씨 비'짜 노'이께네, 다룽' 가이'보다여 지, 장'머'기 수'이비 좀  
' 나'따' 그'래어, 그 곱'머 점'부 바'테다 멘: 마'지이를 땅'쑥, 깨' 하'는 사'람도 마'는데  
이, 요새'드 그'른 사'람 맹: 이'씨요, 하'기는. {왜, 왜냐, 참깨 값이 비싸 놓으니까, 다  
른 가격보다 작, 작목이 수입이 좀 낮다 그래서, 그 그만 전부 밭에다 몇 마지기를  
땅, 깨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새도 그런 사람이 역시 있어요, 하기는.}

10308 # 그'랜 너'허, 반:농'산 주'로 그, 그'러쓰미다, 머. {그래 뭐, 밭농사는 주로 그, 그렇  
습니다, 뭐.}

10308 @ 그'어'기 그'럼 아'까 그'어 거리'라능, 거리'라고 해'씀미까, 사'이에 그'거' 악, 어으,

가능 거? {거기 그럼 아까 그 "그리라"는, "그리라"고 했습니까, 사이에 그거 어, 어, 가는 것을?}

10308 # 예예, 예예. {예. 예.}

10308 @ 그, 그어'게 그암뎔 사알, 꼭'식 사'이? {그, 그게 그러면 사이, 꼭식 사이?}

10308 # 그'리, 그'리라 그능 거. {"그리", "그리라" 그러는 것.}

10308 @ 그리'? {"그리"??}

10308 # 그리'라 그능' 건' 요 인제' 이거, 감자'가 요래오래 심혀'이 요'울 이, 요'래 덕, 어, 그, 고:리'그더, 감자' 고'리거드, 요오요. {"그리라" 그러는 것은 요기 인제 이것, 감자가 요래요래 심기면 요기를 이, 요래 저, 어, 그, 골이거든, 감자 골이거든, 요기요.}

10308 # 요 사'이가 쪼쫂' 비: 이썰미'다. {요 사이가 조금 비어 있습니다.}

10308 # 여'길 요래: 그, 으, 탐'니다. {요기를 요래 그, 어, 탐니다.}

10308 # 스, 사러'미 꼬'은 수뚜 꼬, 소'가 꼬'음데, 그걸' 그리'이' 연는'다 그램니'다. {사람, 사람이 꼬는 수도 있고, 소가 꼬는데, 그것을 "그리" 넣는다고 그러니다.}

10308 # 그리' 연는'다 그'래. {"그리" 넣는다고 그래.}

10308 @ 아, 그리' 연'는데, 그'게 그'암 일쫂'에 사'이지끼다, 그'지예? {아, "그리" 넣는데, 그게 그러면 일종의 사이짓기다, 그렇지요?}

10308 # 예? {예.}

10308 @ 어', 일'쫂'에 다른 장'물 사'이에 이'래 파'는? {어, 일'쫂'에 다른 작물 사이에 이'래 파는?}

10308 # 예', 예', 그 다른' 장'물 사'이에 시무'능 게 마'자여. {예, 예, 그 다른 작물 사이에 심는 게 맞아요.}

10308 # 고'래가주 그'이 저'네 장'물 캐'내뎡 그걸' 또' 인제' 으으, 그루: 한'다 그'릉이. {그래 가지고 그것 전에 작물을 캐내면 그것을 또 인제 어, "그루한다" 그러니다.}

10308 # 또' 그'은데 또' 인제' 으, 탐'니다. {또 그런데 또 인제 어, 탐니다.}

10308 # 그 캐'뜯' 데'를 요래: 콩' 시'머 노'꼬여 서숙' 시'머 나'편 데'는 니 요 사'이에, 이 그, 감자'나 버리' 똥 거 그' 베: 내' 뻘면 고 짜'꾸거 나'끄더. {그 켜던 데를 요래 콩 심어 놓고 조 심어 났던 데는 이 요 사이에, 이것, 감자나 보리 같은 것 그 베어 내 버리면 거기 자국이 남거든.}

10308 # 이, 꺼, 구, 고골' 또' 탐'니다. {이, 그, 그, 그것을 또 탐니다.}

10308 # 또' 타'요. {또 타요.}

10308 # 또' 타'가지 이어, 이어, 이, 이'룽 걸르 타'면 니어 흘'기 갈'라집다, 이'래 데'면. {또 타서 이, 이, 이, 이런 것으로 타면 이 흠이 갈라집니다, 이'래 되면.}

10308 # 꼬익, 이'래 땜' 이'짜 타 과'면 그래으 콩' 뿌'릴 무'더 주'기 데'요. {그, 이'래 되면 이쪽 타고 가면 그래 콩 뿌리를 묻어 주게 되요.}

10308 # 고'래 데'든 덜: 무'첸 데'는 사라'임남 호'미러 끌'씀니데, 이'래. {그래 되면 덜 묻힌 데는 사람이 호미로 긁습니다, 이'래.}

10308 # 그'래 무'더 주'고. {그래 묻어 주고.}

10308 # 그'르 콩 뿌'리를 든드'이 하'는. {그래 콩 뿌리를 든든히 하는.}

10312 @ 거'므 어'르'싱 거'기에 그 우리'가 꼬 받'또 밤매'기를 하'지야? {그러면 어'르신 거기에 그 우리'가 그 밭도 밭매기를 하'지요?}

10312 # 예:, 뻘, 아'이거, 밤매'기 하'지'려요. {예, 밭, 아이고, 밭매기 하'지요.}

10312 @ 바'즌 어'떠여, 바'즌 어'떠케 맴'미까? {밭은 어떻게, 밭은 어떻게 맴니까?}

10312 # 밤매'기느 인제' 여' 그 감자밭'뜨, 버리밭', 콩밭', 밀밭', 다: 맴'니다, 매'기는. {밭 매기는 인제 여기 그 감자밭, 보리밭, 콩밭, 밀밭, 다 맴니다, 매기는.}

10312 # 다: 매'이 다, 함번'씨그 다: 매'이 든덱. {다 매야 돼, 한 번씩은 다 매야 되는데.}

10312 # 푸'리 조'으른 그'느플 뽀'바 조이' 데'지으, 그'르미 너무' 조'아 뽀'꼭'쓰까 거, 어'울', 어'울려' 뽀'래. {풀이 좋으면 그놈을 뽀아 줘야 되지, 그놈이 너무 좋아 버리면 곡식하고 그, 어'울, 어'울려 버려.}

10312 # 그'래 가주으 곡'씨기 지자'이 이'끼 때'므에 점'부 그을 뽀'꼬 매정거, 그'르 또' 이'래 점'부 홀'터 주'고 그'래, 예'헝, 응, 그 맴'니다, 어, 밤매'기롱 기 다: 함'니다. {그래 가지고 곡식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뽑고 매고, 그리고 또 이래 전부 홀어 주고 그래, 예, 응, 그 맴니다, 어, 밭매기라는 걸 다 합니다.}

10312 @ 늬매'기는 아까' 우리' 어'제 보통 두 번' 하'고, 피' 뽀'꼬 이'러케, 피' 뽀'크, 옴, 그런 피' 뽀'금능 게 마'지마'기라 아 해'쌔미까? {논매기는 아까 우리 어제 보통 두 번 하고, 피 뽑고 이렇게, 피 뽑고, 예, 그렇게 피 뽑는 게 마지막이라 안 했습니까?}

10312 # 예', 마'지마'기그, 그'럼 농'사 다: 지'꼬 인제' 추수한'다 그'르게. {예, 마지막이고, 그러면 농사 다 짓고 인제 추수한다 그러지요.}

10312 @ 그'른데 여기' 그'암'면 밤매'기느, 바'튼 보통' 매' 뽀' 맴'미까?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밭매기는, 밭은 보통 몇 번 맴니까?}

10312 # 바'천능 그, 그'게 대'중이 엄:니'더. {밭은 그, 그'게 대중이 없습니다.}

10312 # 바'천 니금' 뽀, 매'기라'앙 게' 여'서 딸' 응, 게:소'케' 매'이 뽀'다. {밭은 이것 뽀, 매는 게 여섯 달 응, 계속해서 매야 됩니다.}

10312 # 이으' 감자'밤' 매'이 제으, 감자'밤' 매'고 남' 또' 궁'우 콩'밤' 매'이 데'지러요. {이 감자'밭' 매야 되고, 감자'밭' 매고 나면 또 그 콩'밭' 매야 되지요.}

10312 # 고 사'이에 감자' 캐: 무'꼬 남' 콩' 구'루 타 가'정으 이래' 이'여 콩' 쪼'끔 조'으름, 그으'또 푸'리 좀 나'이 매' 조이' 데'지러요. {그 사'이에 감자 캐 먹고 나면 콩 "그리" 타 가지고 이래 이 콩 조금 좋으면, 그것도 풀이 좀 나니 매 줘야 되지요.}

10312 # 또' 어, 서'숙'빠'또 쪼'매 조'이 데'지르요. {또 어, 조'밭'도 좀 매 줘야 되지요.}

10312 # 그'은 머' 이, 여'서 딸' 도'안 쪼: 달'램'니다, 그'응 엄, 밤매'기라 그'능 거'너. {그것은 뽀 이, 여섯 달 동안 쪼 매달립니다, 그런 것, 밭매기라 그러는 것은.}

10312 @ 바'출 머' 그'어 또 계속' 뽀'어 내:고 또' 다'룽 거' 시'미'니까? {밭을 뽀 그 또 계속 뽀아 내고 또 다른 것을 심으니까?}

10312 # 예, 예, 다'룽' 거' 시'므'니까 그'그'또 매' 조'이 데'그더. {예, 예, 다른 것을 심으니까 그것도 매 줘야 되거든.}

10312 # 그'어 또' 푸'리 나'그등. {거기에 또 풀이 나거든.}

10312 # 그'르'이 여'서 딸' 또'아'늘, 일' 러'네 농'사'랑 겐' 주'로 중:요'할' 때'가 여'서 따'리 그'더요. {그러니 여섯 달 동안을, 일 년에 농사'랑 게' 주로 중요할 때가 여섯 달이 거든요.}

10312 # 여, 쪼' 인'자' 사'뽀, 사'월, 오'월, 유'월, 치'릴, 파'릴'까지'그'더요. {여, 저 이제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까지'거'든요.}

10312 # 요 사'이 인제' 점'부'은 장'모'글 바'까' 하'니까 고'우'여, 바'즌 게'소'켜 매' 조'이 데'능 게'라. {요 사'이 인제 전부 작'목을 바'꿔 하'니까 그, 밭은 계속해서 매 줘야 되는 거야.}

10312 # 노'는 응, 꼬어, 그, 그 나'락빠게 안 하'니까 두불눔매'임프 해' 뿌오 피사'리해 뽕  
고'마 단'데, 바'즌 여'서 찰 또'아늘 그 이 중 꾸주:니' 다다알, 거'이 다다'리 매'는 수'  
가 이, 이'써, 그건뇨. {논은 응, 그, 그, 그 나'락밖에 안 하'니까 두벌매기 해 버리고  
피사'리해 버리면 그만 다인데, 발은 여섯 달 동안을 그 이 좀 꾸준히 다달이, 거의  
다달이 매는 수가 있어, 있어, 그것은요.}

10312 @ 아, 그염 머 하'이튼 대오다, 그지예? {아, 그럼 뭐 하여튼 힘들다, 그렇지요?}

10312 # 예야. {예.}

10312 @ 밤매'기년? {발매기는?}

10312 # 예, 밤매'기능 그'래 함'니더. {예, 발매기는 그래 합니다.}

10312 # 이, 여'서 딸 또'안 다, 또' 파'럴딸 데'면 쩌어 김장'밤' 매'그더, 또요. {이, 여섯 달  
동안 다, 또 팔월이 되면 저 김장'발' 매'거든, 또요.}

10312 # 어호, 무꾸'받' 으흔, 으호, 또' 머 파'받', 또 그'르코 머: 배'추'받', 다 매'야 데'그더.  
{어, 무'발' 어, 어, 또 뭐 파'발, 또 그렇고 뭐 배'추'발, 다 매'야 되거든.}

10312 # 그'르이 꾸구'주'니 달'래', 밤매'기는너. {그러니 꾸준히 매'달려, 발매'기는요.}

10310 @ 그염'명 꺼:기' 급 부'고, 그거 이, 그거 받' 까'통 경'우'에 어, 꼬, 곡'식 뿌어, 뿌  
리 나'용 그, 그어'른 머 야'깁' 두'툼한' 그'걸' 부'기'라 함'미'까? {그러면 거기 그 북, 그  
것 이, 그것 발 같은 경우에 어, 그, 곡'식' 뿌, 뿌려 놓은 그, 그런 뭐 약간 두'툼한' 그  
것을 북'이라고 합'니까?}

10310 @ 망:, 망: 진'는'다'어고 헨'는데, 망: 만'든'는'능 거 아'임'미'까, 그'기? {망, 망 짓는'다  
고 했는데, 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310 # 골: 탄'다 그'래, 골: 탄'다고. {골 탄'다고 그'래, 골 탄'다고.}

10310 @ 골: 타'고? {골 타고?}

10310 # 응어, 망'응, 고'렐' 타'면 망:에'. {응, 망, 골을 타'면 망:에.}

10310 # 고'렐' 타'면 망:이 나'와. {골을 타'면 망:이 나'와.}

10310 # 이'끼 이'래 스'르'를 타'면, 스'루'우 타'면 여'게'는 응, 어, 우, 꾸'워, 사'래'미, 소'가  
몰:고 나'거 사'람'미 후'깁' 나'강 기, 이'건'누 고:리' 데'고, 여'폐 흘' 러'머 간' 데'는  
망:이 데'여, 망:이'. {이'게 이'래 스'르'르 타'면, 스'르'르— 타'면 여'기'에는 응, 어, 어, 그,  
사'람'이, 소'가 몰'고 나가'고 사'람'이 쟁'기로 나'간 게, 이'것'은 골'이 되'고, 옆'에 흘'이 넘'어  
간 데'는 망:이 돼'요, 망:이.}

10310 # 망'이' 데'공, 그'래, 그 망:이'라 그'능 거'느. {망'이' 되'고, 그'래, 그 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10310 @ 그'염'머'느 그 망:' 가'통 으'인'제', 그'른'데 그'거' 무 고'추'나, 고'추'바'치'나 이'런' 거  
시'머 노'으며'너 이'래 호'글 이'러'케 쫓' 해'글? {그러'면'은 그 망' 같은 인'제, 그'런'데 그  
것 뭐 고'추'나, 고'추'발'이나 이'런 것 심'어 놓'으면'은 이'래 흘'을 이'런'게 좀 해'야?}

10310 # 부'꿀 조'엘, 부'꿀 디'웅. {북'을 쥐'야, 북'을 돌'우'어야.}

10310 @ 부'글, 북' 도'둔'다 하'지'예, 그'걸? {북'을, 북' 돌'운'다'고 하'지'요, 그'것'을?}

10310 # 그'러'치, 북' 도'둔'다. {그'런'지, 북' 돌'운'다.}

10310 # 그 흘'글 꼬'러'므'아 준' 수도 이'꼬 부'글 도'뒤. {그 흘'을 끌'어'모'아 주'는 수도 있'고  
북'을 돌'워.}

10310 # 요'새'느 주'로 인'제' 또' 비'니'를 씨'아 뿌'이'겐 마'리'야, 엔'나'렐 그'랜'데 요'새'느 비  
니'를 씨'어 너'면 그 으, 북' 쫓: 건 업'씨'. {요'새'는 주'로 인'제' 또 비'닐'을 씨'워 버'리'니

까 말이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비닐을 씌워 놓으면 그 어, 북 주는 것은 없어.}

10310 # 저 구'마 비닐'을 씌'아 가'주 이'래 해' 나 뿌이 푸'리 안 올'로 오'이께네 그 소'게서 고'마 이'래 데'고, 옌나'렌 그 비누'루가 세'우지 앙'고 할' 때'는 점'부 이'래 부'결 조 가'주 풀'또 뽀'꼬 이'래 나가암 삭 꼬러마'아꼬에우 그'래 조따'꼬, 그렇어이. {저기 그만 비닐을 씌워 가지고 이'래 해 놓아 버려서 풀이 안 올라오니까 그 속에서 그만 이'래 되고, 옛날에는 그 비닐을 세우지 않고 할 때는 전부 이'래 북을 줘 가지고 풀도 뽑고 이'래 나가면서 삭 끌어모아서 그'래 줬다고, 그렇게.}

10310 # 요샌' 그 꼬치, 꼬러모'능 건' 업써', 지에 비닐'을 씌'아 뿌'이께네. {요새는 그 고추, 끌어모으는 것은 없어, 저 비닐을 씌워 버리니까.}

10310 @ 일판 시'아 나'아니까 \*\*\*? {일단 씌워 놓으니까 \*\*\*?}

10310 # 예아. {예.}

10310 @ 제, 그러'니까 요즘' 비닐' 하'고 나'스너 그검 머야, 드'러, 풀' 뽀'능 거'또 마닐 이리' 더'러께따, 그'지예? {저, 그러니까 요즘 비닐로 하고 나서는 그것 뭐야, 더러, 풀 뽑는 것도 많이 일이 덜었겠다, 그렇지요?}

10310 # 그'르치, 마이' 더'러찌. {그렇지, 많이 덜었지.}

10310 # 이, 이'럴, 일름, 꼬추박' 꺼'통 거, 그' 비닐'을 씌'우면 농'사 지'은 데 바닐'을 해' 뽀'능 게'라. {이, 일름, 일, 고추밭 같은 것, 그 비닐을 씌우면 농사짓는 데 반일을 해 버리는 거야.}

10310 # 머' 잉, 어, 푸'를 구'거 인제' 추수할' 때'꺼진 은, 으, 푸'럴 매'지 아'느이께네, 매진' 안' 하'니 구'마 수'황마 해' 뿌고 예, 비닐'루 빼'끼 뽀'또 농'사 다: 지'이 뿌이겐. {뭐 이, 어, 풀을 그것 인제 추수할 때까지는 어, 어, 풀을 매지 않으니까, 매지는 안 하니 그만 수확만 해 버리고 어, 비닐을 벗겨 버리면 또 농사 다 지어 버리니까.}

10310 # 그'르이 옌나'레는 농'사진은 사'럼드리 더 바쁘'고 더' 머' 이거', 이그, 이' 애'럴' 마이 머'찌, 머'. {그러니 옛날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바쁘고 더 뭐 이것, 이것, 이 애를 많이 먹었지, 뭐.}

10310 # 그'르이 순' 근 소'느로 하'이께네, 일'러그로, 노'동녀그로, 그'래 해'찌면 요샌'느 기계가 또' 나'와 가'저요 쭈, 이진, 참: 조:치. {그러니 순 그것은 손으로 하니까, 인력으로, 노동력으로, 그'래 했지만 요새는 기계가 또 나와 가지고 저, 저, 참 좋지.}

10310 # 농'사가 머' 크'래 가'주'고 농'사진은 사'럼드리 이'럴 마이 더'러 가'조이 찌, 저'네 농'사지던 사'람 대' 마이 편하'다꾸, 요샌'. {농사가 뭐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덜어 가지고 저, 전에 농사짓던 사람에 대면 많이 편하다고, 요새는.}

10310 @ 그다'으메 그'어 찌'기 겁 바'아, 바'꿀 타'능 거는 농'꿀 타'능 거랑 비'슷함'미까, 어'떠썹'미까?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밭, 밭꿀 타는 것은 논꿀 타는 것'이랑 비'슷함'미까, 어떻습니까?}

10310 # 노'는 꿀: 타'능 게 이'꺼, 가'능 게, 바'꼬른 으'응, 으'응, 노'네'능 꿀: 타'능 게 업:써'. {논은 꿀 타는 게 아니고, 가는 것이고, 밭꿀은 응, 응, 논에는 꿀 타는 게 없어.}

10310 # 옥, 꿀: 타'능 게 그 어:꼬, 바'꿀 타'지, 주'로. {없, 꿀 타는 게 그 없고, 밭꿀 타지, 주로.}

10310 @ 예, 바'꿀 타'카? {예, 밭꿀 타서?}

10310 # 어, 거'을, 그'르지여, 바'꼬를 타'지. {어, 그'래, 그렇지요, 밭꿀을 타지.}

10310 @ 그, 그'엄 머'우 그'음며 농' 가'능 거'하고 박 가'능 거'는? {그, 그러면 뭐 그러면

논 가는 것하고 밭 가는 것은?}

10310 # 농' 가'능 거하코, 노'는 가'능' 거'는 간'다 거, 바'또 가'능 거'는 간'다 그거. {논 가는 것하고, 논은 가는 것은 간다 그러고, 밭도 가는 것은 간다 그러고.}

10310 # 바'춘 다: 가'능 거'는 이래 바'출르 집'부 다: 두베' 가'능 게러. {밭은 다 가는 것은 이래 밭을 전부 다 뒤집어 가는 거야.}

10310 # 요'리 두베'그 요'리르, 요리, 요거'능 간'다 그'리고, 이'래 드문'드문' 사'이를 이, 이걸' 등'얼 뛰고 으, 어우, 어, 골: 탄'다 그'능 건 여'기에, 이, 여'게으 고:리 데' 뿌이 게느 골: 탄'다 그'러 게러. {요리 뒤집고 요리, 요리, 요것은 간다고 그러고, 이래 드문드문 사이를 이, 이것을 등을 두고 어, 어, 어, 골 탄다 그러는 것은 여기에, 이, 여기에 골이 돼 버리니까 골 탄다 그러는 거야.}

10310 @ 골: 탄다 그'러제? {골 탄다 그러지요?}

10310 # 음, 그르체. {음, 그렇지.}

10310 # 가:능' 거'는 싹: 다 가:능' 걸 가'주 그 간'더. {가는 것은 싹 다 가는 것을 가지고 그 간다고.}

10310 @ 가'러 어'퍼 버리'능 거, 그'찌예? {갈아 얹어 버리는 것을, 그렇지요?}

10310 # 거'죽, 가'라 어'퍼 뽀'다 그'르그. {그렇지, 갈아 얹어 버린다 그러거든.}

10310 @ 그'러잉'겨 그 차'이가 이'따, 그'지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 그렇지요?}

10310 # 옹, 그'르치. {예, 그렇지.}

10311 @ 영:, 그럼'며너 그'억 인지 그다'으메 보리'밭'끼를 하'지예? {어, 그러면은 그 인제 그 다음에 보리'밭'끼를 하지요?}

10311 # 버'리'밭'끼 하'지유, 버'리'밭. {보리'밭'끼 하지요, 보리'밭.}

10311 @ 여'기 쫌 예'저'네 마'니 해'쌌'미까? {여기 좀 예전에 많이 했습니까?}

10311 # 옛날'레는 응, 귀'게 여'새' 인제 저 머'로르에, 으'에에, 버'리', 입, 버'리'를 요'샌' 쫌' 저'끼' 해'. {옛날에는 응, 그게 요새 인제 저 뭐냐, 어, 보리, 어, 보리를 요새는 좀 적게 해.}

10311 # 허'이 이 지'방으로는 버'리' 가'능' 게' 별'로 업'따'고, 이'진 말. {거의 이 지방에서는 보리 가는 게 별로 없다고, 이제는 말이야.}

10311 # 혹: 떠'러 이'찌만, 옛날'레는 이모'자'그로 거'이 버'리를 다 가'라'고, 노'네도 바'테도. {혹 더러 있지만, 옛날에는 이모'작'으로 거의 보리를 다 갈았고, 논에도 밭에도.}

10311 # 나'가지'언 학'생'들'또 동원'하'고 버'릴' 밭'바'따'이'께'네. {나아가서는 학생들도 동원하고 보리를 밟았다니까.}

10311 # 양'년' 시'비'월 이, 이'월, 이'월, 으'이, 이'월 이, 시'비'월 이'리, 이'월, 고 사'이'래'어. {양력 십이월 이, 일월, 이월, 어, 일월 이, 십이월 이, 일월, 그 사이에요.}

10311 # 곧' 두 달 사'이에 그'그'업 버'리' 이'으, 가'을'버'릴'르'겨 가'룽 게 버'리'밭'룽 게'라. {그 두 달 사이에 그것 보리 이, 가을보리를 가는 게 보리'밭'끼는 거야.}

10311 # 응, 봄'뽀'린'능 그'은 머 음'너, 어'지' 아'느'이'께'네. {응, 봄보리는 그것은 뭐 음, 얼지 않으니까.}

10311 # 가'을'버'리 가'러 나'땡 거'눔 올'로 완'데이 이'느'미 야'간' 투, 소'게 뽀'다'고. {가을보리 갈아 났던 것은 올라 왔는데 이놈이 약간 저, 솟아 버린다고.}

10311 # 소'게'능 걸' 라'두'면 어'러 가'주 뿌'리'거 주'거 뿌'기 때'므'레 이'거 무'체'라'고 밭'바 주'능 게'라. {솟은 것을 놔두면 얼어 가지고 뿌리가 죽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묻히

- 라고 밭아 주는 거야.}
- 10311 # 결과'저그로 어'째 무체'라꼬 밭능' 게'나 마차'이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묻히라고 밭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 10311 # 꼬'으, 그'래 해따'꼬. {그, 그래 했다고.}
- 10311 # 밀루'에, 밀'또 밭'바 조이' 데', 맡' 드영. {밀, 밀도 밭아 줘야 돼, 역시 뒤.}
- 10311 # 웅'으, 꼬, 갈:미'런. {웅, 그, 가을밀은.}
- 10311 @ 그 결'과저그로 어, 겨'울 라해, 겨'울 라'게 데'며느 해동하'음면서 보리'가 뜯'다, 그'지예, 뿌리가? {그 결과적으로 어, 겨울 나게, 겨울 나게 되면은 해동하면서 보리가 뜯다, 그렇지요, 뿌리가?}
- 10311 # 그'르치, 여으, 뿌얼, 뜨에, 따'잉 어'러 가주 봉: 떠 뿌'이께네 그, 그 뿌'리인 죽, 죽찌' 마라'꼬 밭'바 주능 게'러이. {그렇지, 여기, 뿌, 떠, 땅이 얼어 가지고 봉 떠 버리니까 그, 그 뿌리가 죽, 죽지 마라고 밭아 주는 거야.}
- 10311 # 결'과저우러 동해' 방'지래, 그'게. {결과적으로 동해 방지야, 그게.}
- 10311 @ 극, 그으:, 그'때 바리'바어, 보리'밭끼할' 때' 이'를 때 먼 노'래 불롱 거'나 이'렇 거'또 이'썸미'까, 앙 그'웅, 앙 그'럼므 그'냥 머 밭:꼬 치'움미'까? {그, 그, 그때 보리'밭기, 보리'밭기할 때 이'럴 때 뭐 노래 부른 것이나 이런'것도 있습니까, 안 그럼, 안 그'러며는 그냥 뭐 밭고 치'웁니까?}
- 10311 # 아'이지, 그'게'엡 밭'롱' 게' 임 마'알찐, 노'래하고 머' 으, 그'룽 건느 어:꼬', 혹' 학'상드리 동원'템'머 으'싸으'싸 그'문상 인제' 서로' 예'낄 자'꼬, 이'래 밭'바 가'음상 인저' 우'싸우'싸 금' 텡기'능 거'느 이'썸스'엑. {아니지, 그'게 밭는 게 이 말'이지, 노래하고 뭐 어, 그런 것은 없고, 혹 학생들이 동원'되면 으'싸으'싸 그러'면서 인제 서로 어깨를 잡고, 이'래 밭아 가'면서 인제 우'싸우'싸 그러'면서 다니는 것은 있었어.}
- 10311 # 그'른 네'느 이'썸도, 근'느 하'떼 일'바'닌드'름 머' 욱, 기'양 드'음, 기'양 잡'땀'해' 가'르'상 마'리야, 이'래 즈, 주'꿈 주'꿈 밭'바꼬. {그런 예는 있어도, 그런데 하'여간 일반인들은 뭐 어, 그냥 뭐, 그냥 잡'답'해 가'면서 말'이야, 이'래 저, 조금 조금 밭'았'고.}
- 10311 # 그 옰'나'래 인제' 그 머' 학생'드, 중'고'드, 초'고'에, 초'등'하, 학생'므'이, 중'우, 중'고 등'학생'더 음, 마'아 가'주 밭'블 땡'는 서로' 인제' 예, 겨, 이, 예'낄 리'끼, 이'래 지, 자'뽕'상 이'래 이'래 밭'바'고, 우'이'싸우'샤 금' 밭'반'째. {그 옛'날'에 인제 그 뭐 학생'들, 중'고 등, 초'등, 초'등'학, 학생'들, 중, 중'고'등'학생'들 음, 모'아 가'지고 밭'을 때'는 서로 인제 어, 그, 이, 어깨'를 이'렇게, 이'래 저, 잡'으'면서 이'래 이'래 밭'았'고, 우'싸우'싸 그러'면서 밭'았'지.}
- 10311 # 끝'른 네'느 이'썸'쭈. {그런 예는 있었어.}
- 10313 @ 호, 혹'씨' 그'거', 그: 밀'서'리너 콩'서'리나 이'렇 거' 예'음, 머' 해? {혹, 혹시 그'것, 그 밀'서'리나 콩'서'리나 이'런 것 어, 뭐 해?}
- 10313 # 해'찌, 그'르'체. {했'지, 그'렇'지.}
- 10313 @ 예'저'네 해: 봐'썸'미'까? {예'전'에 해' 봤'습니까?}
- 10313 # 음, 마'자'이. {음, 맞'아요.}
- 10313 @ 어'트'케 하'은'지 하'음'머? {어'떻'게 하'는'지 한'번?}
- 10313 # 예, 아이'래, 콩'쓰'리 아이'르'어. {어, 아니'야, 콩'서'리가 아니'야.}
- 10313 # 밀'사'리, 밀'사'리, 버'리'사'리, 콩'사'리, 사'리'라 그'으'따, 우리'. {"밀'사'리", "밀'사'리", "보'리'사'리", "콩'사'리", "사'리"라고 그'랬'다, 우리'는.}



- 10313 # 사'리, 밀사'리라 그능 언, 콩사'리. {서리, 밀서리 그러는 것, 콩서리.}
- 10313 # 그래' 인제' 에잉, 그게' 버리'가 인제' 이 여'무러 가'주, 밀', 버리' 또까치 여'무 거든. {그래 인제 어, 그게 보리가 인제 이 여'물어 가지고, 밀, 보리가 똑같이 여'물 거든.}
- 10313 # 이래: 나오'몽 그'능얼 뽀바' 가'주우 마'리야 이래 이그, 이, 저, 언니, 낭'글 이, 잉, 그, 보드란' 낭'글 리리 쭈어, 갈'비 거'통 머 나무 뽀'뎨이 거'통 거', 나무입' 꺼'통 얻 주마' 가'주어 부릴' 쥘'르 롬'머 그 인제' 이'래 소'누르 부'울, 래 돌'래 감'스암 이, 이쿠'먼 이'피, 그 싹해, 이 그 썸:미'가 타' 뿌고, 시커머'집 이'랩 비'베 가'주고 이'래 이'베 터'르 여'코 머'꼬. {이래 나오면 그놈을 뽀아 가지고 말이야 이래 이것, 이, 저, 어, 나무를 이, 이, 그 보드라운 나무를 이래 주워, 솔가리 같은 뭐 나무 북데기 같은 것, 나뭇잎 같은 것 주워 가지고 불을 질러 놓으면 그 인제 이래 손으로 불, 이래 돌려 가면서, 이 익히면 잎이, 그 싹, 이 그 수염이 타 버리고, 시커멓게 되면 이래 비벼 가지고 이래 입에 털어 넣고 먹고.}
- 10313 # 또' 콩사'리라 그'능 거'는 그 멍 마차'이래. {또 콩서리라 그러는 것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야.}
- 10313 # 콩'이 다' 이'거쓸 찌', 누름해'쓸 찌'게 뽀'바 가'주고 또 쿠아 읍, 불릴' 질'러 가'주우 거다' 인제' 이'래 자'끄 두베'머 이'켄'다'뽕. {콩이 다 익었을 적에, 누렇게 됐을 적에 뽀아 가지고 또 콩 어, 불을 질러 가지고 거기에 인제 이래 자꾸 뒤집으며 익힌다고.}
- 10313 # 그염' 코~' 인지' 시커머'끼' 이 시커머'췌' 에'익, 꼬'러 가'주구 그래 텨' 으, 그'넌 인제' 어, 꺼, 엔, 까머'거, 끈, 응, 콩사'리 한'다, 그 저네. {그러면 콩이 인제 시커멓게 이 시커멓게 이, 그을어 가지고 그래 되면 어, 그놈을 인제 어, 그, 어, 까먹어, 그, 응, 콩사리 한다, 그 전에.}
- 10313 # 그'래 텨' 이제' 밀'싸'리, 콩사'리 함' 이'베, 나'치 막: 시커머'치, 막, 꼬:러'미 무'더 가'주. {그래 되면 이제 밀서리, 콩서리 하면 입에, 낫이 막 시커멓지, 뭐, 그을음이 묻어 가지고.}
- 10313 # 그'래두 그'에' 마'신는 재미'러 마'래어. {그래도 그게 맛있는 재미로 말이야.}
- 10313 # 요새'능 그 머'라 거'드 자 람 머'으'게르. {요새는 그것을 먹으라 그래도 잘 안 먹을거야.}
- 10313 # 그 리 엔나'래 그 배'가 고'과 그래'꼬'든. {그것일 이 옛날에 그 배가 고파서 그랬 거든.}
- 10313 # 아이', 그'케, 머'진' 머'어더, 엔나'렌'능 그'게' 쥬'자이 심해'꼬'더. {아니, 그러게, 먹기는 먹어도,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거든.}
- 10313 @ 먹'으 게 업'쓰'니까 \*\*\*? {먹을 게 없으니까 \*\*\*?}
- 10313 # 아'함, 머'글 게 귀'해' 가'주이, 요새'느 꼬 머, 쥘, 이, 여, 응, 학생 아'드려 콩사'리 하'능 거 쯔:쳐'럼 어'옴 마'스로 그 어'테'억 학, 함'번 하'능 건' 바'도 엔'날' 거'치 그'키 심하'지'은 안'는'따'꺼, 요'샌'. {어, 먹을 것이 귀해 가지고, 요새는 그 뭐, 저, 이, 여, 응, 학생 아이들이 콩서리 하는 것을 쯔처럼 어떻게 맛으로 그 어디 한, 한 번 하는 것은 봐도 옛날 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요새는.}
- 10313 # 이 배'가 부르'이'께'네 마'리여. {이 배가 부르니까 말이야.}
- 10313 @ 그'업 콩사'리나 머: 그'거, 콩사'리나 밀사'리나 이'러' 거 하'며'너 짐: 쯔' 낭'어 집

꺼 하'며는 머'라 아 함'미까? {그 콩서리나 뭐 그것, 콩서리나 밀서리나 이런 것 하면은 그 좀 남의 집 것 하면은 뭐라 안 합니까?}

10313 # 머'라 커'제이씨. {뭐라고 하지요.}

10313 # 주이'니 보'면 주께'지. {주인이 보면 뭐라 하지.}

10313 # 웨: 나'모, 고, 코, 콩사'릴 입데, 꼬, 콩'을 꺼' 카노 그'래지마느 근 장나'느론 처 주'고, 글'때는. {왜 남의, 콩, 콩, 콩서리 이, 콩, 콩을 꺾고 그러나 그러지만은 그것은 장난으로 처 주고, 그때는.}

10313 # 또 모'두가 이해'를 해따'꿔. {또 모두가 이해를 했다고.}

10313 @ 그'언데 그 인제'억 예정' 가'트며 그 어'쨌든 거'름 부부'네스 쪼끔 이해'느 해' 주 따, 그'지예? {그런데 그 인제 예전 같으면 그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는 해줬다, 그렇지요?}

10313 # 잉, 그, 그'러체여, 여이, 찌, 이, 찌, 찌 마여이 예음, 머타' 꺼'트며 야단'너언능, 야다'안데, 또' 그 밤며'네 머'그라 그'능 게 어'이, 항 가지 인제 옌나'렌능 인 수박서'리, 위서'리라 그'능 게 이써따꼬. {이, 그, 그렇지요, 이, 저, 이, 저, 좀 많이 어, 무엇 할 것 같으면 야단은, 야단인데, 또 그 반면에 뭐라 그러는 게 어, 한 가지 인제 옛날에는 이 수박서리, 참외서리 그런 게 있었다고.}

10313 # 흐른'데 인제' 위: 따무'으러 나'무 바'테 마'리아, 이 차멜' 시'며 노'머여, 누:런 차'메 마'리아, 꼬어'기 결과'저그론 은, 위릴' 흙'체러 가'능 게라. {그런데 인제 참외 따 먹으러 남의 밭에 말이야, 이 참외 심어 놓으면, 누런 참외 말이야, 그게 결과적으로 는 어, 참외를 흙치러 가는 거야.}

10313 # 바'메, 초저녀'게 설근'설근' 나'무이, 주이'넌, 이 여'어능 그 마'글 윈드마'기라 근'다 꼬. {밤에, 초저녁에 슬금슬금 남의, 주인은, 이 여기는 그 막을 윈두막이라 그런다고.}

10313 # 윈드마'게 주'이니 잔'다꾸, 그'어서. {윈두막에 주인이 잔다고, 거기에서.}

10313 # 저'으 수박하'꾸 시'며 노'코느. {저기 수박하고 심어 놓고는.}

10313 # 그래'므 거 인제' 저:쫘' 수박빠치며'이 여'으성 우리' 인제' 칭'구들끼리, 무 두리문 서인, 서이 나아 가즈영 수박' 따므'어러 가자', 차메' 따므'어러 가'자, 그이 결과'저'그로 음, 흙'쳐 멍'능 게리, 그거'넌. {그러면 그 인제 저쫘이 수박밭이면 여기에서 우리 인제 친구들끼리, 뭐 들이면 셋, 셋이 나와 가지고 수박 따먹으러 가자, 참외 따먹으러 가자, 그게 결과적으로 음, 흙쳐 먹는 거야, 그것은.}

10313 # 그래 가주' 인제' 살짝' 기이' 드가 가'주고 그'너덜 이이, 이'런 쓰봉'을 번다'꼬. {그래 가지고 인제 살짝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놈을 이, 이런 바지를 벗는다고.}

10313 # 쓰봉'을 버'더 거'드이 여'어를 메' 뿌고 여다' 따' 연'다구. {바지를 벗어 가지고 여기를 메 버리고 여기에다 따 넣는다고.}

10313 # 그래' 여 찌, 쓰봉, 뽀'쓰만 이'꼬, 여다' 여'가주 인제' 이'래 켜 인, 찌, 찌, 질'떨찌 구 라온' 수도 이'꼬, 또 이'래' 머 들'고 나온' 수'도 이'꼬, 그은 머 때'에 따'라 다름 응게고. {그래 여기 저, 바지, 팬티만 입고, 여기에다 넣어서 인제 이래 저 이, 저, 저, 짹어지고 나오는 수도 있고, 또 이래 뭐 들고 나오는 수도 있고, 그것은 뭐 때에 따라 다른 것이고.}

10313 # 수, 수, 수박' 꺼'통 언 또 겨, 그느 이, 엽, 굴:거 노'이쨌 항' 개배끼 모 까즈온다 꼬. {수, 수, 수박 같은 것은 또 그, 그것은 이, 어, 꺾어 놓으니까 한 개밖에 못 가져온다고.}

- 10313 # 응, 그'른 네'도 그, 그'게' 재미'이따꼬, 그'래다 노'으며 인제' 예'를' 뜨'러 가'주우 다들레' 노'으며 마'려이, 주이'니 요놈들: 커'우 웨 인 나'무 웨'를 웨' 따노, 수바'글 웨 따'너, 그 핵'득 다리'에 내'려오노, 드툼'드툼' 내'려온다구, 그'램 여'어 이'씀니다, 커'면 수바'글 내'던'지고 향'열, 향'게 나온'다꾸, 디에', 제르'띠에' 싸'렁구, 놀'래내라 꼬, 쭈이러. {어, 그런 예도 그, 그'게 재미'있다고, 그'래다 놓으면 인제' 예'를 들어 가지 고 들켜 놓으면 말이야, 주인이 요놈들 거기 왜 이 남의 참외를 왜 따느냐, 수박을 왜 따느냐, 그 겹'싸게 사'다리를 내려와, 주춤주춤 내려온다고,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수박을 내'던'지고 밖, 밖에 나온다고, 뒤에, 제일 뒤에 사람이, 놀리'느라고, 주인을.}
- 10313 # 형, 그', 그'른 네'도 이'씨따이'끼러이. {응, 그, 그런 예도 있었다니까.}
- 10313 # 꼬'거, 이 그, 그'큰' 장'나'니'공. {그것, 이 그, 그것은 장'난'이고.}
- 10313 @ 꼬'엔데 어'제'쁜 예'저'네'스 그'룽 게 쫘' 이'씨'따, 그'지'예? {그런데 어'제'든 예'전에 는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렇지요?}
- 10313 # 이, 이'서'껌, 이' 짜'네, 마'네'씨, 글'떠'느이, 였'나'른. {있, 있었고, 있지 않아, 많았 어, 그때는, 옛날에는.}
- 10313 @ 그'아'무 이 동'네'에 그'연 차'메'나 그'업: 수'박' 까'통' 걸 재'배'하'기도 한'네'예, \*\*? {그러면 이 동'네'에 그 참'외'나 그 수'박' 같은 것'을 재'배'하'기도 했'네'요, \*\*?}
- 10313 # 어'어, 더'러 해'쨌'어. {어, 더'러 했'지.}
- 10313 # 어'이, 더'러 해'쨌'어. {어, 더'러 했'어.}
- 10313 # 마이'넴 안' 해도 인제' 어'에, 드'문'드'문' 상'꼬'레 인제' 여'로 마'거 저'짜' 꿀, 이'짜' 고'레' 인제' 메' 쥼'스 해'쨌'어. {많'이는 안' 해도 인제' 어, 드'문'드'문' 산'골'에 인제' 여'기 말 고 저'쪽' 골, 이'쪽' 골'에 인제' 몇' 집'씩 했'어.}
- 10313 # 한' 동'네' 한' 대'여'서 쥼'쥼' 해'따'꾸. {한' 동'네'에서 한' 대'여'섯' 집'씩 했'다고.}
- 10313 @ 어'르'신 그'럼'떠'느' 흑'씨' 예'저'넌' 닥'서'리'나 이'러'링' 거'는, 닥'사'리'나 이'러'링' 건' 아' 해' 겠'지? {어'르'신 그'러'면'은 흑'씨' 예'전에 닥'서'리'나 이'러'는 것'은, 닥'서'리'나 이'러'는 것'은 안' 하'셨 습'니까?}
- 10313 # 아'익, 어, 어, 인, 쯔, 쯔, 처'기 달'뚜 자'암'머'으'경. {아, 어, 어, 이, 저, 저, 저'기 달' 도' 잡'아'먹'어.}
- 10313 # 거' 인'뜨. {그' 인'제.}
- 10313 @ 그'러'링' 꺼'또 해'쓰'미? {그'런' 것'도 했'습'니까?}
- 10313 # 달'도 인, 달'두 자'아'머'어. {닭'도 이, 닭'도 잡'아'먹'어.}
- 10313 # 어'편' 나'리'거, 달'두 자'아'름' 게 인제' 그'게 멍' 배'가 고'프'이 그'룽' 게'라. {어'편 일'이'냐, 닭'도 잡'아'먹'은 게 인제' 그'게 역'시 배'가 고'프'니 그'런' 것'이'야.}
- 10313 # 저'녀'그'로 인'저' 으'이, 이'래 모'에' 노'다' 보'든, 요'샌' 인제' 머' 점'부 직'짜'아 나'가' 고 점'부 그'리'음 바'쁘'이 그'치'뜨, 였'나'룽' 벨' 직'짱'도 어'꼬' 주'로 인'테' 농'경' 사'회'느' 잉, 농'사'지'꼬 사'는' 사'럼'더'느' 무' 같' 떼'가 어'꼬'등, 마'카' 한' 동'네' 여' 모'도 모'에' 사' 이'끼'네 오'느'름 머' 침'방'엿' 머, 음, 모'엔'다'든'지, 그'르'이'으 기'여'레 추'울' 땀' 누' 집' 사'랑'에 모'인'다'든'지, 호'레 모'에' 노'다' 보'며' 설'툼'함'머' 누' 집' 디, 달' 짜'아'무'러' 가' 자, 그'르' 인제' 으, 크'래 카'주'고 메'치 가'쓰' 은'제' 달'거' 한'두 마'리 짜'바 가'주' 와'서, 그'어' 먹'따' 그'에 다'들'렌' 또' 야'단'남'니다. {저'녁'으로 인제' 어, 이'래 모'여' 놀'다 보'면, 요'새'는 인제' 뭐' 전'부 직'장'에 나'가'고 전'부 그'래 바'빠'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별' 직'장'도

없고 주로 이런데 농경 사회는,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뭐 같 데가 없거든, 모두 한 동네 여기 모두 모여 사니까 오늘은 뭐 넷독에 뭐, 음, 모인다든지,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는 누구 집 사랑에 모인다든지, 그래 모여 놀다 보면 출출하면 누구 집 닭, 닭 잡아먹으러 가자, 그래 인제 어, 그래 가지고 몇이 가서 인제 닭을 한두 마리 잡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다가 그 들키면 또 야단납니다.}

10313 # 거 영'겨 달'걀 무'르준 수'두 이'썸, 잠타며. {그 어디 닭값 물어주는 수도 있어, 잘못하면.}

10313 # 영, 거, 우웸, 모, 주'이니 달라' 짐' 조이' 데'지 우'엔노 말다. {응, 그, 어, 뭐,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 어떻하겠느냐 말이야.}

10313 # 그러 무'러달'라 근, 존, 사'럼더 저:꼬, 또 메, 으에, 또 그은 고'마 장'나느로 쳐' 뿌고, 그래 가주우 하으, 으에아, 한' 동'네 사'럼'드리이께네 구'체'도 어'꼬', 기'양 너' 머가저이. {그래 물어달라고 그러는, 저, 사람도 적고, 또 뭐, 어, 또 그것은 그만 장난으로 쳐 버리고, 그래 가지고 한, 어, 한 동네 사람들이니까 구'체'도 없고, 그냥 넘어가지.}

10313 # 야다'너 치지'. {야단은 치지.}

10313 @ 그러치예? {그렇지요?}

10313 # 응, 야단'치유 너머어우. {응, 야단치고 넘어가고.}

10313 # 고다'으메 그'룽 게 마'내'찌. {그다음에 그런 게 많았지.}

10313 # 마'내'썸. {많았어.}

10313 # 또' 그러'코 인제' 저: 머'로, 집상'총 거'튼 데'는, 우리' 동네'뿐 아'이래 아:문 데'을 더 거 머, 그 집'썸'엄, 무'섬 머 박'까든찌 강'가'든지 머' 유'가'든지, 유'씨'든지 하'응, 그 동네' 집'썸'초니 이'끄'드. {또 그렇고 인제 저 뭐냐, 집성'촌 같은 데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아무 데나 그 뭐, 그 집성'촌, 무슨 뭐 박'가'든지 김'가'든지 뭐 유'가'든지, 유'씨'든지 하는, 그 동네 집성'촌이 있거든.}

10313 # 꼬'은 데, 마이' 모'에 산 데'늬 사'웨'라꼬 와', 장'가'움 사'럼' 인제' 우리' 일'가 딸'딸'한테 장애, 그 손'니미 움'므 새'소'니러 그'래, 그 사'럼. {그런 데, 많이 모여 사는 데는 사'위'라고 왜, 장'가'온 사'럼 인제 우리 일'가 딸'들'한테 장'가, 그 손'님이 오면 새'손'이라 그래, 그 사'럼을.}

10313 # 사'으, 새'소'니래. {새, 새'손'이야.}

10313 # 거'게 모'에'면 이, 인제' 으, 사'웨'드리 으, 오'면 거'어 가'서 으'너 사'웨' 데'루 장'난'똥'녀, 압'체 가'주 인제. {거기에 모'이'면 이, 인제 어 사'위'들이 어, 오면 거'기에 가'서 인제 사'위를 데'리고 장'난'쳐, 앞'세'워 가'지고 인제.}

10313 # 거, 이거 떠 인 달'또 자'아'머거. {그, 이것 또 인제 닭도 잡아먹어.}

10313 # 사'웨'릴 압'소'워 가'주고. {사'위를 앞'세'워 가'지고.}

10313 # 거:, 이, 저, 드, 장'나'니라. {그, 이, 저, 저, 장'난'이야.}

10313 # 그래'테'엔네 그 지'베 가'서'똥, 그 지'비'션 위 달'기 똥: 게로 그'면 어'어'이, 그, 사'아가 자'보'와따, 크'런 장'난'초'루, 그'래 가'주우 가'치 그'결 꼬'아 머'꼬, 노'기'도 하'고, 그'런 내'기 이'서. {그래 됐는데 그 집에 가'서'는, 그 집'에서'는 이 닭이 왜 것이냐 그러'면 어, 그, 사'위가 잡'아'왔다, 그'런 장'난'조'로, 그'래 가'지고 같이 그것을 고'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어.}

10313 # 금'머' 별'짱'나'니 마:네. {그 뭐 별'장'난'이 많'아.}

- 10313 # 마:능'게요. {많아요.}
- 10313 # 응, 흥'이 그'룽 게 마:네. {응, 흔히 그런 게 많아.}
- 10313 @ 일뜨암 머 그'때 머' 다른' 노'리도 어꼬', 또 머글 꺼또 어꼬, 그러니까? {일단 뭐 그때 뭐 다른 놀이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 10313 # 을, 그르, 다른' 노'리도 어, 어, 어:꼬', 또 쎄거, 아, 아, 집썰'초니 지, 절'른 사'럽 드리 마카' 모에'이 이'쓰께 으'테 나가'도 한'동네 마카' 다 이'썰 모에'무 머 이심' 념, 삼'심 명숙' 데'이께네 으, 장난'도 치'고 그'른 네거' 마'네. {어, 그래, 다른 놀이도 없, 없, 없고, 또 저, 아, 아, 집성촌이 저, 젊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있으니까 어디 나가도 한 동네 모두 다 있으니 모이면 뭐 이십 명, 삼십 명씩 되니까 어, 장난도 치고 그런 예가 많아.}
- 10313 @ 또 사'위 가'통 경우'넌 머' 별'로 머라 칼' 수도' 어꼬'? {또 사위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 10313 # 어, 그'러치. {어, 그렇지.}
- 10313 @ 새'손이니까, 그지예? {새손이니까, 그렇지요?}
- 10313 # 허, 그'이가 새소'잉끼따 그, 어, 중, 긴, 그'래가주 인제' 압싸'아 가'주 장난한' 수도 이'썰, 그 사'웨르 압싸'아 가'주. {어, 그러니까 새손이라서 그, 어, 저, 그, 그래서 앞세워 가지고 장난하는 수도 있어, 그 사위를 앞세워 가지고.}
- 10314 @ 그더'으미 그: 어르'심 보리'찌비나, 버리'찌비나 밀'쩍 까'통 경우'너 주'로 머:에 사용해'씀미까, 이 동네에서너? {그다음에 그 어르신 보릿짚이나, 보릿짚이나 밀짚 같은 경우는 주로 뭐에 사용했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 10314 # 버리'쩍, 밀'쩍 꺼통 거:는' 주로' 퇴비'에, 마:구'에 여'어 가'주고 마구' 거르'덜 맨 드'러찌. {보릿짚, 밀짚 같은 것은 주로 퇴비에, 마구에 넣어 가지고 마구 거름을 만들었지.}
- 10314 # 마'구 거'르름 맨드'구, 또' 머' 머탄 지'베는 으언, 나무'로도 때'꼬, 나쁘', 뜨어, 썰어어어, 브어'케 굶'불또 여'코, 그'래도 썬'꼬, 먼 다른'능 그, 그'래배께 썬'능, 느 쓰, 썬'능 건 엽따. {마구 거름을 만들고, 또 무얼한 집에서는 어, 나무로도 땀고, 나무, 뭐 썬, 부엌에 군불도 넣고, 그래도 썬고, 뭐 다른 그, 그'래밖에 썬, 썬, 썬 것은 없어.}
- 10314 # 근 머이 짐 니'능 거'또 아이'코 하이 때'프레. {그것은 뭐 짐 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 10314 @ 머 이'령 보리'찌비나 밀'쩍 이'령 거'너 그 방서'이나 이'령 거'눔 머' 암 만드러 썬? {뭐 이런 보릿짚이나 밀짚 이런 것은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은 뭐 안 만들었습니까?}
- 10314 # 아이'찌여, 그'는 방성' 맨등 거'언 지'푸로 만'드고, 밀'쩍, 음, 버리'쩍 거'통 거'녕 이, 그그'는 여'어섬 머어 그, 그'룽 기'술또 어꼬', 공예'푸덜 몸: 맨'드러, 그언너. {아 니지요, 그런 방식 만드는 것은 짚으로 만들고, 밀짚, 음, 보릿짚 같은 것은, 그것은 여기에서는 뭐 그, 그런 기술도 없고, 공예품을 못 만들어, 그것은요.}
- 10314 # 응, 거, 그, 그'룽 거'는 머 봉테'이도 몸 맨'드고, 머 소구'리도 모 싸'암, 몸 맨드'고, 주로' 고'마 퇴비', 화:모'그로 썬'찌, 머. {응, 그, 그, 그런 것은 뭐 바구니도 못 만들고, 뭐 소쿠리도 못 싸, 못 만들고, 주로 그만 퇴비, 화목으로 썬지.}
- 10314 # 그'으구 굶'불 때:꼬. {그리고 군불 때고.}

10314 # 겁' 머' 저으, 걸 또 어여, 소' 여물' 찐'는 데'도 쓰고, 찜:는 데'도. {그 뭐 저, 그 또 어, 소 여물 삶는 데도 쓰고, 삶는 데도.}

10314 # 그'래 써'찌, 머. {그래 찼지, 뭐.}

10315 @ 그다'으메 그읍, 그 응, 곧', 여'기늬 머 옥썴'수나 이'렇 거, 강내'이는 재배' 안 함? {그다음에 그, 그, 응, 그, 여기는 뭐 옥수수나 이런 것, 옥수수는 재배 안 함 니까?}

10315 # 시'머데, 이그. {심여요, 여기.}

10315 # 강내'이는 재배해'요. {옥수수는 재배해요.}

10315 # 그'은 머'으 거'이가, 대량'으론 안' 허'이. {그것은 뭐 거의가, 대량으로는 안 해요.}

10315 # 요즈'멈 머' 어여, 그으'겐 대량'으로 한' 데' 익, 이뜨'라꼬, 저 우'여 올라가'다 보' 이젠 마'에지에 한 서'너 마지이 텐' 데' 점먹 강내'이 다 해 거주. {요즘은 뭐 어, 그 게 대량으로 하는 데가 있, 있더라고, 저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말이지, 한 서너 마지 기 되는 데 전부 옥수수 다 해 가지고.}

10315 # 그으'또 인제' 예:, 머'으 으, 거 달'리 쓰'능 거' 아리오, 그'르에 대량'으로 하'능 건 사료'로 쓰'드라꼬. {그것도 인제 어, 뭐 어, 그 달리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량 으로 하는 것은 사료로 쓰더라고.}

10315 # 허'구 억, 그걸' 마'구 비: 가'주 인제' 고'마 그 저 욱, 욱, 그 머'로, 으, 어으, 슨, 어, 이'래 둘똥 마'라 가'주오 마'리찌 으, 소 메'기 하'드라꼬, 본네으. {그래 어, 그것 을 마구 베 가지고 인제 그만 그 저 어, 어, 그 머냐, 어, 어, 스, 어, 이'래 둘똥 말아 가지고 말이지 어, 소 먹이 하더라고, 보니까.}

10315 # 소' 사료', 소 메'기로. {소 사료, 소 먹이로.}

10315 # 응, 으, 응, 보충'을 하'드라꾸. {응, 어, 응, 보충을 하더라고.}

10315 # 소 메'기로 하'구, 그'르치 아'늬 인제' 이'른 찌, 지' 꺼튼 데'는 저 바' 까', 어열, 찌, 집 뜨'레, 이'리어 담: 밀', 머 언, 언, 은, 저 박' 기사'리 으, 꼬, 그'른 두루 나감' 상 더'러 시'머 가'주우 쟁여, 음. {소 먹이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제 이런 집, 집 같은 데는 저 밭 가, 어, 지, 집 뜰에, 이리 담 밀, 뭐 어, 어, 어, 저 밭 귀퉁이 어, 그, 그런 데로 나가면서 더러 심어 가지고 짓고, 음.}

10315 # 마:스'로 먹'찌. {맛으로 먹지.}

10316 @ 거 여'기늬 머: 다름' 머 트'공 장'무른 관씨:'리나 이'렇 거는 별'로 하'능 게 업쓰' 미까, 이' 동네는? {그 여기는 뭐 다른 뭐 특용 작물은 과실이나 이런 것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까, 이 동네는?}

10316 # 머'? {뭐?}

10316 @ 트'공 장'물'로 과실' 가'통 겁, 과이'리 재배하'능 건? {특용 작물로 과실 같은 것, 과일 재배하는 것?}

10316 # 과:실' 거'통 건 여'에 벨'로 아 우거, 이에 지, 써, 옌나'레 사'과가 여'어 메 찌피 해'쓰억. {과실 같은 것은 여기에 별로 안 하고, 여기 저, 사, 옛날에 사과를 여기에서 몇 집 했어.}

10316 # 과실', 사가바'치, 사가바'치 이'쨌데, 그거' 이 요'샌 여'거 그 사'과가 잘 안 데드' 라꼬. {과실, 사과밭이, 사과밭이 있었는데, 그것 이 요새는 여기 그 사과가 잘 안 되더라고.}

- 10316 # 기후'가 타'심 모'애이라. {기후가 탓인 모양이야.}
- 10316 # 그 병이' 생'기가주 낭'게 불화'뽕이랑 기' 생'기 가'주우 사'과가 반'저미 생'기고 머 가치'가 업써 가주우 으, 다: 비 뿌'려따꼬, 연. {그 병이 생겨서 나무에 반점병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사과가 반점이 생기고 뭐 가치가 없어 가지고 어, 다 베 버렸다고, 여기는.}
- 10316 # 여'는 트쭈한' 응, 과시'른 업따'꾸, 여'이는. {여기는 특수한 응, 과실은 없다고, 여기는.}
- 10316 @ 거'름 주'로 어, 논농'사하고 반농'사먼? {그러면 주로 어, 논농사하고 밭농사만?}
- 10316 # 글'지여, 논농'사, 반농'사, 또 인저' 과시'라 꺼를 인저' 이 위, 수이, 요샌' 너 수바' 칸 사'러미이 드'러 만타'꿈, 메 쥼 데드'라꼬. {그렇지요, 논농사, 밭농사, 또 인제 과실이라 할 것은 인제 이 참외, 수박, 요새는 여기 수박 하는 사람이 더러 많다고, 몇 집 되더라고.}
- 10316 # 그르'꼬, 거 인 쭈, 주로' 또' 인제' 축산 하'는 사람, 소 메'긴 사람'드리, 소 메'긴 사람'드리 메' 쥼' 이'꼬, 그'래 다룅' 건 머' 여'게 부어'브로 하'능 건 은, 벨'로 업따'꼬, 여'게 마'르에. {그렇고, 그 이 주, 주로 또 인제 축산 하는 사람, 소 먹이는 사람들이, 소 먹이는 사람들이 몇 집 있고, 그래 다른 것은 뭐 여기 부업으로 하는 것은 어, 별로 없다고, 여기 말이야.}
- 10317 @ 흑씨' 예저'네 그어 이 받뚜'기나 드리'나 이'러은 데' 나'늬 풀 이'르미나 머' 나물 이'름가, 나물' 가'통 그어 쭈 이 동네'엔 머' 어'땡 기' 주'로 인는'지 아시'는 데'로 꼬 함 이야기'해 주이'소. {흑시 예전에 그 이 밭독이나 들이나 이런 데 나는 풀 이름이나 뭐 나물 이름, 나물 같은 것 좀 이 동네에 뭐 어떤 게 주로 있는지 아시는 데로 그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10317 # 그'래, 흑, 마'자, 그거으, 그 얘기 그래. {그래, 어, 맞아, 그것, 그 이야기 그래.}
- 10317 # 바둑' 꺼'튼 데 가'면, 논뚜'게도 그'에 이'씨어. {밭독 같은 데 가면, 논둑에도 그게 있어.}
- 10317 # 바둑' 거떠이 이, 양'넉 사'멸따래 감'면 쭈'기 난'더, 쭈'기랑 거. {밭독 같은 이, 양력 삼월에 가면 쭈이 난다, 쭈이란 게.}
- 10317 # 쭈'기 그걸' 뜨'더 가'주우설랑 그 멍 억, 그 갈'글 무'쳐가주 마'아찌, 밀'깎'글 무'쳐 가'주우 마'알찌, 그 몫, 머, 그'래가주 쥼' 가주고 채바'네다, 채바'니러 근 데'다 이'렐' 쥼' 가주고 그래여웁 그걸' 머'으멍 마시'따꼬, 그'에'요. {쭈이 그것을 뜯어 가지고서는 그 뭐 어, 그 가루를 묻혀서 말이지, 밀가루를 묻혀 가지고 말이지, 그 뭐, 뭐, 그래 가지고 쥼 가지고 채반에다, 채반이라고 그러는 데다 이래 쥼 가지고 그래 그것을 먹 으면 맛있다고, 그'게'요.}
- 10317 # 이, 요즘' 배'가 부른' 사'훼'라도 그'염 마시'쥼, 그'게'. {이, 요즘 배가 부른 사회라도 그게 맛있어, 그'게.}
- 10317 # 또' 그 궁'강'에 조타'네, 그'게'요. {또 그 건강에 좋다네, 그'게'요.}
- 10317 # 조아가'주 그'래 쥼' 멍 사'러미 망'코', 그 쭈'걸. {좋아 가지고 그래 쥼 먹는 사람이 많고, 그 쭈을.}
- 10317 # 또' 그르'치 아'음 그 쭈'걸 뜨'더 가'주우설랑 요'주'면 냉'장'고 고'마 아'네 노이 마'래, 쌀'마 가'주오, 쭈'걸 쌀'마 가'즈여, 썸'는'당 거' 은'저' 불 때 가'조임 이'킨'담 마'려, 인제' 에, 소'테'다, 가'마'소'때 쌀'마'가'주 그'누'를 씨'이'가'주 췌'기'로 뭉'치'드'라꼬. {또 그렇

- 지 않으면 그 쑥을 뜯어 가지고설랑 요즘은 냉장고 그만 안에 놓으니 말이야, 삶아서, 쑥을 삶아 가지고, 삶는다는 게 인제 불을 때 가지고 익힌다는 말이야, 인제 어, 술에다, 가마솥에 삶아 가지고 그놈을 씻어 가지고 채기로 뭉치더라고.}
- 10317 # 채기'르 짜' 가즈설랑 냉장고 보과'늘 하'드라꽁. {채기로 짜 가지고설랑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고.}
- 10317 # 냉장'고이 여'어가주 나'와똥머 올래, 올보'메 그래 나'씨먼 이, 인제 숙' 저 뿌고 또 인제' 올' 파'릴, 구'월, 시위'레능 이 쑥'기 조오 몸 머꺼'드, 너무 씨'우꼬 해 가주고. {냉장고에 넣어서 놔두면 올해, 올봄에 그래 났으면 이, 인제 쑥 저 버리고 또 인제 올 팔월, 구월, 시월에는 이 쑥이 좀 못 먹거든, 너무 쓰고 해 기지고.}
- 10317 # 글'때 인제'어 두꿈 함 뭉'찌, 한 재'기쌍 내 가'주고 인제 방까'네 가'주 가'. {그때 이제 조금 한 뭉치, 한 채기씩 내 가지고 이제 방앗간에 가지고 가.}
- 10317 # 요제' 떡찌'베, 떡뽕'까니르 근' 데 가. {요새 떡집에, 떡방앗간이라 그러는 데 가.}
- 10317 # 떡뽕'간네르 감'명 그'놈하꼬 으, 쌀라'코 부'등어, 한 떼' 고'마 빠'아 뿌드라꼬. {떡방앗간에 가면 그놈하고 어, 살하고 부어서, 한 데 그만 뽕아 버리더라고.}
- 10317 # 빠'아 뿌'이께 쑥떠'기 데드'라 꾸우게. {뽕아 버리니까 쑥떡이 되더라고 그제.}
- 10317 # 쑥떠'으거, 또' 구'러치 아느'명 그걸 인제' 기'여레, 예를 뜨러 가주 인제' 시비이, 시, 이, 시'비릴, 시비'월리, 이'월, 이월' 이 사이 인제' 머' 아프꺼'또 어, 어어'슬 때 그'글가주 또 짜'아가주 쑥떡'뜨 해앰 머꾸. {쑥떡을,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제 겨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제 십이, 십, 이, 십일월, 십이월, 일월, 이 사이에 인제 뭐 아무것도 어,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뽕아 가지고 쑥떡도 해 먹고.}
- 10317 # 또 구걸' 또'오 갈'글 무'쳐 가주서러이 찌드'라꼬이. {또 그것을 또 가루를 묻혀 가지고설랑 찌더라고.}
- 10317 # 찌'이께네 으, 그거'뚜 마시드'라꾸, 쑥떠'기라 그능 거. {찌니까 어, 그것도 맛있더라고, 쑥떡이라 그러는 것.}
- 10317 # 크'래 머'꼬. {그래 먹고.}
- 10317 # 어, 어, 읍, 그, 그 쑥'기라 그'능 게' 그 농'촌네는 사용 가치가 팽'자이 만타' 구'이께네, 그. {어, 어, 어, 그, 그, 쑥이라 그러는 게 그 농촌에서는 사용 가치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
- 10317 # 그'른데 그, 그제'쓰 농'초뽕 아'이래 여인 지'베 요새'느 인제' 도'시 나'가 인'년 사'람드이 그거' 쫂 해' 달라꼬 자'꾸 우, 부'모들한때이 전활' 한'다꼬. {그런데 그, 그제 농촌뿐 아니라 여기 집에 요새는 인제 도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 좀 해 달라고 자꾸 어, 부모들한테 전화를 한다고.}
- 10317 # 올'개 그이, 그 쑥'걸 쫂'마이 뜨'더 달라꼬 마'에지여, 크'래 거 부탁'또 하'고 그 도'시 사'름도우 그걸' 조'아 근'데이. {올해 그, 그 쑥을 좀 많이 뜯어 달라고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부탁도 하고 그 도시 사람도 그것을 좋아 한데요.}
- 10317 # 그, 이거 경강' 시'푸미라네여. {그, 이것 건강 식품이라네.}
- 10317 # 그'이 참' 조타'이더, 그'게. {그게 참 좋습니다, 그제.}
- 10317 # 그여, 여즙, 사림' 이으, 임'마또 땡게'고 으, 경강'도 조:코 그;른데으 꼬, 그릉 기고. {그, 저, 사람 이, 입맛도 당기고 어,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 그런 것이고.}
- 10317 # 그 밤며'네 또' 인제' 한', 기'열 한 으으은, 찌, 양'녀 거염, 이'릴, 이월', 고 사'이에 인제' 받뚜렁', 바'테 뜨 나'먼 쑥'기 이, 참', 이, 언, 나새'이랑 기 이'씨, 나새~'이.



{그 반면에 또 인제 한, 겨울 한 어, 저, 양력 그, 일월, 이월, 그 사이에 인제 발두령, 밭에 또 나가면 쭉이 이, 참, 이, 어, 냉이라는 게 있어, 냉이.}

10317 # 나새'이라 그'는 나무'리 인'테, 그 나물'또 인제' 정'월따래 텨'먼 정'월 보'름저께 가'머 인제' 으, 보'루무 신:다'꼬 인제' 그 보'름 으으은, 나무'르아 그'래검저쓰 어이, 나'이 뜨'드루 가'. {냉이라 그러는 나물이 있는데, 그 나물도 인제 정월이 되면 정월 보름쯤에 가면 인제 어, 보름을 천다고 인제 그 보름 어, 나물이라 그러면서 어, 냉이 뜯으러 가.}

10317 # 인제 부'인들, 처녀'드리 나가 바'테 가'주 인제' 이릉 거 으여, 너으, 흐끄, 가르, 카'럴 들'고 나가주 고'눔 요'리 뽕'꼬 따드'머 가주설렁 그걸 린제' 콩가루'우라 그'러, 여'느 인제' 콩깍'글 빠'아 농' 걸 무'쳐 가주고 구'걸 끼'레 머'꼬, 응, 그게' 마시'따꼬, 나새이꾸'기라 그능. {인제 부인들, 처녀들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인제 이런 것 어, 어, 흙, 칼, 칼을 들고 나가서 그눔을 요래 뽑고 다듬어 가지고설랑 그것을 인제 콩가루라 그러는, 여기는 인제 콩가루를 뽕아 놓은 것을 묻혀 가지고 그것을 끓여 먹고, 응, 그게 맛있다고, 냉잇국이라 그러는.}

10317 # 그르'코 금 머 어, 거, 두이, 다눔' 명'으 기 웨드 내 모'른 나무'리 만타'꼬요. {그렇고 그 뭐 어, 그, 저, 다는 뭐 그 외에도 내가 모르는 나물이 많다고요.}

10317 # 다' 알 쭉'느 어코'. {다 알 수는 없고.}

10317 # 그'르코, 또' 여 속새'라 그'능 게 이'써. {그렇고, 또 여기 "속새"라 그러는 게 있어.}

10317 # 썸바'구라 그'르기기도 하'고. {썸바귀라 그러기도 하고.}

10317 # 그, 그거'또 인제' 뿌'리쥼 뽕'머 가'주언, 논뚜'럭, 바뚜'게 거'이 다 이딱, 그'릉 거 으. {그, 그것도 인제 뿌리쥼 뽕아 가지고, 논두렁, 밭둑에 거의 다 있다고, 그런 것.}

10317 # 그'느를 뽕바 가'주고 여흔 우리지'베 보'이께네 그걸' 뽕'바 가'저이 이, 이래 칼'로 드엽, 뿌'리느 이래 따듬뜨'라꼬, 이'래, 이으 허, 혈라'썸 빼'끼 뿌'고 씨'이 가'주설랑 그걸' 머 예 설쩍' 쩌' 가'주우 마'리야, 그'러 무쳐 노'이께네 밤마'시 쩌, 이 존트'라꼬, 그'게. {그눔을 뽕아 가지고 여기 우리집에 보니까 그것을 뽕아 가지고 이, 이래 칼로 저, 뿌리는 이래 다듬더라고, 이래, 이 흙, 흙하고 벗겨 버리고 씻어 가지고설랑 그것을 뭐 이래 살짝 쩌 가지고 말이야, 그래 무쳐 놓으니까 밥맛이 좋, 이 좋더라고, 그게.}

10317 # 어우, 그걸' 해 머'이 씨'구와, 그'넌 싸곰:항' 게 마'리야. {어, 그것을 해 먹으니 써, 그눔이 씹싸름한 게 말이야.}

10317 # 그걸' 또' 기'양 바로'는 몸 모. {그것을 또 그냥 바로는 못 먹어.}

10317 # 올파'야 데'. {우려야 돼.}

10317 # 이래 따드'마 가'주어 저 무'레 당가'가조 메'칠씨 당가' 나둔'다꼬. {이래 다듬어 가지고 저 물에 담가 가지고 며칠씩 담가 놔둔다고.}

10317 # 그'래응 그 대:기 쭉'뽕 마'쥔 거'이 다: 빠'져. {그러면 그 되게 쓴 맛은 거의 다 빠져.}

10317 # 그'래응 그, 그'너를 무'쳐 노'음녀 싸곰:항' 게' 그걸' 은제 밤 머'을 찌'이겐 응, 어, 고' 한 저'름썩 머'으면 반'찬도 데'고 고 또 싸곰항' 게' 밤'마시 조아. {그러면 그, 그눔을 무쳐 놓으면 씹싸름한 게 그것을 인제 밥 먹을 때 응, 어, 그 한 점씩 먹으면 반찬도 되고 그 또 씹싸름한 게 밥맛이 좋아.}

10317 # 잉, 어, 입마더 어시뿐지 그 머'음 바'비 더: 머꼬 수'꼬, 이, 입마'시 땡젠'다 근'다 구. {이, 어, 입맛이 없을 때 그것을 먹으면 밥이 더 먹고 싶고, 이, 입맛이 당긴다 그런다고.}

10317 # 그 머 나무'리 마아'네. {그 뭐 나물이 많아.}

10317 # 돌:라무'리라 그'응 거또 이'꼬, 머' 요새' 요 머 가이, 분:초' 머' 그'릉 게 마:네. {돌나물이라 그러는 것도 있고, 뭐 요새 요기 뭐 가위, 부추 뭐 그런 게 많아.}

10317 # 만:체마'는 그이 다: 모'도 그거'는 은, 응, 그은 따드'마 가'조우 거'이가 다: 해 머' 꼬, 반'찬도 해 머'꼬 구'래치, 머. {많지만은 그 다 모두 그것은 어, 응, 그 다듬어 가지고 거의가 다 해 먹고, 반찬도 해 먹고 그렇지, 뭐.}

10317 @ 분:초'눔 머얼' 분초려 함미까? {"분초"는 무엇을 "분초"라 합니까?}

10317 # 분:초'라 근'능 게' 요새' 저 머'로, 자'아 나'능 거 머:제', 그'게. {"분초"라 그러는 게 요새 저 뭐냐, 장에 나오는 게 뭐지, 그'게.}

10317 # 우리'눔 분:초'라 근'데. {우리는 "분초"라 그러는데.}

10317 # 아야, 정구지. {어, "정구지".}

10317 # 아, 분:초', 정구'지러 그'은데, 아이'래, 요새' 자'아 나'능 게 그'게 머 이, 이'르미 틀'러. {아, "분초, "정구지"라 그러는데, 아니야, 요새 장에 나오는 게 그'게 뭐 이, 이름이 달라.}

10317 # 머'어라 그래드'라. {뭐라 그러더라.}

10317 # 그'게'래, 이'게 웨 이, 인, 낄쫂한' 파: 거'치 웨 이, 이'래 나'응 거. {그거야, 이것 왜 이, 이, 기다란 파 같이 왜 이, 이래 난 거.}

10317 # 아'이, 꼬, 이, 이래 여이, 빠우, 불가'추 생'가캐이 이기, 아, 안 나. {아니, 그, 이, 이래 이, 그, 갑자기 생각하니 이게, 안, 안 나.}

10317 # 그'게' 아'응, 아, 아. {그'게 응, 아, 아.}

10317 @ 가'위'눔 \*\*\* \*? {가'위는 \*\*\* \*?}

10317 @ 가:위'눔 멍미까? {가'위는 \*\*\*?}

10317 @ 가:위'눔 머'가' 또 가:위'임미'까, 아'까? {가'위는 뭐가 또 가'위'입니까, 아'까?}

10317 # 가:능 거'는. {가는 것은.}

10317 @ 아니', 가:위'라고 헐'는데, 가'이? {아니, 가'위'라고 했는데, 가'위?}

10317 # 어'이? {어?}

10317 @ 분:초', 또 그 아'까' 머' 이야기'허이, 하'선'능 어 중'에서, 나'물' 이야기'하'심'면서, 분:초', 그다'임 머 가, 가:위' 그러'섬미'까? {"분초", 또 그 아'까' 뭐 이야기'하, 하'신 것 중에서, 나'물' 이야기'하시'면서, "분초", 그 다음'에 뭐 가, "가'위" 그러'셨습'니까?}

10317 # 아'이'래. {아'니'야.}

10317 # 분:초'라 그'기도 하'고. {"분초"라 그러'기도 하'고.}

10317 # 그'꺼' 엠, 머', 언, 정구'지러 까'앵'녀, 우'루', 우리'니 지, 정구'지러 그'고, 분:초'라 그'고, 으, 그 가'라'명'응 껌, 가'라'서 명'능' 게'거, 초'네'선. {그것 어, 뭐, 어, "정구지"라 그랬'나, 우리, 우리는 정, "정구지"라 그러'고, "분초"라 그러'고, 어, 그 갈'아'먹는 것, 갈'아서 먹는 것'이고, 촌'에서는.}

10317 @ 혹'씨 머' 이'런 데 머'구:이'피'나 이'런' 거'또? {혹'시 뭐 이'런 데 머'위 앞'이나 이'런 것도?}

10317 # 머'구:이'피 이'찌. {머'위 앞'이 있'지.}

- 10317 # 머군'니피라 그'능 거'느 인제' 습쩐' 바'까나 농'까에 가'므 이'룽 게이, 끼단항' 게' 인제' 이, 이룽' 게 나온다'꼬, 그. {머위 잎이라 그러는 것은 인제 습한 밭가나 논가에 가면 이런 게, 길다란 게 인제 이, 이런 게 나온다고, 그.}
- 10317 # 그게' 은제' 음, 머 머구'채라 그, 먹'쳐이. {그게 인제 음, 뭐 머위초라 그, 머위초.}
- 10317 # 여'게늬 머구'채라 그'러그더. {여기는 머위초라 그러거든.}
- 10317 # 머구'취라 그'래가주 그걸' 비:가'주 인제' 예, 이그, 응, 엔, 쫌, 비: 가'주고, 입싸'군 찰'러 뿌고, 찰'마 가주여 껌떼'이를 까'이 텐'다, 꾸거. {머위초를 그래서 그것을 베 가지고 인제 어, 이것, 응, 어, 저, 베 가지고, 잎사귀는 잘라 버리고, 삶아 가지고 껌질은 까야 된다고, 그것.}
- 10317 # 껌떼'이를 까' 가'주설룽 그거 가'주 인제' 나물'또 무'쳐 머'꼬. {껌질을 까 가지고 설랑 그것을 가지고 인제 나물도 무쳐 먹고.}
- 10317 # 거, 그, 아으, 머, 시워남 마시우, 국'또 끼'러 머'꼬. {그, 그, 어, 뭐, 시원한 맛이고, 국도 끓여 먹고.}
- 10317 # 그 떠 제사'에도, 그 은제' 제사' 지'낼 찌 그, 거, 으, 거으, 그거'뚜 쑤'드라꼬. {그 또 제사에도, 그 인제 제사 지낼 때 그, 그, 어, 그, 그것도 쓰더라고.}
- 10317 @ 머군'넌네? {머구'취요?}
- 10317 # 어어, 머구'취 가'주 이래 써예. {어, 머위초 가지고 이래 써요.}
- 10317 @ 취, 머우'취로? {취, 머위초로?}
- 10317 # 어어. {어.}
- 10318 @ 그다'으메 어르'신 혹'씨 이 추수할' 때' 예, 예저'네 탈곡하'덤 방법하'고 요즘' 탈곡하'늬 방'버븐 쫌' 마:니' 바끼'어찌예? {그다음에 어르신 혹시 이 추수할 때 어, 예전에 탈곡하던 방법하고 요즘 탈곡하는 방법은 좀 많이 바꿨지요?}
- 10318 # 바끼'고 마고'지. {바뀌고 말고지.}
- 10318 # 떠, 이 예나'렌 추수'울 하'기 텨' 마'아쨌이, 저'네도 말해'찌음명, 나'라글 비'면 무노'네는 나'라글 뻔'면 이, 그글' 추당' 모'으이게 이'른 새'끼를 이'랜 나'라글 하, 하난 따 캐가'주 이'래 재가리 흘쳐거 이 기만찌, 이만 함 뻔 떼'능 거 이'랜 땅에 음, 무노'네 땅: 노'코 나'라글 뻔' 가즈그 크단하'이 므'온다, 그, 그. {저, 이 옛날에는 추수를 하게 되면 말이지, 전에도 말했지만, 벼를 베면 무논에는 나락을 베면 이, 그것을 추당으로 모으니까 이런 새끼를 이런 벼를 하, 하나 딱 해 가지고 이래 재갈을 흘쳐서 이 그만큼, 이만큼 한 팔 되는 것 이래 땅에 음, 무논에 딱 놓고 벼를 베 가지고 커다랗게 모은다, 그, 그.}
- 10318 # 그걸' 무다'니라 그랜'다뽕. {그것을 "무단"이라 그런다고.}
- 10318 # 무다'느로 무'꺼가주 인제' 이'래 드어, 탁' 서'와 노'우먼, 하'검 무'리 좀 뻔' 디웨, 디여 한테'선 지, 저' 나른'다꼬. {"무단"으로 묶어서 이제 이래 저, 탁 세워 놓으면, 약간 물을 좀 뻔 뒤에, 뒤에 한쪽에서는 저, 저 나른다고.}
- 10318 # 저' 날'러가주 인제' 침방' 버'튼 데' 어'딩이 므'엠, 이어근, 도'금 쪼'그로 물' 안 채'엔 데', 잘: 마를' 때' 이, 겹, 뻔' 잘 뜨'고, 양'지바른 데' 가'따 닌:다'꼬. {저 날라서 인제 넷둑 같은 데 어디 뭐, 이, 돌은 쪽으로 물이 안 차는 데, 잘 마를 때 이, 그, 별이 잘 들고, 양지바른 데 갖다 던지고.}
- 10318 # 너:늬' 게 인제' 어, 그, 그게' 저 무다'느로 기'양 너'는' 집'또 이'꼬, 또' 구'걸' 피'

이가주 고'마 이르 쪽: 꺾'이 너눔' 게' 이때, 빨'리 마'르러꼬. {너는 게 인제 어, 그, 그게 저 "무단"으로 그냥 너는 집도 있고, 또 그것을 퍼 가지고 그만 이래 쪽 퍼 너는 게 있어, 빨리 마르라고.}

10318 # 그'램릉 그거'는 인제' 다 마'르맘 무'꼴 쩌'이 사, 사러'미 요만'항 이걸 타작'따니라꼬이 요망, 껏, 껏, 잉, 껏'땀마꾸 브이 요마'꿈썸 뭉는'다꼬. {그러면 그것은 인제 다 마르면 묶을 때 사, 사람이 요만한 이것 "타작단"이라고 요만, 껏, 껏, 이, "꺾단"만큼 하게 요만큼씩 묶는다고.}

10318 # 꼬'음릉 그걸' 자꾸' 무'꼬 노'으면 또 디에'서는 소'바리 실릉' 거'또 이'꼬, 소'도 인제' 멩'엘 메'이가주 마'알찌에, 그래가' 실'꼬 나르'고, 사람'도 저' 나'르고. {그러면 그것을 자꾸 묶어 놓으면 또 뒤에서는 소바리 싣는 것도 있고, 소도 인제 멩에를 메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싣고 나르고, 사람도 저 나르고.}

10318 # 꼬'넘머염 머'우 구루'마도 나'르고 이에이, 엔나'렌 저'렁 게웅'기랑 게' 미 업서'쓰이께네. {그러면은 뭐 수레로도 나르고 이, 옛날에는 저런 경운기라는 게 뭐 없었으니까.}

10318 # 그'래 가따 노'으멍 그 까'주 인제' 에, 와랑와라 그눔'녀으, 그, 억, 어, 그, 그, 우, 발'로 발릉' 게'리, 그어'는너. {그래 갖다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인제 어, 왕왕 그러는, 그, 어, 어, 그, 그, 어, 발로 밟는 거야, 그것은요.}

10318 # 그', 그'른 타자'글 엔나'렌 쯔' 시때'꼬. {그, 그런 타작을 옛날에는 쯔 심했고.}

10318 # 그걸'로 해'꼬, 주'로가. {그걸로 했고, 주로.}

10318 # 으, 탈고'끼. {어, 탈곡기.}

10318 # 요새'느 또'으 기'양 머어 저 웅, 탈고'끼가 바로' 나'와 뿌이 마'르야. {요새는 또 그냥 뭐 저 어, 탈곡기가 바로 나와 버리니 말이야.}

10318 # 꿈 마 그 업, 바인'다라 그'눔 게' 고'마 이그, 인, 노'네서 바'로 비가'주 구'마 여, 엉, 꼬, 가'마이로 음, 무'꼬 나와 뽀'이께네. {그 뭐 그 어, 바인더라고 그러는 게 그만 이것, 이, 논에서 바로 베 가지고 그만 어, 어, 그, 가마니로 어, 묶어 나와 버리니까.}

10318 # 벼'찌'범 벼'찔'대르 나'양꿍, 그, 그'래 탈곡'또 요'샌 머으 켜'자이 쉬'어이즘. {벼짚은 벼집대로 나오고, 그, 그래 탈곡도 요새는 뭐 굉장히 쉬어.}

10318 # 근'데 엔나'렌 또' 그, 그'게 마'리야, 요새'눔 그, 그'그에 어인, 이, 저'거 나'라글 음, 비'면, 그 머'러 그저지, 찌'가치, 훌'쳐이께인'찌'가찌라꼬 요'렁 게 무'꺼 농 기' 이'썸. {그런데 옛날에는 또 그, 그게 말이야, 요새는 그, 그게 어, 이, 저것 벼를 음, 베면, 그 뭐라 그러지, 벼'훑이, 벼'훑이라고 요런 게 묶어 놓은 게 있어.}

10318 # 생'나라글 마'리지으 비: 가'주어'승 우'섬 바'쁘'이께네, 싱'냥은 어'으'꼬', 그'루'물 이'래이디언, 나'라글 한: 대'애' 폭'씨 무'꼬 이래'거 쭈'쿨'룬'따꾸, 이'래. {생벼를 말이지 베 가지고는 우선 바쁘니까, 식량은 없고, 그놈을 이래이래, 벼를 한 대'여'섯 포기씩 묶고 이래서 쪽 훑는다고, 이래.}

10318 # 이'으 쯔'께라 그'래, 이'걸. {이것을 벼'훑이라 그래, 이'걸.}

10318 # 나'락'찌'겔 맨'드러'가주 우'어, 우, 응, 무, 훌'터 내'가'주 그'너'미 마'르'면 그 나'러'글 소'테 야'간' 쯔' 부'레. {벼'훑이를 만들어 가지고 어, 어, 어, 뭐, 훑어 내 가지고서 그 높'이 마'르면 그 쌀'을 약간 쯔 버'려.}

10318 # 부'럴 때' 가'주어 야'간' 쯔' 뿌'먼'늑, 꾸'와'음, 권, 쯔, 쯔'싸'리 데'어'기'랑 껏 그'게'라.

- {불을 때 가지고 약간 찌 버리면, 그, 그, 찌, 찌쌀이라는 게 그거야.}
- 10318 # 그'래더에 찌가'주 고'마 예, 베'때 야'잠' 말'리어드, 께, 기'양 이'걸'루 저 홀'터가주 말'류' 나'라'근 한 즈, 사'나'을'썩 말'라야 테'제'만, 이 찌'가주 항' 건' 하'로'나 이'틀 말'라 뽐 다: 돼'. {그래 찌서 그만 어, 별에 약간 말리면, 그, 그냥 이걸로 저 훑어서 말린 벼는 한 저, 사'나'을'썩 말려야 되지만, 이 찌서 한 것은 하루나 이틀 말려 버리면 다 돼.}
- 10318 # 그'램프 그'걸' 방'아 가'서'이 인, 디'딜'빠아르, 요'새'리, 옴'나'레'느. {그러면 그것을 방앗간에 가서 이, 디'딜'방아야, 요'새'는, 옛날에는.}
- 10318 # 부'인'들, 남'자'드 인'테' 디'들'빠아, 똑'딱'빠'아다 찌'이 가'주'고, 응, 그'걸' 린'제' 까'불'거 싸'릴 해 가'주'우 으, 바'벌' 해' 머'꼬. {부'인'들, 남'자'들 인'제' 디'딜'방아, "똑'딱'방아"에다 찧어 가지고, 응, 그것을 인'제' 까'불'어서 쌀을 해 가지고 어, 밥을 해 먹고.}
- 10318 # 그, 그으, 뜰, 으, 싸'리' 글'땀' 참' 싸'리'어'리, 싱'냐'익 귀'알' 때'니'까, 거 우'선' 말'라'가주 머'을 새'미 어'꼬', 그래 생'나'라'글 홀'떠 가'주'고, 그래 찌' 말'라'가주'언 바'아 찌'가주 싸'를 맨'드'러 싱'냐'를 해'따'꼬. {그, 그, 저, 어, 쌀이 그때는 참 쌀이, 식'량'이 귀할 때'니'까, 그 우'선' 말'려서 먹을 새'가 없'고, 그래 생'벼'를 훑어 가지고, 그래 찌 말'려 가지고 방'아 찧'어서 쌀을 만'들'어서 식'량'을 했'다'고.}
- 10318 # 그'래 거' 인'제' 머' 모'숭'기'하'은, 참, 머, 머, 어'에, 그 가'을'할' 때'으 그'거', 싱'냐'이 위'쫂'쫂'체'니'겨 그'을'로 인'제' 이, 일'꾼'들 머'르 밥'또 해 주'고, 그'래'찌. {그래 그 인'제' 뭐 모'심'기'한, 참, 뭐, 뭐, 어, 그 가'을'할' 때' 그것, 식'량'이 우'선' 쫂'기'니'까 그'것'으로 인'제' 이, 일'꾼'들 뭐 밥'도 해 주'고, 그랬'지.}
- 10318 # 그'르' 웨' 탈'고'기'랑 게' 그'르'이 여'러 가'지'래. {그래 왜 탈'곡'이라는 게 그'러'니 여'러 가'지'야.}
- 10318 # 그'음' 프'어 뚜'디'레 하'능' 거'또 이'꼬' 마'리'지'이, 머, 영, 그, 그. {그 뭐 두'드'려서 하는 것도 있'고 말'이지, 뭐, 어, 그, 그.}
- 10318 @ 그, 그'럼'명 그 요'즈'면 어'쨌'든 마:니 편'해'져'따, 그'지'예? {그, 그러면 그 요'즘'은 어'쨌'든 많'이 편'해'졌다, 그'렇'지'요?}
- 10318 # 영, 꼬, 평'꼬' 마'고'지'으. {어, 그 편'코' 말'고'지'요.}
- 10318 # 꼬'른'테 그'르'이 농'사'진'능' 게' 요'새' 사'려'미 여, 여 어'디 저, 언, 이, 이'기, 교'수'임도 여' 다'니 바:찌'만, 저으, 으, 노'가'다 일'한' 사'람' 메 디'쨌, 드'레' 사'람 비'엿'따'까. {그'런'테 그'러'니 농'사'짓는 게 요'새' 사'람'이, 여, 여 어'디, 저, 어, 이, 이'게, 교'수'님'도 여'기 다'녀' 봤'지만, 저, 어, 막'일' 일'하는 사'람' 몇 있'지, 들'에 사'람' 보'이'던'가'요.}
- 10318 # 그'르' 겨' 사:람, 여' 농'사'진은 사'려'미 그'만'한' 농'사'어 한' 육'칠'십 마'지'이, 한' 배'겨' 마'지'이 너'머'도 사'람' 대'여'서'쓰'빠'께 안' 데. {그래 그 사'람, 여'기 농'사'짓는 사'람'이 그'만'한' 농'사' 한' 육'칠'십 마'지'기, 한' 백'여 마'지'기 넘'어'도 사'람' 대'여'섯'밖'에 안' 돼.}
- 10318 # 그 사'람'드'리 기'겔' 가'주 다: 한'다'꼬.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 한'다'고.}
- 10318 # 여'으'도 요' 농'기'계'이, 이'양'기 와 이'짜'니, 여'도'웅'기. {여'기'에'도 요'기 농'기'계, 이'양'기 와 있'잖'아, 여'기'도.}
- 10318 # 저'래'여'이, 저'르'르 인'너' 다: 찌'쓰'이'께 또'를 찌'르' 나'따, 안'죽' 자'기'네'가 소'니 바'빠'고 하'이'계'느 저'그'또 은'제' 인' 찌, 우'선' 저'래' 나'뚜'능' 게'라. {저'래, 저'놈'은 인'제' 다 쫂'으'니'까 또 저'래' 났'다, 아'직' 자'기'네'가 손'이 바'빠'고 하'니'까 저'것'도 인'제' 이 저, 우'선' 저'래' 놔'두'는 거'야.}

- 10318 # 인제' 가을', 농'사, 가을' 은, 데'먼 저그 또 인제'이 엄, 보과'늘 해'이 데', 기름칠' 하'고 마'이데. {인제 가을, 농사, 가을 어, 되면 저것 또 인제 음, 보관을 해야 돼, 기름칠을 하고 말이지.}
- 10318 # 그'애이 그 농사진:능 기' 머' 사'러앰 메 단 텐'다꼬, 인녀'. {그래 그 농사짓는 게 뭐 사람이 몇 안 된다고, 인제.}
- 10318 @ 예저'느 그림'머너 탈곡' 그 해 가'주고도 어텐 말'리, 벼'를 음, 말려가' 어떠케{예 전에는 그러면은 탈곡 그 해 가지고도 어디 말려, 벼를 음, 말려서 어떻게, 함미까, 어떻게 함미까?}
- 10318 # 옌나'레능 거, 으. {옛날에는 그, 으.}
- 10318 @ 함'미까, 어'떠케 함'미까?
- 10318 # 아이'지, 그이 옌나'레는 그'래 나'라그로 말륜'다 어이께네. {아니지, 그 옛날에는 그래 벼로 말린다 하니까.}
- 10318 # 나'라글 피' 너'러 말류'능 거'또 이'꼬, 또' 무다'느로 넘 말류'능 거'또. {벼를 피 넣어 말리는 것도 있고, 또 "무단"으로 넣어 말리는 것도.}
- 10318 # 무단' 말'류능 건'넌드 한 서러'씨비 두베' 준'다꼬, 까서 이게이. {"무단" 말리는 것은 한 서너번씩 뒤집어 준다고, 가서 이게.}
- 10318 # 이'래이 이'래 너'르 나으뎡 이래 베'치 자르 두베'도 말류'꼬. {이렇게 이래 넣어 왔다가 이래 별이 잘 들게 뒤집어서도 말리고.}
- 10318 # 그'랩 그, 그 나'락, 어, 꼬으게 벼'찌베서 나'러기 다 말'라. {그러면 그, 그 벼, 어, 거기 벧짚에서 벼 낱알이 다 말라.}
- 10318 # 다 말'라영 코마 으게 탈고'글 하'면 바로 고'마 응, 가'마이 여'어 가주고 정'미쇼로 가'주 가고. {다 마르면 그만 이걸 탈곡을 하면 바로 그만 응, 가마니에 넣어 가지고 정미소로 가지고 가고.}
- 10318 @ 거기' 그'엄면 탈'곡, 예저'네 이럼 머 발른' 탈고'끼 까 이'래 그 밭:꼬 하'다 보'며 너 머 어기 거'기에 뽕떼'기나 이렇 거'또 마이 나오'지예? {거기 그러면은 탈곡, 예전에 이런 뽕 밭는 탈곡기를 가지고 이래 그 밭고 하다 보면은 뽕 어디 거기에 북데기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요?}
- 10318 # 거'르지, 뽕떼'기 나'오지읍. {그렇지, 북데기 나오지요.}
- 10318 # 뽕떼'기가 그'래 인제' 그 발른' 탈'고글 하'고 우어, 와랑와랑하'능 그 기'게 따, 탈'고글 하'기 데'먼 하나'이 서' 가'저 팍:찌'러 그르, 옌날' 이'룽, 이'룽 곁. {북데기가 그래 인제 그 밭는 탈곡을 하고 어, 왕왕하는 그 기계 탈, 탈곡을 하게 되면 하나가 서가지고 갈퀴라 그래, 옛날 이런, 이런 것을.}
- 10318 # 팍:찌'르 가'주 서울술' 꼬러뎡'긴다꼬. {갈퀴를 가지고 술술 끌어당긴다고.}
- 10318 # 으르뎡'기먼 나르'아'기 끼, 암, 알배~'이느 그 떠'러지고 껌떼'이는 그 일 지'폐야전' 털 털레' 나'강 거'는 이 팍찌'에 클레' 나'간다꼬. {끌어당기면 벼 그, 알, 알맹이는 그 떨어지고 껌질은 그 이 짚에 약간 털 털려 나간 것은 이 갈퀴에 끌려 나간다고.}
- 10318 # 그'럼 인'저 뽕떼'기를 그'래 추우 마 가즈 한짜'으런 재'인다꼬. {그러면 인제 북데기를 그래 주워 모아 가지고 한쪽으로 찬다고.}
- 10318 # 한짜'으루 이'래 미러 노'으면 그 인저 탈곡 찌, 예, 이어여, 바로' 나온' 나'라근 인저 탈고'글 다 마'치면 으, 거, 으, 커걸 언제 이래 으, 그 부'체능 게' 이'따꼬. {한쪽

- 으로 이래 밀어 놓으면 그 인제 탈곡 저, 어, 어, 바로 나온 쌀은 인제 탈곡을 다 마  
치면 어, 그, 어, 그것을 인제 이래 어, 그 부치는 게 있다고.}
- 10318 # 키'이'라 그'러. {키라고 그래.}
- 10318 # 키'라 그'러, 까부'능 키'가 이'셔따꼬, 옐나'레. {키라고 그러는, 까부는 키가 있었  
다고, 옛날에.}
- 10318 # 그'눔 키를' 가'주고 한' 사'러미 이'래 종:가'리러 그'눔 게 이'써, 이래. {그눔 키를  
가지고 한 사람이 이래 "종가리"라 그러는 게 있어, 이래.}
- 10318 # 나무' 사까'래리, 요새'는 마래똥. {"나무 사까래"야, 요새로 말하면.}
- 10318 # 나무' 사까'래거 낭'그로 맨'드에 넘뜨짱' 이'룽 에. {"나무 사까래"가 나무로 만든  
넓적한 이런 게.}
- 10318 # 그을'로 히떡' 두벤'다꼬. {그것으로 히떡 뒤집는다고.}
- 10318 # 이'래 나'라글 휘떡 뚜뵐' 문지'가 풍' 나'모 확' 뿌'체면 근 나라간'다꼬. {이래 버  
날알을 히떡 뒤집으면 문지가 폭 나면 확 부치면 그게 날아간다고.}
- 10318 # 그걸' 부'체가지 또 저짜'로 그'으 뽉떼'기르 점'부 쓰'르 낸:다'꼬, 비로'. {그것을  
부쳐 가지고 또 조쪽으로 그 북데기를 전부 쓸어 낸다고, 빗자루로.}
- 10318 # 쓰러 내면' 그'래 메 뽉 부'체고느, 그 문질' 야간' 날'리 뿌'구는 말'로 데: 부는'  
다꼬. {쓸어 내면 그래 몇 번 부치고는, 그 먼지를 약간 날려 버리고는 말로 대 붓  
는다고.}
- 10318 # 함' 말, 두 말' 해가' 마 항 가'마이 열땀' 마'리 드'간다, 꾸게. {한 말, 두 말 해서  
뛰 한 가마니에 열다섯 말이 들어간다고, 거기에.}
- 10318 # 항: 가'마이가. {한 가마니가.}
- 10318 # 나'러기 열땀' 마'릴 대 여'우면 그 나'락 항 가'마이러 끈'다구. {쌀 열다섯 말을 대  
넣으면 그 쌀 한 가마니라 그런다고.}
- 10318 # 잉, 으, 그'럼 그'래 음, 무'꼬 내:고, 또' 대이'고, 호래 가주' 인제' 오'늘 타자'기  
머' 이거, 찌기 쥐이'니 머' 한' 사오'십 성 나'따 그'면 보통' 옐나'레는 함 마지'게 너  
어'그연, 네: 가'마이 이 머'끼도 쯤' 바쁘'다꼬. {이, 어, 그러면 그래 음, 묶고 내고,  
또 대고, 그래서 인제 오늘 타작이 뭐 이것, 저기 주인이 뭐 한 사오십 석 났다 그러  
면 보통 옛날에는 한 마지기에 네, 네 가마니를 먹기도 쯤 힘들다고.}
- 10318 # 그, 그, 글'때는 비로'가 귀해'가주 마'리지, 기'양 머 쯤 억, 그른'데, 비로' 나오'곤  
음, 므 대여'서 까'마이싱 머'꼬 그'랭이. {그, 그, 그때는 비로가 귀해 가지고 말이지,  
그냥 뭐 쯤 어, 그런데, 비로 나오고는 음, 뭐 대여섯 가마니씩 먹고 그랬지.}
- 10318 # 요주'땀 머 여'덜 까'마이 멍' 데드 이'꾸, 일'고 까'암머, 그르치머'느이 글'때느 네:  
가'마이 멍응' 게' 마'이 머'으땀 그'르따구. {요즘은 뭐 여덟 가마니 먹는 데도 있고,  
일곱 가마니, 그렇지만은 그때는 네 가마니 먹는 게 많이 먹었다 그랬다고.}
- 10318 # 그' 예를' 뜨'러 다'섬 마'지이기를, 다'섬 마'지이르 금 여'느 아만, 은, 함 마지'이  
가 삼'백 빼이 함 마지'이 포주'기래. {그 예를 들어 다섯 마지기를, 다섯 마지기라 그  
러면 여기는 아만, 어, 한 마지가 삼백 평이 한 마지기 표준이야.}
- 10318 # 이 다'섬 마지'이라 그'면 사 모 시보, 그'르이께 천오'백 평'이 이, 마지'기이 그 평  
'수라꼬. {이 다섯 마지기라 그러면 삼 오 십오, 그러니까 천오백 평이 이, 마지기 그  
평수라고.}
- 10318 # 그'래 이 언, 다'섬 마지'이만 네 가'마니, 사 오 이, 이시비, 네 가'마이 치'면 시무

- 가'마이던 아이근녀, 나'락 잘' 라따 그'러따꼬. {그래 이 어, 다섯 마지기면 네 가마니, 사 오 이, 이십, 네 가마니 치면 스무 가마니면 아이고, 벼 잘났다 그랬다고.}
- 10318 # 영, 연, 울, 온느, 울 룡'사 괜차'이 지'이따 그'르따꼬. {어, 어, 울, 울, 올해 농사 괜찮게 지었다 그랬다고.}
- 10318 # 그래'고 인제' 그걸' 다: 마'친 디에'능 급 뽕떼'이러 그'능 거'능 마:는 지'베는, 쪼매'난' 지'베는 쪼매' 한 대'엠' 마'지'인, 너'댄' 마'지' 지'똥' 지'베'능 그, 그'날 구'마 타'장 바'트며 그 이'튼날 그'넌 떠' 말'랴'가주 구'마 베'떼, 마'당'아 꺾' 는다'꼬. {그리고 인제 그것을 다 마친 뒤에는 그 북데기라 그러는 것은 많은 집에는, 조그마한 집에서는 조금 한 대'여섯 마'지기, 너'댓 마'지기 짓'던 집'에는 그, 그'날 그'만 타'작 같'으면 그 이'튼날 그'놈을 또 말'려서 그'만 별'에, 마'당'에 꺾' 던'다고.}
- 10318 # 그'러 꺾'져'르 글' 이'래 너'르 가'주고. {그래 갈퀴로 그것을 이'래 널'어 가'지고.}
- 10318 # 그'르 다'일 말'랴'가주 그 이'튼날 고'마 타'자, 어, 그'어, 으, 도'리'깨'질로 곱' 뽕, 뽕'떼'기 타'자'칸다'꼬. {그때 당일 말'려서 그 이'튼날 그'만 타'작, 어, 그, 어, 도'리'깨'질로 그'만 북, 북'데기 타'작'이라고 한'다고.}
- 10318 # 뽕'떼'겨, 도'리'깨'르 그'능 게 인'쟁' 이'래 냉'기 쳐'가'즈 때'리'용 거. {북'데기, 도'리'깨'라 그러는 것은 인제 이'래 넘'겨 쳐'서 때'리는 것.}
- 10318 # 꼬, 그'을'러 인제' 두드'레'면 그 나'라'기 부'터'똥 게' 떠'러'진'다'꼬. {그, 그'것'으로 인제 두드'리면 그 낱'알이 붙'었던 게' 떨어'진'다'고.}
- 10318 # 떠'러'지'용 그'걸' 인제' 뽕'떼'이 타'자'기'라 굳'데, 그'걸' 인제' 다 마'치'가'주 인제' 꺾'져'루 또 빠'으'꼬, 그'래 메' 숨'베'를 두드'레'면 거'이 다 떠'러'져'다 시'푸'똥 꺾'져'루 또 거' 꼬'른'다'꼬, 이'래. {떨'어'지면 그'것'을 인제 북'데기 타'작'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인제 다 마'쳐'서 인제 갈'퀴로 또 굵'고, 그'래 몇' 번'을 두드'리면 거'의 다 떨어'졌다 싶'으면 갈'퀴로 또 그 굵'는'다'고, 이'래.}
- 10318 # 꼬'던 뽕'떼'이'만 끌'레' 나'오'고 오, 꼬, 처'레'고, 나'라'궁 거' 떠'러'져 이'따'꼬. {그러면 북'데기'만 끌'려 나'오고 어, 그, 추'려 내'고, 낱'알은 거'기 떨어'져 있'다'고.}
- 10318 # 그'래'똥 거' 뽕'떼'이 추'려 내'으, 그'거 역'씨'도 인제' 예, 케'지'를 해'이 데. {그러면 그 북'데기 추'려 내'고, 그'것 역'시'도 인제 어, 키'질'을 해'야 돼.}
- 10318 # 이'래 어'브, 으, 그, 요'새'드 이'녕 이'래 약'콧 부'체'면 마'리'야, 두'베' 주'면 뽕'떼'이 간, 꺾'떼'이가 나'라'나'며, 문'지'가 나'라'나'점 그'글' 인제' 나'락'시, 주'우 다'용 뽕'떼'이 나'라 캐:파, 그'래'가. {이'래 어, 어, 그, 요'새'도 이'래 이'래 확'확 부'치'면 말'이야, 뒤'집 어 주'면 북'데기'가, 꺾'질이 날'아가'면, 먼'지가 날'아가'면 그'것'을 인제 낱'알'을, 주'워 담'으면 북'데기 낱'알'이라고 했'다, 그'래'서.}
- 10318 @ 그'게' 뽕'떼'이 타'자'기? {그'게 북'데기 타'작?}
- 10318 # 아'하, 마'저, 뽕'떼'이 타'자'기'라, 그'룽 게. {아, 맞'아, 북'데기 타'작'이야, 그'런 게.}
- 10318 @ 혹'시 그'럼'며'너 보'리'는 여'르'메 하'니'까, 보'리 타'자'근 쫌' 다'름'미'까, 어'떠'썸'미'까? {혹'시 그'러'면은 보'리는 여'름'에 하'니'까, 보'리 타'작'은 쫌' 다'름'니'까, 어'떻'습'니'까?}
- 10318 # 버'리' 타'작'끼'인 다'르'지. {보'리 타'작'이 다'르'지.}
- 10318 # 그 즈' 버'리' 타'자'근 언, 한'창' 더'울 때' 요'지'가'너'이, 조' 미'씨'므 하' 끼'레'야'에. {그'저 보'리 타'작'은 어, 한'창' 더'울 때' 요'즘, 쫌' 있'으면 할 거'야.}
- 10318 # 여'기 요'새' 인제' 버'리' 비: 가'주고, 요'새'도 버'리 타'자'기 마'리'지, 그'으, 응, 기'게'로 하'능 거'느 켜'찌'마'느'이, 예:나'레'는 글' 인제' 점'부 재'이 나' 둔'다'꼬. {여'기 요'새



- 인제 보리 베 가지고, 요새도 보리 타작이 말이지, 그, 응, 기계로 하는 것은 쉽지만  
은,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전부 재 놓아 둔다고.}
- 10318 # 떠 이기 대버'네 안' 해, 타자'글. {또 이게 대번에 안 해, 타작을.}
- 10318 # 마르'라쫑. {마르라고.}
- 10318 # 버리까'랄 해가'주 이'래 버리' 이'래 은, 드'걸 맨드'러 가드, 버리뜨'기라 그'능 게  
냥'글 비:가'주 버리뜨'글 맨드'러, 이'래 상'각경으로. {보릿가리 해서 이'래 보리 이'래,  
어, 덕을 만들어서, 보리 덕이라 그러는 게 나무를 베 가지고 보리 덕을 만들어, 이'래  
삼각형으로.}
- 10318 # 음, 맥, 거' 은제' 뜨 이'래' 노'우먼 이 중가'네 바러'미 통'하며 이으 버리'거 빨'리  
마른'다꼬. {음, 뭐, 그 인제 또 이'래 놓으면 이 중간에 바람이 통하면 이 보리가 빨  
리 마른다고.}
- 10318 # 꼬'름 한 달쪄'간씨그 드어'레 그'래 이 그 가'래 나'아 도'웅. {그러면 한 달씩 들  
에 그'래 이 그 가리로 놓아 뒤.}
- 10318 # 나 두'면 다: 마르'면 인제' 그'걸' 뜨' 인제 저'다가 마다'아 노'코, 그 머, 역, 도르'  
깨러 한'다꾸, 구'또. {와 두면 다 마르면 인제 그것을 또 인제 저다가 마당에 놓고,  
그 뭐, 어, 도리깨로 한다고, 그것도.}
- 10318 # 뽕떼'이 타자카'는 시'그로. {북데기 타작하는 식으로.}
- 10318 # 옌나'랭 꼬으, 이'래 버릴' 이'래읍 마뿌'터 노'꼬 도르'깨를 때'린다꼬. {옛날에 그,  
이'래 보리를 이'래 맞붙여 놓고 도리깨로 때린다고.}
- 10318 # 때'리웅 그 버리'가 으'러진다꼬. {때리면 그 보리가 떨어진다고.}
- 10318 # 버리'인 떠'러지고 으 버리다'음'만, 꺾떼'이먼 나망'아인. {보리는 떨어지고 그 보릿  
단만, 꺾질만(+ "보리짚만"으로 실현되어야 할 부분임.) 남아서.}
- 10318 # 그거' 역'씨도 맹: 마차'이르. {그것 역시도 또한 마찬가지로.}
- 10318 # 그'래 인네여 뽕떼'이거 다: 떠'러지면 그 또' 추'레, 꺾'루 추'레 내구. {그'래 인  
제 북데기가 다 떨어지면 그 또 추려, 갈퀴로 추려 내고.}
- 10318 # 그거'또 뽕떼'이거 나와', 맹:. {그것도 북데기가 나와, 역시.}
- 10318 # 뽕뽕'이 나오'고 움, 버리' 알 라'오, 그'래문 버리' 아'음먼 주'우 당'꼬, 뽕'제'인 또'  
재:차 그'으쁘 뽕떼'이 타자'글 해'이 텐'다, 그'그또 멍, 버리'도. {북데기가 나오고 어,  
보리 낱알 나오고, 그러면 보리 낱알만 주워 담고, 북데기는 또 재차 그 북데기 타작  
을 해야 된다, 그것도 뭐, 보리도.}
- 10318 # 멍' 나'라 카'는 시'그로 그'래 해' 가'주우 당'꼬', 그'래 한'더으, 그. {역시 벼 하는  
식으로 그'래 해 가지고 담고, 그'래 한다고, 그.}
- 10318 # 그 밤'며'네 또' 허, 머' 달'리 하'는 사'럽더 이'께'찌여. {그 반면에 또 어, 뭐 다르  
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 10318 # 머, 음, 머, 어인, 타자'기라 그'능 게'. {뭐, 어, 뭐 어, 타작이라 그러는 게.}
- 10318 # 자기 시'꾸끼리 쪼매'끔 하'능 거'는 머 이 당'일 곱'마 방'매'이드 뚜드'레 한' 사'음  
도 이'씨. {자기 식구끼리 조금 하는 것은 뭐 이 당일 그만 방망이로 두드려 하는 사  
람도 있어.}
- 10318 # 어, 떼' 판'씩 안 데'능' 거'느요. {어, 몇 단씩 안 되는 것은요.}
- 10318 # 그'르코, 으, 그'그 인제' 어어, 꼬, 버리' 타:자'그 마이' 한' 지'베는 사람' 해 가'주  
고, 노'블 해' 가'주우 한'다꼬. {그'렇고, 어, 그것 인제 어 그 보리 타작을 많이 한 집

에는 사람을 해 가지고, 놈을 해 가지고 한다고.}

10318 # 옴나'른 노'비라 그'르따. {옛날에는 놈이라 그랬다.}

10318 # 노'블 해가'주 인제' 음, 마', 서너'씨 드'러드 막' 소'리 해 감 뚜드'렌다꼬, 그언.  
{놋을 해서 인제 음, 뭐, 서넛씩 들여서 막 소리 해 가면서 두드린다고, 그.}

10318 # 그'르꼬 머' 쪼매꿈' 한' 지'벤 머여 저겨 부지께'이 타작'또 이'따꼬, 그'엄 머 여이,  
쪼'매꿈 뚜드'레가 메' 판'씩 해'가즈 멍' 그'너. {그렇고 뭐 조금 한 집에서는 뭐 저  
기 부지께'이 타작도 있다고, 그 뭐 이, 조금 두드려서 몇 단씩 해 가지고 먹는 것은.}

10318 @ 그럼'르는 그 버리' 가'통 경'우너 여'르메 하'께네 마루'운다 해'도 장마'철 가'툼머  
너 비'가 옴'머너 잘 암 마르'젠'네예, 그으게야? {그러면은 그 보리 같은 경우는 여름  
에 하니까 말린다고 해도 장마'철 같은면은 비가 오면은 잘 안 마르'겠네요, 그게?}

10318 # 그'래 가'주운 더'글 해가'주 가'리 나'끼 때'이 비'가 와'도 우우우, 우'에는, 상대'베'  
엔는 더'퍼 나'끼 떠'르러 무'리 안' 드'가. {그래 가지고 덕을 해서 가리를 쳐'났기 때  
문에 비'가 와'도 위, 위에는, 상부'에는 덮어' 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

10318 # 이게' 꺾'찌론'능 이, 이'래 데' 이'끼 때'므 점' 무'리 새 뿌'레. {이게 끝으로'는 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물이 새 버'려.}

10318 # 새브'언 잘' 말'라. {새면 잘 말'라.}

10318 # 그'래 여, 이'래 이 새'에'눔 바라'미 통하'니까 그'래 지, 잘' 마르'지, 잘' 말'라. {그  
래 이, 이래 이 사이에는 바람이 통하'니까 그'래 저, 잘' 마르'지, 잘' 말'라.}

10318 # 잘' 마'르, 그'래 타'자칸'다그. {잘' 마르고, 그'래 타'작'한다'고.}

10318 @ 아, 그는 크'게, 그'르'케 해'으며, 장, 덕'짱, 덕, 그'걸 해 나 나'이? {아, 거기는 크'게,  
그'렇게 해, 덕, 덕, 덕, 그'것을 해 놓아 노'사서?}

10318 # 응, 그'르'치어'이. {응, 그'렇지'요.}

10318 # 트'럴 해' 나'끼 때'므'느에 아, 이 비'거 와'도 상'과'니 업'써', 장마'가 저'동. {틀'으  
해' 냈기 때문에 아, 이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 장마'가 저'도.}

10318 # 우'만 꼬'마 그 이, 든, 나'래로 한' 뜨, 그, 일, 더'브'언 두'러 나' 뿌'면, 싸' 겐' 데'면  
더'퍼 나' 뿌'언 자'여'니 미'텐, 뿌'리 인'는' 데'는 꼬'으, 그' 비'가 안 드'간'닥, 비'가 와:  
도. {위에'만 그'만 그 이, 그, 이'영으로 한' 그, 그, 이, 두'어 번 둘러' 봐 버'리면, 싹 있  
는 데'만 덮어' 봐 버'리면 자연'히 밑'에는, 뿌'리 있는 데'는 그, 그 비'가 안 들어'간다고,  
비'가 와'도.}

10318 @ 흑'씨'으 쿵:, 여 쿵: 타'자'금 머 쫘' 다'름'미'까, 쿵: 타'가'건? {흑'시 쿵, 여'기 쿵 타  
작은 뭐 쫘' 다'름'니'까, 쿵'타'작은?}

10318 # 쿵' 타'자'건 다'르'지. {쿵' 타'작은 다'르'지.}

10318 @ 쿵' 타'자'근 어'뜨'케 함'미'까? {쿵' 타'작은 어'떻게 함'니'까?}

10318 # 쿵'언, 쿵'도 역'쎄'이 비'스'태'. {쿵'은, 쿵'도 역'시 비'스'태.}

10318 # 옴나'렌'닝 그 땡' 도'리'개'르 헨'데, 쿵'언 뽀'브'뎌, 바'떼'서 인제' 뽀'바 가'주'우 이'래  
가'주 사'라'미 비'능 거'또 이'따, 거 나'설' 가'주'고. {옛날'에는 그 역'시 도'리'개'로 했'는  
데, 쿵'은 뽀'으면, 밭'에서 인제' 뽀'아 가지고 이'래서 사'람'이 베'는 것도 있'다, 그 낫'을  
가지고.}

10318 # 비' 뿌'능 거'또 이'꼬, 또' 우'편 싸'르'너 뽀'바. {베' 버'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  
람'은 뽀'아.}

10318 # 뿌'리'채'러 다: 뽀'바'가'주 고'마 에이'거 쿵'따'늘 무'꺼 가'주'고. {뿌'리'채'로 다 뽀'아 가

- 지고 그만 이것 콩단을 묶어 가지고.}
- 10318 # 콩'도 역'씨 그래'. {콩도 역시 그래.}
- 10318 # 그 이래' 더'글 맨는'다꼬, 이'래, 이읍, 버리매'이로. {그 이래 덕을 만든다고, 이래, 이, 보리처럼.}
- 10318 # 더'글 맨'드러 가'조 이, 이, 이짜끼짜거 서로'이 자'이 올리누'가주 인제' 그 우'에 다 나'랄 더'퍼 뿌고, 그'래 노'으면 이 사'이로 업, 마르'고. {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 이쪽저쪽을 서로 재어 올려 가지고 인제 그 위에다 이영을 덮어 버리고, 그래 놓으면 이 사이로 어, 마르고.}
- 10318 # 콩'언 인제' 어, 에, 어, 가알쫘' 명, 응, 가을'게 추수하'그드, 그억 콩'은. {콩은 인제 어, 어, 어, 가을쫘, 뭐, 응, 가을에 추수하거든, 그 콩은.}
- 10318 # 인지 나'락 어, 그, 인니, 인제' 빌 무'레 맹' 쪼꿈 이따' 그으'또 뽀'바. {인제 나락 어, 그, 인제, 인제 벨 무렵에 역시 조금 있다 그것도 뽀아.}
- 10318 # 뽀버가'즈 그'래 재'이 노'우먼 인제' 나락'쫘 타작 거'이 다 마칠'할' 무'레 콩' 타'저, 마이 진'느 이 저, 미, 또 콩' 타작'다꼬. {뽀아 가지고 그래 재 놓으면 인제 나락 타작 거의 다 마칠 무렵에 콩 타작, 많이 짓는 이 저, 뭐, 또 콩 타작한다고.}
- 10318 # 쪼꿈'씩 하'능 거' 프' 대'정도 어꾸' 머 다'일 하'능 거'뚜 역 그'르침만, 마'는 지'베 바'또 이 여'러 마'지이 부'첸 지'벤 콩까'리도 크'다꾸, 므탕' 거'는. {조금씩 하는 것은 뭐 대중도 없고 뭐 당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집에 밭도 이 여러 마지기 부치는 집에서는 콩가리도 크다고, 무전한 것은.}
- 10318 # 그'르거 재'이 나'따이 기'여래 해', 그거'눔. {그래 그 재 났다가 겨울에 해, 그것은.}
- 10318 # 웨'냐 하'게 데'명 그언 시비얼'딸', 이, 이'럴딸르, 글'때 떼'면 어'면, 나'리 추'무여 콩'인 잘' 떠'러진다꽁. {왜냐 하게 되면 그 십이월, 이, 일월, 그때 되면 열면, 날이 추우면 콩이 잘 떨어진다고.}
- 10318 # 도리'개 야'깜' 마'즈어더 똑, 쪽, 또개'지지만 축'추칼' 쥘' 잘 양' 깨'기으더. {도리개에 약간만 맞아도 똑, 쪽, 쪼개지지만 축축할 때는 잘 안 깨지거든.}
- 10318 # 그'너미 그 인제' 추'와 가'주어 어'렁끼가 어떤' 그 콩'이 지 잘' 떠'러지익' 때'프'에 레 추'울 때' 한'다, 꾸은. {그놈이 그 이제 추워 가지고 얼음이 얼면 그 콩이 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추울 때 한다고, 그것은.}
- 10318 # 어, 서:딸', 정'월, 글'때 가'서 인제' 함 맹' 으응, 으, 그어, 으, 버리매'이르 마'당'에 다 피'이 노'코, 피' 노'코 여'러에, 두리' 서, 두리' 서듬 머, 으, 머, 마'능 건'느 암 마'이, 여'러이 해'이 데'고, 쪼맨'항' 건' 머 혼'자두 하'고 두리'두 하'우, 그'래 인제' 도르'깨질'르 뚜드'린다꼬. {어, 선달, 정월, 그때 가서 인제 한 역시 응, 어, 그, 어, 보리처럼 마당에다 퍼 놓고, 퍼 놓고 여럿이, 둘이서, 둘이서든 뭐, 어, 뭐, 많은 건 아무래도 많이, 여럿이 해야 되고, 조그마한 것은 뭐 혼자도 하고 둘이서도 하고, 그래 인제 도리개질로 두드린다고.}
- 10318 # 뚜드'렘명 콩'이 인제' 바'썩바'썩흠 음, 말'라떠 그, 으응, 어'러명 게' 콩'이 똑'똑 또 개'저이'고 까'져 뽀'다꽁. {두리리면 콩이 인제 바삭바삭한 음, 말랐던 그, 응, 얼었던 게 콩이 똑똑 쪼개져서 까져 버린다고.}
- 10318 # 그'럼 인제' 콩'만 누:러'케 낭'꼬우, 그으'또 요'씨 그'래, 구 어'텐 똑, 꺾'떼'이으, 콩'꺾'떼'이를 주'우 가'주 두'숨'두'숨' 나'스로 이'래, 이'래 가'주여 은'젠' 대'강' 이'램' 무'꺼

가'즈어 내: 노'꼬, 거'으더 찌끄래이'가 나온'다꼬. {그러면 인제 콩만 누렇게 남고, 그것도 역시 그래, 그 어디 저, 껍질, 콩 껍질을 주워 가지고 주섬주섬 낫으로 이래, 이래 가지고 인제 대강 이래 묶어 가지고 내 놓고, 거기에도 찌꺼기가 나온다고.}

10318 # 덜: 까'장 게' 이'따꼬오. {덜 까진 게 있다고.}

10318 # 그으'또 인제' 껍찌'르 역시 이래' 가'주우 한투운 낸, 내몬'다꼬. {그것도 인제 갈퀴로 역시 이래 가지고 한쪽으로 내, 내몬다고.}

10318 # 그 내모라' 노'코 나먼'지 그'래 다: 마'치면, 그때 이 옌나'레는 이, 그 요새'던능 거 풍구대'가 나와 가'주씨리 옌나'롱 그을'로 부'체점만, 옌나'랭 거' 키'라 그'능 거' 까'주 이'래 마'카' 이'래 이, 이'래 위, 부'쳐따꼬. {그 내몰아 놓고 나머지 그래 다 마'치면, 그것도 이 옛날'에는 이, 그 요새는 그 풍구가 나와 가지고서는 옛날'에는 그것으로 부'쳤지만, 옛날'에는 그 키'라 그러는 것을 가지고 이래 모두 이래 이, 이래 뭐, 부'쳤다고.}

10318 # 콩'얼 이래'가 이래, 이으, 꼬어, 지, 음, 찌, 으, 그 머 으'데 종:가'래러 그능 거 이 러흔 나무'까'래 마'리아, 으이 여'가 이리 히'떡 뜨'베음 콩'이 이래 올'러점트 문'지가 평' 난'다구. {콩을 이래서 이래, 이, 그, 저, 음, 저, 어, 그 뭐 어디 종가'래라 그러는 것 이런 나무 가'래 말이야, 그것을 넣어서 이리 히'떡 뒤집으면 콩이 이래 올라가면서 먼지가 찍 난다고.}

10318 # 꼬'럼 키로' 확: 부'쳐 뽀 저 멀리' 나간다'꼬. {그럼 키로 확 부'쳐 버리면 저 멀리 나간다고.}

10318 # 그'래음 저 그'래 부'쳐고 남'능 거'능 콩'반, 그 역'씨도 인제' 뽀 마'리, 어잉, 에이 음, 음, 머, 어, 마이' 지'은 지'벤느 메 까'마이 난'노 시'퍼가주 인제' 가'마이 대'죽'칸' 다'뽀. {그러면 저 그'래 부'치고 남는 것은 콩만, 그 역'씨도 인제 몇 마'지기, 어, 어, 음, 뭐, 어, 많이 지'은 집에서는 몇 가'마니 낫나 싶어서 인제 가'마니를 대'조한다고.}

10318 # 말루'어 대 뿌'꼬, 인'테 그, 꼬'기 대'능 게 재'미'때거. {말로 대 붓고, 인제 그, 그'게 대는 게 재'밋다고.}

10318 # 함' 마'리요, 두'리'요, 서'이'요, 함'상 거 인'제' 형'이, 노'래 비'스타'이 해'롱 념'젠'더으. {한 말'이요, 둘'이요, 셋'이요, 하'면서 그 인'제 어, 노'래 비'슷하게 해'서 념'긴다고.}

10318 # 열'땀 말' 하'음'제'게 땅 너'몽 갱'거우, 그'랜, 흑, 커, 그'래 념'기고. {열'다섯 말 하'면서 딱 념'은 것'이고, 그'래, 어, 그, 그'래 념'기고.}

10318 # 프'어'탕' 거'느 인'제' 프 한, 한' 서'너' 대', 한 머 대'여'섬 말'쌩 난 지'뽀 머 아이'구, 머' 그, 그 두 말' 라'따, 서 말' 러'따, 콩'을 그'래고. {무엇'한 것'은 인'제 뭐 한, 한 서너 대, 한 뭐 대'여'섯 말'씩 난 집'에서는 뭐 아이'고, 뭐 그, 그 두 말' 낫다, 서 말' 낫다, 콩'을 그'러고.}

10318 # 그'래'헤, 그'래'따'꾸, 크'게, 이'게, 꼬'게. {그'래, 그'랬'다고, 그'게, 이'게, 그'게.}

10318 # 옌'날' 소'리'뚜, 참' 니. {옌'날 소'리'다, 참 이.}

10318 # 요'새'능 머으 그, 꼬, 오, 콩'이 마'내'더 기'에'가 이'서'이 마'에'저, 거 여 뽀 머 트루'루'해 뿌'머 껍'떼'인 껍'떼'이 나'아, 콩' 콩'알'때'루 나와 뿌'이 구'마 대'병', 꼬'게 십'따'꼬, 요'샌'. {요'새는 뭐 그, 그, 어, 콩'이 많아'도 기'계가 있'어'니 말'이지, 거'기 넣'어 버'리면 뭐 드'르'록'해 버'리면 껍'질'은 껍'질'대로 나'오고, 콩'은 콩'대로 나와 버'리'니 그'만 대'번'에, 그'게 쉽'다고, 요'새'는.}

10318 # 옌나'랭 그'게' 그'역 콩' 타'작' 꺼'통 거'는 기'여'래 하'이 덜:하'저 버'리' 타'작' 간'능

거 참' 애멍'은다꼬, 남. {옛날에는 그게 그 콩 타작 같은 것은 겨울에 하니까 덜하지만 보리 타작 같은 것은 참 애먹는다고, 참.}

10318 # 삼복찌가'네 으열, 타자'글 해' 바에, 그'게. {삼복지간에 어, 타작을 해 봐요, 그게.}

10318 @ 뜨거블 때니 그러찌에? {뜨거울 때라서 그렇지요?}

10318 # 예'. {예.}

10318 # 요새', 좀' 이시움' 한'다꼬, 타자' 낀제'. {요새, 좀 있으면 한다고, 타작 인제.}

10318 # 버리' 타작'. {보리 타작.}

10318 # 따'멸 쥘, 수건' 메'머 수거'니 드명덤 다: 전'다꿈. {땀을 쥘, 수건을 매면 수건이 드문드문 다 젖는다고.}

10318 # 먼' 드'이 옐나'렌능 그, 그'어 머여, 인, 이이, 빼기, 베'온 비스탕' 거' 이으 득'쳐 오시라 근'늘, 따모'시러 거, 즈 베'를 가'주 마'리 잠배'이 오'시라꼬, 베'르 가'주오 익, 그, 이그, 이, 일꾼'들 입는' 장배'이오시 이르, 이르, 므 이릉 그일 잠배'이 오'시라 근' 데, 베'로 맨드'고 아, 이 요만'찌음 삼'베 해' 가져인, 내 오 꺼등 요'런 사'멘 요쯤 데' 이끼 아나. {뭐 등이 옛날에는 그, 그 뭐, 이, 이, 베, 베옷 비슷한 것 이 "득쳐옷"이라 그러는, 땀옷이라 그, 저 베를 가지고 말이야 잠방이라고, 베를 가지고 이, 그, 이것, 이, 일꾼들 입는 잠방이가 이런, 이런, 뭐 이런 것을 잠방이라 그러는데, 베로 만 들고 아, 이 요만큼 삼베 해 가지고, 내 옷 같은 요런 소매는 여기쯤밖에 되지 않아.}

10318 # 거' 은지'으 베'로 맨드'러 노'이꺼 다 어레'이지, 머이. {그 인제 베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얹어지지, 뭐요.}

10318 # 그'느미 덤벅더먹 다: 저'저, 그'래도 머. {그놈이 듬뿍듬뿍 다 젖어, 그래도 뭐.}

10318 # 그'른 타저캐'으 사'우저. {그런 타작해서 살았지.}

10318 @ 무넌 워넌 뜨거'우니까, 나'리, 그'지예? {물론 워낙 뜨거우니까, 날이, 그렇지요?}

10318 # 그이겨, 더운너금, 삼복찌가'네 그'으 떠, 겨, 그 타작해' 바'여, 그 열'마나 떠'웁. {그래, 더우니까, 삼복지간에 그 또, 그, 그 타작해 보면, 그 얼마나 더워.}

10318 # 고' 이'썰 더'운데 그게'요. {가만 있어도 더운데 그게요.}

10318 # 그 옐나'레 사'라나온 사'람'들 참' 생가킴머 불쌍'해. {그 옛날에 살아나온 사람들 참 생각하면 불쌍해.}

10318 # 요새' 사'람드롱이 그'래두 농사진' 사'러미 머', 요새' 농사지'은 사'람드른 호, 호강스'로운데, 요새' 사'름 그 농'사라 안' 내, 버'리'로 아'라. {요새 사람들은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요새 농사짓는 사람들은 호, 호강스러운데, 요새 사람 그 농사로 안 하고, 벌이로 알아.}

10318 @ 꺼르스 옐나'레느, 요주'음먼 언제'든, 예저'네 점'부 사'람 히'프로 다 해'따, 그'지예?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어쨌든, 예전에 전부 사람 힘으로 다 했다, 그렇지요?}

10318 # 히'프로 다: 해'꼬. {힘으로 다 했고.}

10318 # 요새' 사'람드런, 옐날' 사'람드런 어어통, 으염, 미, 농'초네 농'사지'이가 쫓'꿈 밥'수리나 머'꼬 살고, 부자' 하'는 사'람드'리, 그게' 나'미 볼' 때이, 요새'드 맹' 그 돔 버'러가 잘'사는 사'람드'에 머' 수끼' 버'는 사'르미썩 이쨌니'껴. {요새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어, 어, 뭐, 농촌에 농사지어서 조금 밥술이나 먹고 살고, 부자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남이 볼때, 요새도 역시 그 돈 벌어서 잘사는 사람들이 뭐 쉽게 버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 10318 # 엔나'레는 그 농'사나 범' 마쟁'이난 저' 지'이 가주우 머', 어욱, 백' 석', 으, 한' 응, 그 이, 이백' 썩' 칸'다 큰 사'암드리 그 우'때 어른'드느 가이' 굴'머따꺼 바'에, 난' 불' 때'. {옛날에는 그 농사나 몇 마지거나 저 지어 가지고 뭐, 어, 백 석, 어, 한 응, 그 이, 이백 석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 윗대 어른들은 가히 굶었다고 봐요, 나는 볼 때.}
- 10318 # 그'른데 농'사르 짐' 함' 마찌'이게 싸'리 한, 한, 요새'르 말하 꼬'음마 한, 항 가'마 이 나'와따 그'머, 그'너를 가'주설라 시꾸'이 요'량을 해' 가'주우 갱'주'기랑 게' 이'썩 이.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한 마지기에 쌀이 한, 한,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한, 한 가마니 나왔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설랑 식구가 요량을 해 가지고 갱죽이라는 게 있어요.}
- 10318 # 갱'주'글 썩'가주 콩'기름 녀'꾸 해'가주으 바'블 뎡'므 싱'냐이 마'이 데'이께느 마'래. {갱죽을 쭈어서 콩기를 넣고 해 가지고 밥을 먹으면 식량이 많이 되니까 말 이야.}
- 10318 # 그'래 가즈여 그글' 싸'를 일' 러네 항' 가'마이, 두 가'마이 그, 그겨 나'므롱 그걸' 파'라 가'주고 장'내'도 늘구'고 돈:도 늘'곡 캐 가'즈으, 그'래 가주꾼 하은, 하' 마지이 사'고, 밤: 마'지 사'고, 이'래 가주우 꼬'으게 마'아 가주설랑 머으여, 엉, 거, 이, 쪼'꿈 잘'사는 사'름더 이'썩'꿍, 그'래따구. {그래 가지고 그것을 쌀을 일 년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그, 그것 남으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장리도 늘리고 돈도 늘리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한 마지기 사고, 반 마지기 사고, 이래 가지고 그게 모아 가지고 설랑 뭐 어, 그, 이 조금 잘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다고.}
- 10318 # 근'데 요새' 농'사진 사'람드림 일' 러'네 티끌 모'아이, 옛날' 사'람드롱 쪼매'꿍 브 악트'라도 알'뜨리 하'자거, 티끌 모'아 태사'니러능 말: 시'그로 사라와'꼬더. {그런데 요새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 년에 티끌 모아, 옛날 사람들은 조금씩 모으더라도 알뜰히 하자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식으로 살아왔거든.}
- 10318 # 근'데 요새'아 사'르드능 티끌 모'아 태사'이라 궁' 거'느, 근 멀:리' 가 뽀'래썩, 하' 마.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러는 것은, 그것은 멀리 가 버렸어, 벌써.}
- 10318 # 웨'냐, 함 뽀'네, 하'로 농'사을 지'면 며 첨마 녀 버'러에 데능 게'러. {왜냐, 한 번에, 한해 농사를 지으면 몇 천만 원 벌어야 되는 거야.}
- 10318 # 그까'지 쪼매'항' 거'늬 음, 병' 거또 아'이래. {그까짓 조그마한 것은 음, 번 것도 아니야.}
- 10318 # 그깐'나이, 그, 그깐'니, 그'이 도:늘' 개코'도 엄:는' 사'람드리 마'려지, 이, 그, 그 애 돈: 첨'마 너기, 이첨마 녀 우수'히 아'래, 요새' 사'람드리으. {그까짓, 그, 그까짓, 그 돈을 개코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 그, 그 돈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우습게 알아, 요새 사람들이.}
- 10318 # 그 사'람드리 농'사가 만해'가'주 마'리지 자'기 농'살 다: 해'가져 그'만쥼 한' 사'랑 꼬'어뜨른 조'키두 바'. {그 사람들이 농사가 많아서 말이지 자기 농사를 다 해 가지고 그만큼 한 사람 같으면 좋게도 봐.}
- 10318 # 아이, 굶 모 구'마남 데'지, 브. {아이, 그 뭐 그만하면 됐지, 뭐.}
- 10318 # 나무 농'사지이가주 마'애지이, 그글' 도'지, 이, 도'지, 썩, 으, 꼬'기, 여, 엔나'르 머 소'자기라 근'데, 여드면 도'지 제도구'더, 나무 해 쫌 함' 마지'기 두' 가'마이, 음,

머, 으요, 향' 가'마이 도'지 주'고, 그'래가주 멍'능 거, 옛날' 때'멈 기'양 멍'능' 게'지, 머. {남의 농사지어서 말이지, 그 도지, 이, 도지, 저, 어, 그, 옛, 옛날에는 뭐 소작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도지 제도거든, 남의 것 좀 한 마지기 두 가마니, 음, 뭐, 어, 한 가마니 도지 주고, 그래 가지고 먹는 것, 옛날에 대면 그냥 먹는 거지, 뭐.}

10318 # 옛날'름 반:쌩' 농'기 머'어끄더. {옛날에는 반씩 나눠 먹었거든.}

10318 # 두 가'운나 하'능 여'이 권', 는, 주'인 향 가'마이, 내' 향 가'마 이'랜데, 요새'능 보'멈 마'에찌에, 그'게 인'제' 이, 직'뿌끄미라그 또' 나오'그더, 어'샌너. {두 가마니 한 것 주인, 어, 주인 한 가마니, 내 한 가마니 이랬는데, 요새는 보면 말이지, 그'게 인'제' 이, 직'불금이라고 또 나오거든, 요새는.}

10318 # 함' 마'지'이'이'끼에 향' 가'마이 깎' 거'이 체. {한 마지기에 한 가마니 값 거의 쳐.}

10318 # 그'름'은 쌀'로' 주'인 향' 가'마이 주'공, 직'빨'째 지 향' 가'마이 따'베'이, 지'인 기'양 공'짜'배'이 멍'능' 게'러, 시'방'언. {그러면 쌀로 주인 한 가마니 주고, 직'불'제 자기 한 가마니 따'니, 자기는 그냥 공'짜'배'기 먹는 거야, 시'방'은.}

10318 # 다: 브'음'상'도, 그'른'데 그' 사'러'미 도'을 메' 침'마' 녀' 버'러'가'주 마'르'제 잘'사'면 조'왕. {다 먹으면서도,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몇 천만 원 벌어서 말이지 잘 살면 좋아.}

10318 # 대'콘' 잘'사'은 모' 형' 게' 머' 자'동'차'나 몰'고' 탱'기, 머'여, 콤' 푸'구'자 거'친 날'찌'엄, 딴, 두'베'이 보'머 쓰'능' 게' 더' 마'내, 이 사'러'미. {개'코'도 잘 살'지도 못' 하는 게' 뭐 자'동'차'나 몰'고 다'니고, 뭐'냐, 큰 부'자' 같이 나'다'니고, 똥, 똥'집'어 보'면 쓰'는 게' 더 많'아, 이 사'라'미.}

10318 # 기'름' 쓰'지, 차' 쓰'지, 머' 거'이 다' 끌'고 탱'게. {기'름' 쓰'지, 차' 쓰'지, 뭐' 거의 다' 끌'고 다'녀.}

10318 # 실'째 그'른'상'도 이, 예'으, 예'익, 이, 이'른 소'리 머, 으'여, 으, 근, 으'으, 음, 사'시'리'이'께'네. {실'제' 그러'면서'도 이, 어, 어, 이, 이'런 소'리 뭐, 어, 어, 그, 어, 음, 사'실' 아니'까.}

10318 # 그'려'도 도:니' 뱅'마' 녀' 거'트'이 근'녀'네 뱅'마' 녀'기 도'이'라, 그'룩, 이, 그, 이, 기, 이'래'드'라'꾼. {그'래'도 돈'이 백'만' 원' 같'으면 근'년'에 백'만' 원'이 돈'이'야, 그'래, 이, 그, 이, 그, 이'러'더'라'고.}

10318 # 내' 그'래, 하'이, 참', 미'이 저' 사'암'드'리 팽'자'이 마'이 부'능'게 따' 그'으'고, 열'마'너 수'이'비' 데'그'때' 돔' 뱅'마' 녀'을 까'지'끼' 돔' 뱅'마' 녀' 그'러'겐. {내' 그'래, 하'이, 참, 이'저' 사'라'미'들'이' 팽'장'히' 많'이' 버'는'가' 보'다' 그'러'고, 열'마'나' 수'입'이' 되'기'에' 돈' 백'만' 원'을' 까'짓'것' 돈' 백'만' 원' 그'러'겠'어.}

10318 # 그'랜'는, 어'이, 지, 시'방' 사'웨'라'꼬, 내'가. {그'런, 어, 저, 시'방' 사'회'라'고, 내'가.}

10318 # 호'르'이 도'니' 고'마' 대'번' 하, 일' 러'네' 농'살' 지'음' 메' 침'마' 녀'언'지' 딱' 쥐'야' 고'마, 그 머'으, 아, 이'야, 한' 내, 이'태' 지'이'가'주' 침'마' 늑' 맨'드'너, 근' 도'니' 아'이'래, 보'이'께'네. {그'러'니' 돈'이' 그'만' 대'번' 한, 일' 년'에' 농'사'를' 지'으면' 몇' 천'만' 원' 딱' 쥐'어'야' 그'만, 그' 뭐, 어, 어, 한' 해, 이'태' 지'어' 가'지'고' 천'만' 원' 만'든, 그'것'은' 돈'이' 아'니'야, 보'니'까.}

10318 # 대'병' 고'망' 거', 준, 침' 마, 이'침' 만' 쥐'기'야' 데'얌. {대'번' 그'만' 그, 저, 천' 만, 이'천' 만' 원' 쥐'어'야' 돼.}

10318 # 근'디' 옛날' 사'람'브'더' 향' 가'마이, 두 가'마이' 늘'러'가'주 소' 빠'리' 메'기'가'주 소'아'

지 함 마'리 파'라 가주고 그'래 머'은 사'럽드리 오'른 부자'라꼬, 그'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늘려서 소 몇 마리 먹여서 송아지 한 마리 팔아 가지고 그'래 모은 사람들이 옳은 부자라고, 그'게.}

10318 # 여, 그'른 사'리물 중'경해 조'이 텐'데 마'리지. {여, 그런 사람을 존경해 줘야 되는데 말이지.}

10318 # 기'러이 그'게' 이 요새' 사'럽드리 마'알지 나'면 돔 병' 게' 기'양 번' 줄 안다'이께 너 말. {그러니 그'게 이 요새 사람들이 말이지 남은 돈 번 게 그냥 번 줄 안다니까 말이지.}

10318 # 하'이, 그'르, 지:가' 버'러 바:야 아, 아'라. {하이, 그래, 자기가 벌어 봐야 알, 알아.}

10318 # 그 사'훼'가 그'키 바'께'따, 그' 마'리야, 내'가여. {그 사회가 그렇게 바꼈다, 그 말이야, 내가요.}

10318 # 나'를 머' 그 뜯'능 게 아'이래, 내'가. {남을 뭐 그 헐뜯는 게 아니야, 내가.}

10318 # 어이, 얘'에'기르 항 게'르. {어, 이야기를 한 거야.}

10318 # 현: 사'웨'가 그'래요. {현재 사회가 그래요.}

10318 # 호'르이 그'게 따'카드라꼬, 내'가 볼' 때 마'리'야. {그러니 그'게 딱하더라고, 내가 볼 때 말이야.}

10318 # 줌' 덜: 쓰'고, 늘'구'코, 그'래에 텐'데, 돔 병'마 넌 머'으, 그, 커'른데 차'가 말 요'오 간'데드 차 가'주' 가'요. {줌 덜 쓰고, 늘리고, 그래야 되는데, 돈 백만 원 댜, 그, 그런데 차가 말이지 요기 가는데도 차를 가지고 가요.}

10318 # 그' 웨 기'리미 함'범' 떨'르 까'명 꼬, 어으, 저'거'도 한'두 텐 다: 드'능 거 아'이'래요. {그 웨 기름이 한 번 몰고 가면 그, 어, 적어도 한두 되 다 드는 것 아니에요.}

10318 # 구'꺼'역 그'른 거'는 다: 씨' 뿌'고 마'에'치이. {그러니 그런 것은 다 씨 버리고 말이지.}

10318 @ 요즘'머 기'름'값'또 비'싸'서? {요즘은 기름값도 비싸서?}

10318 # 예'아, 비'싼'데 글'쎄. {예, 비싼데 그러게.}

10318 # 저'어' 놈'물 보'러 감'자 차 가'주' 가'고 마'에'지, 놀'로' 간'데 차 텅'기'그 마'에'찌'에, 시'꾸 때'우'구 덜'루' 땡'기'구 마'러'지. {저 논물 보러 가면서 차 가지고 가고 말이지, 놀러 가는데 차 다니고 말이지, 식구 태우고 들로 다니고 말이지.}

10318 # 요'음 농'진'니 껴, 그'게' 농'업'진'능 거'뜨 아'이'래'여. {요즘 농사짓는 것, 그'게 농사짓는 것도 아니에요.}

10318 # 호'가~'이'래, 요'샌' 옼'나'른 농'운'정'임'쎄'요. {호강이야, 요새는 옛날에 농사지으면 서요.}

10318 @ 예'전'하고 요'즘' 마이 달'라'져'썸'미? {예전하고 요즘 많이 달라졌습시다?}

10318 # 예'아, 실'쎄'이 그'래'. {예, 실정이 그래.}



## 제 2 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나락 ' 아리러(+ 벼이삭 중에서 낱알을 이르는 말)
20101	벼	나 ' 라기러(+ 구)
20101	벼	벼라 ' (+ 신)
20102	이삭	벼리이삭 ' (+ 보리의 이삭)
20102	이삭	벼이사 ' 기라(+ 벼의 이삭, + 신)
20102	이삭	나락이삭 ' (+ 벼의 이삭, + 구)
20103	벼씨	벼씨 ' 이
20103	벼씨	나락씨 ' 라(+ 다)
20103	벼씨	씨나 ' 라기라(+ 구, 다)
20103	벼씨	나락종자 ' (+ 소)
20104	못자리	모짜 ' 리
20105	모판	모 ' 판노
20105	모판	모상 ' 자(+ 기계 모판)
20106	쟁기	쟁 ' 기
20106	쟁기	개량혹 ' 찌
20107	보습	혹찌날 '
20107	보습	쟁 ' 기라꼬
20108	벧	*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후 ' 끼
20109	극쟁이	혹 ' 찌
20110	씨레	씨 ' 어레
20111	번지	번 ' 지요
20112	모내기	모승 ' 기
20113	흙덩어리	흙떠~ ' 이
20114	고무래	밀개 '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밀개 ' 러
20114-2	고무래(재 용도)	브영밀개 ' 러
20114-2	고무래(재 용도)	불밀개 ' 러
20114-3	고무래(흙 용도)	밀개 ' 래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밀개 ' 러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밀개 '
20115	쇠스랑	소새랑 '
20116	곡괭이	목괭~ ' 이러
20116	곡괭이	모괭~ ' 이
20117	괭이	괭~ ' 이
20117	괭이	괭~이 ' 래
20118	삽	사까 ' 래

20119	호미	호메~ ' 이(+ 구)
20119	호미	호 ' 미고(+ 신, 다)
20120	농기구	농:기 ' 구
20121	김	김 ' (+ 다)
20121	김	지 ' 시미(+ 소)
20122	김매다	지 ' 심맨더(+ 소)
20122	김매다	김:맨 ' 다(+ 다)
20123	애벌 매다	아이눔매 ' 기
20123-1	두벌 매다	두블룸매 ' 기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블룸매 ' 기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블 ' 룸맨다
20124	논두둑	논뚜럭 '
20124	논두둑	논뚝 '
20124	논두둑	논뚜렁 '
20124-1	논두렁	논뚜러 ' 기러
20124-1	논두렁	논뚝 '
20125	밭둑	바뚜 ' 기라고도
20125	밭둑	바뚜렁 '
20126	밭두둑	바 ' 꿀
20126	밭두둑	땅:뇨
20127	밭고랑	꿀:료
20127	밭고랑	바 ' 꿀
20128	밭이랑	바꼬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탄 ' 다
20128-2	이랑밟기	버리 ' 밟끼
20129	보리	버리 '
20129-1	가을보리	가을버리 '
20129-2	봄보리	봄 ' 빠리
20130	보리쌀	버리 ' 쌀
20131	가을갈이	가을가 ' 리
20132	감부기	감부 ' 기
20133	두엄	튀비 '
20134	거름	마구꺼름 '
20134	거름	거름 '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한 ' 다(+ 다)
20201	추수하다	가을한 ' 다(+ 소, 주로 외지인들이 씀.)
20202	벚단	나락 ' 땀
20202-1	벚단(한 줌정도)	자근다 ' 니르
20202-2	벚단(타작할 정도)	자근나 ' 락만
20202-3	벚단(한 아룀정도)	무단 ' 뇨
20203	가리(積)	콩까 ' 리
20203	가리(積)	가 ' 리
20204	가리다(積)	가 ' 린다

20205	벗가리	나락까 ' 리
20206	남가리	가 ' 리엄
20207	타작	타:작 '
20208	벼훑이	나락찌 ' 께요
20208-1	그네	홀 ' 치기
20209	개상	잘:개 '
20209-1	자리개	잘개 ' 줄
20209-2	자리개질	잘개 ' 질
20210	도리깨	도리 ' 깨
20210-1	도리깨장부	장 ' 치고
20210-2	도리깨열	도리 ' 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꼭뚜마 ' 리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깨꼭 ' 찌고
20211	벗짚	나 ' 락짐뇨
20211-0-1	-을	지펄 '
20211-0-2	-에	지 ' 께다
20212	새패기	짐마디 '
20213	쭈정이	쭈쭈~ ' 이
20214	티	문지 '
20214	티	까 ' 시(+ 눈에 들어갔을 때.)
20215	까끄라기	까끄레 ' 이
20216	풍구	풍구 ' 대
20217	원두막	원:두막 '
20218	허수아비	허제 ' 비
20219	홍년	홍년 '
20220	머슴	머섬 '
20221	눅	일:꾼 ' (+ 신)
20221	눅	노비 ' 라(+ 구, 여자인 경우에 쓰는 말.)
20221-0-1	-을	노 ' 비라
20221-0-1	-을	노별 ' 사이 텐다
20222	품앗이	푸마 ' 씨
20223	품삯	품 ' 캄뇨(+ 다)
20223	품삯	품삭 ' (+ 소)
20223-0-1	-으로	품 ' 캄스르요

### 2.1.3. 방아찰기

20301	방아	방아 '
20302	디딜방아	디 ' 딜방아
20303	방앗공이	방아 ' 께
20304	방아확	호박 '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
20306	연자방아	연자방아 '
20307	절구	절구 '
20308	절구통	절구 ' 통
20309	절굿공이	절구고~ ' 이(+ 구)
20309	절굿공이	절구방메 ' 이

20310	절구질	절구 ' 질
20311	겨	껍 ' 찢료
20311	겨	겨라 '
20312	보릿겨	댕가루 '
20312	보릿겨	버리뎡가 ' 루
20313	왕겨	왕 ' 겨(+ 신)
20313	왕겨	나락 ' 껌요(+ 구)
20314	등겨	쌀뎡가 ' 루
20315	검불	검 ' 불
20315	검불	뽕떼 ' 기르(+ 짚이 뒤섞여서 엉클어진 뭉텅이.)
20316	껍질	굴껍떼 ' 이(+ 굴의 껍질.)

#### 2.1.4. 곡물

20401	곡식	곡 ' 식
20402	참쌀	참쌀 '
20403	멥쌀	멥쌀 '
20404	쌀보리	쌀버리 '
20405	조	조 ' 라
20405	조	서숙 '
20406	차조	차조 '
20407	메조	메조 '
20408	좁쌀	좁 ' 살
20409	잘다	잘 ' 다
20410	조이삭	서숙 ' 이삭
20410	조이삭	조 이삭 '
20411	수수	수꾸 '
20411-1	붉은색 수수	*
20411-2	장목수수	*
20411-3	찰수수	차수꾸 ' 는
20411-4	메수수	메수꾸 '
20412	수수깡	수꾸꺼떼~ ' 이
20412	수수깡	수꾸 ' 때속
20413	옥수수	강내~ ' 이러(+ 신)
20413	옥수수	강낭 ' (+ 구)
20413-1	찰옥수수	찰강 ' 낭
20413-2	메옥수수	메강낭 '
20414	귀리	귀 ' 밀(+ 상향이중모음 "위".)
20415	메밀	메물 '
20416	콩	콩 '
20417	콩깍지	콩깍 ' 찌(+ 신)
20417	콩깍지	콩꺼 ' 찌(+ 구)
20418	메주	메 ' 주
20419	매달다	단다 '
20420	띠우다	띠 ' 운다
20421	곰팡이	곰팡 ' 이
20422	강낭콩	양대 '

20423	콩기름	콩기 ' 림
20424	깨	깨 ' 애 '
20424-1	참깨	참깨 '
20424-2	들깨	뜰 ' 깨
20425	고소하다	고소하 ' 다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
20502	나물	나물 '
20502-1	"나물(발 재료)"	채:소 '
20502-2	"나물(발 반찬)"	나물 ' 료
20502-3	"나물(들 재료)"	나물 ' 료
20502-4	"나물(들 반찬)"	나물반 ' 차니거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물 ' 료
20502-6	"나물(산 반찬)"	산나물 ' 료
20503	푸성귀	채:소 ' 오요
20503	푸성귀	푼 ' 나물(+ 구)
20504	다듬다	따듬는 ' 다
20505	반찬	반 ' 찬
20506	무	무꾸 '
20507	썰다	써 ' 언다
20508	무청	무꾸 ' 입
20509	시래기	쓰레 ' 기
20510	무말랭이	곤지 '
20511	장다리무	무꾸장 ' 치(+ 구, 다)
20511	장다리무	무우장 ' 치(+ 신, 소)
20512	배추	배차 '
20513	고깡이	배차 ' 소꾸베~이
20514	오이	무뽕 '
20515	오이지	무레 ' 지
20516	오이소박이	무레 ' 소배기
20517	가지(茄子)	가지 '
20518	호박	호:박 '
20519	고구마	고:구 ' 마
20520	감자	감자 '
20521	우엉	우봉 ' 자
20522	파	파 '
20523	고추	꼬추 '
20524	시금치	시 ' 금치
20525	미나리	미나 ' 리
20526	부추	분:초 ' (+ 소)
20526	부추	정구 ' 지(+ 다)
20527	상추	부루 '
20528	마늘	마 ' 늘
20529	생강	생강 '
20530	냉이	나새~ ' 이

20531	달래	달 ' 래
20532	도라지	도라 ' 지
20533	더덕	더 ' 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 '
20602	찬밥	씨근 ' 밥
20602-1	더운밥	뜨신 ' 밥
20603	조밥	조 ' 밥
20604	누룽지	누룽 ' 기
20605	눌은밥	누름 ' 밥
20606	송냥	송 ' 냥
20607	뜨물	뜨물 '
20608	김(蒸氣)	김:
20609	갱죽(羹粥)	갱:주 ' 기러
20610	싱겁다	싱겁 ' 따
20611	국수	국 ' 쑈(+ 신)
20611	국수	국 ' 시(+ 구)
20612	칼국수	손칼국 ' 씨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틀국 ' 씨
20613	건더기	건데 ' 기
20613-1	국물	궁 ' 물마
20614	고명	우끼 ' 이
20615	꾸미	꾸미 '
20616	미역	미 ' 역
20617	김(海苔)	김:
20618	수제비	수제 ' 비
20619	끼니	때를 '
20620	미음	میم:
20620-1	(미음을) 끓이다/쑤다/삶다	쑤 ' 다
20621	엿기름	여끼럼 '
20622	식혜(食醴)	감 ' 주(+ 맵쌀로 만든 것.)
20622	식혜(食醴)	점 ' 주(+ 찹쌀로 만든 것.)
20623	식해(食?)	시캐 '
20624	달다(甘)	달 ' 다
20625	가루	가루 '
20625-0-1	-에	갈 ' 게다
20625-0-2	-을	갈 ' 글
20625-0-3	-도	가루 ' 도
20626	밀가루	미까루 '
20627	밀기울	밀기 ' 울
20628	미숫가루	미 ' 시까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장:물 '
20702	된장	돼장 ' 에
20703	고춧가루	꼬추까루 '
20704	고추장	꼬추 ' 장
20705	소금	소그 ' 메
20706	김치	짬 ' 지
20707	김장	김장한 ' 다(+ 신)
20707	김장	짬 ' 지한다(+ 구)
20708	깍두기	깍뚜 ' 기
20709	나박김치	물김 ' 치
20710	담그다	짬 ' 지 한다
20710-0-1	-고	짬 ' 지 하고 이따
20710-0-2	-어라	짬 ' 질 해:라
20711	양념	양념 '
20712	버무리다	버무 ' 린다
20713	버섯	버 ' 섰
20713-0-1	-이	버 ' 서시
20714	콩나물(재료)	콩기름 '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 '
20714-2	숙주(나물)	숙 ' 쭈나물
20715	두부	두부 '
20716	비지	비 ' 지라
20716-1	비지떡	비 ' 지떡
20717	달걀	달걀 '
20718	가래떡	갈 ' 비떡
20719	시루떡	시루 ' 떡
20720	송편	송 ' 편
20721	빻다	만든 ' 다
20722	흰떡	흰:떡 '
20723	고물	고 ' 물
20724	팔죽	팔죽 '
20725	새알심	새알 '
20726	백설기	백 ' 설기
20727	튀밥	박 ' 상
20728	술	술 '
20729	막걸리	마걸 ' 리
20730	소주	소 ' 주
20731	부침개	적 '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마 ' 기러
20802	가마솥	가마솥 '
20802-0-1	-을	가마소철 '

20802-0-2	-에	소 ' 테
20803	아궁이	브억 '
20803-0-1	-이	브어 ' 키
20804	그을음	끄름 '
20805	불쏘시개	불소시 ' 개
20806	연기	영 ' 기
20806-1	내(煙氣)	영 ' 기래
20807	그을리다	끄으 ' 러따
20808	부지깥이	부지깨~ ' 이
20809	부삽	부삽 '
20810	넙다	따곰 ' 따
20811	넙비	넙비 ' 라
20812	그릇	그 ' 릅
20812-0-1	-을	그 ' 릅슬
20813	뚜껑	뚜껑 '
20814	주발 뚜껑	시끄 ' 떼(+ 구)
20814	주발 뚜껑	밥뚜껑 ' (+ 신)
20815	사발 뚜껑	사발뚜껑 '
20816	술뚜껑	소뚜껑 '
20817	밥주걱	빡쭈 ' '
20818	술가락	수까 ' 락
20819	젓가락	절까 ' 락
20820	종지	종 ' 지
20821	보시기	중 ' 발
20822	뚝배기	뚜까 ' 리
20823	접시	쟁반 ' (+ 크기가 큰 것.)
20823	접시	접씨(+ 크기가 작은 것.)
20824	조리	조:리 '
20825	이남박	쌀베 ' 기
20826	바가지	바가 ' 치
20827	행주	행 ' 주
20828	행구다	행 ' 군다
20829	설거지	설거 ' 지
20830	개숫물	꾸정 ' 물
20831	찌꺼기	찌꺼 ' 기
20832	화로	화:로 '
20833	화롯불	화:로 ' 뿔
20834	부절가락	부절 '
20834-0-1	-이	부저 ' 리
20834-1	불순가락	불수까 ' 락
20835	다리쇠	삼:발 '
20836	석쇠	적췌 '
20837	도시락	밥 ' 꼬리
20838	바구니	광지 ' 리(+ 크기가 큰 것.)
20838	바구니	바구 ' 니(+ 크기가 작은 것.)
20839	뒤주	두지 '
20840	찬합	합 '
20841	강판	강 ' 판
20842	개다리소반	차반 '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암뽕 '
20902	벽	벽 '
20903	다락	다락 '
20904	벽장	벽짱 '
20905	감추다	숨긴 ' 다
20905	감추다	감춘 ' 다(+ 구, 다)
20906	흙	흙:
20907	돌쩌귀	돌:쪽 '
20907-1	암썩	암또 ' 올쪽
20907-2	수썩	수또 ' 올쪽
20908	미단이	밀창 '
20909	여단이	무 ' 니러
20910	덧문	덤문 '
20911	열다	연:다 '
20912	문고리	몽꼬 ' 리
20913	자물쇠	자물 ' 세
20914	간히다	가쳐 ' 따
20915	열쇠	여열 ' 세
20916	잠그다	장구 ' 운다
20917	구멍	몽꾸멍 '
20917-1	취구멍	취구멍 ' (+ 상향이중모음 "위")
20918	찢다	쨌 ' 다
20919	구들	구들 '
20920	흙받기	흑 ' 판
20921	흙손	흘 ' 쓴
20922	흙칼	흘 ' 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흘 ' 칼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흘 ' 칼
20923	바르다	바른 ' 다
20924	장판	장 ' 판
20925	종이	종 ' 이
20926	도배	도배 '
20927	구석	방 꾸석 ' (+ 방의 구석.)
20928	굽도리	뛰지 ' (+ 상향이중모음 "위")
20929	깨끗하다	깨:끄타 ' 다
20930	문지방	문찌바~ ' 이르
20930-0-1	-에	문찌방 ' 에
20931	틈	문 ' 틈(+ 문의 사이가 벌어진 자리.)
20932	가장자리	방 ' 가:(+ 방의 가장자리.)
20932	가장자리	가에라 ' 드
20932	가장자리	가세 '
20933	가운데	방 쯤깐 ' (방의 가운데 부분.)
20933	가운데	방 중간 ' (+ 방의 가운데 부분.)
20934	시렁	실 ' 경
20935	살장	브억실 ' 경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40 걸다  
 20941 호롱

선 ' 반  
 서랍 '   
 경:대 '   
 망:경 '   
 건:다 '   
 호롱 '

###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2 기와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5 암키와  
 21006 대들보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영  
 21012-0-1 -에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땃돌  
 21019-1 섬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뒹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지붕 '  
 지붕 ' 에  
 게와 ' 로  
 게와지 ' 비다  
 쭉게 ' 와  
 앙게 ' 와  
 대들뽀 '  
 해까 ' 래  
 추 ' 녀  
 처 ' 마  
 오막사 ' 리  
 초가 ' 집  
 날 ' 개  
 날 ' 개에  
 용마람 '  
 처 ' 마꾼  
 낙쭈 ' (+ 소)  
 처 ' 땅물(+ 다)  
 잼물 ' 물  
 새다리 '  
 용마루 '  
 디덤 ' 뜰:  
 물바 ' 진돌:  
 디덤 ' 뜰:  
 마루 '  
 마루 ' 에  
 뒹:마 ' 루  
 기둥 '  
 주치 ' 뜰  
 주치 ' 또를  
 꿀:뚝 '

### 2.3.3. 마당

21101 뜰

뜨:리 ' 라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 변소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결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마당 '  
 널 ' 따  
 널 ' 버서  
 렬 ' 편다  
 고 ' 방  
 마:구 '  
 마:구 '  
 고 ' 방  
 허간 '  
 쓰레 ' 기  
 장뚝 ' 대  
 장뚝 ' 뚜껑  
 디까 ' 나라(+ 소)  
 변 ' 소(+ 신)  
 통시 ' (+ 구)  
 똥짱 ' 구~이  
 울타 ' 리  
 담 '  
 다 ' 메  
 담도 '  
 짜리무 ' 니르  
 뒀안 '  
 뒀아 ' 네서  
 바깥 '  
 바까 ' 테  
 바 ' 께  
 모티 ' 일(+ "모퉁이를"의 의미임.)  
 담모티~ ' 이  
 귀사 ' 리(+ "상향이중모음 "위")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마을 '  
 움마 ' 야:  
 움마 ' 을  
 이 ' 읍  
 이 ' 우시  
 이 ' 우세  
 마을간 ' 다  
 우 ' 물  
 뚜루 ' 박  
 새:미 ' 지  
 가:  
 바 ' 까를(+ "발 가를"의 의미임.)  
 바 ' 까에(+ "발 가에"의 의미임.)  
 무지 ' 게  
 점:뽕 '

21211	싸다	싸다 '
21212	비싸다	비 ' 싸다
21213	홍정	홍정 '
21214	중매인(거간꾼)	구 ' 정꾼(+ 소의 매매에 관여하는 사람.)
21214	중매인(거간꾼)	홍정꾼 '
21215	잔돈	나:또 ' 니
21215	잔돈	나:똥 '
21216	에누리	까 ' 까다아고(+ 명사형 없음.)
21217	거스름돈	거스름 ' 똥
21218	거스르다	거스름 ' 똥 다고(+ 명사형 없음.)
21219	꾸다(借)	꾸다 '
21219-0-1	-어야	꿔야 '
21220	구두쇠	노래~ ' 이러
21221	말기다	마 ' 끼다
21222	나머지	나머 ' 지 돈:
21223	덤	우:수 ' 라
21224	뭇	목 ' 시러
21224-0-1	-을	목 ' 설
21225	빚	비 ' 질
21225-0-1	-을	비 ' 질
21225-0-2	-에	비 ' 제
21226	이자(利子)	이:자 '
21227	심부름	심:부 ' 림
21228	두름	두름 '
21228-1	축	한 ' 축
21228-2	꽤	한 ' 떼
21228-3	접	한 ' 접
21228-4	쌈	한 ' 쌈
21228-5	두름	한 두름 '
21228-6	단/뭇(작은 묶음)	한 ' 단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함 무꿈 '
21228-8	툇	한 ' 톤
21228-8	툇	한 ' 토시
21228-9	모숨	한 오 ' 쿼
21229	결레	항 커 ' 레
21230	마지기	함 '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삼 ' 백평뇨(+ 논, 밭이 동일함.)
21231	꾸러미	한 ' 줄
21232	그루	한 나무 '
21233	포기	함 포 ' 기
21234	저울	저 ' 울
21235	자루(包袋)	자루 '
21235-0-1	-을	자루 ' 을
21235-0-2	-에	잘 ' 게
21236	하나	하나 '
21236-1	한-개	항 ' 개
21236-2	한-되	한 ' 대
21236-3	한-말	함 ' 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 개 '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되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1 스무-개  
 21246-2 스무-되  
 21246-3 스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3 쉰-말

두: 돼 '  
 두: 말 '  
 서어 ' :이  
 세: 개 '  
 세: 대 '  
 세: 말 '  
 너어 ' :이  
 네: 개 '  
 네: 대 '  
 네: 말 '  
 달 ' 서  
 다 ' 석 깨  
 다 ' 선 때  
 다 ' 섬 말  
 열 ' 서  
 여 ' 석 깨  
 여 ' 선 때  
 여 ' 섬 말  
 이일 ' 고  
 일 ' 곡 깨  
 일 ' 곱 때  
 일 ' 곱 말  
 여 ' 덜  
 여 ' 덜 깨  
 여 ' 덜 때  
 여 ' 덜 말  
 아 ' 흙  
 아 ' 흙 깨  
 아 ' 흙 때  
 아 ' 흙 말  
 열 '  
 열 깨 '  
 열 때 '  
 열 ' 말  
 시무 ' 리고  
 시무 ' 개  
 시무 ' 대  
 시무 ' 말  
 서 ' 르니고  
 서 ' 런 개  
 서 ' 런 대  
 서 ' 런 말  
 마 ' 혼  
 마 ' 혼 개  
 마 ' 혼 대  
 마 ' 혼 말  
 쉰:(+상향이중모음 "위")  
 쉰: 개 ' (+상향이중모음 "위")  
 쉰: 대 ' (+상향이중모음 "위")  
 쉰: 말 ' (+상향이중모음 "위")

21250	예순	예 ' 쉰(+ 상향이중모음 "위")
21250-1	예순-개	예 ' 쉰 개
21250-2	예순-되	예 ' 쉰 대
21250-3	예순-말	예 ' 쉰 말
21251	일흔	이 ' 린
21251-1	일흔-개	이 ' 린 개
21251-2	일흔-되	이 ' 린 대
21251-3	일흔-말	이 ' 린 말
21252	여든	여 ' 든
21252-1	여든-개	여 ' 든 개
21252-2	여든-되	여 ' 든 대
21252-3	여든-말	여 ' 든 말
21253	아흔	아 ' 혼
21253-1	아흔-개	아 ' 혼 개
21253-2	아흔-되	아 ' 혼 대
21253-3	아흔-말	아 ' 혼 말
21254	백	백기 ' 지
21254-1	백-개	백 개 '
21254-2	백-되	백 때 '
21254-3	백-말	백 말 '
21255	이백	이백 '
21256	한둘	한 ' 둘
21256-1	한두-개	한 ' 두 개
21256-2	한두-되	한 ' 두 대
21256-3	한두-말	한 ' 두 말
21257	두셋	둘:서 ' 이
21257-1	두세-개	두 ' 세 개
21257-2	두세-되	두 ' 세 대
21257-3	두세-말	두서 ' 말
21258	두서넛	두울 ' 서이너이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 ' 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 ' 대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 ' 말
21259	서넛	서넛 '
21259-1	서너-개	서너 ' 개
21259-2	서너-되	서너 ' 대
21259-3	서너-말	서너 ' 마리고
21260	네댓	너다 ' 션
21260-1	네댓-개	너다 ' 서 개
21260-2	네댓-되	너다 ' 서 때
21260-3	네댓-말	너댄 ' 말
21261	대여섯	대여 ' 션
21261-1	대여섯-개	대:여 ' 서 개
21261-2	대여섯-되	대여 ' 서 때
21261-3	대여섯-말	대염 ' 말
21262	예닐곱	여일 ' 곱
21262-1	예닐곱-개	여일 ' 고 개
21262-2	예닐곱-되	여일 ' 곱 때지
21262-3	예닐곱-말	여일 ' 곱 말
21263	일여덟	이러 ' 덜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일려 ' 덜 깨  
 일려 ' 덜 때까지  
 일려 ' 덜 말  
 여 ' 덜아웁  
 여덨라 ' 오 깨  
 여덨라 ' 웁 때  
 연아 ' 흠 말  
 여남 '  
 여나 ' 므 개지  
 여나 ' 무 대  
 여나 ' 음 마리지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0 의복  
 21311 구겨지다  
 21312 옷고름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5 겹  
 21315-0-1 -에  
 21315-0-2 -을  
 21316 홑옷  
 21317 겹옷  
 21318 잠방이  
 21318 잠방이  
 21319 누더기  
 21320 거지  
 21321 구결  
 21322 조끼  
 21323 내의  
 21323 내의  
 21324 끼입다

치마 '  
 치마 기 ' 리(+ 치마의 길이.)  
 저고 ' 리  
 색똥 ' 저고리  
 배덨 ' 깨  
 무 ' 니  
 고쟁~ ' 이  
 중우 '  
 쓰보 ' 옹노(+ 일본어의 잔재임.)  
 두루막 ' (+ 신)  
 둘메~ ' 이(+ 구)  
 오슬 '  
 이 ' 보기라  
 꾸게 ' 진다  
 고 ' 림  
 단추 '  
 동 ' 정  
 거 ' 치  
 옥 거 ' 테(+ 옷 겹에.)  
 거 ' 틀  
 호 ' 돈  
 겨븐 '  
 잠베~ ' 이(+ 신)  
 가래~ ' 이온(+ 다)  
 누더 ' 기온  
 결베~ ' 이  
 동냥 '  
 쫓 ' 끼  
 내:복 ' (+ 신)  
 소고 ' 슌(+ 구, 다)  
 더께 ' 임:다

21325	소매	사매 '
21326	주머니	주머~ ' 이
21327	호주머니	주머~ ' 이
21327	호주머니	호주머~ ' 이가
21328	허리띠	허리 ' 뺑(+ 다)
21328	허리띠	허리 ' 띠(+ 소)
21329	댕기	댕 ' 기 '
21330	도포	도:포 '
21331	삿갓	사 ' 깔
21331-0-1	-에	사 ' 까세
21332	고깔	꼬 ' 깔료
21333	사모	사무 '
21334	유견	유견 '
21335	대님	다 ' 님
21336	감발	발싸 ' 개
21337	짚신	집신 '
21338	미투리	미:트 ' 리르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삼:는 ' 다
21339	나막신	나막 ' 신
21340	설피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주 '
21401-1	명주실	명주 ' 실
21402	목화	명 '
21402-1	목화다래	솜 ' 따래
21403	무명	무명 '
21403-1	무명실	무명 ' 실
21404	씨아	췌 ' 기러
21404	씨아	췌췌 ' 지
21405	자새	자왜 '
21406	물레	물:레 '
21407	베	베 '
21408	길쌈	길삼 '
21409	골무	골미 '
21410	반질고리	바느 ' 질통(+ 다)
21410	반질고리	반질꼬 ' 리(+ 소)
21411	가위	가시 ' 개로(+ 구)
21411	가위	가 ' 위(+ 신, 상향이중모음 "위")
21411-0-1	-을	가시 ' 개를
21411-0-2	-에	가시 ' 개에
21412	마르다(裁)	온 마른 ' 다(+ 옷 마른다.)
21412-0-1	-고	마르 ' 고
21412-0-2	-어라	말 ' 라라
21413	형겻	형:겻 '



21413-0-1	-을	형:거 ' 불
21413-0-2	-에	형:거 ' 베
21414	바늘	바 ' 늘
21415	꿰다	끼 ' 인다
21415-0-1	-고	뀌 ' 이고(+ 상향이중모음 "위")
21415-0-1	-고	끼 ' 이고
21415-0-2	-어라	뀌 ' 이라(+ 상향이중모음 "위")
21416	바느질	바느 ' 질한다
21417	재봉틀	자봉 ' 틀
21418	끈	끈 '
21419	노끈	노 ' 끈
21420	참바	참 ' 바르
21420	참바	바쫄 '
21421	매듭	고 ' 리(+ 소)
21421	매듭	매 ' 집(+ 다)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지 ' 어서
21422	보자기	보자 ' 기
21423	이불	이 ' 불
21424	숨	숨:
21425	포근하다	포근하 ' 다
21426	홀이불	혼니 ' 불
21427	겹이불	겹이 ' 불
21427-1	숨이불	숨:이 ' 불
21428	누비이불	누 ' 비이불
21429	베개	베에 ' 개
21430	베갯잇	베갯 ' 닢
21430-0-1	-에	베갯 ' 니페
21431	목침	몽치 ' 미
21432	퇴침	튀:침 '
21433	방석	방석 '
21433	방석	자부동 ' (+ 일본계 외래어)
21434	담요	담노 '
21435	빨래하다	빨래한 ' 다
21436	빨랫방망이	빨래뽕메~ ' 이러
21437	빨래터	빨래 ' 터르
21438	빨랫줄	빨래 ' 쥘
21439	다리미	다래 ' 미
21439-1	다림질	다람 ' 질
21440	인두	인:도 '
21441	다듬잇방망이	따드 ' 미방메~이
21442	다듬잇돌	다림 ' 뜯(+ 소)
21442	다듬잇돌	방치 ' 뜯(+ 다)
21443	다듬이질	방메~ ' 이질
21443	다듬이질	따드 ' 미방메~이질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랄 ' 료
21502	설	서얼 '
21503	섣달 그믐날	서딸 '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무 ' 근세배
21505	올해	올 ' 해
21505-0-1	-는	올 ' 해는
21505-1	작년	장년 '
21505-2	재작년	저장 ' 년
21505-3	내년	내년 '
21505-4	후년	저내 ' 연
21505-5	내후년	저저 ' 내년
21506	작은설	자근 ' 서으러
21507	웃	운 '
21507-0-1	-을	유 ' 철
21507-0-2	-에	유 ' 테
21507-1	웃놀이	윤노 ' 리
21508	웃가락	유까 ' 치
21508-1	도	또 '
21508-2	개	개 '
21508-3	결	결 '
21508-4	웃	운 '
21508-5	모	모 '
21509	단동	한동 '
21509-1	외동무니	단동 '
21509-2	두동무니	두도~ ' 이
21509-3	석동무니	석또~ ' 이
21509-4	넉동무니	넉똥 '
21509-5	막동	막똥 '
21509-6	단동무니	단동 ' 불출
21510	보름	보 ' 르미래
21510-1	삭망	상망 '
21510-1	삭망	초하르보 ' 림
21511	추석	추석 '
21512	망월	대:보 ' 림노리
21513	취불놀이	취불 ' 로리(+ 상향이중모음 "위")
21514	자치기	자치 ' 개
21514-1	작은막대	자 ' 치
21514-2	긴막대	자 ' 때
21514-2	긴막대	작때 ' 기
21515	수수께끼	수수꺼 ' 끼
21516	호미씻이	푸꾸 '
21517	팽과리	팽매 ' 기
21518	장구	장 ' 구
21519	결두리	참:
21520	무당	무:당 '

21520-1	박수	박수 '
21521	고수레	고시 ' 네
21521-1	고수레!	고시 ' 네:
21522	점쟁이	점제~ ' 이
21523	상여(喪輿)	행:상 '
21524	굴건	굴:권 '
21525	제사	기제 ' 사
21526	제기	제:기 '
21527	귀신	귀시 ' 니르(+ 상향이중모음 "위")
21527	귀신	잡귀 ' (+ 상향이중모음 "위")
21528	도깨비	도깨 ' 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소타 ' 리
21602	굴레	굴 ' 레
21603	멍에	멍 ' 에
21604	길마	기르 ' 마
21605	부리망	소머거 ' 리
21606	구유	소죽 ' 통
21607	작두	작 ' 두
21608	꼴	꼴 '
21609	여물	여물 '
21610	쇠죽	소 ' 죽
21611	쇠죽바가지	소죽빠가 ' 치
21612	수레	구르 ' 마(+ 일본계 외래어임.)
21612	수레	수 ' 레
21613	끝다	끄 ' 은다
21613-0-1	-고	끝꼬 '
21614	바퀴	바 ' 뤼(+ 상향이중모음 "위")
21615	새끼(繩)	새끼 '
21615-1	새끼(짐승의)	새 ' 끼
21616	망태기	망 ' 태
21617	떡둥구미	붕테 ' 기
21618	거적	거적떼 ' 기
21619	가마니	가 ' 마~이
21619-1	가마니틀	가 ' 마~이틀
21620	돛자리	초석 '
21621	자리틀	초석 ' 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짠다
21622	왕골	왕 ' 골
21623	삼태기	소구 ' 리
21623-1	짚 삼태기	집소 ' 구리
21623-2	짜리 삼태기	짜리소구 ' 리
21624	명석	명석 '
21625	어레미	얼게 ' 미
21625-1	고운체	고운 ' 체

21625-1	고운채	채 '
21625-2	굵은채	신:채 '
21626	대장장이	대장재~ ' 이
21627	대장간	베름간 '
21628	풀무	풀미 '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꽉:짜 ' (+ 구)
21631	갈퀴	까꾸 ' 리(+ 신)
21632	집게	찌 ' 께
21633	장도리	장:돌 '
21633-1	노루발	모뻘 ' 기
21634	툽	툽 '
21634-0-1	-에	토 ' 베
21635	도끼	도:끼 '
21636	자루(柄)	자루 '
21636-0-1	-을	자루 ' 을
21636-0-2	-에	도끼 잘 ' 게(+ 도끼 자루에)
21637	갈고리	갈고 ' 리
21638	썰기	썰 ' 기
21639	송곳	송:곳 '
21639-0-1	-에	송:고 ' 세
21640	뿔죽하다	뿔쪼카 ' 다
21641	숫돌	숫돌 '
21641-0-1	-에	숫또 ' 레
21642	맷돌	맷돌 '
21642-1	수쇠	쭈썰 '
21642-2	암쇠	암세 '
21643	지게	지 ' 게
21644	발채	발:(+ 다)
21644	발채	지게 ' 발:(+ 소)
21645	지게 작대기	지게 짹뻘 ' 기
21645	지게 작대기	지게 짹뻘~ ' 이(+ 구)
21646	막대기	짹뻘 ' 기
21647	몽둥이	몽두~ ' 이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 '
21702	광주리	광주 ' 리
21703	소쿠리	바구 ' 니
21704	함지	나무방티~ ' 이
21705	풀비	풀 ' 쪼리고
21705-1	귀얄	풀메 ' 기술
21706	독	도 ' 기러(+ 소, + 신)
21706	독	단지 ' (+ 다)
21706-0-1	-에	도 ' 게

21706-0-1	-에	단지 ' 에
21707	물독	물 ' 판지
21708	항아리	큰단 ' 지(+ 크기가 큰 것.)
21708	항아리	항아 ' 리러(+ 크기가 작은 것.)
21709	단지	버지 ' 기
21710	물동이	물빠지 ' 기
21711	짜리	따배~ ' 이
21712	웅기	웅:기 '
21713	표주박	쪽바가 ' 치
21714	키(箕)	키 ' 이 '
21715	떡살	떡 ' 살
21716	다식판	다 ' 석판
21717	시루	시루 '
21717-0-1	-을	떡시루 ' 를
21717-0-2	-에	시루 ' 에
21718	시룻밀	떡바뿌 ' 제
21718-0-1	-에	떡바뿌 ' 제(+ "ㄱ"가 실현되지 않음.)
21719	시룻번	시르쁜 ' (+ 확인형임.)
21720	부싯돌	부세 ' 돌
21720-0-1	-을	부세 ' 또를
21721	부시	부세 '
21722	부싯깃	부세 ' 수개
21723	담배	담:배 '
21724	담뱃대	담배 ' 때
21725	담배설대	대죽 '
21726	담배통	대꼬바 ' 리
21727	물부리	댐물 ' 찌
21728	담배쌈지	담배쌈 ' 지
21729	부채	부 ' 채
21730	토시	토시 '
21731	벼루	벼 ' 루
21732	가락지	반 ' 지:(+ 신)
21732	가락지	가락 ' 찌
21733	비녀	비녀 '
21734	참빗	참빈 '
21734-0-1	-을	참비 ' 슬
21734-0-2	-에	비 ' 세
21735	얼레빗	얼게 ' 미빈
21736	세숫대야	세수때 ' 야
21737	비누	비 ' 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 ' 리
21739	활대	활 ' 때
21740	잉앗대	잉어 ' 때
21741	부티	비:테 '
21742	도롱이	도래~ ' 이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 ' 마
21802	이마빼기	이마빼 ' 기
21803	눈자위	눈자 ' 새
21804	검은자위	꺼 ' 른동자
21805	흰자위	흰동 ' 자
21806	눈꺼풀	눈꺼푸 ' 리
21807	거적눈	꺼적 ' 눈
21808	눈썹	눈썹 '
21808-0-1	-이	눈서 ' 비
21809	속눈썹	송:눈 ' 썹
21809-0-1	-이	송:눈 ' 서비
21810	눈두덩	눈뚜버 ' 리
21811	안경	앙:경 '
21812	안경집	앙경집 '
21813	돋보기	도뽀 ' 기
21814	주름살	주름 ' 살
21814-0-1	-이	주름 ' 사리
21815	엷되다	어려 ' 보인다(+ 다)
21815	엷되다	애때 ' 보인다(+ 소)
21816	수염	췌 ' 애 ' 미
21817	구레나룻	구 ' 리세미
21817-0-1	-을	췌 ' 미를
21818	코	코 '
21818-0-1	-이	코 ' 가
21819	콧수염	콘세 ' 미
21820	코딱지	코따테 ' 기
21821	콧구멍	코꾸멍 '
21821-0-1	-을	코꾸멍 ' 열
21821-0-2	-에	코꾸멍 ' 에서
21822	콧물	콤물 '
21823	입술	입술 '
21823-0-1	-에	입수 ' 레
21824	다물다	다물 ' 다
21825	어금니	어 ' 금니
21826	덧니	더언 ' 니
21827	휘파람	휘빠 ' 람(+ 상향이중모음 "위")
21828	침	춤 '
21829	삼키다	삼 ' 킨다
21830	가래(痰)	가래 '
21831	빨다	밴는 ' 다
21832	혀	혀 ' (+ 소)
21832	혀	헤 ' (+ 다)
21833	혓바늘	헤빠 ' 늘
21834	귓볼	귀 ' 뺨(+ 상향이중모음 "위")
21835	귀고리	귀고 ' 리(+ 상향이중모음 "위")

21835-1	귀결이	귀마 ' 개(+ 상향이중모음 "위")
21836	귀지	귀 ' 지(+ 상향이중모음 "위")
21837	귀이개	귀후 ' 개(+ 상향이중모음 "위")
21838	소리	소 ' 리가
21839	엿듣다	여:뜯 ' 는다
21840	귀청	귀창 ' (+ 상향이중모음 "위")
21841	귀밑	귀민 ' (+ 상향이중모음 "위")
21841-0-1	-을	귀미 ' 테(+ 상향이중모음 "위")
21842	관자놀이	관 ' 자노리
21843	기미	기 ' 미
21844	주근깨	주 ' 근깨
21845	턱	턱 '
21846	턱수염	턱세 ' 미르
21847	뺨	귀땀 ' 기
21847-1	볼	볼테 ' 기(+ 비)
21847-1	볼	볼 '
21848	가름하다	가름하 ' 다
21849	보조개	보지 ' 게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 '
21851	비듬	비 ' 듬
21852	기계총	기계 ' 총
21853	정수리	장배 ' 기
21854	대머리	대머 ' 리
21855	고수머리	곱실머 ' 리
21856	가르마	가름 ' 배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탄 ' 다
21857	가마	가 ' 매
21857-1	가마(鼎)	가 ' 마
21857-2	가마(轎)	가:마 '
21857-3	가마(질그릇)	가 ' 마
21857-4	가마(가마니)	가 ' 마~이
21858	뒤통수	뒤콩 ' 시(+ 상향이중모음 "위")
21859	뒗덜미	목덜 ' 미
21860	목	목 '
21860	목	모간 ' 질(+ 동물의 경우, + 비칭)
21861	먹살	먹 ' 사ړ

## 2.6.2. 상체

21901	어깨	어 ' 깨
21902	밀치다	민:다 '
21902	밀치다	밀친 ' 다
21903	겨드랑	겨드랑 '
21904	등	등어 ' 리
21904	등	등 '
21905	가슴	가 ' 슴
21906	결리다	절린 ' 다

21907	갈비뼈	가 ' 리뼈
21908	허파	허파 ' (+ 구)
21908	허파	폐:로 '
21909	쓸개	쓸개 '
21910	콩팥	콩 ' 판
21910-0-1	-에	콩 ' 판데
21910-0-2	-을	콩 ' 파절
21911	팔	팔 '
21912	팔꿈치	팔꿈 ' 치
21913	팔짱끼다	팔 ' 짱긴다
21914	손톱	손톱 '
21915	오른손	오른 ' 손
21916	왼손	왼:손 '
21917	다르다	다르 ' 다
21917-0-1	-아서	오시 달 ' 라서(+ 옷이 달라서)
21917-1	틀리다	틀렌 ' 다
21918	왼손잡이	왼손재 ' 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까 ' 락
21920	집게손가락	두째송꼬 ' 락
21921	가운뎃손가락	중간송꺼 ' 락
21922	약손가락	약송 ' 까락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꺼 ' 락
21924	생인손	생 ' 손
21925	사마귀	사:마 ' 구
21926	손아귀	소나구 ' 지
21927	손목	손목 '
21928	뺨	뺨 '
21929	허리	허 ' 리
21930	지팡이	지패~ ' 이
21931	옆구리	옆꾸 ' 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 ' 따
21933	간지럼	간지럼 '
21934	잔허리	잘로커 ' 리
21935	근육	힘살 '
21936	배꼽	배꾸무 '
21937	목물	등 ' 물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상시 '
22002	발가락	발꼬락 '
22003	발바닥	발빠 ' 닥
22004	발톱	발톱 '
22005	냄새	내:떨 ' (+ 냄새를)
22006	고린내	꼬랑 ' 내거
22007	굳은살	꾸덕 ' 살
22008	정강이	종 ' 겨이빠라



22009	종아리	종:아 ' 리
22010	장판지	장판 ' 지
22011	회초리	호초 ' 리
22011	회초리	훼초 ' 리
22011	회초리	매털 ' 리
22012	무릎	무릅 ' (+ 신)
22012	무릎	무루 ' 꺾(+ 구)
22012-0-1	-을	무루 ' 파글
22012-0-2	-에	무루 ' 파게
22013	오금	오 ' 금
22014	엉덩이	엉:디~ ' 이
22015	궁둥이	궁:디~ ' 이
22016	불기	불:기 '
22017	멍	멍이 ' (+ 멍이)
22017	멍	머~ ' 이(+ 멍이)
22018	멍울	마리 ' (+ 멍울이)
22019	가랑이	가래~ ' 이
22020	사이	새 ' 애
22021	살	사 ' 치
22021-0-1	-이	사 ' 치
22021-0-2	-을	사 ' 칠
22022	사타구니	사타구 ' 리
22023	가래뚝	가 ' 래토시
22023-0-1	-을	가 ' 래토실
22024	허벅다리	신넙 ' 찌
22025	넓적다리	신다리 '
22026	가부좌(跏趺坐)	책상 ' 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해 ' 따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고쁠 ' (+ 아이의 경우.)
22101	감기	감:한 ' (+ 어른의 경우.)
22102	기침	기 ' 침
22103	채채기	게 ' 채기
22104	사레	게 ' 채기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한 ' 다
22105	딸꾹질	각떼 ' 기
22106	트림	겔:트 ' 림
22107	곰보	곰:보 '
22108	천연두	천년두 '
22109	여드름	여:드 ' 림
22110	학질	한 ' 정
22110-1	하루거리	하루거 ' 리
22110-2	이틀거리	하루거 ' 리
22110-3	매일 앓는 학질	한 ' 정
22111	홍역	홍진 '

22112 볼거리  
 22113 땀띠  
 22114 두드러기  
 22115 버짐  
 22115-1 마른버짐  
 22115-2 진버짐  
 22115-3 도장 버짐  
 22116 문둥이  
 22116-1 문둥병  
 22117 부스럼  
 22117 부스럼  
 22117-1 종기  
 22118 고름  
 22119 곰기다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2 언청이  
 22123 소경  
 22123-1 당달봉사  
 22124 애꾸  
 22125 눈곱  
 22126 다래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7 절름발이  
 22128 곱사등이  
 22129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22130 말더듬이  
 22131 병어리  
 22131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22133 줄리다  
 22134 하품  
 22135 졸음  
 22135-0-1 -을  
 22135-0-2 -에  
 22136 잠꼬대

볼거 ' 리  
 땀 ' 띠  
 두 ' 드레기  
 버 ' 짐  
 마름버 ' 짐  
 짐버 ' 짐  
 도장버 ' 짐  
 문디~ ' 이  
 문둥 ' 뻘~이르  
 부스러 ' 미라  
 종기 ' 라  
 헌:디 '  
 고름 '  
 곰 ' 마따  
 난:재~ ' 이  
 먼산베 ' 기  
 허채~ ' 이  
 봉:사 '  
 당 ' 달봉사  
 농까재 ' 비  
 눈곱 '  
 눈다래 ' 끼  
 눈다래 ' 끼  
 대:접 '  
 절룩 ' 빠리  
 곱새 '  
 귀머거 ' 리(+ 상향이중모음 "위")  
 뱀버버 ' 리  
 말떠 ' 듬  
 버버 ' 리  
 병어 ' 리  
 잠꾸 ' 러기  
 자부럽 ' 따  
 하 ' 품  
 자미 '  
 자멸 '  
 자 ' 메  
 잠꼬 ' 대

## 2.7. 육아

22201 입덧  
 22201-0-1 -을  
 22202 갓난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입떠 ' 슬  
 입떠 ' 슬  
 가난아 ' 이  
 어린아 ' 이  
 얼라 '  
 경 ' 기한다그

22205	눅히다	누피 ' 인다
22206	계집아이	기지바 '
22207	예쁘다	이:쁘 ' 다
22208	사내아이	머스마 '
22209	아우 타다	아우 ' 탄다
22209-1	아우보다	아우본 ' 다
22210	야위다	말 ' 라따(+ 정도가 심함.)
22210	야위다	예 ' 비다
22211	쌍둥이	쌍두~ ' 이
22212	오줌	오주 ' 멀
22213	똥	똥 '
22214	기저귀	기저 ' 기
22215	뉘다(排便)	오지멀 루엔 ' 다
22216	방귀	방귀 ' (상향이중모음 "위")
22216-1	뀌다	뀌 ' 이따(상향이중모음 "위")
22217	구린내	쿤 ' 내
22218	구리다	쿠 ' 리다
22219	포대기	띠라 '
22219	포대기	띠 '
22220	기지개	기지 ' 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편 ' 다
22221	거짓말	거진 ' 말
22222	남부끄럽다	남부끄럽 ' 따
22223	겹쟁이	겹쟁~ ' 이
22224	불쌍하다	불상 ' 하다
22225	죄암죄암	쨌쨌 '
22226	곤지곤지	공공 '
22227	따로따로	따로 ' 따로
22228	도리도리	도리 ' 도리
22229	짜짜꿍	짜짜 ' 구
22230	부라부라	폴메폴메 '
22231	걸음마	척꺼 ' 림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
22233	넘어지다	어 ' 퍼진다
22234	곤두박질	공두박 ' 찢
22235	안기다	앙기 ' 인다
22236	바람개비	팔랑개 ' 비
22237	호드기	호떼 ' 기
22238	숨바꼭질	숨바꼭 ' 찢
22239	소꿉놀이	세금파 ' 리노리한다
22240	사금파리	세금파 ' 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방패여 ' 니르
22241-2	가오리연	꼬 ' 리연
22242	걸리다	걸리 ' 따
22243	고누	편 ' 띠기
22244	땅뻗기	땅따 ' 머끼
22245	팽이	팽 ' 이
22246	딱지치기	떼 ' 기노리
22247	구슬	구 ' 슬

22248	그네	군디 '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뎌 ' 다
22249	밑신개	군디 ' 신
22250	굴렁쇠	굴렁 ' 세(+ 신)
22250	굴렁쇠	동테 ' 러(+ 구)
22251	굴리다	굴 ' 린다
22251-0-1	-고	굴 ' 리고
22251-0-2	-어야	구불 ' 러
22252	자전거	자전 ' 차
22253	목말	몽말 ' 탄다
22254	말타기	말 ' 타기
22255	달음박질	다름박 ' 찢
22256	썰매	시계 ' 뜨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탄 ' 다
22256-2	송곳	시계 ' 뜨침
22257	엄살	음 ' 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부 ' 린다
22258	부아	화:가 ' (+ 구)
22258	부아	부아가 ' (+ 신)

## 2.8. 친족

22301	아버지	부친 ' (+ 신)
22301	아버지	어른 ' (+ 구)
22301-1	아버지(호칭)	아 ' 배라(+ 어릴 때.)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 ' 지
22302	어머니	어머 ' 니
22302	어머니	모치 ' 니르
22302-1	어머니(호칭)	어매 ' (+ 어릴 때.)
22303	할아버지	조부 '
22303	할아버지	할배 ' (+ 어릴 때.)
22303-1	할아버지(호칭)	할배 ' 러
22304	할머니	할매 '
22304	할머니	조모 ' 라
22304-1	할머니(호칭)	할매 '
22305	남편	남편 ' 니라(젊었을 때.)
22305	남편	아뜨개 아버 ' 지르(+ 아이가 있을 때.)
22305-1	남편(호칭)	여보 ' 소
22305-1	남편(호칭)	아무꺼썩 아부 ' 지(+ 아이가 있을 때.)
22305-1	남편(호칭)	아무꺼시 할배 ' (+ 손자가 있을 때.)
22306	아내	내자 ' 라(+ 예의를 갖추었을 때)
22306	아내	우리집 사 ' 라미러(+ 보통 때)
22306	아내	마누 ' 라
22306-1	아내(호칭)	○○ 할 ' 매(+ 손자가 있을 때.)
22306-1	아내(호칭)	여보 ' (+ 예의를 갖춘 때)
22306-1	아내(호칭)	여보 ' 게(+ 조금 낮춘 상태)
22307	형	형 ' 님

22307-1	형(호칭)	형 ' 님
22308	아우	동생 ' 이르
22308-1	아우(호칭)	동생 ' (+ 결혼 전에는 보통 이름을 부름.)
22309	누나	누 ' 니미러
22309-1	누나(호칭)	누 ' 니미라(+ 결혼 전에는 보통 이름을 붙여 "○○ 누님"의 형태로 부름.)
22310	누이	여동 ' 생
22310-1	누이(호칭)	○시 ' 리(+ 결혼한 남자의 성을 따서 "-실"의 형태로 표현함. 결혼 전에는 보통 이름을 부름.)
22311	자식	자식 '
22312	맏아들	마다 ' 아러
22313	맏딸	처딸 '
22313	맏딸	마 ' 딸(+ 보통의 경우)
22314	막내	망내~ ' 이
22315	오빠	오빠 '
22315-1	오빠(호칭)	오빠 ' 러
22316	언니	언 ' 니
22316-1	언니(호칭)	언 ' 니러
22317	아비	애 ' 비라
22317-1	아비(호칭)	아무꺼시 애 ' 비(+ 아이가 있을 때.)
22317-1	아비(호칭)	애 ' 비
22318	어미	새아 '
22318	어미	아무꺼시 애미 ' (+ 아이가 있을 때.)
22318-1	어미(호칭)	새아 '
22318-1	어미(호칭)	아무꺼시 애미 '
22319	손자	손 ' 자
22320	손녀	손 ' 녀
22321	사위	사 ' 위다(+ 상향이중모음 "위")
22321-1	사위(호칭)	아무꺼시 서방 ' (+ 성을 따서 "-서방"의 형태로 표현함.)
22322	외손자	왜손 ' 자
22323	외손녀	왜손 ' 녀
22324	꾸짖다	야:단 ' 친다
22324-0-1	-고	야:다 ' 늘 치고
22324-1	나무라다	나무라 ' 안다(+ 강도가 약함.)
22324-1	나무라다	꾸지러 ' 물 한다(+ 강도가 강함.)
22324-1	나무라다	야:다 ' 늘 친다(+ 강도가 강함.)
22325	충각	충:가 ' 기러
22326	처녀	처:녀 '
22327	혼인	결혼 ' (+ 신)
22327	혼인	혼닌 ' 다(+ 구)
22327-1	혼인식	결혼 ' 시기러(+ 신)
22327-1	혼인식	홀 ' 레러(+ 구)
22328	혼인 잔치	혼닌 ' 잔체
22329	장가가다	장:가 ' 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집 ' 간다
22330	혼숫감	혼수 '
22331	함	혼수 ' 함

22331	함	함:
22332	겹사돈	겹싸 ' 도~이러
22333	새색시	새새 ' 득
22333-1	새색시(호칭)	새득 '
22334	시아버지	시아 ' 런
22334-1	시아버지(호칭)	시아 ' 버님
22335	시아머니	안시 ' 어른
22335-1	시아머니(호칭)	시아 ' 머니
22336	비위	비 ' 우를
22337	아주버니	시:숙 '
22337-1	아주버니(호칭)	시아 ' 주변님
22338	서방님	시동 ' 생
22338-1	서방님(호칭)	아주버 ' 니
22339	도련님	시동 ' 생
22339-1	도련님(호칭)	데 ' 림
22340	형님	형 ' 니미라
22340-1	형님(호칭)	성 ' 님(+ 제보자는 하층민의 언어라고 말함.)
22340-1	형님(호칭)	형 ' 님
22341	시누이	시:누 ' 이
22341-1	시누이(호칭)	고 ' 모라(+ 택호를 붙여 "○○ 고모"의 형태로 사용함.)
22341-1	시누이(호칭)	형 ' 님
22341-2	아가씨	엑씨 '
22341-2	아가씨	고 ' 모다(+ 손아래 시누임을 밝히고 이름을 붙여 "○○ 고모"의 형태로 사용함.)
22341-3	아가씨(호칭)	고 ' 모러(+ 손아래 시누임을 밝히고 이름을 붙여 "○○ 고모"의 형태로 사용함.)
22342	올케	새득 ' (+ 구)
22342	올케	올케 ' 라(+ 신)
22342-1	올케(호칭)	새득 '
22343	매형	자혀~ ' 이라(+ 신)
22343	매형	새형 ' 니미라(+ 구)
22343-1	매형(호칭)	새형 ' 님
22344	매제	매 ' 부
22344-1	매제(호칭)	서방 ' (+ 성을 붙여 "○○ 서방"으로 사용함.)
22345	큰아버지	백뿌 '
22345	큰아버지	큰 ' 아배
22345-1	큰아버지(호칭)	마다 ' 배(+ 구)
22345-1	큰아버지(호칭)	마다부 ' 지거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 ' 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두째 ' 자그나배(+ 구)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두째 ' 자그나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째 ' 자그나버지러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째 ' 자그나배(+ 구)
22346	큰어머니	마 ' 더머이(+ 소)
22346	큰어머니	크너 ' 머니러
22346	큰어머니	뱅모 ' 라
22346	큰어머니	크너 ' 매

22346	큰어머니	마 ' 더매
22346-1	큰어머니(호칭)	마 ' 더매(+ 구)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 ' 매(+ 신)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 ' 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마더머 ' 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두째 ' 크너매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두째 ' 크너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째 ' 크너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째 ' 크너매
22347	큰집	큰지 ' 비라
22348	작은아버지	자근아부 ' 지
22348	작은아버지	삼 ' 초~인테
22348	작은아버지	자근 ' 아배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근 ' 아배(+ 다)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근아부 ' 지르(+ 소)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근아 ' 배(+ 다)
22349	작은어머니	자근 ' 어매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근 ' 어매
22350	삼촌	삼 ' 초~이르
22350-1	삼촌(호칭)	아 ' 제
22351	아저씨	오촌아제 ' 라
22351-1	아저씨(호칭)	아 ' 제
22352	아주머니	오총 ' 고모르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고 ' 모르
22352-1	아주머니(호칭)	오촌 ' 고모
22353	조카	조카 '
22354	조카딸	질려 '
22355	고모	고 ' 모
22355-1	고모(호칭)	고 ' 모
22356	고모부	고 ' 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 ' 모부라
22357	고종	고 ' 종사초~이르
22358	이모	이 ' 모
22358-1	이모(호칭)	이 ' 모
22359	이모부	이 ' 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 ' 모부러
22360	이종	이 ' 종사촌
22361	외삼촌	왜삼 ' 촌
22361-1	외삼촌(호칭)	왜아 ' 젤(+ 구)
22361-1	외삼촌(호칭)	왜삼 ' 촌(+ 신)
22362	외숙모	왜아 ' 지매(+ 다)
22362	외숙모	왜승 ' 모
22362-1	외숙모(호칭)	왜아 ' 지매러
22363	외종	왜사 ' 촌
22364	외할아버지	왜할 ' 배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왜할 ' 배
22365	외할머니	왜할 ' 매
22365-1	외할머니(호칭)	왜할 ' 매
22366	장인	장인 '
22366-1	장인(호칭)	장인 ' 어른

22367	장모	장:모 '
22367-1	장모(호칭)	장:모 ' 님
22368	처남	처남 '
22368-1	처남(호칭)	만처남 '
22368-1	처남(호칭)	두째 ' 처남(+ 서수를 붙여 "○○ 처남"의 형태로 사용함.)
22368-1	처남(호칭)	처나미러(+ 손아래)
22369	처남댁	처나 ' 드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 ' 드대기러
22370	홀아비	호래 ' 비
22371	홀어미	과:부 '
22372	계모	새어 ' 머니
22372-1	계부	이:부 ' 대비
22373	아저씨	아무 ' 꺼시 어 ' 르이러(+ 택호나 성을 따서 "○○ 어른"의 형태로 사용함.)
22373-1	아저씨(호칭)	어 ' 른(+ 택호나 성을 따서 "○○ 어른"의 형태로 사용함.)
22374	아주머니	아 ' 지메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 ' 지메
22375	사나이	사내 '
22375	사나이	청녀 ' 니러
22376	영감	할배 ' 고(+ 손자가 있을 때는 손자의 이름을 붙여 "○○ 할배"의 형태로 사용함.)
22376	영감	아 ' 배(+ 손자가 없을 때는 아들의 이름을 붙여 "○○ 아배"의 형태로 사용함.)
22376-1	할망구	이 ' 여자가요::
22376-1	할망구	할망 ' 구가(+ 하층민의 언어임.)
22377	나이	나이 '
22377-0-1	-를	나랄 '
22378	환갑	항:갑 '
22378-1	환갑 잔치	항:갑 ' 잔치
22379	사투리	사:투 ' 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 ' 기
22402	민물고기	뭍 ' 물고기
22403	피라미	피 ' 리(+ 신)
22403	피라미	챔피 ' 리(+ 구)
22404	지느러미	지느러 ' 미
22405	아가미	아가 ' 미
22406	창자	창:자 '
22407	송사리	송사 ' 리
22408	헤엄	헤 ' 미 친다



22409	메기	미 '여기
22410	자라	자라 '
22411	거북	거 '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꾸라 '지
22413	개구리	개구 '리
22414	올챙이	올챙 '이
22415	두꺼비	뚜꺼 '비
22416	거머리	거:머 '리
22417	다슬기	타래골베~ '이
22418	우렁이	골베~ '이
22419	고등	골베~ '이
22420	달팽이	달패~ '이
22421	새우	새 '우
22421-1	새우(민물 대)	뭍 '물새우르
22421-2	새우(민물 소)	뭍 '물새우
22421-3	새우(바다 대)	바 '다새우
22421-4	새우(바다 소)	바 '다새우
22422	새우젓	새 '우젓
22422-0-1	-이	새 '우저시
22423	가재	가:재 '요
22424	갈치	칼치 '라
22425	고등어	고등 '어
22426	가오리	가 '오리
22427	가자미	가재 '미
22428	멸치	며려 '치
22429	명태	명 '태
22429-1	동태	동태 '
22429-2	황태	황 '태르
22429-3	노가리	노가 '리
22429-4	복어	부거 '
22429-5	생태	물명 '태
22430	조기	조 '기
22431	도미	도 '미
22432	뱀장어	배무자 '귀(+상향이중모음 "위")
22433	낙시	낙시 '
22434	미끼	낙시 '뺨
22435	낙싯대	낙시 '때
22436	얼레	낙시 '자에
22437	조개	조개 '
22438	소라	소라고등 '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버러 '지(+신)
22501	벌레	벌거 '지(+구)
22502	날벌레	날벌거 '지
22503	파리	파리 '

22503-1	쉬파리	똥 ' 파리
22504	쉬슬다	쉬씨 ' 러따(+ 상향이중모음 "위")
22505	가시	쉬 ' 라(+ 상향이중모음 "위")
22506	진딧물	똥물 '
22506-1	(진딧물이) 끼다/앓다/생기다	끼에 ' 따
22507	잠자리	출:베~ ' 이
22508	방아깨비	물방아매떼 ' 기
22508	방아깨비	물:방아매뚜 ' 기
22508-1	암컷	물방아매떼 ' 기
22508-2	수컷	때때매떼 ' 기
22509	매뚜기	나랑매뚜 ' 기
22510	여치	예:치 ' (+ 소)
22510	여치	이:치 ' 요(+ 다)
22511	사마귀	사:마 ' 귀(+ 상향이중모음 "위")
22512	별	바:리 '
22512-1	(별을) 치다/기르다/키우다	키 ' 운다(+ 소)
22512-1	(별을) 치다/기르다/키우다	친다 ' (+ 다)
22513	땅벌	구무 ' 땡땡
22514	나비	나 ' 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 ' 리
22516	풍뎅이	풍 ' 데~이
22517	모기	모기 '
22518	장구벌레	장구벌 ' 레
22519	매미	매 ' 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벌 ' 레
22521	반딧불	반디 ' 뽇
22522	거미	거 ' 미
22523	굼벵이	굼:베~ ' 이
22524	구더기	귀 ' 데기(+ 상향이중모음 "위")
22525	노래기	노래~ ' 이
22526	그리마	노랑각 ' 씨
22527	지네	지 ' 네(+ 소)
22527	지네	돌찌 ' 네(+ 다)
22528	개미	개 ' 미
22529	바구미	바구 ' 미
22530	진드기	진데 ' 기
22531	벼룩	벼 ' 루기
22532	이	이 '
22532-1	서캐	헤기 '
22532-2	빈대	빈대 '
22533	송충이	송충 '
22534	귀뚜라미	귀뜨라 ' 미
22535	누에	누~ ' 예
22536	고치	꼬 ' 치
22537	번데기	번데 ' 기
22538	지렁이	지:레~ ' 이
22539	회충(蛔蟲)	결췌~ ' 이
22540	소금쟁이	소금채~ ' 이
22541	방개	방:개 '

### 2.9.3. 가축

22601	가축	가 ' 축
22602	암소	암소 '
22603	송아지	송아 ' 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워 ' 와
22605	황소	황소 '
22606	길들이다	길뜨 ' 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 '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워워 '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오른쪽오른 ' 쪽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웬쪼 ' 그로웬쪼그로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 ' 러물러
22607	쇠고기	소:고 ' 기
22608	고기(肉)	용뉴 '
22609	들치	들짜 ' 르
22610	꼬리	꼬 ' 리
22611	망아지	망아 ' 지
22612	당나귀	당나 ' 귀(+ 상향이중모음 "위")
22613	갈기	갈 ' 피러
22614	돼지	돼애 ' 지
22614-1	멧돼지	산돼 ' 지
22615	주둥이	주디 ' 이
22616	돼지 머리	돼지 대가 ' 리
22617	돼지우리	돼지우 ' 리
22617-1	오래오래	똥똥 '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쭈깨 '
22618-2	암캐	암깨 '
22619	강아지	가아 ' 지(+ 구, + 다)
22619	강아지	강아 ' 지(+ 신)
22620	염소	염소 '
22621	고양이	고:애~ ' 이
22621-1	수고양이	쭈꼬 ' 애~이
22621-2	암고양이	암꼬 ' 애~이
22622	토끼	토끼 '
22623	거위(鵞)	거 ' 위(+ 상향이중모음 "위")
22624	암탉	암딸 ' (+ 구)
22624	암탉	암딱 ' (+ 신)
22625	병아리	병아 ' 리
22626	모으다	모 ' 은다
22627	수탉	장딸 ' (+ 구)
22627	수탉	장딱 ' (+ 신)
22627-0-1	-이	달 ' 기
22628	벼슬(鷄冠)	벼 ' 슬
22629	부리	부 ' 리
22630	모이	모 ' 이
22630-0-1	-을	모 ' 이를
22630-1	모이다	모이인 ' 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달털 '  
 달똥 '  
 병아 ' 리둥지  
 달짱 '  
 둥지 ' 리  
 날개 ' (+ 신)  
 나래 ' (+ 구)  
 긴 '  
 기설 '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괭이  
 22702 살괭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호:래~ ' 이  
 살괭~ ' 이(+ 다)  
 살 ' 귀(+ 소, 상향이중모음 "위")  
 야괭~ ' 이  
 원:수~ ' 이  
 사 ' 슴  
 놀개~ ' 이(+ 다)  
 노루 ' (+ 신)  
 놀개~ ' 이가  
 놀개~ ' 일  
 고 ' 슴도치  
 뒤 ' 제기(+ 상향이중모음 "위")  
 족제비  
 뱀:  
 도마 ' 뱀  
 구:리~ ' 이  
 까치독 ' 새  
 생:쥐 ' (+ 상향이중모음 "위")  
 빠알 ' 찌(+ 구)  
 박 ' 지(+ 신)  
 까꾸로 '  
 다람 ' 지  
 새:  
 날점싱 '  
 꿩 ' 지  
 매:  
 소래 ' 기  
 독쭈 ' 리  
 제 ' 에 ' 비  
 황:새 '  
 소쪽 ' 새  
 꿩 '  
 장 ' 끼  
 까토 ' 리  
 꺾베아 ' 리

22727-1    꺼병이  
 22728    종달새  
 22729    빠꾸기  
 22730    기러기  
 22731    뜰부기  
 22731    뜰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덧  
 22735    덧  
 22735-0-1    -을  
 22736    올가미

뽕뽕아 ' 리  
 종달 ' 새  
 빠꾸 ' 기  
 기러 ' 기  
 뜰북 ' 새(+ 소)  
 뜰부 ' 기(+ 다)  
 오 ' 빼미  
 까:치 '  
 딱따구 ' 리  
 덧 '  
 차 ' 끼  
 더 ' 철  
 올미 '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뽕기  
 22811    뽕기  
 22812    비름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씀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0    억새  
 22821    갈대

참꽃 '  
 개:꽃 '  
 민들레 '  
 달구베 ' 슬꼬체르  
 봉:수 ' 나쁜  
 파 ' 리  
 해바래 ' 기  
 끈뽕아 ' 리  
 시드 ' 러파  
 질:괘~ ' 이  
 질:괘~ ' 이  
 질:괘~ ' 이나물  
 \*  
 뽕뽕 '  
 참비 ' 림  
 비 ' 림  
 소비 ' 림  
 씀바 ' 기  
 꼬 ' 들빼기(+ 신)  
 속새 ' (+ 구)  
 속새 ' 라  
 속새나물 '  
 고사 ' 리  
 고 ' 비  
 까:치 ' 바늘  
 도 ' 꾸마리  
 새강 ' (+ 구, + 다)  
 억새 ' (+ 신)  
 갈때 '

22822	이끼	도론 '
22823	아주까리	아주까 ' 리
22824	담쟁이	담쟁이~ ' 이
22825	수세미	쭈세 ' 미
22826	덩굴	줄 '
22827	덤불	덤불 '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불 '
22828	잔디	떼 '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
22902	솔방울	소꿀배~ ' 이
22903	관솔	간:솔 '
22904	솔가리	갈 ' 비
22905	그러모으다	끈다 '
22906	뽕나무	뽕나무 '
22907	오디	오디 '
22908	도토리	꿀 ' 밤
22909	떡갈나무	떠갈라무 '
22910	상수리	꿀 ' 밤
22911	옻	온 '
22911-0-1	-으로	오 ' 철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 '
22913	느티나무	느티나무 '
22914	그림자	그림 ' 자
22914-1	그늘	그늘 '
22915	숲	숲 '
22915-0-1	-을	수 ' 펄
22915-0-2	-에	수 ' 폐
22916	시원하다	시원:하 ' 다
22917	짚레	질레 '
22918	췌	칠기 '
22918-0-1	-에	칠기 ' 에
22919	가지(枝)	가지 '
22920	끝	끝 '
22920-0-1	-이	끄치 '
22920-0-2	-을	끄철 '
22920-0-3	-에	끄 ' 테
22921	삭정이	맨자 ' 리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만다 '
22922	나무	나무 '
22922-0-1	-을	낭 ' 클
22922-0-2	-에	낭 ' 게
22923	나무하다	나무한 ' 다
22924	그루터기	깨두 ' 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끝테~ ' 이

22925	등걸	나무등거 ' 리
22925	등걸	등 ' 치
22926	장작	장 ' 작
22927	팬다	팬다 '
22928	부스러기	뿌시레~ ' 이
22929	숯	숯 ' (+ 신)
22929	숯	수썩 ' (+ 구)
22929-0-1	-이	수 ' 치
22929-0-1	-이	수썩 ' 이
22929-0-2	-을	수 ' 털
22929-0-2	-을	수썩 ' 얼
22929-0-3	-에	수 ' 데
22929-0-3	-에	수썩 ' 에
22930	불잉걸	불잉 ' 걸
22930	불잉걸	불똥거 ' 리
22930	불잉걸	불똥 ' 이
22931	짹	짹 '
22932	잇	입 '
22932-0-1	-을	이펄 '
22932-1	잇사귀	입사 ' 구
22933	가랑잎	가랑 ' 닢
22934	뿌리	뿌 ' 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
23002	돌배	돌배 '
23003	복숭아	복상 ' (+ 구)
23003	복숭아	복숭 ' 아(+ 신)
23004	곶감	꼬감 '
23005	홍시	홍 ' 시
23006	고욤	곶:(+ 상향이중모음 "위")
23007	살구	살구 '
23008	앵두	앵두 '
23009	자두	자두 '
23010	오얏	오 ' 얏
23010-0-1	-을	오 ' 약슬
23011	석류	성류 '
23012	모과	모:궤 '
23013	과일	실과 '
23014	꼭지	꼭 ' 찌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 ' 이
23015-2	팻밤	푸뽕 '
23015-3	알밤	밤:차 ' 아리
23015-4	쌍동밤	쌍 ' 밤
23016	보너	버물 '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9 개암  
 23020 머루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추 ' 자  
 추 ' 자  
 개금 '  
 멀구 ' (+ 구)  
 머루 ' (+ 신)  
 다래 '  
 망개 '  
 어 ' 림  
 차메 '  
 딸:  
 딸:  
 딸:  
 \*  
 덤불 ' 딸  
 복뿐 ' 자  
 산 ' 딸  
 뱀딸 '  
 말까 ' 시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2 기슭  
 23102-0-1 -에  
 23103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5 고함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6 묘  
 23106 묘  
 23107 뿔자리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0-1 -에  
 23114 벌  
 23115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2 -에

산꼭때~ ' 이  
 산끼 ' 슬  
 산끼 ' 슬게  
 골:  
 산울림 '  
 과 ' 압  
 지른 ' 다  
 묘:  
 묘:지 '  
 미:터 '  
 광중 '  
 구데~ ' 이  
 비 ' 탈  
 까퍼랍 ' 따  
 언덕 '  
 낭떠러 ' 지  
 덜:  
 드:레 '  
 벌판 ' (+ 논이나 밭 등을 총칭하여 쓰임.)  
 갈래 ' 낚  
 헤 ' 어지다  
 방 ' 위(+ 상향이중모음 "위")  
 방 ' 월  
 방 ' 위에



23118	돌(石)	돌:
23118-0-1	-을	돌:걸 '
23118-0-2	-에	도:레 '
23119	자갈	자갈 '
23120	모래	모 ' 래
23120-0-1	-를	모 ' 래를
23121	진흙	진:흙 '
23121-1	찰흙	찰흙 '
23121-1	찰흙	찰혈 '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
23202	거품	거 ' 품
23203	개운하다	깨우:나 ' 다
23204	도랑	도랑 '
23204	도랑	물또랑 '
23204-1	붓도랑	보또랑 '
23205	둑	침방 '
23205	둑	침방뚝 '
23206	잠기다	잠겨 ' 어따
23207	개울	거랑 '
23208	내(川)	큰거랑 '
23209	미역 감다	목 감 ' 는다
23210	발가숭이	벌거수~ ' 이
23211	목욕하다	목욕 ' 칸다
23212	수채	수채 '
23212	수채	수채 ' 꾸무
23213	개굴창	수채 ' 또랑
23214	시궁창	시궁차 ' ~이르
23215	웅덩이	웅 ' 데~이
23216	수렁	쭈 ' 베~이
23217	늪	느 ' 피
23217-0-1	-에	느 ' 페
23218	배(船)	배 '
23219	나루터	나룻 ' 터
23220	돛	돛 '
23220-0-1	-에	도 ' 체
23221	돛대	도 ' 때
23222	돛배	도 ' 때배
23223	돛 줄	도 ' 줄
23224	돛 줄	다 ' 줄
23225	거루	쪽 ' 빼
23226	상앗대	*
23227	개(펄)	개까 '
23228	물	무 ' 테
23228-0-1	-으로	무 ' 트로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밀 ' 물  
썰 ' 물  
까라 ' 안는다  
그물 '  
해녀 '

###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7      훗날  
23328      하룻날  
23329      이튿날  
23330      사흘날  
23331      나흘날  
23332      닷새날  
23333      엿새날  
23334      이렛날  
23335      여드렛날

새벽 '  
새벽 ' 뽕  
아침 '  
아침 ' 뽕  
정:심 '  
정심 ' 뽕  
저녁 '  
설피하 ' 다  
나오 ' 리  
나오 ' 리를  
불그수리하 ' 다  
해거름 '  
어스름 ' 뽕  
봄 '  
여 ' 림  
더 ' 위가(+ 상향이중모음 "위")  
추위 ' 가(+ 상향이중모음 "위")  
가을 '  
가알 ' 게  
겨 ' 울  
겨 ' 우레  
어 ' 림  
오 ' 늘  
내 ' 일  
모레 '  
저모 ' 레  
저:저 ' 모레  
어 ' 제  
아:레 '  
저아 ' 레  
훈:날 '  
초하루 '  
초이 ' 틀  
초사 ' 흘  
초나 ' 흘  
초달 ' 새  
초연 ' 새  
초이 ' 레  
초여 ' 드레

23336	아흐렛날	초아 ' 흐레
23337	열흘날	초여 ' 를
23338	하루	하로 '
23339	이틀	이 ' 틀
23340	사흘	사 ' 흘
23341	나흘	나 ' 흘
23342	닷새	단 ' 새
23343	엿새	연 ' 새
23344	이레	이 ' 레
23345	여드레	여 ' 드레
23346	아흐레	아 ' 흐레
23347	열흘	열 ' 을
23348	한나절	한나 ' 잘
23348-1	반나절	반:나 ' 잘
23349	그믐	그믐 ' 날
23349-1	그믐께	금저 ' 께
23350	지금	지금 '
23350	지금	시방 ' (+ 다)
23351	아직	아 ' 직
23352	이제	인자 '
23352	이제	인제 '
23353	이미	이 ' 미
23354	요즈음	요새 '
23355	금방	방 ' 금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별 '
23401-0-1	-이	벼 ' 치
23401-0-2	-을	벼철 '
23402	따스하다	따뜨타 ' 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래~ ' 이
23404	응달	음 ' 달
23405	양달	양 ' 달
23405	양달	양 ' 지
23406	비(雨)	비 '
23407	가랑비	가랑 ' 비
23408	이슬비	이슬 ' 비
23409	안개	앙:개 '
23410	능개	앙:개 ' 비
23411	무지개	무지 ' 개
23412	소낙기	소낙 ' 빼
23413	갑자기	갑짜 ' 기
23414	홍수	큰물 '
23415	번개	병개 '
23416	천둥	천 ' 둥
23417	벼락	베락 ' (+ 구)

23417	벼락	벼락 ' (+ 신)
23418	무섭다	무섭 ' 따
23419	함박눈	함빡 ' 눈
23420	싸락눈	싸래 ' 기눈
23421	발자국	발짜국 '
23422	진눈깨비	징갈 ' 룬
23423	우박	우:박 ' (+ 소)
23423	우박	유리 ' (+ 다)
23424	고드름	고드 ' 롬
23425	햇무리	햄물 '
23426	달무리	달물 '
23427	둥글다	둥 ' 글다
23428	은하수	은하 ' 수
23429	금성	썬뻔 '
23430	가뭄	가뭄 '
23431	마르다	마른 ' 다
23431-0-1	-어서	말 ' 라서
23432	위	우 '
23433	아래	아 ' 래
23434	왼쪽	웬쪽 '
23435	오른쪽	오른 ' 쪽
23436	결	결 '
23436-0-1	-에	겨 ' 테
23437	회오리바람	돌개바람 '
23438	북풍	북풍 '
23438	북풍	새빠람 '
23439	남풍	남풍 '
23440	동풍	동푸~ ' 이러
23441	서풍	서풍 ' 이고

## 2.12. 조사항목 외 어휘

=2	아랫마 ' (아랫말을)
=2	백새 ' (+ 백로)
=2	사 ' 과(+ 과일)
=2	가지 ' (+ 식물명)
=2	내 ' 금(+ 매운 냄새)
=2	따데 ' 기(+ 상처가 아문 딱지)
=2	부뚜 ' 둘(+ 낭심 윗부분.)
=2	두권 ' (+ 두건)
=2	무르꼬베~ ' 이(+ 무릎 뒷쪽의 관절 부위.)
=2	손톱또 ' 리(+ 손톱이 빠지는 병)
=2	가만 ' 뿔(+ 가마의 불)
=2	물똥 ' (+ 물가에 있는 매끈한 돌.)
=2	물초레(+ 물을 어딘가에 뿌리려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2	대바구 ' 리(+ 대로 만든 소쿠리.)
=2	세엠 ' 지(+ 곡식의 수염.)

=2 꺼빠리 ' (+수염이 긴걸보리.)  
 =2 방티 ' 이라(+나무로 만든 함으로 목을 담거나 하는 그릇.)  
 =2 등 ' 잔(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는 데에 쓰는 그릇.)  
 =2 깨따 ' 느(+깨를 타작하기에 적당한 정도로 묶어 놓은 것.)  
 =2 오하 ' 비래(+함이 다섯개인 것.)  
 =2 광:창 ' (+벽장의 넓은 문을 가리킴.)  
 =2 씨 ' 어레날  
 =2 들창(+들어서 여는 문.)  
 =2 논뚝가래 ' 질(+논뚝을 만들기 위해 가래로 일하는 것.)  
 =2 집까리 ' 를(+짚을 쌓아 놓은 더미.)  
 =2 상:세 ' 머리(+상모)  
 =2 뜰깨낭 ' 기라(+ "뜰깨"의 식물이름)  
 =2 고라 ' 따(+끓었다)  
 =2 무 ' 골추~이라(+빠가 없는 벌레를 가리킴.)  
 =2 무꾸짬 ' 지(+무김치)  
 =2 무꾸쳐~ ' 이라(+무의 줄기를 잘라서 달아맨 것.)  
 =2 담배 ' 통  
 =2 서다 ' 비(+여성의 생리혈이 묻은 속옷을 씻는 일.)  
 =2 폭신하 ' 다(+반발력이 있는 그런 느낌)  
 =2 책뽀 ' 라(+책을 싸는 보자기)  
 =2 물또~ ' 우(+물을 담아 두는 질그릇.)  
 =2 구 ' 술따머끼(+구슬치기)  
 =2 (달물)웨 ' 아따(+두르다)  
 =2 큰물 ' 저따(+홍수가 났다.)  
 =2 코짱디~ ' 이(+코잔등)  
 =2 밥수 ' 기(+밥에 물을 부어 끓인 것.)  
 =2 두통두통 ' (+뒤뚱뒤뚱)  
 =2 팽이채 ' 고  
 =2 호박 ' 쭈

## 제 3 편 음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 ' 가
31001-0-2	테(輪)-보다	테보다 '
31002-0-1	태(胎)-이/가	태 ' 가
31002-0-2	태(胎)-보다	태보다 '
31003-0-1	떼(群)-이/가	떼가 '
31003-0-2	떼(群)-보다	떼보다 '
31004-0-1	때(時)-이/가	때가 '
31004-0-2	때(時)-보다	때보다 '
31005-0-1	틀(機)-이/가	트리 '
31005-0-2	틀(機)-보다	틀보 ' 다
31006-0-1	털(毛)-이/가	터 ' 리
31006-0-2	털(毛)-보다	털보다 '
31007-0-1	글(文)-이/가	그리 '
31007-0-2	글(文)-보다	글보 ' 다
31008-0-1	걸(옷)-이/가	거리 '
31008-0-2	걸(옷)-보다	걸보 ' 다
31009-0-1	기(旗)-이/가	기 ' 가
31009-0-2	기(旗)-보다	기보다 '
31010-0-1	귀(耳)-이/가	귀가 ' (+ 상향이중모음 "위")
31010-0-2	귀(耳)-보다	귀보 ' 다(+ 상향이중모음 "위")
31010-0-2	귀(耳)-보다	기보 ' 다
31011-0-1	시(生時)-이/가	시 ' 가
31011-0-2	시(生時)-보다	시보다 '
31012-0-1	쉬(蠅卵)-이/가	시 ' 가
31012-0-2	쉬(蠅卵)-보다	쉬보다 ' (+ 상향이중모음 "위")
31013-0-1	쇠(鐵)-이/가	췌가 '
31013-0-2	쇠(鐵)-보다	췌보다 '
31014-0-1	외:국(外國)-이/가	웨:구기 '
31014-0-2	외:국(外國)-보다	웨:국 ' 뵈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 ' 구기
31015-0-2	왜국(倭國)-보다	왜 ' 국뵈다
31016	쉬:다(休)-더라	쉬:니 ' 이(+ 상향이중모음 "위")
31016	쉬:다(休)-더라	쉬:고 ' (+ 상향이중모음 "위")
31017	쇠:다(설을~)-더라	시:고 '
31017	쇠:다(설을~)-더라	쉬:니 ' 이
31018-0-1	배(布)-이/가	배가 '
31018-0-2	배(布)-보다	배보다 '
31019-0-1	배(船)-이/가	배가 '
31019-0-2	배(船)-보다	배보다 '

31020-0-1	배(腹)-이/가	배가 '
31020-0-2	배(腹)-보다	배보다 '
31021-0-1	(떡)메-이/가	메가 '
31021-0-2	(떡)메-보다	메보다 '
31022-0-1	매(鞭)-이/가	매가 '
31022-0-1	매(鞭)-이/가	매:가 '
31022-0-2	매(鞭)-보다	매:보 ' 다
31022-0-2	매(鞭)-보다	내보다 ' (+ 발음 실수, 'ㅁ' 안 들림)
31023-0-1	매:다(擔)-더라	매 ' 고
31023-0-2	매:다(擔)-어서	매 ' 니
31024-0-1	매:다(繫)-더라	매 ' 고
31024-0-2	매:다(繫)-어서	매 ' 니
31025-0-1	떼:다(分離)-더라	띠고 '
31025-0-2	떼:다(分離)-어서	띠니 ' 이
31026-0-1	때:다(炊)-더라	때 ' 애고
31026-0-2	때:다(炊)-어서	때 ' 애니
31027-0-1	베:다(切斷)-더라	비:고 '
31027-0-2	베:다(切斷)-어서	비니 ' 이
31028-0-1	배:다(孕胎)-더라	배 ' 고
31028-0-2	배:다(孕胎)-어서	배 ' 니
31029-0-1	세:다(算)-더라	시:고 '
31029-0-2	세:다(算)-어서	시:니 ' 이
31030-0-1	새:다(漏泄)-더라	새:고 ' 오
31030-0-2	새:다(漏泄)-어서	새:니 ' 이
31031-0-1	뒤(後)-이/가	뒤:가 ' (+ 상향이중모음 "위")
31031-0-2	뒤(後)-보다	뒤보다 '
31032-0-1	되(升)-이/가	뒤가 '
31032-0-2	되(升)-보다	뒤보 ' 다
31033-0-1	게:(蟹)-이/가	기:가 '
31033-0-2	게:(蟹)-보다	기보다 '
31034-0-1	개:(犬)-이/가	개:가 '
31034-0-2	개:(犬)-보다	개:보 ' 다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 ' 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여 ' 럽쁘다
31035-0-3	여럿(多)-을/를	여 ' 러설
31036-0-1	물결(波)-이/가	물 ' 껴리
31036-0-2	물결(波)-보다	물결보다 '
31036-0-3	물결(波)-을/를	물 ' 껴릴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이 ' 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이보다 '
31037-0-3	예:의(禮儀)-을/를	예:이 ' 린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훼 ' 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계:획쁘다 '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훼 ' 겠

31039-0-1	규칙(規則)-이/가	규 ' 치기
31039-0-2	규칙(規則)-보다	규 ' 칩빠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규 ' 치걸
31040-0-1	휴일(休日)-이/가	휴 ' 이리
31040-0-2	휴일(休日)-보다	휴일보다 '
31040-0-3	휴일(休日)-을/를	휴 ' 이럴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통이 '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보다 '
31041-0-3	교통(交通)-을/를	교통 ' 얼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 ' 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보다 '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효:자 ' 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 ' 이리
31043-0-2	웬일(何事)-보다	웬닐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웬:니 ' 럸
31044-0-1	궤:(좌)(櫃)-이/가	궤:짜 ' 아기
31044-0-2	궤:(좌)(櫃)-보다	궤:짜 ' 보다
31044-0-3	궤:(좌)(櫃)-을/를	궤:짜 ' 걸
31045-0-1	왜란(倭亂)-이/가	왜 ' 나니
31045-0-2	왜란(倭亂)-보다	왜 ' 난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왜 ' 나늘
31046-0-1	헛대(鷄架)-이/가	헛때 ' 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헛때 ' 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헛때 ' 애럴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이 '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보다 '
31047-0-3	원망(怨望)-을/를	원:망 ' 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권:투 ' 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권:투보다 '
31048-0-3	권:투(拳鬪)-을/를	권투럴 '
31049-0-1	의논(議論)-이/가	이:노 ' 니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이:논보다 '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이:노 ' 늘
31050-0-1	무늬(紋)-이/가	무 ' 네가
31050-0-2	무늬(紋)-보다	무 ' 네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무 ' 네럴
31051-0-1	왕(王)-이/가	왕 ' 이
31051-0-2	왕(王)-보다	왕보다 '
31051-0-3	왕(王)-을/를	왕 ' 얼
31052-0-1	과자(菓子)-이/가	과 ' 자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 ' 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과 ' 자럴

###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



31054-0-1	일:(事)-이/가	이:리 '
31054-0-2	일:(事)-보다	일:보다 '
31055-0-1	매(鞭)-이/가	매가 '
31055-0-2	매(鞭)-보다	매보다 '
31056-0-1	매:(鷺)-이/가	매:가 '
31056-0-2	매:(鷺)-보다	매보다 '
31057-0-1	밤(夜)-이/가	바미 '
31057-0-2	밤(夜)-보다	밤보다 '
31058-0-1	밤:(栗)-이/가	바:미 '
31058-0-2	밤:(栗)-보다	밤:보 ' 다
31059-0-1	눈(眼)-이/가	누니 '
31059-0-2	눈(眼)-보다	눈보다 '
31060-0-1	눈:(雪)-이/가	누:니 '
31060-0-2	눈:(雪)-보다	눈:보다 '
31061-0-1	말(馬)-이/가	마 ' 리
31061-0-2	말(馬)-보다	말보다 '
31062-0-1	말(斗)-이/가	마리 '
31062-0-2	말(斗)-보다	말:보다 '
31063-0-1	말:(言)-이/가	마:리 '
31063-0-2	말:(言)-보다	말:보다 '
31064-0-1	손(客)-이/가	소 ' 니
31064-0-2	손(客)-보다	손보다 '
31065-0-1	손(手)-이/가	소 ' 니
31065-0-2	손(手)-보다	손보다 '
31066-0-1	손:(孫)-이/가	소:니 '
31066-0-2	손:(孫)-보다	손:보다 '
31067-0-1	배(梨)-이/가	배 ' 가
31067-0-2	배(梨)-보다	배보다 '
31068-0-1	배:(倍)-이/가	배:가 '
31068-0-2	배:(倍)-보다	배:보다 '
31069-0-1	벌(罰)-이/가	버리 '
31069-0-2	벌(罰)-보다	벌보다 '
31070-0-1	벌:(蜂)-이/가	버:리 '
31070-0-2	벌:(蜂)-보다	벌보다 '
31071-0-1	솔(松)-이/가	소리 '
31071-0-2	솔(松)-보다	솔보다 '
31072-0-1	솔:(刷)-이/가	소:리 '
31072-0-2	솔:(刷)-보다	솔:보다 '
31073-0-1	줄(鉉)-이/가	주리 '
31073-0-2	줄(鉉)-보다	줄보다 '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리 '
31074-0-2	줄:(연장)-보다	줄:보다 '
31075-0-1	돌:(石)-이/가	도:리 '
31075-0-2	돌:(石)-보다	돌:보다 '
31076-0-1	담(牆)-이/가	다미 '
31076-0-2	담(牆)-보다	담보다 '
31077-0-1	담:(膽)-이/가	다 ' 미
31077-0-2	담:(膽)-보다	담보다 '
31078-0-1	들:(野)-이/가	드어리 '
31078-0-2	들:(野)-보다	덜보다 '

31079-0-1	달-(懸)-고	다드라 '
31079-0-1	달-(懸)-더라	다드라 '
31080-0-1	달-(甘)-고	달드라 '
31080-0-1	달-(甘)-더라	달드라 '
31081-0-1	달:-(熱)-더라	따 ' 리고
31081-0-1	달:-(熱)-더라	딸고 '
31081-0-1	달:-(熱)-고	따 ' 리고
31081-0-1	달:-(熱)-고	딸고 '
31082-0-1	갈-(換)-고	갈고 '
31082-0-1	갈-(換)-더라	갈고 '
31083-0-1	갈-(磨)-고	갈:고 '
31083-0-1	갈-(磨)-더라	갈:고 '
31084-0-1	갈:-(耕)-고	갈:고 '
31084-0-1	갈:-(耕)-더라	갈:고 '
31085-0-1	겉-(收)-고	거꼬 '
31085-0-1	겉-(收)-더라	거꼬 '
31086-0-1	겉:-(步)-고	거:꼬 '
31086-0-1	겉:-(步)-더라	거:꼬 '
31087-0-1	적-(書)-더라	저꼬 '
31087-0-1	적-(書)-고	저꼬 '
31088-0-1	적:-(小)-고	저:꼬 '
31088-0-1	적:-(小)-더라	저:꼬 '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 1)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막 ' 찌
32001-0-2	막-(防)[ㄱ]-고	막 ' 꼬
32001-0-3	막-(防)[ㄱ]-더라	막뜨 ' 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 ' 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 ' 감다
32002-0-1	흐르-(流)[ㄴ]-지	흐르 ' 지
32002-0-2	흐르-(流)[ㄴ]-고	흐르 ' 고
32002-0-3	흐르-(流)[ㄴ]-더라	흐르드 ' 라
32002-0-4	흐르-(流)[ㄴ]-으니까	흐르 ' 니까
32002-0-5	흐르-(流)[ㄴ]-아/어(왔/었다)	흘 ' 러따
32003-0-1	오-(來)[ㄷ]-지	오 ' 지
32003-0-2	오-(來)[ㄷ]-고	오 ' 고
32003-0-3	오-(來)[ㄷ]-더라	오더 ' 라
32003-0-4	오-(來)[ㄷ]-으니까	오 ' 니까
32003-0-5	오-(來)[ㄷ]-아/어(왔/었다)	와따 '
32004-0-1	듣-(聞)[ㄷ변]-지	드 ' 찌
32004-0-2	듣-(聞)[ㄷ변]-고	드 ' 꼬

32004-0-3	듣-(聞)[ㄷ 변]-더라	드뜨 '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드 '르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드 '려따
32005-0-1	많:-(多)[ㄴᄇ]-지	만:치 '
32005-0-2	많:-(多)[ㄴᄇ]-고	망:코 '
32005-0-3	많:-(多)[ㄴᄇ]-더라	만트 '라
32005-0-4	많:-(多)[ㄴᄇ]-으니까	마:느 '니까
32005-0-5	많:-(多)[ㄴᄇ]-아/어(왔/었다)	마:나 '따
32006-0-1	말-(任)[ㅌ]-지	말 '찌
32006-0-2	말-(任)[ㅌ]-고	마 '꼬
32006-0-3	말-(任)[ㅌ]-더라	마뜨 '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 '트니까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 '타따
32007-0-1	알:-(知)[ㄹ]-지	알:지 '
32007-0-2	알:-(知)[ㄹ]-고	알:고 '
32007-0-3	알:-(知)[ㄹ]-더라	알:드 '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아:니 '까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아 '르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아 '라따
32008-0-1	감:-(閉眼)[ㄱ]-지	감찌 '
32008-0-2	감:-(閉眼)[ㄱ]-고	감꼬 '
32008-0-3	감:-(閉眼)[ㄱ]-더라	감뜨 '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까므 '니까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까마 '따
32009-0-1	벗-(脫)[ㅅ]-지	버 '찌
32009-0-2	벗-(脫)[ㅅ]-고	버 '꼬
32009-0-3	벗-(脫)[ㅅ]-더라	버뜨 '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버 '스니까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버 '서따
32010-0-1	옴:-(可)[ㅇ]-지	올치 '
32010-0-2	옴:-(可)[ㅇ]-고	올코 '
32010-0-3	옴:-(可)[ㅇ]-더라	올트 '라
32010-0-4	옴:-(可)[ㅇ]-으니까	오르 '니까
32010-0-5	옴:-(可)[ㅇ]-아/어(왔/었다)	오라 '따
32011-0-1	입-(着衣)[ㅂ]-지	입 '찌
32011-0-2	입-(着衣)[ㅂ]-고	입 '꼬
32011-0-3	입-(着衣)[ㅂ]-더라	입뜨 '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이 '브니까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이 '버따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 '우지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 '우고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꾸 '우드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바꾸 '우니까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바까 '아따
32013-0-1	덮-(覆)[ㅍ]-지	덱 '찌
32013-0-2	덮-(覆)[ㅍ]-고	덱 '꼬
32013-0-3	덮-(覆)[ㅍ]-더라	덱뜨 '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 '프니까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 '퍼따
32014-0-1	묻:-(問)[ㅁ 변]-지	무:찌 '

32014-0-2	문:-(問)[ㄷ변]-고	무:꼬 '
32014-0-3	문:-(問)[ㄷ변]-더라	무:뜨 ' 라
32014-0-4	문:-(問)[ㄷ변]-으니까	무 ' 르니까
32014-0-5	문:-(問)[ㄷ변]-아/어(왔/었다)	무 ' 러따
32015-0-1	낫:-(癒)[ㅅ변]-지	나:찌 '
32015-0-2	낫:-(癒)[ㅅ변]-고	나:꼬 '
32015-0-3	낫:-(癒)[ㅅ변]-더라	나:뜨 ' 라
32015-0-4	낫:-(癒)[ㅅ변]-으니까	나 ' 으니까
32015-0-5	낫:-(癒)[ㅅ변]-아/어(왔/었다)	나 ' 하따
32016-0-1	닫-(閉)[ㄷ]-지	다 ' 찌
32016-0-2	닫-(閉)[ㄷ]-고	다 ' 꼬
32016-0-3	닫-(閉)[ㄷ]-더라	다뜨 ' 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 ' 드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 ' 달다
32017-0-1	쫓-(追)[ㅈ]-지	쫓 ' 찌
32017-0-2	쫓-(追)[ㅈ]-고	쫓 ' 꼬
32017-0-3	쫓-(追)[ㅈ]-더라	쫓뜨 ' 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 ' 츠니까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 ' 차따
32018-0-1	베:-(枕)[베]-지	베:지 '
32018-0-2	베:-(枕)[베]-고	베:고 '
32018-0-3	베:-(枕)[베]-더라	베:뜨 ' 라
32018-0-4	베:-(枕)[베]-으니까	베:니 ' 까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베 ' 어따
32019-0-1	깨:-(破)[깨]-지	깨 ' 지
32019-0-2	깨:-(破)[깨]-고	깨 ' 고
32019-0-3	깨:-(破)[깨]-더라	깨:드 ' 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깨:니 ' 까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깨 ' 애타
32020-0-1	펴-(伸)[펴]-지	피 ' 지
32020-0-2	펴-(伸)[펴]-고	피 ' 고
32020-0-3	펴-(伸)[펴]-더라	피드 ' 라
32020-0-4	펴-(伸)[펴]-으니까	피 ' 니까
32020-0-5	펴-(伸)[펴]-아/어(왔/었다)	피 ' 이따
32021-0-1	밝-(明)[?]-지	발 ' 찌
32021-0-2	밝-(明)[?]-고	발 ' 꼬
32021-0-3	밝-(明)[?]-더라	발뜨 ' 라
32021-0-4	밝-(明)[?]-으니까	발 ' 그니까
32021-0-5	밝-(明)[?]-아/어(왔/었다)	발 ' 감다
32022-0-1	쌌:-(烹)[?]-지	쌌암 ' 찌
32022-0-2	쌌:-(烹)[?]-고	쌌:꼬 '
32022-0-3	쌌:-(烹)[?]-더라	쌌뜨 ' 라
32022-0-4	쌌:-(烹)[?]-으니까	쌌 ' 르니까
32022-0-5	쌌:-(烹)[?]-아/어(왔/었다)	쌌 ' 만다
32023-0-1	음:-(吟)[ㅇ]-지	읍 ' 찌(+ 중성에서 'ㄹ'과 'ㅂ'을 함께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음.)
32023-0-2	음:-(吟)[ㅇ]-고	을 ' 꼬(+ 중성에서 'ㄹ'과 'ㅂ'을 함께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음.)
32023-0-3	음:-(吟)[ㅇ]-더라	을뜨 ' 라(+ 중성에서 'ㄹ'과 'ㅂ' 을 함께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음.)

32023-0-4	음-(吟)[ㄴ]-으니까	을 ' 프니까
32023-0-5	음-(吟)[ㄴ]-아/어(왔/었다)	을 ' 퍼따
32024-0-1	밟:-(踏)[?]-지	발:찌 '
32024-0-2	밟:-(踏)[?]-고	발:꼬 '
32024-0-3	밟:-(踏)[?]-더라	발뜨 ' 라
32024-0-4	밟:-(踏)[?]-으니까	발 ' 브니까
32024-0-5	밟:-(踏)[?]-아/어(왔/었다)	발 ' 받다
32025-0-1	하-(爲)[ㅏ 변]-지	하 ' 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 ' 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드 ' 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하 ' 니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해따 '
32026-0-1	맺-(結)[ㅈ]-지	맨 ' 찌
32026-0-2	맺-(結)[ㅈ]-고	맨 ' 꼬
32026-0-3	맺-(結)[ㅈ]-더라	매뜨 ' 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매 ' 즈니까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매 ' 자따
32027-0-1	없:-(無)[?]-지	업:찌 '
32027-0-2	없:-(無)[?]-고	업:꼬 '
32027-0-3	없:-(無)[?]-더라	업:뜨 ' 라
32027-0-4	없:-(無)[?]-으니까	업:슨 ' 니까
32027-0-5	없:-(無)[?]-아/어(왔/었다)	업서 ' 따
32028-0-1	앉-(坐)[ㅈ]-지	안 ' 찌
32028-0-2	앉-(坐)[ㅈ]-고	앙 ' 꼬
32028-0-3	앉-(坐)[ㅈ]-더라	안뜨 ' 라
32028-0-4	앉-(坐)[ㅈ]-으니까	안즈 ' 니까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안 ' 자따
32029-0-1	비비-(刮)[ㅣ]-지	비 ' 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비 ' 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 ' 비드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 ' 브니까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 ' 비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 '
32030-0-2	끄-(消)[ㅡ]-고	끄고 '
32030-0-3	끄-(消)[ㅡ]-더라	끄드 ' 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끄니 ' 까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꺼따 '
32031-0-1	꺾-(折)[ㄱ]-지	꺾 ' 찌
32031-0-2	꺾-(折)[ㄱ]-고	꺼 ' 꼬
32031-0-3	꺾-(折)[ㄱ]-더라	꺾뜨 ' 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꺼 ' 끄니까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꺼 ' 꺾따
32032-0-1	신:-(履)[ㄴ]-지	신:찌 '
32032-0-2	신:-(履)[ㄴ]-고	신:꼬 '
32032-0-3	신:-(履)[ㄴ]-더라	신:뜨 ' 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 ' 느니까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 ' 녀따
32033-0-1	보-(視)[ㅇ]-지	보 ' 지
32033-0-2	보-(視)[ㅇ]-고	보 ' 고
32033-0-3	보-(視)[ㅇ]-더라	보드 ' 라

32033-0-4	보-(視)[ㄱ]-으니까	보 ' 니까
32033-0-5	보-(視)[ㄱ]-아/어(왔/었다)	바따 '
32034-0-1	추-(舞)[ㅌ]-지	추지 '
32034-0-2	추-(舞)[ㅌ]-고	추고 '
32034-0-3	추-(舞)[ㅌ]-더라	추드 ' 라
32034-0-4	추-(舞)[ㅌ]-으니까	추니 ' 까
32034-0-5	추-(舞)[ㅌ]-아/어(왔/었다)	취따 '
32035-0-1	피우-(吸煙)[ㅌ]-지	피 ' 우지
32035-0-2	피우-(吸煙)[ㅌ]-고	피 ' 우고
32035-0-3	피우-(吸煙)[ㅌ]-더라	피 ' 우드라
32035-0-4	피우-(吸煙)[ㅌ]-으니까	피 ' 우니까
32035-0-5	피우-(吸煙)[ㅌ]-아/어(왔/었다)	피 ' 어따
32036-0-1	서-(立)[ㄴ]-지	서 ' 지
32036-0-2	서-(立)[ㄴ]-고	서 ' 고
32036-0-3	서-(立)[ㄴ]-더라	서드 ' 라
32036-0-4	서-(立)[ㄴ]-으니까	서 ' 니까
32036-0-5	서-(立)[ㄴ]-아/어(왔/었다)	서따 '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
32037-0-2	기-(匍腹)[ㅣ]-고	기고 '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드 ' 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니 ' 까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기어 ' 따
32038-0-1	이-(戴)[ㅣ]-지	이 ' 지
32038-0-2	이-(戴)[ㅣ]-고	이 ' 고
32038-0-3	이-(戴)[ㅣ]-더라	이드 ' 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 ' 니까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이어 ' 따
32039-0-1	아니-(否)[ㅣ]-지	아니 ' 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니 ' 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니드 ' 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니니 ' 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니 ' 어따
32040-0-1	되-(升)[ㅍ]-지	돼지 '
32040-0-2	되-(升)[ㅍ]-고	돼고 '
32040-0-3	되-(升)[ㅍ]-더라	돼드 ' 라
32040-0-4	되-(升)[ㅍ]-으니까	돼니 ' 까
32040-0-5	되-(升)[ㅍ]-아/어(왔/었다)	돼어 ' 따
32041-0-1	있-(有)[ㅅ]-지	이 ' 쩌
32041-0-2	있-(有)[ㅅ]-고	이 ' 꼬
32041-0-3	있-(有)[ㅅ]-더라	이뜨 ' 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이쓰 ' 니까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이 ' 썬따
32042-0-1	놓-(放)[ㅎ]-지	논 ' 쩌
32042-0-2	놓-(放)[ㅎ]-고	노 ' 코
32042-0-3	놓-(放)[ㅎ]-더라	노뜨 ' 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 ' 오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노 ' 아따
32043-0-1	훔-(擧)[ㅍ]-지	훔 ' 쩌
32043-0-2	훔-(擧)[ㅍ]-고	훔 ' 꼬
32043-0-3	훔-(擧)[ㅍ]-더라	훔뜨 ' 라

32043-0-4	훔-(擧)[ㅈ]-으니까	훔 ' 트니까
32043-0-5	훔-(擧)[ㅈ]-아/어(왔/었다)	훔 ' 터따
32044-0-1	곶:-(麗)[ㅂ변]-지	곶:찌 '
32044-0-2	곶:-(麗)[ㅂ변]-고	곶:꼬 '
32044-0-3	곶:-(麗)[ㅂ변]-더라	곶:뜨 ' 라
32044-0-4	곶:-(麗)[ㅂ변]-으니까	고우 ' 니까
32044-0-5	곶:-(麗)[ㅂ변]-아/어(왔/었다)	고와 ' 따
32045-0-1	쥐:-(握)[ㄱ]-지	쥐:지 ' (+ 상향이중모음 "위")
32045-0-2	쥐:-(握)[ㄱ]-고	쥐:꼬 ' (+ 상향이중모음 "위")
32045-0-3	쥐:-(握)[ㄱ]-더라	쥐:드 ' 라(+ 상향이중모음 "위")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쥐 ' 으니까(+ 상향이중모음 "위")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쥐:니 ' 까(+ 상향이중모음 "위")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쥐어 ' 따
32046-0-1	가-(去)[ㅈ]-지	가 ' 지
32046-0-2	가-(去)[ㅈ]-고	가 ' 고
32046-0-3	가-(去)[ㅈ]-더라	가드 ' 라
32046-0-4	가-(去)[ㅈ]-으니까	가 ' 니까
32046-0-5	가-(去)[ㅈ]-아/어(왔/었다)	가따 '

## 2)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머 ' 꼬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 ' 거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뜨꼬 '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 ' 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가꼬 '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타 ' 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얕 ' 꼬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 ' 파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호 ' 꼬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호 ' 터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 ' 고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 ' 라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고 '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 ' 러따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일:고 '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 ' 러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고 '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 ' 러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꼬 '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 ' 머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꼬 '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 ' 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꼬 '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 ' 따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눅 ' 꼬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 ' 워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깁:꼬 '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 ' 어따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밋 ' 꼬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 ' 어따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높 ' 꼬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 ' 파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꼬 '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 ' 어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꼬 '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 ' 어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우:꼬 '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 ' 서따
32066-0-1	"짓:-(呖)-지 -고 -더라"	지:꼬 '
32066-0-2	"짓:-(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 ' 서따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꽂 ' 꼬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 ' 바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 ' 코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 ' 알다
32069-0-1	"땅:-(?) -지 -고 -더라"	따:꼬 '
32069-0-2	"땅:-(?)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 ' 아따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끈 ' 코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 ' 너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괜찬 ' 코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괜차 ' 나따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일 ' 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 ' 거따
32073-0-1	"떨:-(澁)-지 -고 -더라"	떨:꼬 '
32073-0-2	"떨:-(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버 ' 따
32074-0-1	"움:-(遷)-지 -고 -더라"	움:꼬 '
32074-0-2	"움:-(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울 ' 마따
32075-0-1	"똥:-(貫)-지 -고 -더라"	똥:꼬 '
32075-0-2	"똥:-(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똥 ' 버따
32076-0-1	"끓:-(?) -지 -고 -더라"	끓:꼬 '
32076-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러 ' 따
32077-0-1	"닿:-(?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닿 ' 코
32077-0-2	"닿:-(?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 ' 라따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닿 ' 코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 ' 라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고 '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따 '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 ' 고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 ' 라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고 '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따 '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 ' 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 ' 란다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쁘 ' 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 ' 빠따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프 ' 고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 ' 파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쏘고 '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아 ' 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고 '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어 ' 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물 ' 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무 ' 러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따듬 ' 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드 ' 머따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견 ' 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견 ' 디어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마르 ' 고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 ' 라따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끼고 '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 ' 어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 ' 시고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 ' 셔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고 '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 ' 어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들개:고 '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들개 ' 어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디 ' 리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디 ' 러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서 ' 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따 '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고 '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 ' 어따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쇄고 '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쇄 ' 어따
32099-0-1	"쉬:-(?) -지 -고 -더라"	쉬:고 ' (+ 상향이중모음 "위")
32099-0-2	"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 ' 어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고 '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 ' 어따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뿐 ' 꼬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 ' 까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안:꼬 '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 ' 나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 ' 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 ' 더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고 '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 ' 러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고 '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 ' 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주 ' 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 ' 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거:꼬 '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 ' 러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 ' 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 ' 러따
32109-0-1	"줄:-(睡)-지 -고 -더라"	줄:고 '
32109-0-2	"줄:-(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 ' 라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고 '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 ' 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꼬 '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 ' 마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 ' 듬꼬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 ' 드머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굽:꼬 '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 ' 어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 ' 꼬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 ' 어따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이:꼬 '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 ' 어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비 ' 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 ' 서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까마코 '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마 ' 따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너 ' 코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 ' 어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꿈:꼬 '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꼴 ' 마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엣 ' 꼬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 ' 저따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창 ' 코(+ 상향이중모음 "위")
32121-0-2	"귀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 ' 나따(+ 상향이중모음 "위")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바르 ' 고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 ' 라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말 ' 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 ' 가따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곰:꼬 '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 ' 마따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굴:꼬 '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 ' 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열:꼬 '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열 ' 버따
32127-0-1	"쏟-(?)-지 -고 -더라"	쓸 ' 꼬
32127-0-2	"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 ' 러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 ' 코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 ' 러따
32129-0-1	"짧-(短)-지 -고 -더라"	할 ' 꼬
32129-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 ' 타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짤 ' 꼬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짤 ' 바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 ' 고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래 ' 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 ' 고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따 '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타 ' 고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모태 ' 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르 ' 고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몰라 ' 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프 ' 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 ' 파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고 '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따 '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고 '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 다"	꼬아 ' 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고 '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어 ' 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추 ' 고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추 ' 어따
32140-0-1	"데우-(?) -지 -고 -더라"	데 ' 우고
32140-0-2	"데우-(?)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 ' 어따
32141-0-1	"이:-(蓋 지붕을)-지 -고 -더라"	이 ' 이고
32141-0-2	"이:-(蓋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이 ' 어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 ' 고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겨 ' 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다 ' 리고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 ' 리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세:고 '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 ' 어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고 '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어 ' 따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써 ' 어고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 ' 러따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돼:고 '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돼 ' 어따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고 ' (+ 상향이중모음 "위")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 ' 어따
32149-0-1	"할퀴-(擻)-지 -고 -더라"	할 ' 키고
32149-0-2	"할퀴-(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 ' 켜따
32150-0-1	"눌:-(?) -지 -고 -더라"	눌:꼬 '
32150-0-2	"눌:-(?)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 ' 러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다 ' 꼬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 ' 라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매렵 ' 꼬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 다"	매르 ' 워따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꾸러 ' 꼬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 ' 워따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참 ' 꼬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 ' 와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깁 ' 꼬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 ' 퍼따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그:꼬 '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 ' 어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씨 ' 꼬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 ' 서따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찌 ' 꼬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 ' 어따
32159-0-1	"잡-(擻)-지 -고 -더라"	갈 ' 고
32159-0-2	"잡-(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 ' 가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꼬 '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 ' 머따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담:꼬 '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 ' 마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코 '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 ' 따
32163-0-1	"끓-(?) -지 -고 -더라"	골고 '
32163-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 ' 따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 ' 꼬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 ' 어따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 '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따 '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르 ' 고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 ' 라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쌌꼬 '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버 ' 따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프 ' 고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 ' 퍼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쁘 ' 고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 ' 빠따
32170-0-1	"쏘-(? 벌이)-지 -고 -더라"	쏘고 '
32170-0-2	"쏘-(?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 ' 아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 ' 고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 ' 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 ' 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 ' 아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 ' 우고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다 ' 아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뿌수 ' 고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사 ' 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 ' 우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나 ' 아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쏘 ' 기고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소 ' 기고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 ' 가따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 ' 가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끼:고 '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 ' 위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 ' 고(+ 상향이중모음 "위")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 ' 어따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고이 ' 이고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여 ' 따
32180-0-1	"여위-(?)-지 -고 -더라"	여 ' 위고(+ 상향이중모음 "위")
32180-0-2	"여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 ' 위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 ' 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 ' 위따
32182-0-1	"뀌:-(?)-지 -고 -더라"	뀌:고 ' (+ 상향이중모음 "위")
32182-0-2	"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 ' 어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곤 ' 치고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 ' 쳐따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싣:꼬 '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 ' 러따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어:꼬 '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 ' 따
32186-0-1	"빡-(粉碎)-지 -고 -더라"	빠 ' 꼬
32186-0-2	"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 ' 아따
32187-0-1	"파랳-(碧)-지 -고 -더라"	파라 ' 코
32187-0-2	"파랳-(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 ' 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다르 ' 고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 ' 라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고 '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따 '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 ' 고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따 '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 ' 꼬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 ' 위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 ' 우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뒤 ' 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 ' 코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 ' 러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 ' 기고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 ' 겨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시 ' 이고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시 ' 어따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 ' 빠지고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 ' 빠져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이르 ' 키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르 ' 켜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맹 ' 기고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맹 ' 겨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 ' 리고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 ' 려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 ' 치고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 ' 쳐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 ' 고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 '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왜 ' 애고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왜 ' 아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귀 ' 이고(+ 상향이중모음 " 위")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겨 ' 어따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써 ' 꼬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 ' 거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 ' 고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 ' 러따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 ' 고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 ' 러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 ' 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 ' 러따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고 '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 ' 러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시므 ' 고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므 ' 어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 ' 듬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 ' 드머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사납 ' 꼬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나 ' 워따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가벼 ' 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벼 ' 워따
32213-0-1	"젓:-(?) -지 -고 -더라"	저:꼬 '
32213-0-2	"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 ' 어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 ' 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 ' 버따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르 ' 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 ' 러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분지르 ' 고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분지 ' 러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 ' 우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 ' 워따
32218-0-1	"다리-(?) -지 -고 -더라"	다 ' 리고
32218-0-2	"다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 러따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후 ' 비고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후 ' 벼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아 ' 리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 ' 러따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리 ' 고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려 ' 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 ' 리고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 ' 러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 ' 리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 ' 러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시 ' 고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시 ' 어따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끼 ' 리고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 ' 리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누 ' 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 ' 베타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 ' 기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 ' 겨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고 '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 ' 이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씨 ' 키고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 ' 켜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고 '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따 '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 ' 고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 ' 애타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 ' 고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 ' 어따(+ 상향이중모음 "위")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꼬 '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 마따
32234-0-1	"가렵-(?)-지 -고 -더라"	가렵 ' 꼬
32234-0-2	"가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려 ' 워따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 ' 리고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 ' 려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 ' 꼬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 ' 워따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 ' 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 ' 바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고 '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자라 ' 아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자라 ' 아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르 ' 고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 ' 러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르 ' 고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루 ' 어따
32242-0-1	"쪼:-(啄)-지 -고 -더라"	쪼:꼬 '
32242-0-1	"쪼:-(啄)-지 -고 -더라"	쪼 ' 우꼬
32242-0-2	"쪼:-(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 ' 아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 ' 고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 ' 어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 ' 키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 ' 켜따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찌 ' 리고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 ' 려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뎌 ' 지고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뎌 ' 겨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 ' 이고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여 ' 따

32248-0-1	"만지-(?)-지 -고 -더라"	만 ' 지고
32248-0-2	"만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 ' 자따
32249-0-1	"쩍:-(?)-지 -고 -더라"	쩍:고 '
32249-0-2	"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쩍 ' 애폐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고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러 ' 따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돕:꼬 '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 ' 와따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씹 ' 꼬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 ' 버따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러 ' 꼬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 ' 워따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대 ' 애폐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 ' 어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르 ' 고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라 ' 따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주무르 ' 고
32256-0-2	"주무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무 ' 러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꾸 ' 우고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꾸 ' 어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시하 ' 고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시해 ' 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 ' 고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 ' 리고(+ 물건을 내리고.)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 ' 러따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라 ' 아따(+ 물건을 내렸다.)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르 ' 고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 ' 러따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들 ' 고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 ' 러따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늡 ' 꼬
32262-0-2	"늡-(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늡 ' 거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 ' 코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 ' 라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 ' 르고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 ' 러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 ' 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따 '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 ' 우고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 ' 워따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뿌 ' 러지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 ' 러져따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 ' 치고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 쳐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 ' 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 ' 러따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 ' 치고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 ' 쳐따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조 ' 우고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 ' 아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고 '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 ' 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꼬 '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 ' 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지 ' 이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져 ' 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 ' 치고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 ' 쳐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저 ' 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 ' 려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고 ' (+ 상향이중모음 "위")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 ' 어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줍:꼬 '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 ' 워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아꼬 '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아 ' 서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기 ' 울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 ' 우리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 ' 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 ' 워따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가 ' 꼬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 ' 와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고 '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
32284-0-1	"노랗-(黃)-지 -고 -더라"	노라코 '
32284-0-2	"노랗-(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라타 '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 ' 루고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 ' 러따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두르 ' 고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둘 ' 러따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투 ' 르고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톨 ' 러따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그르 ' 고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글 ' 러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뜨타 ' 고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뜨태따 '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꼬 '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워 ' 따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뚜겁 ' 꼬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구 ' 워따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하 ' 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해 ' 따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갑 ' 꼬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가 ' 워따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 ' 럽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 ' 러워따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알:미 ' 꼬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미 ' 워따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스타 ' 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스태따 '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 ' 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로 ' 워따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 ' 꼬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러 ' 워따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다랍 ' 꼬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다로 ' 워따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왜로 ' 꼬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왜로 ' 워따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 ' 십꼬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 ' 시워따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판판하 ' 고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판판 ' 해따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 ' 꼬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 ' 져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꼬 '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 ' 마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남 ' 기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남 ' 겨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너머뜨 ' 리고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뜨 ' 려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그러뜨 ' 리고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그러뜨 ' 려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견주 ' 우고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견좌 ' 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왜 ' 우고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왜 ' 워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르 ' 고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지 ' 러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리 ' 키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리 ' 켜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르 ' 치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리 ' 쳐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겨누 ' 우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누 ' 어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겨루 ' 우고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루 ' 어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래 ' 고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래 ' 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뽐보 ' 고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뽐 ' 바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지 ' 리고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 ' 려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 ' 리고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 ' 러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우 ' 기고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 ' 겨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얼거 ' 리고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 ' 러따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지꺼 ' 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 ' 러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다 ' 니고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 녀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넌쭈 ' 우고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넌쭈 ' 어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고 '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따 '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 ' 고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 ' 어따
32326-0-1	"솟-(湧)-지 -고 -더라"	소 ' 꼬
32326-0-2	"솟-(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 ' 사따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코 '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 ' 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가 ' 코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가타 '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끌:꼬 '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 ' 러따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넌 ' 꼬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넌 ' 버따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하야코 '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야타 '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 ' 기
32332-0-2	국(羹)-을/를	구 ' 걸
32332-0-3	국(羹)-에(서)	구 ' 게
32332-0-4	국(羹)-으로	구 ' 그로
32332-0-5	국(羹)-도	국 ' 또
32333-0-1	논(沓)-이/가	노니 '
32333-0-2	논(沓)-을/를	노닐 '
32333-0-3	논(沓)-에(서)	노 ' 네
32333-0-4	논(沓)-으로	노느 ' 로
32333-0-5	논(沓)-도	논도 '
32334-0-1	쌀(米)-이/가	싸리 '
32334-0-2	쌀(米)-을/를	싸릴 '
32334-0-3	쌀(米)-에(서)	싸 ' 레
32334-0-4	쌀(米)-으로	쌀 ' 로

32334-0-5 쌀(米)-도  
 32335-0-1 봄(春)-이/가  
 32335-0-2 봄(春)-을/를  
 32335-0-3 봄(春)-에(서)  
 32335-0-4 봄(春)-으로  
 32335-0-5 봄(春)-도  
 32336-0-1 집(家)-이/가  
 32336-0-2 집(家)-을/를  
 32336-0-3 집(家)-에(서)  
 32336-0-4 집(家)-으로  
 32336-0-5 집(家)-도  
 32337-0-1 옷(衣)-이/가  
 32337-0-2 옷(衣)-을/를  
 32337-0-3 옷(衣)-에(서)  
 32337-0-4 옷(衣)-으로  
 32337-0-5 옷(衣)-도  
 32338-0-1 방(房)-이/가  
 32338-0-2 방(房)-을/를  
 32338-0-3 방(房)-에(서)  
 32338-0-4 방(房)-으로  
 32338-0-5 방(房)-도  
 32339-0-1 낮(晝)-이/가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32339-0-4 낮(晝)-으로  
 32339-0-5 낮(晝)-도  
 32340-0-1 낮(顔)-이/가  
 32340-0-2 낮(顔)-을/를  
 32340-0-3 낮(顔)-에(서)  
 32340-0-4 낮(顔)-으로  
 32340-0-5 낮(顔)-도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5 부엌(廚)-도  
 32342-0-1 밭(田)-이/가  
 32342-0-2 밭(田)-을/를  
 32342-0-3 밭(田)-에(서)  
 32342-0-4 밭(田)-으로  
 32342-0-5 밭(田)-도  
 32343-0-1 앞(前)-이/가  
 32343-0-2 앞(前)-을/를  
 32343-0-3 앞(前)-에(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5 앞(前)-도  
 32344-0-1 녀(魂)-이/가  
 32344-0-2 녀(魂)-을/를  
 32344-0-3 녀(魂)-에(서)  
 32344-0-4 녀(魂)-으로

쌀 ' 또  
 보미 '  
 보멸 '  
 보 ' 메  
 보뜨 ' 로  
 봄도 '  
 지 ' 비  
 지 ' 벌  
 지 ' 베  
 지 ' 브로  
 집 ' 또  
 오시 '  
 오설 '  
 오 ' 세  
 오스 ' 로  
 오토 '  
 방 ' 이  
 방 ' 을  
 방 ' 에  
 방 ' 으로  
 방 ' 도  
 나지 '  
 나절 '  
 나 ' 제  
 나즈 ' 로  
 나또 '  
 나 ' 치  
 나 ' 철  
 나 ' 체  
 나 ' 츠로  
 나 ' 또  
 브어 ' 기  
 브어 ' 걸  
 브어 ' 게  
 브어 ' 그로  
 브억 ' 또  
 바 ' 치  
 바 ' 털  
 바 ' 테  
 바 ' 트로  
 바 ' 또  
 아 ' 피  
 아 ' 플  
 아 ' 페  
 아 ' 프로  
 압 ' 또  
 녀 ' 씨  
 녀 ' 썰  
 녀 ' 쎄  
 녀 ' 스로

32344-0-5 녀(魂)-도  
 32345-0-1 흙(土)-이/가  
 32345-0-2 흙(土)-을/를  
 32345-0-3 흙(土)-에(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5 흙(土)-도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7-0-1 돌(遇歲)-이/가  
 32347-0-2 돌(遇歲)-을/를  
 32347-0-3 돌(遇歲)-에(서)  
 32347-0-4 돌(遇歲)-으로  
 32347-0-5 돌(遇歲)-도  
 32348-0-1 값(價)-이/가  
 32348-0-2 값(價)-을/를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9-0-1 속:(內)-이/가  
 32349-0-2 속:(內)-을/를  
 32349-0-3 속:(內)-에(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5 속:(內)-도  
 32350-0-1 돈:(錢)-이/가  
 32350-0-2 돈:(錢)-을/를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5 돈:(錢)-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2 발(足)-을/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5 발(足)-도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5 입(口)-도  
 32354-0-1 낫(鎌)-이/가  
 32354-0-2 낫(鎌)-을/를  
 32354-0-3 낫(鎌)-에(서)  
 32354-0-4 낫(鎌)-으로

녀 ' 또  
 흙 ' 기  
 흙 ' 글  
 흙 ' 게  
 흙 ' 그로  
 흙 ' 또  
 여 ' 덜비  
 여 ' 덜블  
 여 ' 덜베  
 여 ' 덜브로  
 여 ' 덜또  
 도리 '  
 도렬 '  
 도레 '  
 도르 ' 로  
 돌또 '  
 값씨 '  
 값쌀 '  
 값 ' 켜  
 값쓰 ' 로  
 값또 '  
 소:기 '  
 소:글 '  
 소:게 '  
 소:그 ' 로  
 속또 '  
 도:니 '  
 도:널 '  
 도:네 '  
 도:느 ' 로  
 돈도 '  
 바리 '  
 바렬 '  
 바 ' 레  
 발로 '  
 발또 '  
 지미 '  
 지물 '  
 지 ' 메  
 지므 ' 로  
 짐도 '  
 이비 '  
 이별 '  
 이 ' 베  
 이브 ' 로  
 입또 '  
 나시 '  
 나설 '  
 나 ' 세  
 나스 ' 로

32354-0-5	낫(鎌)-도	나또 '
32355-0-1	강(江)-이/가	강:이 '
32355-0-2	강(江)-을/를	강:을 '
32355-0-3	강(江)-에(서)	강:에 '
32355-0-4	강(江)-으로	강:으 '로
32355-0-5	강(江)-도	강도 '
32356-0-1	젓(乳)-이/가	저지 '
32356-0-2	젓(乳)-을/를	저절 '
32356-0-3	젓(乳)-에(서)	저 ' 제
32356-0-4	젓(乳)-으로	저즈 '로
32356-0-5	젓(乳)-도	저또 '
32357-0-1	꽃(花)-이/가	꼬 ' 치
32357-0-2	꽃(花)-을/를	꼬 ' 철
32357-0-3	꽃(花)-에(서)	꼬 ' 체
32357-0-4	꽃(花)-으로	꼬 ' 츠로
32357-0-5	꽃(花)-도	꼬 ' 또
32358-0-1	팥(赤豆)-이/가	파치 '
32358-0-2	팥(赤豆)-을/를	파철 '
32358-0-3	팥(赤豆)-에(서)	파 ' 체
32358-0-4	팥(赤豆)-으로	파츠 '로
32358-0-5	팥(赤豆)-도	파또 '
32359-0-1	옆(側)-이/가	여 ' 피
32359-0-2	옆(側)-을/를	여 ' 펼
32359-0-3	옆(側)-에(서)	여 ' 폐
32359-0-4	옆(側)-으로	여 ' 프로
32359-0-5	옆(側)-도	엽 ' 또
32360-0-1	샅(賃金)-이/가	사 ' 기
32360-0-2	샅(賃金)-을/를	사 ' 걸
32360-0-3	샅(賃金)-에(서)	사 ' 게
32360-0-4	샅(賃金)-으로	사 ' 그로
32360-0-5	샅(賃金)-도	삭또 '
32361-0-1	닭(鷄)-이/가	달 ' 기
32361-0-2	닭(鷄)-을/를	달 ' 걸
32361-0-3	닭(鷄)-에(서)	달 ' 게
32361-0-4	닭(鷄)-으로	달 ' 그로
32361-0-5	닭(鷄)-도	달 ' 또
32362-0-1	밖(外)-이/가	배 ' 끼
32362-0-2	밖(外)-을/를	배 ' 걸
32362-0-3	밖(外)-에(서)	배 ' 께
32362-0-4	밖(外)-으로	배 ' 꼬로
32362-0-5	밖(外)-도	백 ' 또

## 제 4 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내라 '
40101-0-1	내-가	내가 '
40101-0-2	내	내 '
40101-0-3	나-를	나를 '
40101-0-4	나-에게	나한 ' 테
40101-0-5	나-와	나 ' 와
40101-0-6	나-는	나 ' 는
40101-0-7	나-도	나 ' 도
40102	저/제-가	저 ' 가요
40102-0-1	저-가	저 ' 가
40102-0-2	저-의	저 ' 으
40102-0-3	저-을/를	저 ' 려
40102-0-4	저-에게	저 ' 에께
40102-0-5	저-와/과	저 ' 와
40102-0-6	저-는	저 ' 는
40102-0-6	저-는	저 ' 닌
40102-0-7	저-도	저 ' 도
40103	우리	우리
40104	저희	저희
40105	너	니가 '
40105-0-1	-가	니:가 '
40105-0-2	-의	니 ' 으
40105-0-3	-을/를	니 ' 려
40105-0-4	-에게	니 ' 에께
40105-0-5	-와/과	니 ' 와
40105-0-6	-는	니 ' 는
40105-0-7	-도	니 ' 도
40106	자네	자네 ' 가
40107	당신	당신 '
40108	너희	너거 '
40109	개	가 ' 아가
40109-1	애	야:가 '
40109-2	재	자:가 '
40110	자기	지 '
40111	당신	*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 ' 로
40112-0-1	누-가	누가 '
40112-0-2	누구-의	누구 '
40112-0-3	누구-를	누구 ' 를
40112-0-3	누구-를	누구 ' 럽
40112-0-4	누구-에게	누구 ' 한때
40112-0-5	누구-와	누구하 ' 꼬
40112-0-5	누구-와	누구 ' 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어 ' 이껴(+ 존칭)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어 ' 로
40113-0-1	무엇-이	머어 ' 가
40113-0-2	무슨	무 ' 슨
40113-0-3	무엇-을	머어 ' 를
40113-0-4	무엇-과	머어 ' 타고

#### 4.1.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 ' 딜
40114	어디	어 ' 텔
40115	언제	언제 '
40116	어느	어 ' 는
40116	어느	어 ' 능
40117	왜	웨
40118	얼마나	얼마나 '
40119	어떻게	어트 ' 케(+ 다)
40119	어떻게	우째 ' (+ 소)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거 '
40120	이것	이거 ' 설
40121	그것	그거 ' 년
40122	저것	저거 '
40123	여기	요 ' 기를
40124	거기	거 ' 기는
40125	저기	저 ' 기는
40126	이리	이리 '
40127	그리	그 ' 리로
40128	저리	저리 ' 로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 '
40202	-이/가	코가 '
40203	-을/를	귀를 '
40204	-을/를	무릎 '
40205	-에게/게	사립한 ' 떼
40205	-에게/게	사 ' 러플
40206	-보고/더러	누구한 ' 떼
40206	-보고/더러	누한 ' 떼
40207	-보고/더러	누구 ' 보고
40207	-보고/더러	누구한 ' 테
40208	-에	지 ' 베
40209	-에	다 ' 으메
40209	-에	나:중 ' 에
40210	-에서	지 ' 베서
40211	-에서	지 ' 베서
40211	-에서	하꼬 ' 으서
40212	-에서	여 ' 기서
40213	-으로	참살 ' 로
40214	-으로	지프 ' 로
40215	-으로	새끼 ' 로
40216	-으로	어 ' 디로
40217	-와/과	수박 ' 짜 차메 ' 를
40218	-와/과	나 ' 와
40219	-보다	내보다 ' 아
40220	-처럼	돼 ' 지거치
40221	-만큼	키 ' 만침
40222	-만큼	머글 만칭 '
40223	-아/야	봉나 ' 마
40224	-아/야	봉나 ' 미
40225	-아/야	영 ' 수야
40226	-아/야	누 ' 님
40226-1	-예	누 ' 님노
40227	-아/야	할배 '
40227-1	-요	할배 ' 요
40228	-이랑	술 ' 과 고길
40228	-이랑	술하 ' 코 고기하꾸
40229	-커녕	마 너 ' 는카이도

###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련 ' 머거도 담배느
40231	-만	딸만 '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41 -가지고

키도 ' 크고 얼굴또  
 날마 ' 더  
 오 ' 늘부평  
 내 ' 얼마나  
 물조 ' 처  
 비가 ' 올라 하는데  
 마리 ' 야  
 소릴랑 '  
 부자 ' 라도  
 자네배 ' 끼  
 퍼 여 가주  
 퍼 여 가지고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오 ' 라  
 아 ' 란니더  
 행 ' 니껴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안 ' 자라  
 앙 ' 께  
 안즈 ' 이소  
 안지 ' 이소  
 안즈 ' 이소  
 안지 ' 이소

### 4.3.2. 청유법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오  
 40310 -세요

가 ' 자  
 가 ' 세  
 가시 ' 더  
 가시 ' 더  
 가시 ' 더

### 4.3.3. 의문법

40311	-니	오나 '
40312	-나	오능 ' 가
40313	-오	오니 ' 께
40313	-오	옵니 ' 까
40314	-습니까	오니 ' 께
40315	-나요	오니 ' 께
40316	-니	가노
40317	-나	가능고 '
40318	-시오	가시능고 '
40319	-십니까	가시니껴 '
40320	-세요	가시니껴 '

### 4.3.4. 서술법

40321	-는다	명은 ' 다
40322	-네	명 ' 네
40323	-오	머 ' 꼬이 인니더
40323	-오	머 ' 꼬 이썸니다
40324	-습니다	머 ' 꼬 인니더
40324	-습니다	머 ' 꼬 이썸니다
40325	-네요	머 ' 꼬 인니더
40326	-다	작따 '
40327	-네	자그 ' 네
40328	-소	장네 ' 요
40328	-소	자그 ' 네요
40329	-으십니다	자그 ' 니더
40330	-으세요	자그 ' 니더

### 4.3.5. 반말

40331	-아	아풍 ' 가
40332	-지	가 ' 지(+ "가다"에 "-지"가 결합한 형태임.)

### 4.3.6. -이다

40333	-이다	생일 ' 라리다
40334	-이니	생이 ' 리라
40335	-이네	생이 ' 린세
40336	-인가	생이 ' 링가

40337	-이오	생이 ' 립니다
40337	-이오	생이 ' 리니더
40338	-이오	생이 ' 리니껴
40338	-이오	생이 ' 령교
40339	-입니다.	생시 ' 니닐더
40340	-입니까	생시 ' 니니껴
40341	-이시지요	생시 ' 니니더
40342	-이시지요	생시 ' 니니껴
40343	-이냐?	머 ' 어로
40344	-인가?	머 ' 영고
40345	-이오?	머 ' 상기요
40346	-입니까?	머 ' 시이껴
40347	-인가요?	머 ' 시이껴
40348	-이야?	머 ' 어싱고
40349	-이어요?	머 ' 시이껴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마느 ' 니더
40351	-습디다	만습 ' 떠다
40352	-는구나/구나	멍능구 ' 나
40353	-는구먼/구먼	멍 ' 네
40353	-는구먼/구먼	멍능구 ' 나
40354	-일세	오램마 ' 이세
40355	-으마	가 ' 품세
40356	-음세	가 ' 품세
40357	-올라	다 ' 칠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머 ' 꼬
40402	-으면서	보 ' 프상
40403	-어/-어서	구 ' 저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뜨타 ' 이
40405	-관데	이린 ' 데
40405	-관데	일로
40406	-다가	오다 ' 가
40407	-거든	만 ' 내그더
40408	-더라도	먹뜨 ' 라도
40409	-으려고	머을라꼬
40410	-도록	후두록 '
40411	-을수록	이쓸쭈 ' 록
40412	-듯이	물 쓰 ' 든
40413	-지	보 ' 지

## 4.5. 주체존대

40501	-셔	오이 ' 소
40502	-셨소	끈내 ' 앤니껴

## 4.6. 시제

40601	웃는다	운는 ' 다
40602	기어간다	기어다닌 ' 다
40603	크다	크다 '
40604	생일이다	생이 ' 리다
40605	오고 있다	오 ' 고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잡쭈 ' 선니껴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 ' 건능가
40607	왔었다	왁서 ' 따
40607	왔었다	와띠 ' 래따
40608	먹더라	먹뜨 ' 라
40609	먹더냐	먹똥 ' 가
40609	먹더냐	먹뜨 ' 나
40609	먹더냐	먹띠 ' 께
40610	만나는 친구	만 ' 내는
40611	만난 친구	만 ' 난
40612	만났던 친구	만 ' 내편
40613	만날 친구	만 ' 날
40614	큰 아이	큰
40615	크던 아이	크던 '
40616	켰던 아이	커편 '
40617	마시지 않겠다	암 머께 ' 따
40618	비가 오겠다	오게 ' 따
40618	비가 오겠다	오꺼 ' 따(+ 올 것 같다)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뜨 ' 언네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먹찌 아 ' 낸네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조치 안 ' 내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안 ' 존네(+ 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끄찌 안 ' 네(+ 소)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앙 깨끄 ' 따(+ 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장가 앙 ' 간네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암 만 ' 낸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찌 ' 도 앙코

40706-1	먹도 앓고	먹 ' 또 앓코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몸 명 ' 는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안 마 ' 증가
40708	맞잖소?/안 맞소?	마 ' 자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 ' 리따
40802	늘리다	늘 ' 린다
40803	말리다1	말리 ' 인다
40804	말리다2	말 ' 린다
40805	얼리다	얼군은 ' 다
40805	얼리다	얼구 ' 운다
40806	녹이다	노 ' 긴다
40807	신기다	싱 ' 킨다
40808	보이다	보인 ' 다
40809	알리다	알리 ' 인다
40810	입히다	이 ' 핀다
40811	앉히다	안치 ' 인다
40812	벗기다	베 ' 낀다
40813	웃기다	우 ' 낀다
40814	쓱히다	써 ' 킨다
40815	숨기다	숨 ' 긴다
40816	굴기다	궁 ' 긴다
40817	깨우다	깨 ' 운다
40818	돌우다	도꾸 ' 다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자퍼 ' 어따
40820	깎이다	까께 ' 따
40821	끼이다	끼여 ' 어따
40822	떼이다	떼에 ' 따
40823	채이다	차여 ' 따
40824	닫히다	다껴 ' 따
40825	들리다	들린 ' 다
40826	엮히다	어피 ' 인다
40827	바뀌다	바껴 ' 어따
40828	씹히다	씨핀 ' 다
40829	엮히다	언쳐 ' 어따
40830	찍히다	찌켜 ' 따
40831	눌리다	눌려 ' 어따
40832	실리다	실리 ' 이다

40833      끊기다  
40834      끊히다

끈켜 ' 어따  
끝키 ' 따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싶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시품 '  
십뜨 ' 니  
보시오  
버런네  
대 ' 앤다  
올꺼따(+ 올 것 같다.)  
올랑 ' 가 보다  
자나 ' 보다  
추운 ' 가 보다

##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18      겨우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6      공연히  
41027      그냥

실킨 '  
마~이 '  
너무 '  
쪼끔 ' 맘  
자 ' 주  
빨 ' 리  
얼름 '  
기여코 '  
가끔 '  
먼저 '  
나:중 ' 에  
가뜩 '  
몽땅 '  
모조 ' 리  
혼 ' 차  
항상 '  
똑또 ' 키  
겨 ' 우  
늘  
저절 ' 로  
자꾸 '  
설마 '  
하마트 ' 먼  
함 ' 께  
꺼뜨타 ' 먼  
공여니 '  
기 ' 양

41028	매우	매 ' 우
41029	곧장	고짱 '
41030	벌써	벌서 '
41031	가장	가 ' 장
41032	가만히	가마니 '
41033	미리	미 ' 리
41034	이따금	드문드문 '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여보 ' 게
41101	여보	여보 '
41101	여보	여보 ' 시오
41102	여보세요	여보 ' 시오
41102	여보세요	여보 ' 시오
41103	들어가세요	관습니 ' 다(+ 신)
41103	들어가세요	끄 ' 느니더(+ 구)
41104	수고하세요	수 ' 고하시게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하 ' 게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오 ' 램마니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 는 인사말	아치 ' 멀 자세 ' 신니껴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 면서 하는 말	퍼난하셔 ' 신니껴
41108	여기 있습니다	돔 바 ' 드시오
41108	여기 있습니다	도 ' 니 여 ' 인니 ' 더
41109	예	예: 만니 ' 더
41110	아니	아니시 ' 더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치 ' 도 안 ' 타
41112	내버려 뒀	내 도라 '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개나 ' 소 ' 나

###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미 ' 빠진 또게 물 부 ' 끼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 ' 늘 도도기 소 도둑 ' 뎌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뎌 ' 꼴뚜 ' 게 영 ' 기 나젠나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위원장	이기갑(목포대학교)
◆ 위 원	강영봉(제주대학교)
◆ 위 원	곽충구(서강대학교)
◆ 위 원	김무식(경성대학교)
◆ 위 원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위 원	김정대(경남대학교)
◆ 위 원	박경래(세명대학교)
◆ 위 원	소강춘(전주대학교)
◆ 위 원	최명옥(서울대학교)
◆ 위 원	한영목(충남대학교)

